

연구보고 08-R04

**청소년의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이용실태와 주체적 참여방안 연구**
-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연구진 : 조혜영(역량개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유진이(평택대학교 교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청소년시설 중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청소년들과 시설을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질적 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공간으로서의 위상 및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시설의 운영 목적과 정책 수요자인 청소년들의 요구가 제대로 부합되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청소년시설의 프로그램이나 운영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나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며, 동시에 청소년활동시설이 향후 지역 청소년 활동 터전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내용

-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과 시설을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과 시설 이용과정에 대한 참여관찰, 청소년시설 대상 현황조사, 향후 방향성 모색을 위한 전문가 자문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청소년시설로서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및 참여 현황, 운영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향후 청소년들이 원하는 지역사회 공간으로서의 청소년시설 방향성 및 참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3. 연구결과

-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들은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먼저, 자신의 관심분야나 진로에 대한 산지식을 얻고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을 들 수 있다. 관심 분야의 동아리활동,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및 경험을 쌓는 경우도 있었으며, 아동 및 청소년들과 상호작용하는 지도사 및 복지사들을 접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미래도 이와 관련된 직종으로 향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직접적인 진로에 대한 지식은 아니지만 문화의집 운영위원회 및 동아리활동을 통해 향후 진로를 위해 필요한 설득 기술을 익히는 청소년도 있었다. 또한 청소년문화의집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실이나 안식처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만나는 친구들이나 선후배, 지도사들과의 사회관계를 통해 대인관계 방식을 배우고, 사회 집단과 조직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사회적 측면과 함께 새로운 활동이나 프로그램 참가 등을 통해 기존에 체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지식이나 경험 등을 함으로써 자신의 인생 행로의 전환점을 마련하거나 목표를 새롭게 다지는 경우도 있었다.
- 청소년문화의집 참여과정을 통해 청소년들 스스로 인식하는 변화는 먼저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에 대해 배려심 증가,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 사회적 질서, 원활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된다. 특히 상호작용을 위해서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발표력과 표현력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성격과 태도가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변하였다고 인식하고 있다.

- 청소년들이 문화의집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점들은 시설의 장비나 공간 부족, 혹은 학교 교사들의 인식 부족, 활동진행 상에 부딪히는 의사소통 문제, 부모님 등 주변의 이해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 향후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들이 제안하고 있는 것들은 청소년 요구 수준에 맞는 시설 보강, 공간 확장 및 양적 확충, 변화하는 청소년문화에 맞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업데이트, 청소년생활 시간 및 생활환경에 맞는 공간 개방, 홍보강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문화의집 홍보를 위해서는 학교교사들의 협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서의 축제 등 이벤트 개최, 방송프로그램 활용, 인터넷 검색 엔진 활용 등을 제안하고 있다.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자들 및 지도자들은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생산의 장(場)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문화의집 활동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여 뛰어난 성과를 보일 때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문화의집의 의미를 찾게 되며 청소년들의 다양한 역량을 살려줄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문화의집 참여는 학교 부적응 청소년이나 가정이나 사회의 다른 영역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적응이 어렵거나 비행을 일으킨 청소년들에게도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문화의집 활동에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와 미래세대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에게 체험을 하게 한다던지, 청소년들의 성장과정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는 가이드를 주는 것에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청소년문화의집에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은 먼저 이들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함이 강조된다. 이들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및 시설 장비의 도입, 공간 배치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 청소년들의 주인의식 및 동기부여,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적절한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들어가고 싶도록 하는 시설 외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된다. 또한 청소년들이 청소년시설을 찾고 그들의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이 지적된다.

- 결국 향후 지역사회 청소년시설로서 청소년문화의집의 방향성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에서 보다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변화하는 청소년 문화와 관심사를 반영하는 시설로서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본적인 시설의 기능을 반영할 뿐 아니라 나아가 청소년들의 진로 및 관심 분야의 지식 습득, 스스로 다양한 활동을 기획함으로써 자율적 행위능력의 향상, 소규모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및 참여 증대를 통한 사회적 상호능력 배양, 다양한 프로그램에의 참여 및 경험기회 증가 등이 청소년문화의집 활동 및 사업 운영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원활하게 가동하기 위해 지역사회 및 학교와의 연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 생산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며, 원활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정책제언

1) 단기 정책

- 청소년운영위원회 내실화: 현재 대부분의 시설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문화의집 운영이나 프로그램 기획 등에 전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에 따라 문화의집 사업이나 프로그램 기획 등에 청소년운영위원 및 운영위원 출신들의 참여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학교의 특활, CA, 토요일업일 연계 뿐 아니라 학교의 교과와 연계한 문화의집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문화의집 활동 및 사업 진행과정에서 지역의 물적, 인적, 사회적 자원을 동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체험의 폭이 넓어질 수 있으며 다양한 역량개발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 및 연수 기회 보장: 안정된 처우와 체계적인 보수가 없는 상황에서 청소년시설의 지도사들은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을 지도하기 어려우며, 결국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체계화된 보수 지침 마련 및 지도사의 재교육 등 연수 기회 마련이 시급하다.
- 청소년문화의집 관련 법체계 정비: 청소년시설의 의무적인 설치를 위해서는 관련되는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우선 청소년시설 중에서 청소년수련시설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체계적인 청소년시설의 입지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규정인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는 청소년시설에 관한 세부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청소년시설을 어떠한 규모로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 등의 청소년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관련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
-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체계 마련: 청소년문화의집은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여 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청소년 수련시설도 복지시설이나 교육시설의 범주에 포함시켜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본래의 역할과 기능 수행은 물론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하며, 체계적인 관리 인증 시스템을 만들며, 이를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요구된다.

2) 중장기 정책

-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확대: 현 청소년활동진흥법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각 읍·면·동마다 1개소 이상 건립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198개의 시설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음을 반영한다. 청소년들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더욱 많은 청소년문화의집이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 시·군·구 내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수련관의 연계 체계 확립: 읍·면·동에 1개씩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하는 청소년시설의 유형을 한 가지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화 청소년시설의 설치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적어도 1개의 시·군·구에 10개 내외의 청소년문화의집이 네트워크 되어야 할 것이며, 청소년문화의집은 나름대로의 일반적인 기능과 특성화된 기능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의집 간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역량 개발의 장으로 역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목 차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 내용	5
3. 연구방법	7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청소년 성장과 공간	13
2. 청소년 성장과 여가 및 활동	16
3. 청소년시설 현황과 방향성	19
4. 지역사회 청소년시설로서 청소년문화의집	31
III. 청소년문화의집 이용현황 및 운영실태	
1. 청소년문화의집 현황 조사	49
1) 조사개요	49
2) 조사결과	50
3) 요약 및 소결	66
2.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실태 조사	71
1) 조사개요	71
2) 조사결과	81
3) 요약 및 소결	131
3.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실태 조사	133
1) 조사개요	133
2) 조사결과	136
3) 요약 및 소결	211
IV. 청소년문화의집 방향성 및 주체적 청소년참여 방안 모색	
1. 청소년문화의집 방향성 모색	221
2. 주체적 청소년참여 활성화 방안	224

V.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 론	243
2. 정책제언	246
참 고 문 헌	255
부 록	259
1. 연구대상 청소년문화의집 개관	261
2. 청소년문화의집 조사지	271
3. 조사대상 청소년문화의집의 특성화 사업 및 프로그램	280

표 목차

<표 I-1> 심층면담 계획	8
<표 II-1> 청소년 여가 및 활동 요구	19
<표 II-2> 청소년활동시설 구분	21
<표 II-3> 청소년 수련시설 종류별 현황	21
<표 II-4> 청소년 수련시설 지역별 현황	22
<표 II-5> 청소년 수련시설 설립주체별 현황	23
<표 II-6>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현황	23
<표 II-7> 청소년 수련시설 연도별 현황(2000년 이후 법적 명칭이 세분화됨)	24
<표 II-8> 청소년수련시설 법정 목표치 현황	25
<표 II-9> 시설별 청소년 이용 현황	27
<표 III-1> 설문조사 개요	49
<표 III-2> 문화의집이 위치하고 있는 건물 형태	50
<표 III-3> 청소년문화의집 주변 지역사회의 도시 규모	51
<표 III-4>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직원수	52
<표 III-5> 특성화된 사업(프로그램)	53
<표 III-6> 청소년 참여 방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55
<표 III-7> 청소년 동아리활동 상황	56
<표 III-8>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청소년 현황	56
<표 III-9> 접근성 및 청소년 욕구 반영 정도	57
<표 III-10> 공간규모	57
<표 III-11> 시설배치의 적절성	58
<표 III-12> 공간활용 정도	58
<표 III-13> 문화의집 공간 활용도가 낮은 이유	59
<표 III-14> 문화의집 이용시 가장 불편한 점	60
<표 III-15> 문화의집에 설치되어 있는 공간 및 시설	62
<표 III-16> 해당 지역 내에 청소년문화의집과 유사한 서비스 제공 시설 현황	63

<표 III-17> 연계하고 있는 학교 및 학생수 현황	65
<표 III-18> 학교와 연계하고 있는 사업	66
<표 III-19> 면담참가 청소년 현황	72
<표 III-20> 조사개요	133
<표 III-21> 참가 청소년지도자 현황	134

그림 목차

[그림 II-1] 청소년수련시설 종류별 현황	22
[그림 II-2] 학습을 위한 경계 허물기	44
[그림 III-1] 문화의집이 위치하고 있는 건물 형태	50
[그림 III-2] 특성화된 사업(프로그램) 개수	53
[그림 III-3] 기관운영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방안	54
[그림 III-4] 청소년 참여 방식	55
[그림 III-5] 접근성·공간배치·청소년육구 반영 정도	59
[그림 III-6] 문화의집에 설치되어 있는 공간 및 시설	61
[그림 III-7] 지역사회내 유사시설 존재 여부	63
[그림 III-8] 지역사회내 유사시설의 유사서비스 제공 여부	64
[그림 III-9] 지역사회내 유사시설과의 연계 여부	64
[그림 III-10] 학교와의 연계 현황	65
[그림 IV-1]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의미와 성과	223
[그림 IV-2] 청소년시설 건립절차	228
[그림 IV-3] 청소년문화의집 주체적 청소년참여 활성화 방안	239
[그림 V-1] 청소년운영위원회 역할 정립 방안	247
[그림 V-2] 지역 내 청소년문화의집과 수련관 네트워크 모형	254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청소년의 잠재역량은 교과서 위주의 주입식·암기식 학습에 의해서보다는 다양한 경험과 사고를 통해 길러지는 것임을 감안할 때 청소년의 학교 밖 활동 및 사회관계 참여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욱이 향후 주5일 수업제가 월 2회 실시에서 전면 실시를 앞두고 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학교 밖 생활시간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지역사회의 생활공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 의미있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일상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정책에서는 청소년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왔다. 1991년 청소년기본법 제정으로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확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수련시설의 양적 팽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1992년 이전에는 150여개에 불과하던 청소년수련시설 수가 2007년 말 현재 668개로 늘어났다. 앞으로도 청소년시설의 건립은 지속될 예정이다.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성과관리계획에 따르면 생활터전 중심으로 읍·면·동 단위의 청소년활동시설 건립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며, 2007년 198개에서 2012년까지 388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의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리고 유스호스텔로 구분·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2005년부터 새로 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청소년활동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 6종류(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와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청소년기본법 상 생활권 수련시설로 분류되어졌던 시설 중 청소년문화의집의 이용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생활권 수련시설은 주로 일상 생활권 안에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로 도보나 대중교통 수단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택가, 도심지나 근교에 설치되어왔다. 그만큼 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근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이 두어진다. 청소년들이 쉽게 찾아가서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군·구 단위로 건립되는 청소년수련관과는 달리 읍·면·동 단위로 건립되어야 하는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에 위치하며, 이동에 대한 부담없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청소년문화의집의 이러한 특성들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잠재역량 개발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문화의집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역사회의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들의 활동 공간으로 자리 잡고,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손쉽게 접할 수 있을 때 청소년들의 주말이나 방과후 여가 활용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들의 역량개발과 함께 자아 확립 기회를 제공하는 터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의 주요 생활공간인 학교에서는 인성 함양이나 자아 탐색의 기회가 부족하고, 청소년시기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 토론을 통한 의견 교환, 미시적 상호작용을 통한 자존감 습득 기회 등이 극히 제한적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성인 지도자들이 상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청소년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하고, 바람직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사회적으로는 청소년 문제 행동의 가능성을 줄이고, 심리적으로는 자존감과 안정감을 얻으며, 나아가 역량 개발에까지 기여할 것이라 여겨진다.

청소년시설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작 청소년들의 시설 내에서의 이용모습,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통한 시설의 의미 등은 파악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공간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들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지역사회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수요자의 관점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 및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청소년지도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질적 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공간으로서의 청소년시설의 위상 및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시설의 운영 목적과 정책 수요자인 청소년들의 요구가 제대로 부합되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이 청소년시설의 프로그램이나 운영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나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동시에 청소년활동시설이 향후 지역 청소년 활동 터전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지닐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 내용

1)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청소년문화의집 이용현황 파악

그간 양화된 지표에 의한 시설평가는 실시되어왔지만 정작 청소년시설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시설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질적 자료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유형별 청소년 이용자들의 활동 내역, 공간 활용 실태, 프로그램 진행 및 참여 과정에 대한 참여관찰을 실시하며, 시설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은 정작 어떠한 모습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시설의 물리적·환경적 측면과 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 네트워크 측면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과, 긍정적 부정적 측면은 무엇인지

에 대해 살펴본다. 즉, 청소년시설이 지역사회 청소년공간으로 적절히 기능하고 있는지, 시설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상호작용 등은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2) 청소년문화의집 운영현황 파악

청소년들의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실태 및 현황 파악과 함께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현황에 대해 파악한다. 청소년문화의집을 꾸려나가고 있는 운영자와 청소년 활동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은 청소년시설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운영과정의 어려움,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이러한 질적 조사와 함께 개별 청소년문화의집에 설문조사지를 보내어 전반적인 시설 운영현황에 대해 파악하며, 시설의 위치, 규모, 프로그램 및 사업현황, 지역사회 및 학교 연계 현황, 청소년 참여 및 활동 현황 등에 대해 조사한다.

3) 청소년들이 원하는 지역사회 공간으로서의 청소년시설 내실화 방향 및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 파악

지역사회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시설의 운영자, 청소년지도사 등을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으며, 청소년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청소년시설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특히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의 가동 과정에 청소년들의 주체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4) 청소년시설 활성화 및 방향성 모색을 위한 정책제언

지역사회 청소년시설은 꾸준히 설립되고 있지만, 청소년시설 건립 기준이 10여 년 전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계획됨으로써 각 지자체마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지 못한 청소년수련시설이 건립되어 왔다. 청소년의 일상생활에서 활동하기 위한 청소년문화의집은 그 용도와 기능에 관한 규정 없이 현재 계속적으로 건립되고 있다. 현재적 시점에서 지역사회의 특성 및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는 시설 건립 및 운영이 요구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 및 현장의 청소년시설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자문조사, 전문가워크숍을 실시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청소년시설 관련 법, 정책과 제도 등에 대한 문헌을 고찰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청소년 여가시설, 청소년 여가 및 방과후 활동과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청소년시설 이용 현황과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 청소년시설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등을 고찰한다.

2) 전문가 자문조사 및 워크숍

연구 설계 및 진행과정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다. 먼저 연구 설계 과정에서 기존 연구를 수행했던 연구자, 현장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자문을 청취한다. 또한 적절한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 대한 자문회의를 실시한다. 연구진행과정에서 자료수집과 연구결론 도출을 위해 수시로 자문을 청취하며, 바람직한 정책방안 모색을 위해서 전문가 워크숍을 실시한다.

3) 참여관찰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권역별, 유형별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들의 주요 일과 및 청소년 활동에 대한 참여관찰을 실시한다. 참여관찰 대상 선정을 위해서는 청소년시설평가 사업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시설을 대상으로 참여관찰을 실시하도록 한다. 권역별, 지역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시설을 우선 선정대상으로 정하고 이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도록 한다.

4) 심층면담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한다. 각 시설에서 5명-10명의 청소년들과 면담을 실시한다. 시설 활용 유형별, 시설 활용의 적극성 정도에 따라 면담 참가자들을 분류하여 이용계기, 이용하면서 도움이 되는 점, 개선점, 불편한 점, 요청사항 등을 중심으로 면담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시설의 운영자 및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시설을 만들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한 면담을 실시한다.

<표 I -1> 심층면담 계획

면담참가자	면담내용
각 시설별 이용청소년 5-10명	시설활용유형별(운영위원회, 동아리, 단순이용자, 프로그램 참가자)로 시설 이용의 의미, 문제점, 장점, 개선점 파악
운영자	시설운영의 어려움, 개선방안, 청소년참여방안 모색 등
지도사	청소년들과의 상호작용 의미,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의 어려움, 개선방안

5) 설문조사

2007년 말 기준으로 198개의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동아리, 운영위원회, 주요사업 현황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향후 바람직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방안 및 지역사회에 생활공간에서 의미있는 청소년시설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방향성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청소년 성장과 공간
2. 청소년 성장과 여가 및 활동
3. 청소년시설 현황과 방향성
4. 지역사회 청소년시설로서 청소년 문화의집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청소년 성장과 공간

1) 건전한 청소년 발달과 공간의 중요성

집과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장소는 특별하며 가치있는 것이다. 그것은 삶의 즐거움과 충만감을 가져온다. 장래를 위해 별 역할을 하지 못할지라도, 또는 발달을 위해 영향력이 없을지라도 그러한 장소의 존재는 중요하며 성인들은 청소년들을 위해 그러한 장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Hirsch, 2005, pp. 53-54)

근래에 청소년들의 성장과정에서 긴밀한 애착을 형성하게 되는 장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되고 있다. 청소년 시절에는 누구나 자신만의 공간을 꿈꾸며 특정 공간이나 장소에 대한 애착을 형성한다(주범·마르코부르노, 2004). 청소년들의 장소애착에 대한 연구들은 침실이나 숲의 일정 공간 등 사적인 공간에 대한 애착에 주로 집중되어 있었다. 청소년 센터나 활동과 관련하여 장소애착에 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아왔다. 하지만 청소년 클럽에서 “집”처럼 느낀다는 응답은 74%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4개의 청소년클럽에서 10-18세 청소년 112명 대상). 집과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요소로는 심리사회적 반응과 물리적 반응을 들 수 있다. 심리사회적 반응은 정서적 상태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반응이며, 물리적인 것은 가구, 공간의 경계 등 물리적 특성에 대한 반응이다. 클럽을 집으로 느끼게 하는 요소 중에는 동료와 지도자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91%의 청소년들이 방과후 클럽에서 동료나 지도자와의 관계를 들었다. 다음으로 활동이 꼽혔다. 일반적인 놀이나 아이들을 돕는 활동이 집처럼 느껴지게 하는 요소들이었다. 반면에 특별한 클럽 프로그램이나 구조화된 활동은 집처럼

느껴지게 하는 이유로 언급되지 않았다(Hirsch, 2005).

미국 방과후 학교의 클럽이 제2의 집처럼 느껴지는 이유에 대해 한 청소년은 “일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 친구와 사귄 수 있는 장소, 또래나 가족 압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장소, 어른을 신뢰할 수 있는 장소, 거리로부터 안전한 공간”을 지적하고 있었다. 또한 이 클럽이 “정신적으로, 언어적으로, 신체적으로 예술적으로 자아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라고 지적하였다(Hirsch, 2005, p. 41).

삶에 중요한 장소는 안전과 자극, 타인과의 유대, 사회제도와 문화와의 연계를 제공하는 곳이다. 청소년들은 가족 밖의 환경으로 나가게 되면서 가족과 유사한 지원을 제공받는 환경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장소에서 청소년들은 가족환경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사회 환경의 수와 유형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은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사회 역할을 수행함을 알게 된다. 다양한 환경에서의 다양한 사회적 역할 수행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 되며 청소년들이 탐구하는 다양한 자아의 사례들을 제공받게 된다. 다양한 역할들이 충돌하게 되면 청소년들은 조화로운 자아개념을 가질 수 없으며, 역할 갈등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일부 소수집단이나 소외계층 청소년들은 어린 동생들을 돌보거나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 등 집에서는 성인의 역할을 하며, 학교에서는 아동 취급을 받는다. 이러한 상황은 가족과 사회적 기대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게 한다. 여러 가지 역할 갈등을 조정하고 원만한 정체성 형성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 센터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Hirsch, 2005, p. 42).

2) 방과후 청소년활동 환경 조성 필요성

청소년들에게 있어 방과후의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환경에서 청소년들은 근본적으로 동기부여가 되며, 성인들의 돌봄과 지지적인 관계를 통해 책임감과 사회적 의

미를 깨닫는다. 청소년들의 방과후 활동 공간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건전한 성장에 효과적인 공간이 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방과후 프로그램 지도자들과 청소년들간의 관계는 긍정적 청소년발달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즉, 위험한 경험을 피할 수 있게 하며 청소년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기회를 추구하며 부정적 경험으로부터의 회복을 돕는다는 것이다(Kahne, Nagaoka, Brown, O'Brien, Quinn & Thiede, 2001).

대규모의 양적 질적 연구들은 방과후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교육적 성취, 정체성 개발, 성인으로의 이행을 촉진함을 보인다(Larson, 1994).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는 학업 성취, 업무 지속성, 작업 및 학업 습관, 태도 및 감정 개선 등 긍정적인 발달에 효과가 있다(Priscilla, 2007).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정서와 태도, 행위 적응, 학업 수행 등 세가지 영역에서 두드러진 성취를 보인다. 특히 방과후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자기신뢰와 자존감, 학교에 대한 소속감, 긍정적인 사회적 행위, 성적 등을 높이는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며, 문제행동, 약물 사용 등을 감소시켰다. 즉, 방과후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개인적, 사회적, 학업생활에 다양한 효과를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Durlak & Weissberg, 2007).

이러한 중요성과 관련하여 선진국에서도 청소년들의 학교 밖 여가와 환경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교육감사법(Education and Inspection Act 2007)은 청소년이 학교교육 이외의 현장에서 개인의 삶에 관한 질적 향상은 물론, 더 나아가서 개인의 웰빙을 통한 사회적 공헌과 결속을 강조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국가 청소년위원회, 2007d).

방과후 및 학교밖 프로그램은 교실 경험을 넘어서는 다양하고 가치있는 활동들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삶을 풍부하게 한다. 미국청소년정책포럼(American Youth Policy Forum)은 이러한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4가지 이유로 설명한다. 첫째, 방과후 및 학교 밖 프로그램은 지적 수준을 확장시키며, 중요한 사회적, 개인적, 시민적, 직업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방과후 프로그램은 부모 워크숍, 영어 강좌, 건강 검진, 정신건강

상담, 10대 부모 프로그램 등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통합적인 접근을 취한다. 셋째, 방과후 프로그램은 청소년 범죄나 위험 행위를 일으킬 수 있는 방과후 시간 동안 보다 안전하고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넷째, 방과후 프로그램은 학교생활을 보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진로 상담, 적성 교육, 예술, 체육, 음악, 시민성 등)을 제공한다. 또한 직접 체험하는 학습, 그룹 프로젝트, 봉사 학습 등 전통적인 학습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독특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American Youth Policy Forum, 2007).

방과후 청소년들을 위한 안전한 생활공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호소는 지속되어왔다(조국남, 2005;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2004). 여가문화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사회간접자본의 상당부분은 성인들을 위한 시설이다. 현실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여가문화와 관련된 사회간접자본은 그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은 청소년 여가문화 활성화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이경훈, 2004). 이와 관련하여 주5일 근무제를 맞아 여가시간 증가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여가활동 증가 대비 생활권에서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2. 청소년 성장과 여가 및 활동

1) 여가와 청소년 성장

청소년들이 애착을 형성하여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와 함께 방과후 및 여가 활용도 청소년의 건전한 자아형성과 발달에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래사회에는 여가패턴이 더욱 다양해질 것임을 감안할 때 청소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테마형 여가활동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청소년들은 사회의 흐름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

고 있으므로 청소년활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미래형 청소년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가는 사회적 구성체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그 의미의 변화도 많이 일어났으며, 학자마다 사용한 정의도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에 의한 여가의 정의는 시간적인 자유와 그 자유시간을 보내는 내용을 여러 형태로 분류하는 2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다(Dumazedier, 1967; Kelly, 1978; Neulinger, 1981; Samdahl 1988). 청소년의 여가는 학습과 1차적인 생존에 필요한 욕구충족을 위한 시간을 빼 잉여시간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자아실현과 바람직한 성장을 위한 시간활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유진이, 2008a).

청소년들의 여가 활동이 청소년의 자아형성 및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과 궤를 같이하여 청소년들의 여가행위 및 여가생활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십대의 여가활동은 청소년들의 성인기로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청소년의 여가활동 맥락은 청소년의 발달 및 역량 개발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Feinstein, Bynner & Duckworth, 2006; Silbereisen & Todt, 1994; Bjarnadottir, 2004).

건전한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청소년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가활동을 통해 건강유지와 체력 향상, 스트레스 등이 해소되며, 입시 경쟁과 학업 집중에 따른 스트레스와 피로를 회복시키고 학업에 대한 동인과 의욕을 향상시켜준다. 여가나 놀이를 통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협동심과 독립심을 배우기도 한다(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2004). 또한 여가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학교생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부귀현·양명환, 2006). 이와 함께, 주5일 수업제가 부분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면서 청소년들의 여가생활 유형 변화 및 여가활동 증진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였다(강효민, 2004; 조용하, 2006; 이종경·홍승달, 2005; 김호순, 2005; 송영민·이훈, 2006; 조아미, 2004).

2) 청소년의 여가 및 활동에 대한 요구

청소년들은 여가 및 다양한 활동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하고 있다. 초, 중, 고등학생 2,03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학교공부 외에 여가 및 특기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 기회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 높으며, 다양한 활동 정보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수립연구를 위한 수요자 조사에 따르면 “학교 공부보다는 다른 특기를 살려 배우거나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66.3%(매우 그렇다: 36.4% + 대체로 그렇다: 29.9%)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는 9.9%(전혀 그렇지 않다: 3.2% + 대체로 그렇지 않다: 6.7%)로 나타났다. “방과후나 휴일에 공부 이외의 다양한 체험활동이나 스포츠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는 55.2%(매우 그렇다: 27.9% + 대체로 그렇다: 27.3%)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는 18.1%(전혀 그렇지 않다: 8.3% + 대체로 그렇지 않다: 9.9%)로 나타났다. “여러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는 52.5%(매우 그렇다: 22.1% + 대체로 그렇다: 30.4%)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는 13.6%(전혀 그렇지 않다: 5.6% + 대체로 그렇지 않다: 8.0%)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들은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사회에 다양한 청소년문화공간이나 시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동네 근처에 우리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 문화공간이나 시설이 더 많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는 67.3%(매우 그렇다: 36.6% + 대체로 그렇다: 30.7%)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는 8.6%(전혀 그렇지 않다: 3.1% + 대체로 그렇지 않다: 5.5%)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 공부 외에도 다양한 정보나 자료를 얻고 싶어하며,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여가시간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에게 다양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해주는 종합센터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는 58.0%(매우 그렇다: 27.5% +

대체로 그렇다: 30.5%)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는 8.9%(전혀 그렇지 않다: 3.4% + 대체로 그렇지 않다: 5.5%)로 나타났다. “평소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 여가시간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을 좀 줄이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는 71.2%(매우 그렇다: 50.6% + 대체로 그렇다: 20.7%)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는 10.8%(전혀 그렇지 않다: 4.0% + 대체로 그렇지 않다: 6.8%)로 나타났다.

<표 II-1> 청소년 여가 및 활동 요구

(N=2,034, 단위: %)

	사 례 수	인지도				필요도			
		전혀 모른 다	들어본 적은 있다	참여 해본 적이 있다	무 응답	필요 없다	보통 이다	필요 하다	무 응답
체험활동 프로그램	2,034	44.2	48.0	7.0	0.7	8.0	44.0	47.0	1.1
문화 공간, 시설	2,034	20.0	51.7	27.4	1.0	6.8	35.2	57.0	1.0
청소년 관련 문제 상담기구	2,034	30.1	63.7	5.4	0.8	6.9	37.6	54.4	1.1
청소년 관련 정보제공 시설	2,034	52.8	40.1	6.1	1.0	10.4	50.6	37.5	1.5
학습공간, 체험활동 기회 제공 서비스	2,034	33.6	56.1	9.2	1.0	9.1	37.5	52.2	1.2

출처: 국가청소년위원회(2007a).

3. 청소년시설 현황과 방향성

1) 청소년활동시설 현황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서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를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로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이

있으며 청소년이용시설은 문화예술시설, 공공체육시설, 기타 청소년이용시설 등이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정의에 따르면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뜻하며, 청소년수련원은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 청소년특화시설은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청소년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을 지칭한다. 그리고 청소년이용시설¹⁾은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1)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①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2. 「과학관육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4.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5.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6.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7.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관
 8.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고수부지(고수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 시설로서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 여가선용을 위한 이용에 적합한 시설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청소년활동과 관련되어 설치된 시설
-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시설중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 설치·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표 II-2〉 청소년활동시설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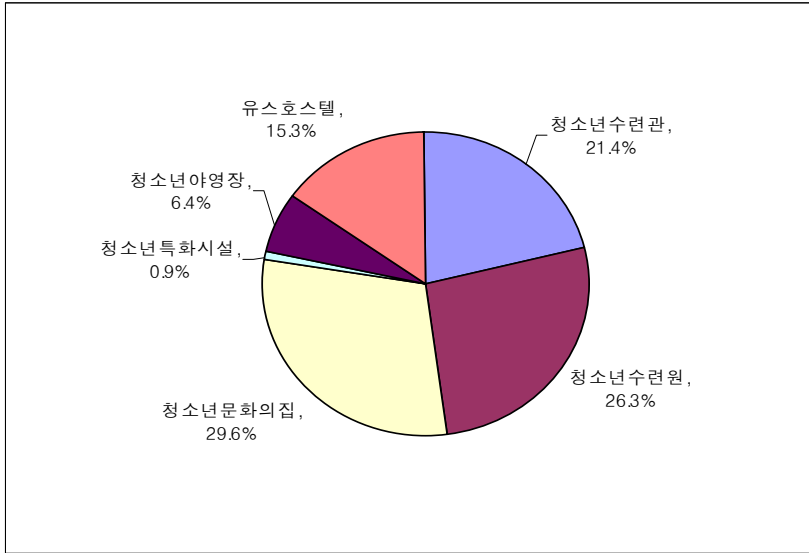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청소년이용시설	문화시설, 과학관, 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회복지관, 그밖에 공공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1992년 이전에는 수련시설이 150여개에 불과하였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말 현재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은 668개가 건립되었다.

〈표 II-3〉 청소년 수련시설 종류별 현황

구분	시설 수	비율(%)
청소년수련관	143	21.4
청소년수련원	176	26.3
청소년문화의집	198	29.6
청소년특화시설	6	0.9
청소년 야영장	43	6.4
유스호스텔	102	15.3
계	668	100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청소년수련시설 현황, 2007년 12월 31일)



[그림 II-1] 청소년수련시설 종류별 현황

<표 II-4> 청소년 수련시설 지역별 현황

시 도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	계
경기	18	49	34	2	7	19	129
서울	33	2	17	4	0	3	59
인천	7	5	4	0	2	2	20
강원도	8	14	17	0	4	16	59
충북	8	14	10	0	1	9	42
충남	5	12	9	0	6	10	42
대전	3	1	10	0	1	1	16
경북	13	20	10	0	6	15	64
대구	4	1	5	0	0	1	11
경남	9	28	17	0	4	10	68
울산	0	2	6	0	0	0	8
부산	7	3	9	0	1	1	21
전북	11	9	21	0	3	5	49
전남	9	10	8	0	5	3	35
광주	5	1	5	0	0	1	12
제주도	3	5	16	0	3	6	33
계	143	176	198	6	43	102	668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청소년수련시설 현황, 2007년 12월 31일)

건립주체별로 보았을 때 국립청소년시설은 거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공공시설이 절반 이상인 63%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민간의 수련시설로, 민간 시설이 의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공공시설은 수련관과 문화의집, 특화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민간시설은 수련원과 유스호스텔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야영장은 공공과 민간의 건립 수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은 직영이 54%, 위탁이 46%를 이루고 있으며 그 중에서 수련원과 야영장, 유스호스텔 등은 직영위주로 운영되고 수련관, 문화의집, 특화시설 등은 위탁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유진이, 2008b).

〈표 II-5〉 청소년 수련시설 설립주체별 현황

구 분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	계
공공	139	43	189	6	22	11	410
민간	4	133	9	0	21	91	258
계	143	176	198	6	43	102	668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2007년 12월 31일 현재)

〈표 II-6〉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현황

구 분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	계
직영(%)	42(10)	162(38)	65(15)	0(0)	52(12)	96(23)	417
위탁(%)	118(33)	47(13)	159(44)	11(3)	6(1)	13(3)	354
계	160(20)	209(27)	224(29)	11(1)	58(7)	109(14)	771

출처: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홈페이지(<http://www.youthnet.or.kr>)

참고: 보건복지가족부의 내부자료와 다소 다른 집계이나 대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제시하였음

<표 II-7> 청소년 수련시설 연도별 현황(2000년 이후 법적 명칭이 세분화됨)

구 분	자연권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계
1992 이전	114	37	4	155
1993	146	93	7	246
1994	179	145	14	338
1995	222	162	23	407
1996	235	174	34	440
1997	259	185	40	484
1998	272	211	50	533
1999	297	208	55	560

구 분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	계
2000	87	181	132	0	119	62	581
2001	105	190	136	0	146	63	640
2002	113	190	142	0	146	63	654
2003	113	185	142	0	146	63	654
2004	127	186	160	0	133	81	687
2005	137	203	164	0	138	87	729
2006	134	161	192	10	43	84	624

* 2006년 통계는 교육청시설 제외

출처: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홈페이지(<http://www.youthnet.or.kr>)

청소년시설의 이러한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법정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향후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한 청소년활동 참가 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주말 및 방과후 여가시간 활용을 위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 시설이 확충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는 시·군·구에 1개소 이상의 청소년수련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읍·면·동에 1개소 이상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현재 생활권 청소년시설의 법정 목표치는 수련관 65%, 문화의집이 38%에 그치고 있다. 2007년 기준으로 생활권 청소년시설은 총 384개(수련관 160개, 문화의집 224개)로 청소년인구 3만 4천여 명당 1개소에 불과하다.

〈표 II -8〉 청소년수련시설 법정 목표치 현황

구 분	2007년 현재	법정목표치	목표 달성율
청소년수련관	160개	240개(시군구)	65%
청소년문화의집	224개	540개(읍면동)	38%

※ 청소년수련관의 법정목표치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문화의집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침’에 의거함.

※ 목표달성율(C) = (A / B) x 100

위 표에 제시된 법정목표치의 경우 문화의집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침에 의거하여 목표 달성률이 산정되었지만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규정하고 있는 읍·면·동 단위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건립해야 한다는 조항을 따른다면 법정목표치는 3,600여개가 넘으며, 현재의 목표 달성률을 더 낮아진다.

청소년시설과 함께 전반적인 문화시설현황도 선진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서울의 경우 세계 대도시와 비교하여 인구 10만당 도서관 수는 0.22개소로 선진도시들은 이보다 10배 내외의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박물관과 미술관은 각각 0.58개소 0.17개소로서 선진국 도시의 1/2 내지 1/3 수준에 불과하다(이창수, 2006).

2) 청소년시설의 이용현황

1991년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고 청소년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로 청소년수련시설은 그간 많은 양적 증가를 이루었으며, 청소년활동의 기반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참여 저조와 설비 및 인력부족, 시설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 전용시설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용률을 높이는 것을 포함하여 청소년시설이 청소년활동의 실질적인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방향과 과제가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유진이, 2007).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의 생활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들의 이용시간대와 이용활동 등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의 이용 욕구 중심이 아닌 시설 중심으로 건축되고 있어서 청소년의 일상적인 활동영역과 분리되어 평상시 청소년들이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많은 시간적인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들 시설역시 대지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중심에 설립되지 못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청소년시설은 청소년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에 자리 잡아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청소년시설을 학교와 인접한 곳에 건립함으로써 대지 구입, 건축 면적 축소, 시설로의 접근 편의성 등의 장점을 살릴 수 있음도 제안된다(김경호, 2003).

전반적인 청소년들의 청소년시설 이용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활동진흥법상(제10조 제1항)에 나타난 “청소년수련시설”로 규정된 시설 및 청소년센터를 1년간 이용한 청소년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한 번이라도 이용한 적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69.7%에 달했다. 수련시설 이용의 교급별 실태를 보면 중학생이 81.3%, 초등학생이 78.2%, 고등학생이 67.9%로 나타났다. 성별, 지역, 계층별 이용률을 보면 지역별로는 서울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지방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계층별로는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이용경험 청소년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하지만 개별 시설별 이용률을 조사했을 때는 이용도가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특히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한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는 청소년들이 83.4%에 달하고 있다.

〈표 II-9〉 시설별 청소년 이용 현황

시 설	구 분	계	초	중	고
1)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 (학생수련원 포함)	1. 전혀 없다	40.9	40.3	33.2	49.2
	2. 한번	33.4	25.1	45.0	29.5
	3. 2회	13.9	17.7	11.4	13.0
	4. 3~4회	5.7	8.7	5.2	3.4
	5. 5회 이상	6.0	8.2	5.2	4.9
2) 청소년문화의집	1. 전혀 없다	83.4	79.8	81.9	88.4
	2. 한번	7.6	8.7	7.5	6.7
	3. 2회	3.2	4.0	3.6	2.3
	4. 3~4회	2.0	2.5	2.3	1.2
	5. 5회 이상	3.7	5.0	4.7	1.5
3) 청소년센터	1. 전혀 없다	85.8	80.5	89.3	87.2
	2. 한번	7.6	9.4	6.3	7.3
	3. 2회	3.0	3.9	2.3	3.0
	4. 3~4회	1.3	2.2	0.8	1.1
	5. 5회 이상	2.2	4.1	1.3	1.4
4) 청소년야영장	1. 전혀 없다	74.9	67.1	77.1	80.0
	2. 한번	16.3	19.6	15.7	14.0
	3. 2회	5.0	7.4	4.3	3.4
	4. 3~4회	2.2	2.8	2.2	1.8
	5. 5회 이상	1.5	3.1	0.8	0.8
5) 유스호스텔	1. 전혀 없다	62.4	61.5	62.9	62.7
	2. 한번	24.6	21.1	25.6	26.9
	3. 2회	7.9	11.1	7.2	5.7
	4. 3~4회	2.9	3.8	2.8	2.3
	5. 5회 이상	2.2	2.6	1.4	2.5
6) 문화예술 공연장 (연극/무용/음악 등)	1. 전혀 없다	38.7	31.9	34.9	48.7
	2. 한번	27.6	25.2	33.1	24.3
	3. 2회	15.2	17.2	16.5	12.2
	4. 3~4회	9.6	12.6	8.6	7.8
	5. 5회 이상	8.9	13.1	6.9	7.0
7) 문화예술 전시장 (박물관/미술관/화랑 등)	1. 전혀 없다	37.0	22.9	36.8	50.3
	2. 한번	26.8	23.8	30.8	25.8
	3. 2회	16.1	18.0	16.4	14.0
	4. 3~4회	9.7	16.0	8.3	5.4
	5. 5회 이상	10.4	19.3	7.7	4.6

시 설	구 분	계	초	중	고
8) 체육관·체육시설 (축구장/농구장/볼링장 등, 단, 학교의 체육관, 체육 시설은 제외)	1. 전혀 없다	48.4	37.0	52.1	55.4
	2. 한번	16.8	18.5	15.8	16.2
	3. 2회	11.0	13.3	10.9	9.0
	4. 3~4회	7.3	9.4	6.3	6.3
	5. 5회 이상	16.5	21.8	14.8	13.2
9) 도서관 (단, 학교도서관은 제외)	1. 전혀 없다	36.2	26.2	35.3	46.5
	2. 한번	15.0	15.1	15.3	14.5
	3. 2회	12.4	13.8	13.4	10.3
	4. 3~4회	11.0	13.9	10.4	8.9
	5. 5회 이상	25.4	31.1	25.6	19.9
10) 사회복지관	1. 전혀 없다	77.4	71.9	82.7	77.2
	2. 한번	11.5	12.3	10.6	11.6
	3. 2회	4.7	6.1	3.3	4.7
	4. 3~4회	2.4	3.1	1.5	2.6
	5. 5회 이상	4.1	6.6	1.9	3.9
11) 과학관/천체관측소/ 해양체험관	1. 전혀 없다	69.5	51.7	73.2	82.3
	2. 한번	17.1	25.2	16.2	10.4
	3. 2회	6.5	10.1	6.5	3.3
	4. 3~4회	3.9	7.2	2.2	2.6
	5. 5회 이상	2.9	5.7	1.9	1.4
12) 수목림/수목원/자연휴양림	1. 전혀 없다	56.1	40.0	58.2	68.9
	2. 한번	22.7	26.3	22.5	19.4
	3. 2회	10.7	15.3	10.2	6.8
	4. 3~4회	5.4	9.3	4.7	2.3
	5. 5회 이상	5.3	9.2	4.4	2.5

출처: 국가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7). 2007년 청소년활동 참가실태 조사연구. pp.193-194.

청소년시설 이용 만족 실태에 대한 양적 조사에서는 청소년시설 이용자들의 만족수준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련관에 대한 만족비율이 75.0%로 가장 높았고, 문화의집에 대해서는 71.7%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시설에 대한 위상은 문화와 교류, 놀이의 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5점 만점 척도에서 수련관은 ‘문화’(4.2), ‘교류’(3.8), ‘놀이’(3.8)의 역할에 매우 충실하였으며, 문화의집 역시 ‘놀이’(4.1), ‘문화’(4.1), ‘교류’(3.7), ‘휴식’(3.7)에서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청소년위원회, 2005).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청소년시설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강남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청소년시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30.4%였고 모른다는 응답이 68.8%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시설에서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8.6%, 아니라는 응답이 79.6%로 나타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시설에서 여가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청소년시설에서 자신이 원하는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66.8%의 청소년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은 청소년시설에서 조직된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보다는 개인활동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시설에서 하고 있는 여가활동으로는 컴퓨터하기가 2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친구와 수다떨기 22.5%, 스포츠활동이 19.8% 등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체험활동(8.1%), 봉사활동과 동아리활동(8%), 행사참여(7.2%), 애니메이션(6.3%) 등으로 나타났다(조아미, 2004).

지역사회 시설에서도 수련관과 문화의집의 경우 활용 목적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수련관의 경우 강좌형 프로그램 이용자(42%)와 공간임대 이용자(21.6%)가 주를 이루며, 문화의집의 경우 단순 이용자(68.7%)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2003). 이러한 경향은 2005년도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련관은 강좌형 프로그램이 34.5%로 가장 많았으며, 문화의집은 단순 시설 이용자가 57.0%로 가장 많았다(청소년위원회, 2005).

또한 생활권 수련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수련시설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갖는 일상적인 필요성과 교육수준에 대해 가장 만족하는 반면,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이나 시설 및 이용도구의 부족, 지도자의 전문성 부족에 대해 가장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정철상, 2004). 이처럼 대부분의 조사가 양적조사에 근거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정작 청소년들의 실제 이용 모습과 이들의 목소리를 통한 청소년시설의 위상 및 의미 파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

3) 청소년시설 실태조사 및 평가

청소년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운영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들이 있어왔다. 전국의 수련시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인프라와 운영상황, 시설 종사 지도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등을 통해 관련제도의 개선방안과 수련시설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2003; 청소년위원회, 2005). 이 연구들에서는 청소년 시설 내부의 보유시설 및 규모, 수용정원, 인력현황, 청소년지도사 배치현황, 이용자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 청소년수련관 공간 분석을 통해 도시환경에서 보다 적절한 청소년 시설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도 있다(유진이, 2002).

이와 함께 청소년시설 이용 실태 및 현황에 대한 양적 조사가 이루어져왔다. 월별, 요일별, 하루 중 시간대별 이용현황을 조사하고 있는데, 월별 청소년이용률은 수련관의 경우 8월이 10.6%로 가장 많았고, 2월이 6.8%로 가장 적었으며, 문화의집은 8월이 10.1%로 가장 많고, 3월이 7.2%로 가장 적었다. 요일별 이용 현황은 수련관은 토요일 22.2%, 일요일 16.2%로 주말 이용자가 38.4%를 차지했으며, 월요일이 9.7%로 가장 적었다. 문화의집은 토요일 25.1%, 일요일 18.4%로 주말 이용자가 43.5%로 주말 이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하루 중 이용률은 수련관은 평일에는 오후(1시-6시) 49.4%, 저녁(6시-10시) 39.2%, 오전(9시-12시) 11.4%, 주말에는 오후 55.5%, 오전 24.8%, 저녁 19.7%로 주말에는 오전 이용 비율이 저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의집은 평일 오후(1시-6시) 63.0%, 저녁(6시-10시) 31.5%, 오전(9시-12시) 5.5%, 주말 오후 63.5%, 오전 22.8%, 저녁 13.7%로 오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청소년위원회, 2005).

청소년시설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왔다. 2006년에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평가영역 및 지표는 크게 5영역으로 나뉘어 실시되었다. 평가영역 및 핵심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 및 발전계획(1-1. 수련활동 인증제에 대한 준비계획, 1-2. 자체 프로그램 개발 실적),

둘째, 조직 및 인력(2-1. 예산편성의 적절성, 2-2. 상근 청소년지도사 배치율), 셋째, 수요자(3-1. 전체 이용자 대비 연간 청소년이용률, 3-2. 참여청소년 만족도, 3-3. 동아리활동 빈도), 넷째,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4-1. 학교·타시설(단체)과의 협력 정도, 4-2.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활용, 4-3. 청소년종합정보서비스 정보제공 실적(www.all4youth.net), 4-4. 지역사회 전문인력 활용 정도), 다섯째, 안전 및 위생(5-1. 시설안전점검 결과, 5-2. 시설 안전관리보험 및 활동자 보험 가입 여부, 5-3. 위생설비 관리 및 청결 상태) 등이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2007년에 이루어진 청소년문화의집 평가에서도 수요자 평가 부분에 연간청소년이용률, 청소년들의 만족도, 동아리활동 빈도, 운영위원회 활동 정도를 포함하고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7c).

시설평가 중 수요자 평가 부분에서 참여 청소년 만족도 등을 반영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에 참여하며,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지에 대한 질적인 정보는 알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청소년 공간으로서 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이러한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 지역사회 청소년시설로서 청소년문화의집

1) 청소년문화의집 개황

(1) 법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시설로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이용실태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의거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이라 정의된다.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은 법적인 시설 유형으로 청소년활동시설의 하위 범주인 수련시설에 해당

되므로 시설 설치 기준상의 법적 기준뿐만이 아니라 시설 설치 취지상 기본적으로는 청소년수련활동 서비스 기관이라 할 수 있다(김정주 외, 2002).

하지만 법적 개념상의 불명확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법적 정의상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간단한’의 의미가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회성 소규모 행사와 같은 단순한 사업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으며, 수련활동의 의미와 범주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수련활동의 의미를 전문가의 기획에 의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일방적 전달 중심의 활동이라는 협의의 개념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된다.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로 기능을 전문화함으로써 시설 성격을 분명히 하고자 한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문화의 의미는 개념 설정 방식에 따라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정의될 수 있고, 동시에 청소년들 또한 다양한 문화적 요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문화의집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청소년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수련 시설로서 기능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지역사회의 특징이나 설치기관의 목표에 부합되는 다양한 문화활동 영역이 포함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문화의집의 개념과 기능을 법령의 취지를 따르되 그 의미에 있어서는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내용과 방식으로 청소년의 문화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청소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청소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청소년수련시설’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김정주·김혁진, 2003).

(2) 기능

청소년문화의집의 기능적 특성은 문화체험 기능, 만남과 소통의 기능, 네트워크 기능 등으로 구분된다고 보고 있다. 문화체험 기능은 청소년들의 문화적 요구에 따른 다양한 영역의 문화활동의 기획과 실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을 말한다. 만남과 소통의 기능은 청소년문화의집의 기본적인 서비스 기능으로서 개인 또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하면서 서로를 만나는 과정에서 대화와 의견 교환을 통한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여야 함을 말한다. 네트워크 기능은 정보서비스 기능과 더불어 사람, 기관, 지역을 위한 ‘연계’ 중심의 기능을 말하는 것으로, 대외적인 서비스 측면에서 지역사회 청소년서비스의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말한다(김정주·김혁진, 2003).

청소년문화의집은 소규모 시설로서 다양한 복합 기능을 수행하는 대규모 시설인 청소년수련관과 구분되며, 법령상의 용어로는 대규모 시설인 프랑스의 문화의집과 같지만 ‘문화’라는 용어를 수용하고 ‘집’은 대형시설의 의미가 아니라 소규모 공간으로 개념을 제한하여 적용하고 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지역사회란 광범위한 지역 단위(행정구역으로 시·군·구 단위)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도보로 접근 가능한 수준, 생활 속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지역사회를 서비스의 기반으로 하며 행정구역 기준으로 읍·면·동 단위를 의미한다. 시·군·구 지역 내 청소년시설이 미비한 경우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며 이때에는 범위를 확대 적용할 수 있지만 기본전제는 생활지역 중심이다(김정주 외, 2002).

‘문화의집’이란 명칭은 본래 프랑스 등에서 차용되었으나 그 규모와 기능 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프랑스의 문화의집은 대규모 복합문화센터를 말하는 반면 우리는 용어만 사용할 뿐 소규모의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 소규모 시설로 정착되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1999년 청소년기본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의 청소년수련실 유형을 대체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으로 설정되었다. 최초의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수련실이라는 법적 근거에 따른 시설로서가 아니라 지역사회 성인 대상 문화의집과 같이 기존의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일부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설치되었는데, 1997년 준비기간을 통해 1998년 1월 30일 노원청소년수련관 4층에 처음 개원되었다. 이후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중점 정책과제로 추진되어 온 청소년문화의집은 기존의 대규모 청소년수련관이나 사회교육시설,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강좌센터와는 그 취지나 운영 방향에서 차별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 대상의 ‘문화의집’이나 주민자치센터로

리모델링되는 동사무소 등과 차별화될 수 있는 청소년 중심의 문화공간 또는 수련시설로서의 개념과 기능의 설정이 요구되어 왔다. 청소년문화의집의 지역사회에서의 기능은 시설 내부로 활동 범위를 축소시켜서는 안되며 서비스 기능이 수행되어야 하는 지역사회 전체를 활동의 범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필요시에는 지역 사회간 연계, 지역 전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서비스 프로그램이 요구된다(김정주 외, 2002).

(3) 문제점

현재 청소년문화의집 시설규모는 500m²~3,000m²에 해당되며, 운영인원은 2-3명 수준이다. 문화의집은 지속적으로 읍·면·동 단위에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립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우선시하며, 인구밀집 지역에 건립되어야 하는 반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존 공공시설을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반되고 있다(유진이, 2008a).

한편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재정의 취약성, 전문인력의 취약, 상근인력의 업무과다, 열악한 근무환경, 전문성부족, 지역사회차원의 프로그램 운영 취약, 중고생을 위한 프로그램 취약, 접근성, 시설의 노후화, 시설 홍보와 자원인력 활용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7c).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으로 우선 청소년들이 시간 있을 때마다 자율적으로 제한받지 않고 마음 놓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를 만들어주기 위한 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특별히 육체적인 활동이 왕성한 시기인 청소년기를 고려하고 다양해지는 청소년들의 문화욕구를 고려하여 청소년들이 근처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학업시간 부담으로 여가시간이 많지 않은 주중에는 학교, 학원, 독서실, 도서관, 공원, 쇼핑센터, 거리, 식당 같은 청소년들의 주동선 근처나 집근처 가까운 곳에 청소년시설이 위치해야 한다. 여학생의 경우는 쇼핑센터와 같은 근처에 동선이 차별적으로 발달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시설공간의 내용은 주중

에는 스트레스 해소와 기분전환을 위주로 하는 정적이고 소극적인 여가활동 내용을 고려하여야 하며, 토요일에는 자기계발과 발전을 위한 시설공간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주중에도 적극적이고 동적인 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가능하면 접근성이 용이하고 개방적이어서 짧은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 또한 주중과 토요일에는 밤시간대에 이용에 대한 절대적인 여가시간이 존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유진이, 2008a).

2) 청소년문화의집의 향후 역할 모색

(1) 지역사회의 의미있는 공간으로 정착

① 집과 같은 장소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안식처이자 집과 같은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집과 같은 장소라는 의미는 비공식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면서도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적절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장소를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청소년센터들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청소년센터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다양한 역할을 체험하고 있다. 운동을 할 때는 아동처럼 행동하거나 운동선수처럼 행동할 수 있으며, 어린 아이들을 돌볼 때는 책임감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호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방과후 센터의 지도자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며 지원할 수 있다. 다양한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성인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청소년들은 정체성 통합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적 역할과 지원을 해주는 가정과 같은 장소(home-place)는 청소년들의 정체성 형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정과 같은 장소(home-place)가 굳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집일 필요는 없다. 가정과 같은 장소는 개인에 의해 의미가 부여되는 장소이며, 자기 규제와 정체성 유지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청소년들의

임파워먼트 계기를 제공한다. 이러한 장소를 얻음으로써 개인은 개별적 자아와 공동체간의 연계를 얻게 된다. 이러한 장소는 특히 도시 빈곤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준다(Hirsch, 2005). 이러한 장소의 중요성은 이웃 혹은 지역사회(community가 아닌 neighborhood)가 청소년에 대한 개입 단위로 정책 수행과정에 중요성이 부각되게 하고 있다. 지역사회 기반으로 청소년 활동을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다가가고 이해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Henderson, 2007).

② 학교의 제한적 기능을 보완하는 장소

지역사회 청소년시설로서 문화의집은 학교의 제한적 기능을 보완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학교를 집처럼 느끼는 청소년들은 거의 없다고 보고되었다. 학교가 청소년들에게는 불편하고 부정적인 공간이며, 일부 청소년들은 “감옥”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정책적으로 학교에서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늘리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방과후센터를 학교의 축소판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방과후 클럽은 보살핌이 있는 인간적 공동체로 기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Hirsch, 2005, pp. 51-52).

학교에서 청소년의 다양한 잠재능력이 계발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학습능력 이외의 다른 재능에 충분한 가치를 주지 않으며, 그것이 존중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된다. 학교와 같은 정규 교육기관에서 가르칠 수 없는 부분, 예컨대, 창의력, 협동심, 사회성 등을 지역사회의 청소년시설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발한다면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은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질 것이며, 청소년 성장과정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주범·마르코부르노, 2004). 청소년기에 형성하는 집단 의식과 또래 문화를 제대로 표현하고 인정받는 것은 이들의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10-15세에 이르는 초기 청소년기는 나름대로 사회에서의 독특한 집단을 형성한다. 이들의 문화는 음악, 춤, 의상, 친구들과의 교류, 이성교제, 튀는 행위 등을 지향한다. 청소년문화에 관한 이들은 전문가이며, 이러한 영역에서 청소년들의 역량이 잘 표현될 수 있다. 이들의 문화가 주류가 아니고 주변화된 집단문화로 표현되지만 이들

의 권리와 문화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으며, 전문가로서의 이들의 재능이 발휘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청소년문화가 박탈된다면, 청소년들은 역량 개발 기회를 잃게 된다. 성인들은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것들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Hirsch, 2005, p. 36).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의 사회화가 일어나는 기반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의 회관이나 센터도 청소년들의 사회화과정에 핵심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단지 주의해야 할 점은 청소년센터의 참여가 학교생활과 같은 경직성과 수동적 참여와 유사하게 된다면 지속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주범·마르코부르노, 2004).

특히 도시의 빈곤지역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센터는 외부 세계와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 사회정책 중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청소년들이 보다 넓은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사회적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기반 방과후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보다 넓은 사회제도와 성인 세계에 진입하게 하는 연결 고리이다. 일부의 방과후 프로그램은 도시청소년들에게 기술과 사회자본을 습득하게 하였다. 또 청소년들은 자발적으로 규칙과 규범, 의복 및 행위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들어 서로에게 지키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클럽 구성원들은 이러한 규칙이 학교에서와는 달리 제한적이라고 느끼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회적 규칙이 학습되며, 자아 의식 속에 이러한 것들이 통합되고 있다(Hirsch, 2005, p. 54).

(2) 건전한 사회관계 형성의 장

청소년문화의집의 지도자와 청소년 동료집단 간의 관계는 청소년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장소 애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지도자와의 유대감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청소년들이 학교 밖의 방과후센터나 청소년센터를 집처럼 느끼게 하는 요인으로 구조화된 프로그램이나 레크레이션 활동 보다는 멘토링이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과 지도자와의 유대는 학교에서의 선생님과 관계

와 가족이나 친척간의 관계와 비교될 수 있다. 학교에서 성인들은 전적으로 지식과 관련된 가르침을 주며, 친척들은 거의 비학문적 이슈와 관련하여 멘토가 된다. 반면에 청소년클럽의 지도자는 양자에 대해 균형을 맞춘다. 청소년활동을 지도하는 지도자는 청소년들의 숙제를 돕기도 하며, 학교와 관련되지 않은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다룬다. 더욱이 대화방식은 긍정적인 방식으로 청소년발달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Hirsch, 2005, p. 132).

청소년들은 지지를 받는다고 인식하는 경우, 즉 성인과 다른 청소년들로부터 존중받는다고 인식하는 경우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402명의 청소년과 45명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양질의 지지적 관계에 있는 청소년들이 평균적인 청소년들보다 두 배나 더 긍정적인 발달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하며, 10대 초기에 비지지적 관계에 있는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후반에 94%나 더 열악한 발달적 결과를 초래하였다(Priscilla, 2007).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지도자들은 청소년들에게 역할 모델이 되고 있다. 특정한 지식, 기술, 행위에 대하여 사례가 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긍정적인 역할모델을 얻기 힘든 저소득층 청소년들과 일반 청소년들에게도 해당된다. 특히 청소년지도자들이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애를 뛰어넘어 그 자리에 있다면 청소년들은 그들을 보다 구체적인 역할 모델로 삼게 된다. 이러한 역할 모델은 지도자의 지원과 관심, 격려 등으로 더욱 강화된다(Rhodes, 2004).

지도자와의 관계형성과 함께 동료 및 또래들과의 관계 형성은 청소년들의 장소 애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개인적으로 중요성을 부여하는 집과 같은 장소,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장소와 연결됨으로써 청소년들은 지도자와 다른 아동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자아를 표현하는 활동을 하고, 이러한 아동기에의 기억을 통하여 청소년들은 자아 정체성과 자존감을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을 얻게 된다(Hirsch, 2005, p. 44). 방과후 시간에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잘 훈련받은 성인과의 접촉이 있는 장소에서 이들을 위하여 안전하고 접근가능하며 다양

하게 조직된 활동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지역 사회는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Edmondson, 2000). 이처럼 성인 지도자와 또래 청소년들간의 관계 형성은 청소년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관계가 가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3) 역량개발의 장

사회환경 변화로 청소년들의 생애 성공은 학교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넘어서는 보다 광범위한 역량에 기반한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일상생활의 글로벌화는 다양한 사회들 간에 연결된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고, 이러한 세계에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기술과 다양한 정보 이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도전과 사회적 공평성, 환경문제, 경제성장 등과 같은 도전에 맞서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들의 역량은 지엽적인 기술 습득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1997년 OECD의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는 장기적 차원에서 측정이 가능한 새로운 영역의 역량을 위한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는데 그것은 첫째,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정보기술 및 언어 사용), 둘째,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 셋째,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자율적인 행위 능력)으로 보고 있다(Rychen & Salganik, 2003).

인적자본과 관련된 사회정책은 학교교육과 경제적 성취에만 주안점을 두어왔다. 기존의 학교 교육은 이러한 역량을 습득하는 데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실, 지식, 신념이나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차원의 전통적 교실수업은 새로운 학습패러다임에 의해 비판받고 있다. 새로운 학습패러다임은 학습이 일어나는 환경과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며, 인지적 측면 뿐 아니라 정서적, 도덕적, 신체적 측면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행위(실천)를 통해 학습이 일어남을 강조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핵심역량이

습득되는 것이며, 핵심역량은 행위 및 실천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Rychen & Salganik, 2003). 이러한 논의의 근간은 “지식은 일련의 상황(context)에 참여하여 행위를 하는 가운데 얻어진다”는 상황학습이론(situated learning)이라고 할 수 있다(Lave & Wenger, 1990). 결국 정형화된 학교를 벗어나서 사회적으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① 사회적 역량 관련

먼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통해 사회적 역량이 증진될 수 있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방과후 활동 등을 통해 문제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출발점이다. 일차적 예방은 개인에게 권한을 주며, 사회문화적 지지와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며, 개인적 한계를 극복하게 한다. 방과후에 이루어지는 활동과 다양한 교과외 활동(지역사회 봉사, 학교 봉사, 학교와 관련된 클럽활동)에서 활용되는 멘토링은 일, 놀이, 사랑, 사고력, 봉사심 등의 사회적 역량을 증진시킨다. 사회적 역량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습득해야 하는 중요한 역량이며 신체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건강의 일정 부분과 공유된다. 미국 주류 사회의 경우 사회적으로 역량을 갖추었다는 것은 다음을 포함한다(Bloom, 2000, pp. 20-22)

- 긍정적 자존감을 갖는다
-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업무와 도전에 응한다
- 윤리적으로 행동하며 타인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을 한다.
- 다인종 사회의 혜택에 대해 감사하며, 타인의 가치를 존중한다.
- 대인간의 접촉 및 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며, 타인과 잘 지내며, 장기간의 인간관계를 진전시킨다.
- 건전한 작업 습관, 동기 및 가치를 개발한다.
- 건강을 증진하며 유지하기 위한 행동을 한다.
- 또래, 가족, 학교,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이며, 기여하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시민이 되도록 한다.

- 학대, 원치 않는 임신, 에이즈, 사회적 고립, 신체적 상해, 학업 중단, 우울, 자살, 실업, 범죄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② 지적 역량 관련

그간 학교 밖에서의 시간은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역량, 시민역량, 행위, 태도 등 다소 유연한 영역에서의 긍정적 결과를 보인다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학교밖 시간이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에 더 집중하게 하며 학업 성공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교육계와 직업 현장에서 점차 증가하는 요구는 청소년들이 성공적인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것들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대중적인 의견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지식을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필요로 하며, 이는 기본을 넘어서는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다. 바람직한 방과후 혹은 학교 밖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지식을 넘어서는 전문성과 융통성을 갖추게 하며, 응용을 위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의 **Living Histories** 프로젝트는 학교 밖 프로그램으로 전문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일련의 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과 수학, 역사, 지리, 작문, 언어 발달 등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Pittman, Irby, Yohalem, Wilsom-Ahlstrom, 2004, pp. 19-20).

청소년활동에 있어 주요한 관심사로 부각되는 것은 학교와 같은 기분이 들지 않으면서도 교육적으로 보다 풍부한 효과를 누리고 진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Edmondson, 2000).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비형식적으로 청소년과 지도사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형식성을 탈피한 방과후의 프로그램은 청소년과 지도자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며, 대화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의 지적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은 자신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진 또래 혹은 선배나 성인의 지도하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원활히 일어나며, 이러한 지적 발달이 일어나는 영역은 “근접발

달대(zone of proximal development)”라고 지칭되어 왔다(Vygotsky, 1978).

결국 다수의 학생들과 1인의 교사가 친밀한 상호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학교에서보다는 소규모의 청소년들이 청소년지도사 및 선배들과 친밀하게 상호작용하며 직접적인 관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 성숙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나아가 청소년지도사들은 비형식적 교육자로 불려지기도 한다. 청소년지도사들은 학습을 위한 조력자 역할을 한다. 특히 비형식적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 방식이다. 영어의 대화(conversation 또는 dialogue), 두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시간을 두고 오가는 의사교환을 통해 의미와 이해가 깊어간다. 이는 형식적 교육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틀에 박힌 상호작용과정과는 차별화 된다. 학교에서의 상호작용은 듣고 읽고 기록하는 등 정적인 반응으로 이루어지지만 대화로서의 비형식 교육은 결코 일방적 독백이나 “예”, “아니오”와 같은 응답으로 일관되지 않는다(Batsleer, 2008). 형식화된 교실 상호작용을 통해서는 의미있는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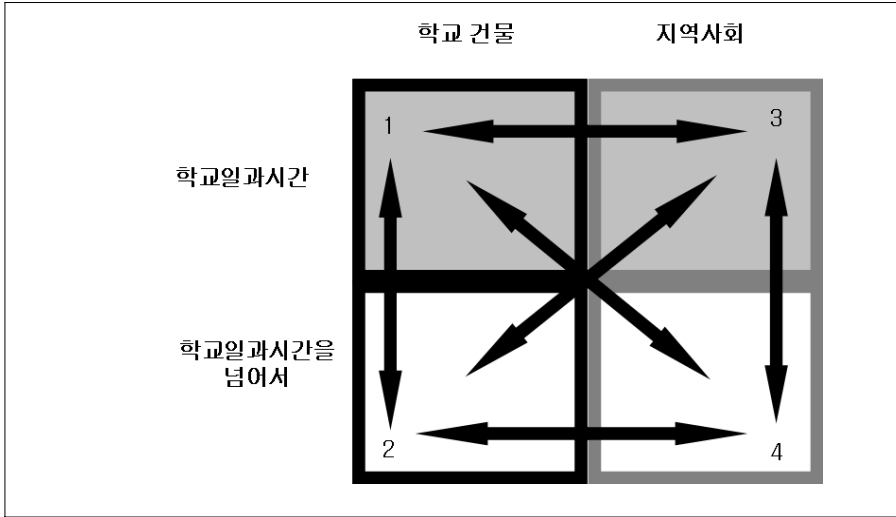
또한 청소년들은 직접 현장에서 체험을 하고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상황학습이론(situated learning theory)의 맥락에서도 중요성을 지닌다(Rogoff, 1990; Lave & Wenger, 1991; Lave, 1988; Brown et al, 1989). 상황학습 이론가들은 학교에서의 교육이 지나치게 형식화되어 일상생활의 실천 속에서 지식 습득 및 인지 발달과 괴리되어 온 측면에 대해서 지적하며, 다양한 사회현장에서 습득되는 지식에 초점을 맞추어 일상생활의 학습 과정에 주목할 것을 강조해 왔다.

(4) 학교 연계의 장

21세기에 들어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업역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들에 공감하고 있다. 학교는 더 이상 청소년들이 직업, 시민, 가족, 공동체 생활을 위해 확실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는 것은 학업적 지식을 넘어서서 도덕적, 신체적, 시민적, 사회적, 직업적 목표를 아우르는 기능을 포괄해

야 한다. 동시에 교육자, 정책입안자, 일반인들도 학교 일정과 학교 건물의 전통적 경계를 넘어서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학교는 모든 청소년들이 직업, 시민, 가족, 지역사회 생활로 이행하기 위해 준비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학교는 청소년들의 삶에 유일한 학습조직이 될 수 없으며 되어서도 안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경계는 점차 허물어져야 하며, 특히 학교 시간동안에 경계가 허물어져야 한다(Pittman, Irby, Yohalem, Wilsom-Ahlstrom, 2004, pp. 19-20). 결국 청소년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와의 연계는 필수적이며 학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Edmondson, 2000).

학교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점차 지역사회의 장(setting)들과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발달을 위한 새로운 장(setting)은 교육, 정보, 레크레이션에 주요 초점을 둔 지역사회의 공간들이 되고 있다. 박물관, 도서관, 동물원, 수족관 등은 일년에 한번 정도 방문하는 곳이거나 이러한 장소들은 머물기 보다는 지나가는 곳이었다. 하지만 근래에 청소년발달과 관련하여 이러한 장소들은 방문하여 그 안에서 공부도 하며 일도 하는 곳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장소들을 방문함으로써 통상적으로 만나왔던 교사나 상담자, 사회복지사들이 아닌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게 되고, 이들을 통하여 청소년들은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보상을 얻게 된다. 청소년들이 이러한 장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리적, 심리적, 문화적, 제도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함이 지적된다(Delgado, 2002). 다음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방안을 제시한다.



[그림 II-2] 학습을 위한 경계 허물기

출처: Pittman, Irby, Yohalem, Wilsom-Ahlstrom, 2004, p. 21.

영역 1에서는 학교 내부에서의 재조직화가 필요함을 제기한다. 기존의 시스템을 제고하고 학습에 보다 몰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영역 2에서는 학교 공간을 열어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 일과 시간 외의 중요한 시간 동안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역 3에서는 학교 일과 시간 중에도 학교 밖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함이 제기된다. 학교일과와 일과시간을 넘어서 학생들이 보다 많은 서비스와 학습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사업장, 대학, 사회서비스 기관, 지역사회 조직 등과의 연계가 모색되어야 한다. 영역 4에서는 비영리 조직들의 역할이 부각되어야 한다. 단순히 학교 교육과정을 보충할 뿐 아니라 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도 형식적·비형식적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Pittman, Irby, Yohalem, Wilsom-Ahlstrom, 2004). 결국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 및 단체들이 긴밀하게 연계될 때 청소년들의 역량이 충분히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배경으로 지역사회의 청소년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

도 기존의 수련활동이나 청소년활동의 좁은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이제 청소년관련법과 제도들은 수련활동의 범위를 넘어 더 넓은 범위의 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이전의 수련활동과 관련된 정책들이 학교 밖에서의 활동에 국한되는 경향이었다면 현재의 청소년활동 정책들은 학교의 특별활동이나 계발활동과의 연계를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활동 정책들이 수련활동에 국한된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정책목표를 정하고 활동정책의 정체성을 수립해야 하며 이러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활동진흥정책들을 효율적으로 담아내어야 할 것이다(홍영균, 2007).

Ⅲ. 청소년문화의집 이용현황 및 운영실태

1. 청소년문화의집 현황 조사
2.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실태 조사
3.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실태 조사

Ⅲ. 청소년문화의집 이용현황 및 운영실태

1. 청소년문화의집 현황 조사

1) 조사개요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자인 청소년 및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의 심층면담을 통해 문화의집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전에 청소년문화의집의 전반적인 이용 및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의 청소년문화의집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홈페이지의 정보를 토대로 하여 인터넷으로 주소 확인 후 직접 전화통화를 하였고 담당자와 연락을 하여 확인이 된 185개 청소년문화의집을 대상으로 조사지를 발송하였다. 조사 내용은 청소년문화의집의 시설현황 및 운영현황, 프로그램, 동아리, 운영위원회, 주요사업 현황 등이며 향후 바람직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방안 및 지역사회에서 생활공간으로서의 의미있는 청소년시설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방향성 모색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8년 8월부터 10월에 걸쳐 조사지를 회수하였고, 총 106개의 시설로부터 응답지를 회수하였다.

〈표 Ⅲ-1〉 설문조사 개요

조사대상	185개 청소년문화의집	
조사방법	전화 확인 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조사지 송부	
조사내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현황(위치, 규모, 주요 공간 배치), 운영현황(예산규모, 정규직원현황) - 프로그램 및 사업현황 - 청소년 이용 및 참여현황 - 지역사회 및 학교 연계 현황(지역사회의 시설, 단체와의 연계 현황, 학교와의 연계 현황 등) - 청소년운영위원회 현황 - 동아리 현황
	방향성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바람직한 시설운영을 위한 의견 수렴(예산지원방안, 적정 지도인력 수, 기능 및 역할 모색 방안) - 적극적인 청소년 참여를 위한 의견 조사 - 적극적인 지역사회 및 학교 연계를 위한 방안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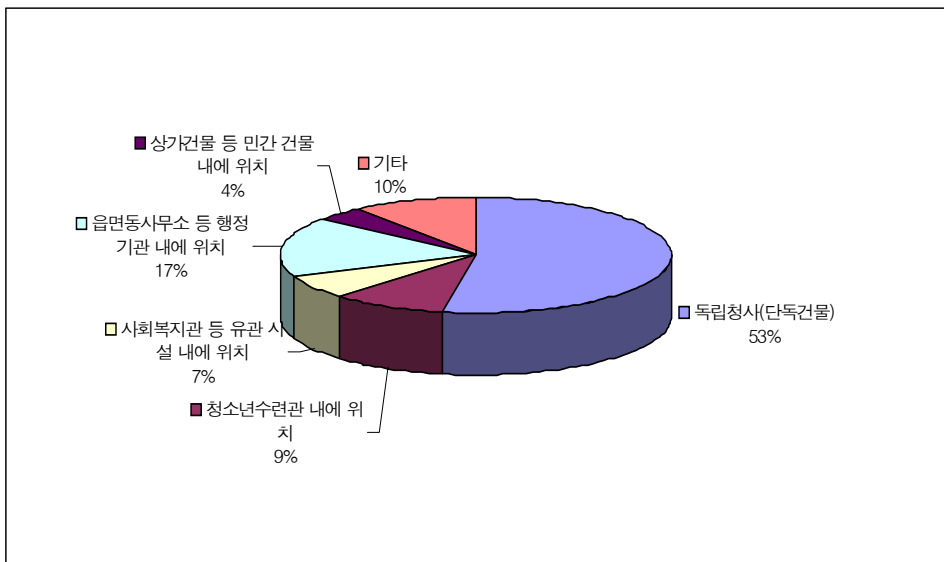
2) 조사결과

(1) 위치 및 지역 특성

청소년문화의집이 위치하고 있는 건물형태를 알아본 결과 단독 건물인 경우가 52.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행정기관 내에 위치한 경우였고, 그 다음으로 많은 형태가 청소년수련관에 위치한 경우였다.

<표 III-2> 문화의집이 위치하고 있는 건물 형태

구 분	개 소(%)
독립청사(단독건물)	56(52.8)
청소년수련관 내에 위치	10(9.4)
사회복지관 등 유관 시설 내에 위치	7(6.6)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 내에 위치	18(17.0)
상가건물 등 민간 건물 내에 위치	4(3.8)
기 타	11(10.4)
합 계	106(100)



[그림 III-1] 문화의집이 위치하고 있는 건물 형태

〈표 III-3〉 청소년문화의집 주변 지역사회의 도시 규모

구 분	개 소 (%)	
1) 지역구분	서울	9(8.5)
	광역시	17(16.0)
	중소도시	28(26.4)
	도농복합도시	19(17.9)
	농어촌	30(28.3)
	기 타	3(2.8)
	합 계	106(100)
2) 산업특성	농업지역	31(29.2)
	공업지역	8(7.5)
	상업지역	9(8.5)
	행정관청지역	4(3.8)
	주거지역	44(41.5)
	공원 및 자연녹지 지역	4(3.8)
	기 타	6(5.7)
	합 계	106(100)
3) 주거환경	아파트지역	8(7.7)
	개인주택지역	30(28.8)
	아파트와 개인주택 혼합	56(53.8)
	기 타	10(9.6)
	합 계	104(100)
4) 인구밀집도	인구밀집지역	14(13.6)
	인구적정지역	47(45.6)
	인구과소지역	39(37.9)
	기 타	3(2.9)
	합 계	103(100)
5) 경제생활수준	경제수준 높은 편	5(4.8)
	경제수준 보통	51(48.6)
	경제수준 낮은 편	49(46.7)
	합 계	105(100)

회수된 응답지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이 위치한 도시 규모를 살펴보면 서울이 8.5%, 광역시가 16%, 중소도시 26.4%, 도농복합도시 17.9%, 농어촌이 28.3%, 기타가 2.8%로 나타났다. 청소년문화의집이 위치한 지역의 산업 특성을 살펴보면 주거지역이 41.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농업지역 (29.2%)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문화의집 주변의 주거환경으로는 아파트와 개

인주택 혼합 지역이 5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개인주택지역으로 나타났다. 인구 밀집도를 보았을 때에는 인구 적정지역이 45.6%로 가장 많았으나 인구 과소지역도 37.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향후 청소년문화의집 위치 선정에 있어 시설의 접근성과 함께 인구 적정 지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지역의 경제생활 수준을 살펴보았을 때에는 경제수준이 보통인 곳에 위치한 시설이 48.6%였으며 경제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시설도 46.7%에 달하고 있다. 반면에 경제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시설은 4.8%에 불과하였다. 그에 따라 지역의 경제수준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활동 개발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운영 및 사업 특성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을 꾸려나가고 있는 직원수의 평균은 총 3.46명으로 나타났으며, 효율적인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직원수는 4.89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도시규모별로는 서울 지역의 직원수가 4.7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어촌은 2.4명으로 가장 작았다.

〈표 III-4〉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직원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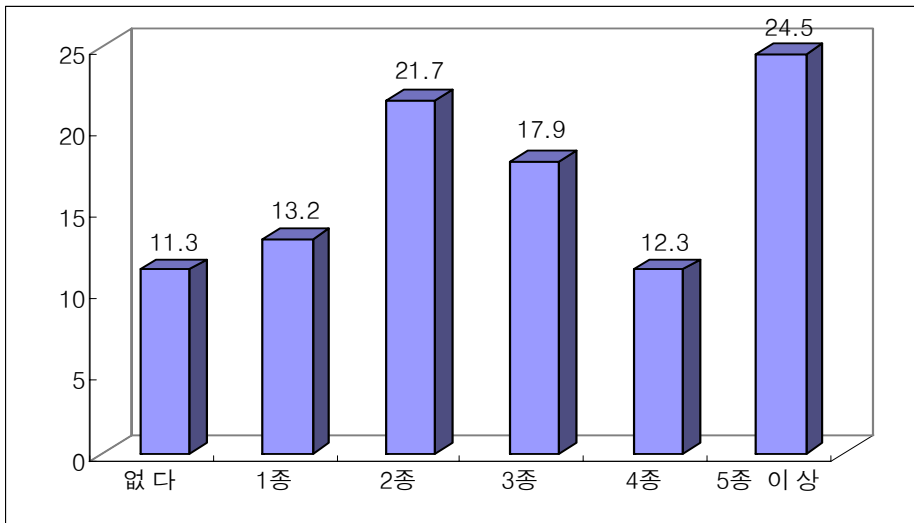
구 분	현재직원수	적정한 직원수
서울	4.78	5.89
광역시	4.11	5.68
중소도시	3.61	5.16
도농복합도시	3.84	5.29
농어촌	2.40	3.68
기 타	2.67	4.67
전 체	3.46	4.89

각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특성화된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5종 이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2종으로 나타났다. 없다는 응답도 11.3%로 나타나 문화의집 나름대로

특성화된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표 III-5> 특성화된 사업(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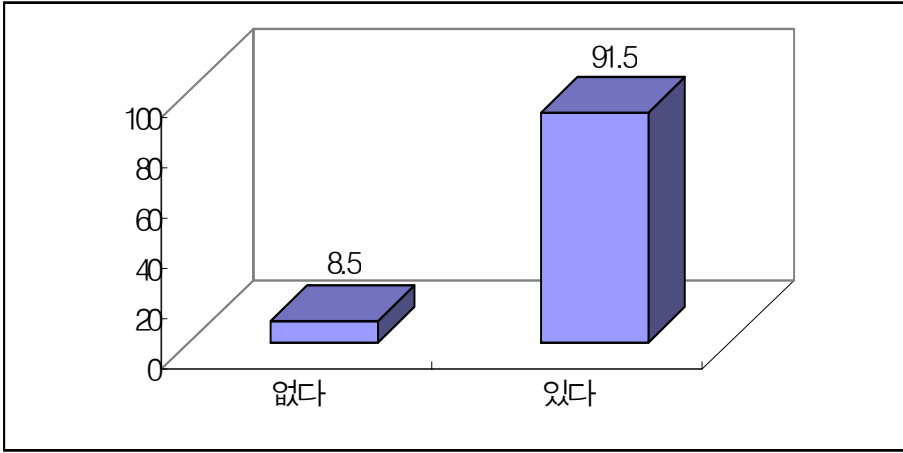
구 분	개소(%)
없다	12(11.3)
1종	14(13.2)
2종	23(21.7)
3종	19(17.9)
4종	13(12.3)
5종 이상	26(24.5)
합 계	106(100)



[그림 III-2] 특성화된 사업(프로그램) 개수

(3) 청소년 참여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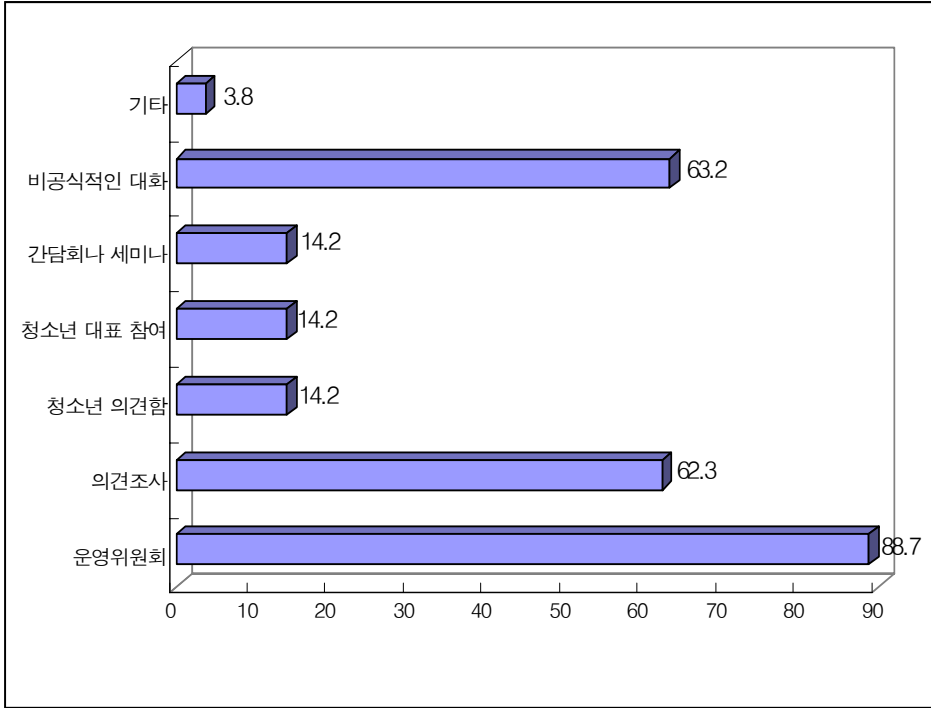
기관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청소년을 참여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을 참여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있다는 응답이 91.5%에 달하고 있는 반면에 없다는 응답도 8.5%로 나타나 이들 시설에서도 청소년 참여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Ⅲ-3] 기관운영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방안

청소년 참여 방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먼저 청소년운영 위원회가 있다는 시설이 88.7%에 이르고 있다. 청소년시설 운영과정에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이 법적으로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문화의집의 경우 운영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구성하여 가동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청소년들의 요구조사나 의견조사를 통해 청소년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는 시설은 62.3%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의견함 등을 설치하여 청소년 의견을 수렴한다는 의견은 14.2%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기관운영 및 프로그램 관련 각종 회의 등에 청소년 대표를 참여시키는 경향도 14.2%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청소년과 직원들간의 간담회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정도도 14.2%로 낮게 나타났다. 그에 따라 청소년들이 문화의집 활동이나 프로그램, 직원들과의 공식적 상호작용 기회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에 지도사와 청소년들과의 비공식적 대화를 통하여 청소년 의견을 수렴하는 경향은 63.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III-4] 청소년 참여 방식

<표 III-6> 청소년 참여 방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구 분	%
청소년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다	88.7
요구조사 또는 의견조사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62.3
청소년 의견함 등을 설치하여 청소년 의견을 수렴한다.	14.2
기관운영 및 프로그램 관련 각종 회의 등에 청소년 대표를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한다.	14.2
청소년들과 직원들간의 간담회나 세미나를 개최한다	14.2
청소년들과 비공식적인 대화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63.2
기 타	3.8

(4) 청소년 활동 및 이용 실태

① 동아리활동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구성한 자체 동아리의 평균 개수는 4.41개이고, 외부동아리로서 문화의집에서 활동하는 동아리는 5.49개로 나타났다. 동아리 회원수 평균은 각각 50여명과 66명 정도로 나타났다.

<표 III-7> 청소년 동아리활동 상황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구성한 자체 동아리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활동하는 학교 등 외부 동아리	
동아리수 (개)	회원수 (명)	동아리수 (개)	회원수 (명)
4.41	50.19	5.49	66.17

② 평균 이용자 수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평균 이용자 수 현황을 보았을 때 월평균 이용자수는 3,276명 정도로 나타났고, 연평균 이용자수는 40,932명 정도로 나타났다. 교급별 이용자 현황을 보았을 때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는 초등학생들의 이용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이용자 연령대에 맞는 활동과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차별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III-8>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청소년 현황

(단위: 명)

	월평균 이용자 수	연평균 이용자 수
초등학생 수	1,385.36	14,843.89
중학생 수	946.87	10,953.05
고등학생 수	762.47	8,940.96
전체(성인 등 포함)	3,276.13	40,932.96

③ 청소년의 접근성 및 욕구 반영 정도

청소년문화의집이 지역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

다고 생각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평균이 5점 만점에 3.04로 나타나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접근이 좋지 않다는 의견도 33.9%로 나타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설도 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문화의집 내부 시설과 공간 배치 등은 청소년들의 문화욕구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에 대해서도 평균이 2.95로 나타나 보통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도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25.5%나 나타나고 있어 청소년들의 문화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I-9> 접근성 및 청소년 욕구 반영 정도

(단위: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표준 편차
청소년들의 접근성	9.4	24.5	28.3	28.3	9.4	100	3.04	1.14
청소년들의 문화욕구 반영	5.7	19.8	50.0	22.6	1.9	100	2.95	.86

④ 공간 규모

청소년문화의집의 공간 규모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43.4%로 가장 많았지만, 매우 좁다와 좁다는 응답을 합하면 46.2%로 좁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응답은 청소년 면담과 운영자 및 지도사 면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듯이 동아리활동 공간의 부족 등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과 맞물린다.

<표 III-10> 공간규모

(단위: %)

구분	매우 좁다	좁다	보통 이다	넓다	매우 넓다	합계	평균	표준 편차
공간 규모	7.5	38.7	43.4	9.4	0.9	100	2.58	.80

⑤ 시설 배치

청소년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청소년문화의집의 시설 배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와 관련해서는 역시 보통이라는 응답이 36.8%로 나타났으며 적절치 않다는 응답도 33%(전혀 적절치 않다 2.8%, 적절치 않은 편이다 30.2%)로 나타나서 상당수의 문화의집이 청소년 이용자들의 이용 편리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1> 시설배치의 적절성

(단위: %)

구 분	전혀 적절치 않다	적절치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적절한 편이다	매우 적절하다	합계	평균	표준 편차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배치 적절성 정도	2.8	30.2	36.8	28.3	1.9	100	2.96	.88

⑥ 공간 활용도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의 공간 활용 정도는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높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높은 편이다와 매우 높다는 응답이 45.3%에 이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공간 활용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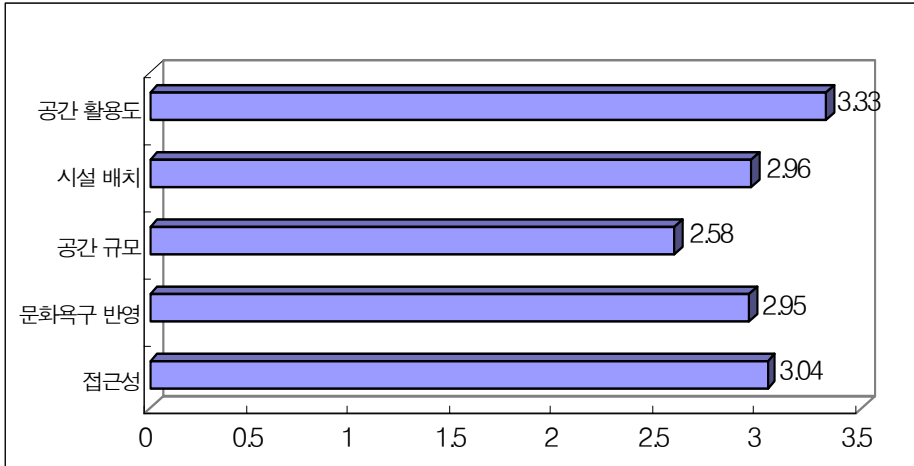
<표 III-12> 공간 활용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다	낮은 편이다	보통이다	높은 편이다	매우 높다	합계	평균	표준 편차
문화의집 공간 활용도	.9	17.0	36.8	38.7	6.6	100	3.33	.87

청소년문화의집의 공간활용도가 낮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항목이 시설공간별로 적절한 장비가 갖추어지지 못해서(36.8%)였고, 다음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적절한 인력 부족

(29.2%), 시설공간의 배치 부적절(21.7%) 등을 지적하였다.



[그림 III-5] 접근성·공간배치·청소년욕구 반영 정도

<표 III-13> 문화의집 공간 활용도가 낮은 이유(중복응답)

구분	개 소(%)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이 청소년들의 기호에 맞지 않아서	15(14.2)
시설공간의 배치가 부적절해서	23(21.7)
시설공간별로 적절한 장비가 갖추어지지 못해서	39(36.8)
시설공간을 활용해서 운영할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7(6.6)
프로그램을 운영할 적절한 인력이 부족해서	31(29.2)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수가 적어서	9(8.5)
기 타	9(8.5)

⑦ 이용시 불편 사항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면서 청소년들이 겪는 가장 불편한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가장 많은 응답은 관련자료나 장비의 노후로 고장이 났거나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것(38.7%)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방음시설이나 칸막이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집중이 힘들다(28.7%)는 응답이었으며, 비슷하게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27.4%)과 공간이 비좁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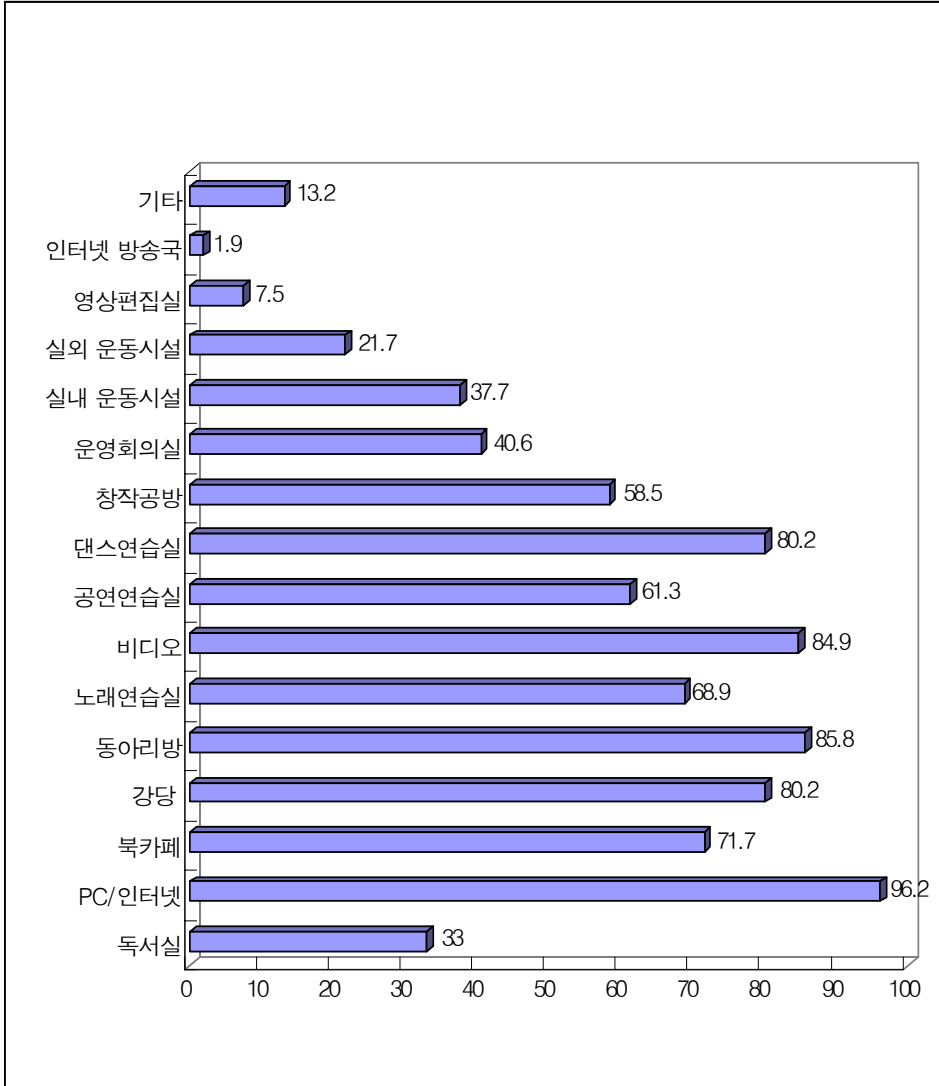
부족해서 활동하기 어렵거나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27.4%) 청소년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표 III-14〉 문화의집 이용시 가장 불편한 점(중복응답)

구 분	개소(%)
시설의 청결상태나 냉난방 상태가 좋지 않다	8(7.5)
청소년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29(27.4)
관련 자료나 장비가 너무 오래되거나 고장나서 이용하기 불편하다	41(38.7)
공간이 비좁고 부족해서 활동하기 어렵거나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다	29(27.4)
방음시설이나 칸막이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집중하기 힘들다	30(28.3)
이동거리가 멀다	19(17.9)
특별히 없다	8(7.5)
기 타	7(6.6)

⑧ 비치 시설 및 장비

청소년문화의집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나 공간 등을 알아보았는데 대부분의 시설에 공통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PC/인터넷 이용 공간(96.2%)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동아리방(85.8%), 비디오(DVD) 관람실(84.9%), 발표 및 행사 공간(80.2%), 댄스/춤 연습실(80.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의실이나 운동시설 등은 50% 미만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문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영상편집실이나 인터넷 방송국 등은 극히 적은 수의 시설에서 보유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향후 보다 특성화된 청소년활동을 위한 시설 및 공간 확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III-6] 문화의집에 설치되어 있는 공간 및 시설

<표 III-15> 문화의집에 설치되어 있는 공간 및 시설

구 분	개소(%)
독서실	35(33.0)
PC/인터넷 이용 공간	102(96.2)
북카페	76(71.7)
발표 및 행사 공간 (강당 등)	85(80.2)
동아리방	91(85.8)
노래연습실	73(68.9)
비디오(DVD) 관람실	90(84.9)
공연연습실(밴드 등)	65(61.3)
댄스/춤 연습실	85(80.2)
창작공방	62(58.5)
운영위원회 회의실	43(40.6)
실내 운동시설(탁구대, 포켓볼 등)	40(37.7)
실외 운동시설(농구대, 경기장 등)	23(21.7)
영상편집실	8(7.5)
인터넷 방송국	2(1.9)
기타	14(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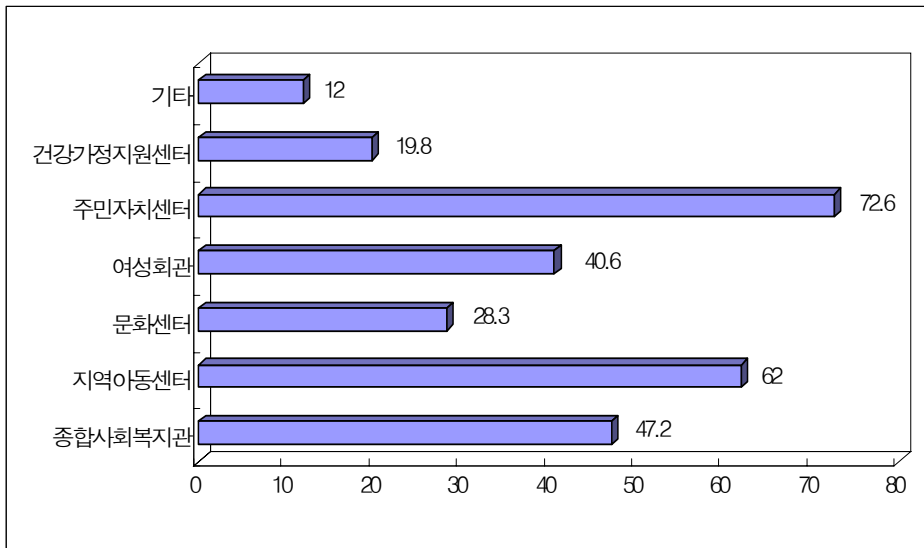
(5) 지역사회 연계 현황

① 유사시설과의 연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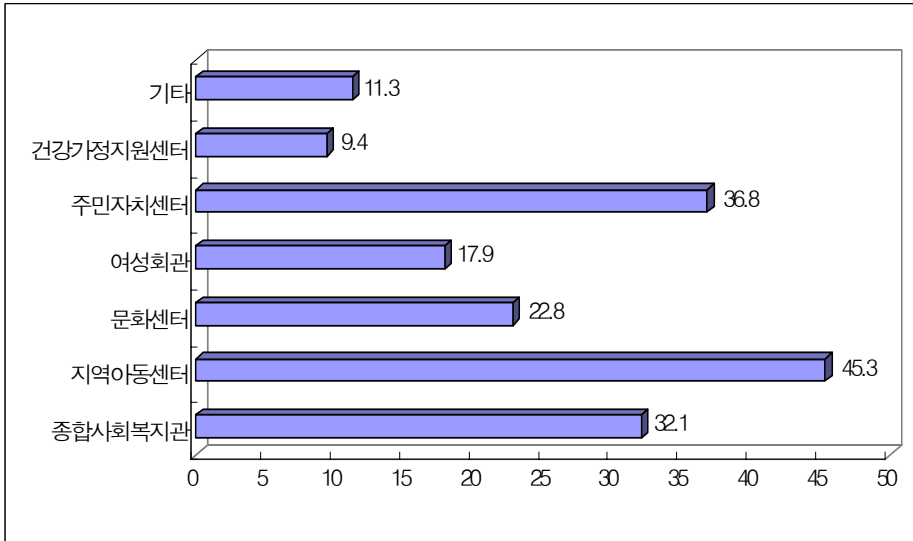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문화의집과 기능상 유사한 시설이 있는지, 또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는 어떠한지, 이 시설과 청소년문화의집이 연계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청소년문화의집과 유사한 시설로는 주민자치센터가 7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지역아동센터로 62%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는 지역아동센터가 45.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주민자치센터로 36.8%였다. 이러한 유사시설과의 연계정도는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가 36.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주민자치센터로 23.6%로 나타났다.

<표 III-16> 해당 지역 내에 청소년문화의집과 유사한 서비스 제공 시설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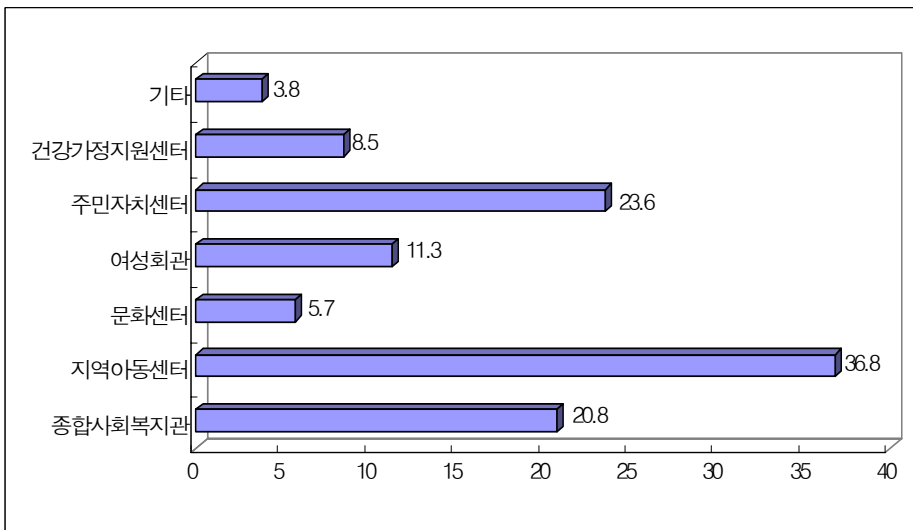
시설종류	시설유무	유사 서비스 제공 여부	연계 유무
종합사회복지관	47.2	32.1	20.8
지역아동센터	62.0	45.3	36.8
문화센터	28.3	22.8	5.7
여성회관	40.6	17.9	11.3
주민자치센터	72.6	36.8	23.6
건강가정지원센터	19.8	9.4	8.5
기타	12.0	11.3	3.8



[그림 III-7] 지역사회내 유사시설 존재 여부



[그림 III-8] 지역사회내 유사시설의 유사서비스 제공 여부



[그림 III-9] 지역사회내 유사시설과의 연계 여부

② 학교와의 연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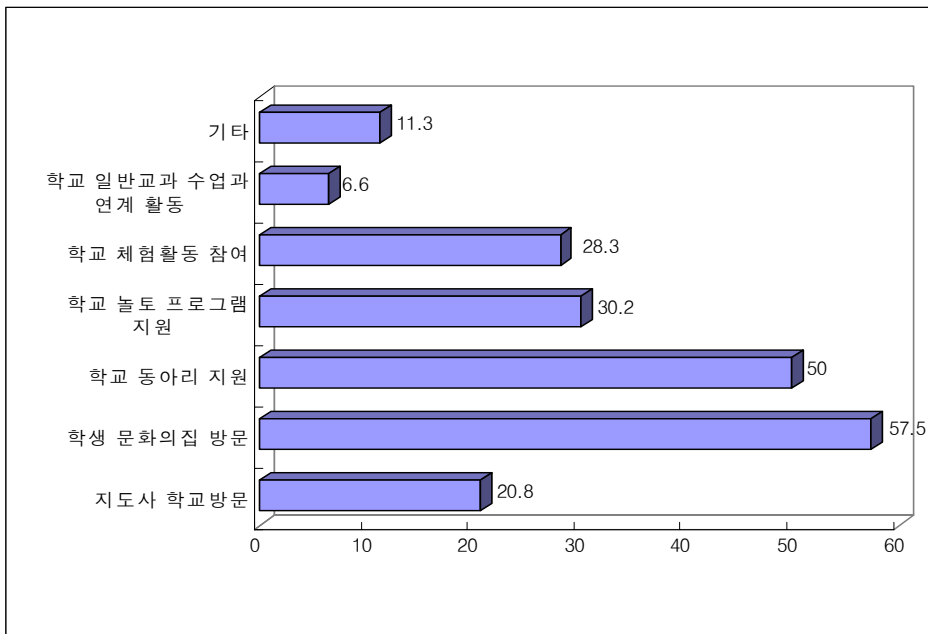
청소년문화의집의 지역 학교와의 연계정도를 알아보았는데 초, 중, 고등학교

교와의 연계정도는 각각 평균 2개 이상 3개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향후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와의 연계 정도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표 III-17〉 연계하고 있는 학교 및 학생수 현황

구 분	학교수 (개소)	학생수 (명)
초등학교	2.52	509.22
중학교	2.93	425.13
고등학교	2.28	356.69

현재 청소년문화의집과 학교가 연계 하는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생들이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와서 특별활동이나 CA활동을 하는 경우가 57.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 동아리활동을 지원하는 경우가 50%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반면에 학교의 놀토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30.2%로 나타나, 향후 학교와 토요일업일 연계 방안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III-10] 학교와의 연계 현황

〈표 III-18〉 학교와 연계하고 있는 사업

구 분	개소(%)
청소년문화의집 지도사가 학교로 찾아가서 학교의 특활이나 CA 활동 지원	20.8
학생들이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로 와서 특활이나 CA활동 등 수행	57.5
학교의 동아리활동 지원	50.0
학교의 놀토 프로그램 운영 지원	30.2
학교의 체험활동 프로그램 참여	28.3
학교의 일반교과 수업과 연계하여 활동 지원	6.6
기타	11.3

3) 요약 및 소결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자인 청소년 및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청소년지도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문화의집 이용실태를 파악하는 것과 함께 전반적인 이용 및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위치 및 지역 특성

청소년문화의집이 위치하고 있는 건물형태를 알아본 결과 단독 건물인 경우가 52.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행정기관 내에 위치한 경우였고, 그 다음으로 많은 형태가 청소년수련관에 위치한 경우였다.

청소년문화의집이 위치한 지역의 산업 특성을 살펴보면 주거지역이 41.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농업지역(29.2%)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문화의집 주변의 주거환경으로는 아파트와 개인주택 혼합 지역이 5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개인주택지역으로 나타났다. 인구 밀집도를 보았을 때에는 인구 적정지역이 45.6%로 가장 많았으나, 인구 과소지역도 37.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향후 청소년문화의집 위치 선정에 있어 시설의 접근성과 함께 인구 적정 지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지역의

경제생활 수준을 살펴보았을 때에는 경제수준이 보통인 곳에 위치한 시설이 48.6%였으며 경제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시설도 46.7%에 달하고 있다. 반면에 경제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시설은 4.8%에 불과하다. 그에 따라 지역의 경제수준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활동 개발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운영 및 사업 특성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을 꾸려나가고 있는 직원수의 평균은 총 3.46명으로 나타났으며, 효율적인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직원수는 4.89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각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특성화된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5종 이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2종으로 나타났다. 없다는 응답도 11.3%로 나타나 문화의집 나름대로 특성화된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 청소년 참여 실태

기관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청소년을 참여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을 참여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있다는 응답이 91.5%에 달하고 있는 반면에 없다는 응답도 8.5%로 나타나 이들 시설에서도 청소년참여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참여방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먼저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다는 시설이 88.7%에 이르고 있다. 반면에 기관운영 및 프로그램 관련 각종 회의 등에 청소년 대표를 참여시키는 경향은 14.2%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청소년과 직원들간의 간담회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정도도 14.2%로 낮게 나타났다. 그에 따라 청소년들이 문화의집 활동이나 프로그램, 직원들과의 공식적 상호작용 기회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4) 청소년 활동 및 이용 실태

① 동아리활동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구성한 자체 동아리의 평균 개수는 4.41개이고, 외부동아리로서 문화의집에서 활동하는 동아리는 5.49개로 나타났다. 동아리 회원수 평균은 각각 50여명과 66명 정도로 나타났다.

② 평균 이용자 수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평균 이용자 수 현황을 보았을 때 월평균 이용자수는 3,276명 정도로 나타났고, 연평균 이용자수는 40,932명 정도로 나타났다. 교급별 이용자 현황을 보았을 때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는 초등학생들의 이용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이용자 연령대에 맞는 활동과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차별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③ 청소년의 접근성 및 욕구 반영 정도

청소년문화의집이 지역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평균이 5점 만점에 3.04로 나타나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접근이 좋지 않다는 의견도 33.9%로 나타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설도 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문화의집 내부 시설과 공간 배치 등은 청소년들의 문화욕구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에 대해서도 평균이 2.95로 나타나 보통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도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25.5%나 나타나고 있어 청소년들의 문화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④ 공간 규모

청소년문화의집의 공간 규모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43.4%로 가장 많았지만 매우 좁다와 좁다는 응답을 합하면 46.2%로 좁다는 응답이 가

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응답은 청소년 면담과 운영자 및 지도사 면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듯이 동아리활동 공간의 부족 등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과 맞물린다.

⑤ 시설 배치

청소년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청소년문화의집의 시설 배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와 관련해서는 역시 보통이라는 응답이 36.8%로 나타났다. 적절치 않다는 응답은 33%(전혀 적절치 않다 2.8%, 적절치 않은 편이다 30.2%)로 나타나서 상당수의 문화의집이 청소년 이용자들의 이용 편리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⑥ 공간 활용도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의 공간 활용 정도는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공간 활용도가 높은 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청소년문화의집의 공간 활용도가 낮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항목이 시설공간별로 적절한 장비가 갖추어지지 못해서(36.8%)였고, 다음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적절한 인력 부족(29.2%), 시설공간의 배치 부적절(21.7%) 등을 지적하였다.

⑦ 이용시 불편 사항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면서 청소년들이 겪는 가장 불편한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가장 많은 응답은 관련자료나 장비의 노후로 고장이 났거나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것(38.7%)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방음시설이나 칸막이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집중이 힘들다(28.3%)는 응답이었으며, 비슷하게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27.4%)과 공간이 비좁거나 부족해서 활동하기 어렵거나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27.4%) 청소년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⑧ 비치 시설 및 장비

청소년문화의집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나 공간 등을 알아보았는데 대부분의 시설에 공통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PC/인터넷 이용 공간(96.2%)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동아리방(85.8%), 비디오(DVD) 관람실(84.9%), 발표 및 행사 공간(80.2%), 댄스/춤 연습실(80.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의실이나 운동시설 등은 50% 미만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문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영상편집실이나 인터넷 방송국 등은 극히 적은 수의 시설에서 보유하고 있었다.

(5) 지역사회 연계 현황

① 유사시설과의 연계 현황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문화의집과 유사한 시설이 있는지, 또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는 어떠한지, 연계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청소년문화의집과 유사한 시설로는 주민자치센터가 72.6%로 가장 많았고, 반면에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와 연계정도는 지역아동센터가 가장 많았다.

② 학교와의 연계 현황

청소년문화의집의 지역 학교와 연계정도를 알아보았는데 초, 중, 고등학교와의 연계정도는 평균 2개 이상 3개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향후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와의 연계 정도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현재 청소년문화의집과 학교가 연계 하는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생들이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와서 특별활동이나 CA활동을 하는 경우가 57.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 동아리활동을 지원하는 경우가 50%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반면에 학교의 놀토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30.2%로 나타나, 향후 학교와 토요일업일 연계 방안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실태 조사

1) 조사개요

(1) 심층면담

청소년들의 청소년문화의집 이용현황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시설을 선정하여 각 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으로는 2007년 실시된 청소년문화의집 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A등급을 받은 23개의 시설 중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을 안배하여 총 12개의 시설²⁾을 선정하였다. 각 시설별로 동아리활동, 운영위원회 활동, 단순이용자, 프로그램 참가자 등을 포함하여 5-15명의 청소년들을 면담하고, 시설이용 계기, 시설이용의 의미, 시설이용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 향후 개선방안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면담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총 107명이며, 각 시설별 면담참가자들의 특성은 아래의 <표 III-19>와 같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속하는 시설 5개에서 모두 40명이 참가하였으며(DD청소년문화의집 5명, BB청소년문화의집 7명, SD청소년문화의집 9명, YT청소년문화의집 15명, DS청소년문화의집 4명), 지방의 중소도시에 속하는 시설 5개에서 모두 47명이 참가하였다(GYT청소년문화의집 8명, CC청소년문화의집 8명, IS청소년문화의집 10명, 전주YS청소년문화의집 10명, MS청소년문화의집 11명). 군읍면지역의 2개의 청소년문화의집에서 20명의 청소년이 면담에 참가하였다(DY청소년문화의집 10명, GSG청소년문화의집 10명).

면담시간은 대략 30분에서 2시간 이내로 진행되었으며,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활동을 참관한 후 혹은 활동 참가 전에 이루어졌다. 면담진행을 위해서는 연구책임자 외에 9명의 면담보조요원이 투입되었다.

면담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여자가 65명, 남자가 42명이었으며, 청소년 연령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했다. 청소년문화의집 이용기

2) 연구 대상 시설 현황에 대한 설명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간은 1년 이내부터 9년 까지였으며, 이용거리로 보면 걸어서 20분 이내가 33명이었으며, 버스로 1시간 30분이 걸리는 청소년도 있었다.

<표 III-19> 면담참가 청소년 현황

시설	이름	성별	학년	문화의집 이용 및 활동내역	이용기간	이용계기	이용거리	비고	
수도권 대도시	SD 청소년 문화의 집 (9명)	윤홍상	남	고2	청소년운영위원회, 독서실, 청운위방	중3때 부터	친구	걸어서 8분	청소년운영위원회 (부회장)
		이근현	남	고2	청소년운영위원회, 봉사동아리, 독서실, 청운위방	중3때 부터	청소년 지도사	걸어서 7분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 봉사동아리(회장)
		최지현	여	고3	청소년운영위원회, 리폼동아리, 독서실, 청운위방	고2때 부터	친구	버스 1시간 30분	청소년운영위원회 (명예위원), 리폼동아리
		남o정	여	고3	청소년운영위원회, 독서실, 청운위방	고1때 부터	학교선배	걸어서 13분	청소년운영위원회 (명예위원)
		김지민	여	재수 생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학리더, 헬스클럽, 독서실, 청운위방	고2때 부터	친구	걸어서 5분	대학리더
		조홍정	여	대1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학리더, 독서실, 청운위방	고2때 부터	친구	버스 20분	대학리더
		김수현	여	고3	청소년운영위원회, 독서실, 청운위방	고1때 부터	학교선배	걸어서 10분	청소년운영위원회 (명예위원)
		박지현	남	고2	청소년운영위원회, 독서실, 북카페, 청운위방	고1때 부터	친구	걸어서 10분	청소년운영위원회
		최지중	남	고2	청소년운영위원회, 봉사동아리, 독서실, 청운위방	중3때 부터	친구	걸어서 20분	청소년운영위원회

시설	이름	성별	학년	문화의집 이용 및 활동내역	이용기간	이용계기	이용 거리	비 고	
수도권 대도시	BB 청소년 문화의 집 (7명)	박하배	남	고2	동아리활동 트러스트 봉사단 독서실, 포켓, 컴퓨터 등 이용	초5때부터	친구	걸어서	트러스트 회장
		김지영	여	고1	동아리활동 청소년인권동아리 (다같이)	중3때부터	어머님 (홍보지)	버스 (반포동)	청소년인권동아리 회장
		최희희	여	대1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학교1학년 때부터	대학교선 배	버스 (역삼동)	청소년운영위원회
		김지수	여	고3	청소년운영위원회 독서실, 컴퓨터, 포켓 등 이용	중2때부터	친구		청소년운영위원회 부회장
		백추언	남	고2	동아리활동 BBYC(천사랑), 상담실, 컴퓨터, 만화책 등 이용	고1때부터	친구	버스 10분	천사랑 회장
		안지호	남	고3	청소년운영위원회, 독서실, 컴퓨터, 포켓 등 이용	중1때부터	친구	버스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장
		김지영	여	고3	청소년운영위원회 상담실, 독서실, 컴퓨터, 만화책 등 이용	중1때부터	친구	걸어서 다니다 우면동으로 이사 후 버스	청소년운영위원회 부회장
	DD 청소년 문화의 집(5명)	임오진	여	고3	동아리활동 힙합(RS)밴드동아 컴퓨터, 노래방 등 이용	고1때부터	동아리 (선배오빠)	걸어서 5~10분	동아리 연합회 노나메기 회장
		김미정	여	고2	동아리활동 그림비	고1때부터	동아리 (학교 동아리)	버스 30분	그림비 회장
		박지영	남	대1	청소년운영위원회, 노래방, 컴퓨터 등 이용	초3~4때부터	호기심	버스	모도리(청소년운 영위원회 위원장)
		김희정	여	고2	동아리활동 그림비	고1때부터	동아리 (학교 동아리)	버스 30분	그림비(동아리)
		신지희	여	고1	동아리활동 만화동아리 군만연, 만화책, 컴퓨터 등 이용	초2때부터	우연히	걸어서	군만연(동아리)

시설	이름	성별	학년	문화의집 이용 및 활동내역	이용기간	이용계기	이용 거리	비 고	
수도권 대도시	YT 청소년 문화의 집 (15명)	김사라	여	중3	CA레크댄스, DVD, 컴퓨터	중1때 부터	동아리	버스 40분	
		송하림	여	중3	CA레크댄스, 노래방,DVD, 도서, 인터넷	중3때 부터	CA활동	버스 10분	
		전지영	여	고2	사이닝스타 동아리, DVD, 노래방	중1때 부터	학교 선배	걸어서 20분	사이닝 스타 동아리, 동아리 협의회 회장
		전비미	여	고2	사이닝스타 동아리, 댄스연습실, 거울, 카세트, 노래방, 도서	고1때 부터	인터넷	버스 40분	사이닝 스타 기장
		양도희	남	중3	박치기 동아리, 마이크, 앰프, 컴퓨터, 노래방, 탁구	중2때 부터	동아리 형	버스 30분	박치기 동아리
		정모욱	남	대4	봉사활동(프로그램 문화학교), 댄스 연습실	대4때 부터	동아리	버스 1시간10분	
		방비철	남	중2	프로그램 참가 (회원의날 직업체험) 컴퓨터, DVD, 도서	초6때 부터	친구	걸어서 15분	
		홍희희	여	중3	아망기자단, 도서	중2때 부터	언니	버스 30분	아망기자단 기장
		김희진	여	고2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의실, 컴퓨터, 노래방	고2때 부터	학교선배	버스 15분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장)
		남하근	남	중2	청소년운영위원회, 컴퓨터, DVD, 회의실	중1때 부터	어머니	부모님께 서 태워다 주심, 버스	청소년운영위원회
		신버근	남	중3	청소년운영위원회, 탁구, 컴퓨터, DVD, 도서, 회의실	초6때 부터	친구	걸어서 10-15분	청소년운영위원회

	시설	이름	성별	학년	문화의집 이용 및 활동내역	이용기간	이용계기	이용 거리	비 고
수도권 대도시	YT 청소년 문화의 집 (15명)	김하수	남	중2	청소년운영위원회, 컴퓨터, 노래방, 도서, 회의실	초4때 부터	친구 생일 때 부모님과 외서 알게 됨	걸어서 30분(버스 10-15분)	청소년운영위원회
		이재은	여	고2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의실	고2때 부터	친구	버스 45분	청소년운영위원회
		전홍은	여	고2	청소년운영위원회, DVD	고2때 부터	친구	1시간 (버스30분 +걸어서 30분)	청소년운영위원회
		김지혜	여	고2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의실, 컴퓨터	고2때 부터	친구	버스 30-40분	청소년운영위원회
	DS 청소년 문화의 집 (4명)	진하령	여	고1	청소년운영위원,동 아리 연습실, 청운위방	중2때 부터	동아리 연습실 사용	버스 10분	청소년운영위원회 (기획부장)
		박은주	여	고1	청소년운영위원, 동아리 연습실, 청운위방	중2때 부터	친구	걸어서	청소년운영위원회
		이혜경	여	초4	프로그램(비아올린, 발레), 놀토 장터	초4때 부터	언니, 엄마	걸어서 10분	
		지은진	여	고2	도서, 컴퓨터, 문화창작실, 다용도실	중3때 부터	아는 오빠, 친구, 학교선생님 소개	걸어서 10분	코스프레 동아리
중소 도시	GYT 청소년 문화의 집 (8명)	김하정	여	중3	동아리방, 컴퓨터, 포켓볼, 노래방	중2때 부터	학교동아리 선배	버스 10분	
		한홍지	여	중3	동아리방, 컴퓨터	중1때 부터	학교동아리 선배	버스 10분	
		김하기	남	고2	청소년운영위원회, 포켓볼, 노래방, 동아리방	고2때 부터	인터넷 검색	버스 10분 ~15분	청소년운영위원
		서혜영	여	고2	청소년운영위원회, 도서, 노래방, 다목적실(피아노)	고2때 부터	학교 공문 통해서	버스 5-10분	청소년운영위원(위원장)
		손혜영	여	초6	도서, DVD, 게임, 놀토체험프로그램	초4때 부터	가족소개 (문화의집 관련된 분계심)	버스 4-50분	

시설	이름	성별	학년	문화의집 이용 및 활동내역	이용기간	이용계기	이용 거리	비 고		
중소 도시	GYT 청소년 문화의 집 (8명)	손서희	여	초6	도서, 게임, 놀이체험프로그램	초5때	친구	버스 4~50분		
		이기희	남	중2	노래방, 컴퓨터, 포켓볼, DVD	초6때 부터	농구장 이용하다 알게 됨.	걸어서 5분		
		전오수	남	초6	인터넷, 노래방, 보드게임, 동아리방,DVD	초3때 부터	아는 동생	걸어서 5분	노래 동아리	
	CC 청소년 문화의 집 (8명)	김오철	남	고3	밴드연습실	고2때 부터	밴드친구	걸어서 10분		
		고오한	남	고3	동아리방	고3때 부터	친구	걸어서 20분		
		김재훈	남	고3	밴드연습실, 노래방, 동아리방,	고1때 부터	동아리	걸어서40 분		
		함사균	남	고3	공연연습실	고2때 부터	친구	택시 10분		
		서오재	남	고2	강의실, 프로그램참여, 빔프로젝트	고2때부터	학교선생님 추천	버스 20분		
		유사은	여	중1	컴퓨터, 프로그램 참여	초6때 부터	학교선생님 추천	걸어서 20~30분		
		정홍봉	남	고2	동아리활동, 밴드연습실, 프로그램참여 (금연캠프), 컴퓨터	중1, 2때 부터	미술배우러 외서	택시 10분	동아리활동	
		홍초기	남	초6	프로그램참여 (드럼), 컴퓨터	초6때 부터	아빠친구	부모님 차 20분		
		김홍우	남	중1	프로그램참여 (체험활동), DVD, 컴퓨터	초4때 부터	엄마친구	부모님차		
	서지욱	남	중1	컴퓨터, DVD	중1때 부터	교회갔다 들림	걸어서 45분			
	중소 도시	IS 청소년 문화의 집 (10명)	최홍성	남	고2	댄스동아리 오디오장치, 댄스연습실, 탁구대, 당구, 컴퓨터	고1때 부터	동아리선배	버스 10분	댄스동아리

	시설	이름	성별	학년	문화의집 이용 및 활동내역	이용기간	이용계기	이용 거리	비 고
중소 도시	IS 청소년 문화의 집 (10명)	황지용	남	고2	댄스동아리 댄스연습실, 탁구대, 당구, 컴퓨터	고1때 부터	동아리선배	버스 30분	댄스동아리
		한기희	남	고1	댄스동아리 댄스연습실, 탁구대, 당구, 컴퓨터	고1때 부터	동아리선배	택시 10분	댄스동아리
		정기은	여	고2	댄스연습실	고2때 부터 (이날 처음 왔음)	친구	버스 15분	
		양지수	여	고2	댄스연습실	고2때부터 (이날 처음 왔음)	친구	버스 30분	
		이기화	여	고2	문학동아리, 펍, 탁구	고2때 부터	동아리선배	걸어서 10분	문학동아리
		문지예	여	고2	문학동아리	고2때 부터	동아리선배	걸어서 20분	문학동아리
		김오란	여	고2	문학동아리	고2때 부터	동아리선배	택시 5분	문학동아리
		이시미	여	대1	청소년운영위원회, 노래방, 펍	중1때 부터	학원선생님	걸어서 10분	청소년운영위원회
		송차람	여	대1	청소년운영위원회, 탁구장, 농구장, 도서	중2때 부터	친구	걸어서 5분	청소년운영위원회
	YS 청소년 문화의 집 (10명)	최시아	여	고2	동아리활동, 컴퓨터, 댄스연습실	초등학교 때 부터	동아리선배	버스 30분	동아리활동
		이초원	여	고2	동아리활동, CD나 엠프, 댄스연습실	고1때 부터	동아리선배	버스 15분	동아리활동
		서희	여	고1	동아리활동, 밴드연습실	중2때 부터	친구	버스 30~ 40분	동아리활동

	시설	이름	성별	학년	문화의집 이용 및 활동내역	이용기간	이용계기	이용거리	비고
중소 도시	YS 청소년 문화의 집 (10명)	이오람	여	고1	동아리활동, 밴드연습실, 기타	고1때 부터	친구	버스 30~40분	동아리활동
		김홍술	여	고1	동아리활동, 댄스연습실, 엠프	고1때 부터	학교 동아리	걸어서 5분	동아리활동
		강사하	여	고1	동아리활동, 댄스연습실, 엠프	고1때 부터	학교 동아리	버스 20분	동아리활동
		김노리	여	고1	동아리활동, 댄스연습실, 엠프	고1때 부터	학교 동아리	버스 20분	동아리활동
		김지성	남	고2	동아리활동, 공연연습실, 엠프, 악기	고1때 부터	동아리 선배	버스 30분	동아리활동
		김오중	남	고2	동아리활동, 공연연습실, 엠프, 악기	고1때 부터	동아리 선배	버스 20분	동아리활동
		최이규	남	고1	동아리활동 공연연습실, 엠프, 악기	고1때 부터	동아리 선배	버스 20분	동아리활동
	MS 청소년 문화의 집 (11명)	지지혜	남	고2	청소년운영위원회, 사물동아리, 사물놀이 장비, 컴퓨터	고1때 부터	친구	버스 20분	청소년운영위원회, 사물동아리 해달(총무)
		김지수	여	고1	만화동아리, 북카페	중1때 부터	언니	걸어서 20분	만화동아리 (부회장)
		김기백	남	고2	청소년운영위원회, 만화동아리, 북카페, 컴퓨터, 동아리방	고1때 부터	친구	버스 30분	만화동아리 (회장)
		김기백	여	고1	영상동아리, 프로그램(영상미디어 교육), 컴퓨터, 편집실	고1때 부터	홍보포스터	버스 30분	영상동아리 활동
		곽기은	여	고1	영상동아리, 프로그램 (영상미디어 교육), 편집실, 카메라	고1때 부터	친구	버스 15~20분	영상동아리 활동
		천오현	여	고1	영상동아리, 프로그램(영상 미디어 교육), 멀티미디어실, 컴퓨터	고1때 부터	학교 선배	부모님차 0분	영상동아리 활동

	시설	이름	성별	학년	문화의집 이용 및 활동내역	이용기간	이용계기	이용 거리	비 고
중소 도시	MS 청소년 문화의 집 (11명)	김지빈	남	고2	청소년운영위원회, 댄스동아리, 음향기기, 컴퓨터, 탈의실, 댄스연습실		친구	버스 20분	청소년운영위원회, 댄스동아리 (스펠비렐로우즈)
		정사한	남	고2	청소년운영위원회, 댄스동아리, 연습실		친구	버스 30분 +걸어서10 분	청소년운영위원회, 댄스동아리 (게토비보이즈 리더)
		김하나	여	고1	댄스동아리, 연습실, 컴퓨터	고1때 부터	동아리	버스 10분	댄스동아리 (쉐도우)
		김홍술	여	고1	댄스동아리, 앰프, 연습실	중학교 때 부터		버스 1시간	댄스동아리
		라비라	여	고1	댄스동아리, 연습실		동아리	걸어서10 분+ 버스10분	댄스동아리 (쉐도우)
중소 도시	DY 청소년 문화의 집 (10명)	김혜인	여	고2	아이밴드동아리, 다목적실(드럼, 앰프), 노래방, 컴퓨터	고1때 부터	동아리	버스 20분	아이밴드동아리 보컬
		조희	여	고1	댄스동아리 컴퓨터, 비디오방	초6때 부터	친구	버스 15분	댄스동아리
		서지리	여	고1	비디오방, 컴퓨터, 독서실	초4때 부터	친구	걸어서 15분	
		장미리	여	고3	청소년운영위원회, 댄스동아리 독서실, 연습실 비디오방, 프로그램(패러글라 이딩, 수상스키)	중고등학 교때	친구	버스 20분	청소년운영위원 (위원장), 댄스동아리
		홍리주	여	중2	비디오방, 컴퓨터, 프로그램(스포츠 댄스 잠깐 활동)	초2때 부터	오빠	걸어서 10분	
		홍소호	남	고3	댄스동아리, 프로 그램(수상스키, 한승이마을체험), 컴퓨터, 당구장,	중2때 부터	친구	버스 10분	댄스동아리

	시설	이름	성별	학년	문화의집 이용 및 활동내역	이용기간	이용계기	이용 거리	비 고
군·읍· 면지역	DY 청소년 문화의 집 (10명)	송☐희	여	고1	프로그램 (열린음악회), 당구대, 컴퓨터 비디오방		친구랑 놀러와서	걸어서 3분	
		김☐주	여	고1	카페테리아, 컴퓨터, 비디오방	고1때 부터	친구	버스 2분	
		김☐제	여	고2	컴퓨터, 당구	초5때 부터		2분	
		유☐환	남	고2	댄스동아리, 춤연습실, 도서실	초5때 부터		걸어서 20분	댄스동아리
	GSG 청소년 문화의 집 (10명)	조☐희	여	중2	방송댄스동아리, 컴퓨터, 강당	중1때 부터	아빠	걸어서 5분	동아리활동
		오☐아	여	중1	방송댄스동아리, 공연연습실, 컴퓨터	초6때 부터	친구	걸어서 40분	동아리활동
		조☐영	남	초6	컴퓨터, 프로그램만 참가 (오리왕프로그램)	초4때 부터	누나	걸어서 5분	
		정☐수	남	중3	청소년운영위원회, 컴퓨터, DVD	7살 때 부터	친구	버스 5~10분	예전에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함.
		박☐름	여	중2	댄스동아리, 공연연습실, 컴퓨터, DVD	초6때 부터	엄마	걸어서 40분	댄스동아리
		최☐훈	남	고2	청소년운영위원회, 봉사동아리, 오디오방, 컴퓨터, DVD, 독서방	고1때 부터	청운위회장 홍보	걸어서 3분	봉사동아리
		백☐등	남	중2	청소년운영위원회, DVD,	중2때 부터	학교 선생님 추천	걸어서 20~ 30분	청소년운영위원회
		이☐지	여	고3	청소년운영위원회, 봉사동아리, 회의실, 컴퓨터, 전화, 북카페	고1때 부터	학교선생님 추천	걸어서 15분	청소년운영위원회 (작년 부회장), 봉사동아리(회장) 2개
		황☐길	남	중3	청소년운영위원회	중2때 부터	학교 선생님	버스 10~ 20분	청소년운영위원회
		최☐덕	남	중3	청소년운영위원회, 컴퓨터, DVD	초6때 부터	지나가다 들림	걸어서 30분	청소년운영위원회

(2) 참여관찰

심층면담과 함께 권역별, 유형별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들의 주요 일과 및 청소년 활동에 대한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문화의집 내부의 공간 및 시설 이용방식, 프로그램 진행, 운영위원회 및 동아리활동 진행과정에 대해 참여관찰하였다. 참여관찰은 청소년 면담자료의 보충자료로 활용되었다. 청소년들이 시설이용의 의미, 시설이용과정에서 겪는 긍정적 변화와 시설 이용상의 어려움 등에 대한 언술자료와 함께 직접 활동 참여 과정을 참관함으로써 언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선정된 시설을 중심으로 총 3-4일 동안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활동 진행 과정에 대해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참여관찰을 통해 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들의 시설 공간활용 방식
- 사회관계 및 상호작용 측면(이용 청소년들간의 관계, 이용 청소년과 시설 내의 지도자와의 관계 등)
- 청소년활동 측면(동아리, 운영위원회, 자원봉사활동 등)
- 프로그램 진행 및 참여과정

2) 조사결과

(1) 시설 이용 계기

청소년들의 시설 이용 계기를 살펴보면 청소년문화의집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 원하는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이용하게 되거나 관심있는 동아리나 단체활동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용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대부분 친한 친구나 선배 등이 문화의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계기로 문화의집을 이용하게 되며, 부모님의 권유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 운영위원회 활동이나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어 학교에 붙어있는 공문을 통해 문화의집 활동을 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다.

① 가까운 거리에 위치

중학교 바로 인근에 자리잡고 있으며, 주택가에 위치한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인근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는 입지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동네를 지나다니다가 호기심으로 시설 내부에 들어와 보게 되고, 그 안에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기나 도구 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된다.

박지영: 동네에 있었고 다 공짜니까, 다 무료로 제공해 주니까 컴퓨터도 그렇고 어렸을 때라서 컴퓨터도 부모님이 다 하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손도 못 댔는데 여기 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컴퓨터 할 수 있고, 조금만 기다리면 컴퓨터 할 수 있고, 그때는 노래방도 안 가봤었는데, 노래방도 이런데서 와서 가보고, 문화체험이 저는 여기서 시작된 거 같아요.(DD청소년문화의집)

지○진: 처음에는 집이 가까워서 그냥 만화책 보고 컴퓨터 하고 하다가 이제 제가 동아리가 생기고 나서부터 여기에서 연습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모임 없을 때도 와서 선생님하고 놀고 이렇게 해요.(DD청소년문화의집)

질문자: 6학년 때 친구들이랑 여기 지나가다가 알게 된 거야?

이○희: 저기 앞에 농구장에서 놀다가.

질문자: 그럼 저기 농구장은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거야?

이○희: 네! 여기보고 먼저 호기심에 왔다가요 그 때부터 하루에 한번 씩 오게 되고 방학 때도 와요.

질문자: 그럼 여기까지 집에서 얼마나 걸려?

이○희: 횡단보도를 바로 건널 수 있다 치면요 5분정도밖에 안 걸려요. 6학년 때는 빨리 마치니깐 학교마치고도 한번 씩은 오구 일주일에 두세번 씩은 왔어요.(GYT청소년문화의집)

최기덕: 친구들이랑 옆에 공설운동장에서 놀다가.. 집에 가는 길에 있어서.. 들렀어요.(GSG청소년문화의집)

② 학교 동아리활동을 통한 문화의집 이용

반면 거리가 가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동아리활동을 통해 문화의집과 인연을 맺는 경우도 있다. 지역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학교 동아리들을 연계하여 사업을 하거나, 학교 동아리활동을 위해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김홍정: (기자단 활동) 그렇게 의무는 아닌데 동아리를 듣거나 CA활동을 하거나 둘 중에 하는 건데, CA활동은 중학교 때에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 새로운 거를 해보고 싶어서 동아리를 선택을 했는데, 그냥 다른 동아리 같은 경우는 봉사동아리, 춤추는 동아리 많은데 그런 거 많은데 춤이나 노래 쪽은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고 그냥 봉사동아리 하기에는 약간 소문들도 안 좋고 놀기만 하고 그러니까 학교생활하고 연관돼서 하고 싶어서 이쪽으로...(DD청소년문화의집)

김홍인: (아이밴드보컬 동아리 활동이) 처음에 학교에서 만들어졌는데, 마땅히 활동하기 힘들어서 문화의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DY 청소년문화의집).

이 밖에 학교와 직접적인 연계 사업은 아니지만 학교 동아리활동을 위한 장소로 청소년문화의집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단순히 장소 이용을 위해 청소년문화의집을 출입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문화의집 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기도 한다.

진홍령: 저는 중학교 때 처음에 학교에 댄스동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연찮게 들어갔는데 학교강당을 빌려 쓰다가 연습실을 못 쓰게 되는 실정까지 온 거예요. 선생님들이 안되겠다고 해서 어떻게

게 하다가 동아리 한 분이 여기 DS에 예약을 해놨대요. 연습실을 쓰라고 해서 2시간씩 썼나? 주말에. 암튼 그렇게 쓰다가 저도 이제 왔다갔다 했죠. 동아리니까. 그러다가 선생님이 다닌 지 한 달 좀 넘었을 때 이거 청소년운영위원회 할 생각 없냐고 물어보셔서 들어오게 된 거죠. (DS청소년문화의집)

③ 독서실 이용에서 문화의집 활동으로 확대

또한 청소년문화의집에 독서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독서실 이용을 하다 문화의집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문화의집에 독서실이 설치되어 있는 BB청소년문화의집이나 SD청소년문화의집, DY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이에 해당된다.

박충배: 원래 봉사단체에 관심이 있다가, 어떤 이벤트 하는 날에 들었어요. 가입신청 받고 있다고, 그냥 즉석에서 가입해 버렸지요.

윤홍상: 여기 독서실 밑에 있거든요. 시험기간에 중3때요. (BB청소년문화의집)

장구리: 저는 초등학교 때는 잘 몰랐는데 중고등학교 들어오면서 시험기간에 독서실을 활용하기 위해 이곳에 자주 오다가 이 안에 있는 다른 시설도 이용해보다가 친구들의 권유로 이 위원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DY청소년문화의집)

④ 학교의 공문을 통해

청소년들의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은 학교에 붙어있는 문화의집 홍보물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서충영: 저는 학교에서 공문이 왔었는데요. 문화의집 청소년위원회 그 명칭이 꼬마란 말이에요. 꼬마모집을 한다고 해서 봉사활동에 관심있고 문화활동에 관심있는 사람은 GYT청소년문화의집에 와서 청

소년운영위원회 꼬마가 되어주세요 이런 공문이 있었어요 그거 때문에 여기 기관에 전화해서 문의 드리고 청소년운영위원회가 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게 되구요.

질문자: 공문을 학교 선생님이 나눠주나요?

서홍영: 그런건 아니구요. 학교에 보면 교무실에 선생님이 게시는 게 아니고 다 나눠져 있어요. 문화적인 거 교육적인 거 나눠져 있는데요. 문화환경부에 보편은 항상 대회나 문화랑 관련된 게 팜플렛이랑 공문이랑 게시판에 붙어요 그냥 우연히 봤는데 꼬마를 모집한다고 하길래 이번 기회에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스트레스도 풀 수 있을 거 같고 봉사활동인데 나한테 맞는 거 같다 문화 그런 거니깐 재미 있기도 할 거 같고 동생한테 들었는데 괜찮은 곳이라고 하길래 가보고 싶었는데 그전부터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많이 이용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요.(GYT청소년문화의집)

⑤ 학교교사의 추천

학교의 공문과 함께 청소년운영위원회나 봉사활동을 모집하는 문화의집의 요청으로 교사들이 추천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모지: 저는 중학교 때 잠깐, 1년에 한, 두 번 오는 곳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청소년운영위원회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자주 들락날락 거렸습니다.(GSG청소년문화의집)

⑥ 가족의 권유

누나나 엄마, 아버지의 권유로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기도 한다. 특히 문화의집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형제 자매가 먼저 문화의집을 이용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동행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나 동아리활동, 프로그램이 흥미롭거나 자녀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부모가 문화의집 참가를 권유하기도 한다.

홍○희: (기자단 활동) 그것도요. 사실 엄마가 프로그램 일정을 보세요. 수원시청이나 여기 들어와서 청소년들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보는데, 어렸을 때 성인이 되어서 하지 못하는 경험 많이 하라는 거라서, 프로그램 가져와서 보라고 해보라고, 처음에 권유해주세요. 그러다가 제가 결정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엄마가 막 집어넣으시는 것도 있어요. 여기 아망기자단은 언니가 해서 제가 글 쓰는 거 좋아해서 들어온 거고요. 그 차세대위원회는 공고가 있어서 제가 면접을 여기서 봤어요.(YT청소년문화의집)

⑦ 친구 및 선배 등의 권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친구와 함께 문화의집을 이용하게 된다. 면담대상 청소년들 중 40명이 아는 친구의 소개로 혹은 친구와 함께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비슷하게 동아리 선배나 학교 선배의 권유로 이용하게 되었다는 청소년도 많았다.

⑧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우연히 청소년문화의집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어 문화의집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봉사활동점수를 채우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인근의 청소년문화의집 활동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김○기: 어...문화의집을 몰랐는데요 이번에 청운위 아시죠? 그거 신청을 하기위해서 여기 왔어야 해서요..

질문자: 아 그럼요. 청운위신청은 어떻게 알고 했어요?

김○기: 인터넷에 GYT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에 가세요.

질문자: 그럼 홈페이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김○기: 홈페이지를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요 봉사활동을 해주는데요. 아세요? 거기를 둘러보다가 참 괜찮은 사이트다 했어요. 이런 게 더 있나 싶어서 검색하다가...(GYT청소년문화의집)

(2) 시설이용의 의미

청소년들이 문화의집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부여하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 의미나 목적없는 출입은 지속적인 참여로 이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① 진로/관심분야에 대한 산 지식 습득

문화의집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청소년들은 자신의 관심분야나 진로에 대한 산지식을 얻고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관심 분야의 동아리활동, 문화의집의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및 경험을 쌓는 경우도 있었으며, 아동 및 청소년들과 상호작용하는 지도사 및 복지사들을 접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미래도 이와 관련된 직종으로 향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직접적인 진로에 대한 지식은 아니지만 문화의집 운영위원회 및 동아리활동을 통해 향후 진로를 위해 필요한 설득 기술을 익히고 있는 청소년도 있었다.

가. 언론분야

김□정: (기자단 동아리활동) 학교에서 학교 교지편집부에 들었다고 해서 교지편집부에서 저희를 따로 교육시키고 그런 거 아니니까 여기 와서 글 쓰고 그냥 논술 학원이나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는 거를 기자님이 오셔서 얘기해 주시는 거니까 그런 거를 통해 배우는 거니까, 다른 면에서 신문을 보게 되고 그런 것도 배우니까, 제가 완전 진로가 신문방송이나 그 쪽 학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연관성 있는 제가 원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니까 저희는 그쪽 면에서는 보람된다 생각해요.(DD청소년문화의집)

김ㅎ정: (기자단 동아리활동) 학교에서는 제약이 많잖아요. 여기 와서는 자유롭게 토론하고 방학 때나 시간 될 때 그런 거 야외에서 체험 같은 거 많이 해요. 작년에는 방송국 가서 아나운서 체험이랑 기상개

스터 체험도 해보고, 신문사 가서 신문 만드는 과정도 보고, 직접 체험 같은 것도 해보고, 국회의사당도 가고 막 그런 식으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니까...(DD청소년문화의집)

천○현: (영상 동아리활동) 제가 꿈이 다큐멘터리PD인데요. 동아리가 영상 관련이다 보니까 가입해서 활동하게 되었어요. 보람된 점은 꿈이랑 관련되어 있고 직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상작업이라던가 PD 같은 직업은 어른이 돼서 하는 건데,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할 때마다 힘든 건 모르고 즐겁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래요. 어려운 점은 기획하고 콘티 짤 때 창작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요. 콘티 짤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촬영같은 것도 좀 힘들어요.(MS청소년문화의집)

나.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

박지영: (운영위원회 활동) 제가 원래 진로가 아동 청소년 그쪽 청소년복지 이런 쪽 전공으로 꿈꾸고 있어가지고 이런 게 맨 처음에 봉사활동이 주가 되긴 했는데, 나중에 진로 생각하면 도움이 되니까 이런저런 생각가지고 생각하다보니까 진로 생각하면서 나중에 이런 게 나한테 많이 도움이 될 거 같다 생각에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죠. 처음에 다시 운영위원회 하는 게 솔직히 좀 정, 정이 있거든요. 정이 있으니까 정 때문에 온 건데 막상 운영위원회 활동하니까 솔직히 저 나중에 진로랑 바로 직통 직업하고 연결되니까 이렇게 정말로 진로까지 연결될 줄 몰랐던 일들이 내가 그동안 해왔던 활동들이 도움이 된다는 게 일단 저 자신에게 발전이 되는 거니까 저 자신한테 도움이 되는 일예요.(DD청소년문화의집)

최지현: (운영위원회 활동) 여기 다니기 전에는 놀토에 하루 종일 집에 있잖아요. 여기 다니고 나면서부터는 봉사활동 하러 다니고, 지금 제가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여기 다니면서 저의 꿈을 정했거든요. 그

래서...제가 여기 다니면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는 거를 정했어요.
부모님들은 많이 좋아하시고요.(SD청소년문화의집)

장□리: (운영위원회, 동아리 등 활동) 솔직히 청소년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싶고 또 대학교 이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운영위원을 활동하면 많이 도움이 되겠구나 생각하고 욕심을 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양이란 곳이 작다 보니까 우물안개구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을 돕고 그러다 보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질문자: 아 그럼 나중에 청소년 지도자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어요?

장□리: 예 청소년지도사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사도 생각하고 있어요.(DY청소년문화의집)

서○영: (운영위원회 활동) 여기 활동하면서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 너무 재미있는 거 같은 거예요. 청소년지도사 이런 거 해 보고 싶다. 사회복지사 쪽으로도 해보고 싶고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GYT청소년문화의집)

다. 미래 직업기술 습득

박○주: 국제 마케터가 꿈이거든요 마케팅을 하려면 사람들을 잡고 우리의 기술이나 제품 같은 거를 설득을 시키고 사랑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내 쪽으로 끌어들이고 그런 거잖아요. 마케팅 같은 거는 아이디어를 짜내서 국제 마케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훌륭한 기술이나 우수한 제품 같은 거를 해외시장에 내놓는 거 해외시장에 내놓아서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마케팅을 하는 건데...(중략) 산업마케팅이라고 지금 꿈이 포항공대 산업공학경영학과 그래서 거기 가면 산업마케팅을 할 수가 있어요...(중략) 그래서 여기서 대인관계 기르면서 사람들하고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구나.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이 좀 호응을

해주고 이런 말 할 때 귀를 기울여주고 사람과 말할 때는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되면서 이런 거를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기반을 쌓아서 나중에 커서. 커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뤘을 때 남들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DS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 동아리활동)

② 지역사회에 관심 및 참여

청소년문화의집 동아리활동에 참여하면서 지역사회와 이웃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갖게 되었다.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학교와 학원, 집을 오갈 때는 알 수 없었던 지역의 현안과, 다양한 이웃들을 만나면서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역의 환경자원을 지키는 활동을 하기도 하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여러 모습을 알게 된다.

박홍배: (트러스트 봉사활동) 모금활동이 제일 그 의의가 좋죠.

질문자: 모금활동 해가지고 그 우면산을 우리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많이 모았어요?

박홍배: 모인다고 많이 모였단 말이 있는 거 같고

질문자: 그럼 어떻게 모금활동을 해요. 보통

박홍배: 넷째주 토요일마다 정상에 올라가서 소망 탑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 녹차랑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모금활동을 해요.

질문자: 모금활동을, 그럼 주민들이 많이 호응을 하세요?

박홍배: 예. 물어보시기도 하고(BB청소년문화의집)

김지수: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저는요. 그래도 보람된 게, 예전에 중3인가? 그때 활동하는데 김장 김치 담그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혼자 독거노인들에게 김치 나눠주는 행사였거든요. 담가가지고, 그때 직접 방문해서 드릴 때 그때가 할머니들이 되게 좋아하는 모습보고 그때가...(BB청소년문화의집)

안지호: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이거 하면서 알게 된 게 저도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방배동에. 그니까 방배동 길모습만 학교 다니면서 보게 되는데 진짜 이거까지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방배동에 살면서 또 독거노인 같은 사람들도 되게 많고 찾아가면서 김치 담그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 하면서 진짜 이 서초에 깊숙이까지 보게 된 거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점에서 배운 거 같아요.(BB청소년문화의집)

윤홍상: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보람된 거는 경로당 노인정 갔을 때 그때 가고 나서 그냥 사적으로 길을 가고 있었는데 길에서 할머니가 알아보시고 그때 왔었지 총각 아는 척하시고 그럴 때, 아이고 고마워 그때 뿌듯하고 좋죠.(SD청소년문화의집)

③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의 확보: 라운지, 거실문화

청소년들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친구들과끼리 얘기할 수 있다는 점, 하고 싶은 일을 제약없이 할 수 있다는 점을 좋은 점으로 들고 있었다. 특히 거주지와 청소년문화의집이 가까이에 위치하며, 청소년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이들에게 매우 큰 장점이 되고 있었다. 특히 운영위원회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따로 배정한 SD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청소년들은 거의 매일 청소년문화의집에 들르고 있었다.

박홍배: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언제나 있는 거... 친구들과끼리 둘러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예 그렇죠. 그런 게 없으면 갈 데가 없는 거죠.(BB청소년문화의집)

김지영: 일단은 다 거의 갖춰진 거잖아요. 제가 공부하고 싶으면 독서실 가면 되고 머리 식히고 싶으면 휴게실이나 2층 가도 되고, 배고프면 자판기에서 라면 해서 먹으면 되고, 그냥 그게 편하잖아요. 다 있으니까 그래서 편한 거 같아요.(BB청소년문화의집)

윤홍상: 이용하는 시설은 방 밖에 없어요. 이런 공간 밖에 없고, 기구나 그런 거는 전혀 없는데요. 애들끼리 다 앉아서, 원래 이런 공간도 없었어요. 와서 샘 사무실 옆에 식당 있잖아요. 거기서 얘기하거나, 놀이터에서 놀고 했는데, 여기를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한 몇 달 전 쯤예요. 직접 쓰는 공간이 됐는데 여기 와서 애들끼리 주구장창 말만 해요. 재미있어요.

질문자: 저번에 보니까 공부도 하고 그러던데

윤홍상: 시험기간에는 같이 공부하고... 매일와요.(SD청소년문화의집)

실제로 연구자가 참관을 하던 날에도 운영위원회 방에서 10명 내외의 운영위원들이 자리잡고 시험공부를 하고 있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관심있는 활동이나 공부를 하거나 자유롭게 쉬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청소년문화의집은 “안식처”라고 불리고 있다.

박○주: 아 저희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거든요 축제 때 춤을 나가는데 학교에서는 수위아저씨들이 늦게까지 못하게 하고... 솔직히 겨울도 없고 책상 밀어봤자 가로 공간 확보도 안되고 장소가 마땅한 게 없을 때 여기 막 전신 거울 있고 막 동작 만드는 거 다 보고 줄 같은 거 맞추고 그럴 때 편하게 이용했어요... 학교에서 받았던 어려움을 이런데서 진짜 풀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되게 좋아요. 해소라기보다는 안식처?(DS청소년문화의집)

지○진: 처음에는 저희가 학교에서 안쓰는 가사실습실을 이용했었어요. 제가 1학년 때는 여기는 그냥 연극연습 한두 번 오고 이 정도였는데 거기는 솔직히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웠어요. 그래서 에어콘도 안 나오고 환기도 안 되고 그래서 겨울에는 동아리시간이 따로 있잖아요. 2시간동안 계속 별별 떨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옷을 만들 환경도 안 되니까 저희들끼리 수다 떨고 그랬는데 여기 2학년 올라오면서 교실 하나가 주어졌었어요. 거기보다는 여기가 나을 것 같아

서 여기를 이용하게 되었고, 여기가 있으니까 매주마다 모임 곳도 있고, 여름에 시원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참 편해요.(DS청소년문화의집)

④ 청소년 스스로 뭔가 하는 것에 대한 보람

청소년들은 문화의집 동아리활동이나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배우고 어려운 일을 해냄으로써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일, 경험해 보기 힘든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다.

가. 청소년들 스스로 개척하는 일에 대한 보람

청소년들은 문화의집 활동을 통해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체험을 할 수 있고, 스스로 그것들을 기획하거나 주도하는 데에 대해 보람을 느끼고 있다.

김지영: (청소년인권 동아리활동)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건데, 배우고 나누는데 의미가 더 큰 거 같아요...남이 가리켜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하는 거니까 좋은 거 같아요.(BB청소년문화의집)

김홍정: (기자단 동아리) 처음에 고등학교 들어와서 멋모르고 들어왔는데, 여기 와서 처음 해보는 게 되게 많아요. 인터뷰 같은 것도 여기서 처음 해봤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 혼자 해야 된다는 게 되게 막막하고 그랬는데, 그걸 뭔가 해내고 나면 뿌듯한 거 같아요. 웬지 그동안 내가 우물 안 개구리 같고 많이 경험 같은 거 쌓으면서 되게 보람 느끼고, 또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은 그 동안 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 점도 많은데 나오는 거 보면은 다음에 더 열심히 해서 더 좋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막, 하기 전에는 엄청 떨리고 그러니까 무시당하면 어떡하나, 처음이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해야 되나 정신이 하나 없었는데 하면서는 되게 뿌듯한 거예요. 그니까 그 친구들이 내 말에 집중을 해주고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사람들

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답을 받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기분이 묘했어요.(DD청소년문화의집)

김지민: (운영위원회) 보람됐던 점은 활동을 할 때 저희가 짜인 프로그램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회의를 해서 저희가 기획을 하고 활동도 저희가 하고 평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능동적으로 주체가 돼서 하니까 책임의식 그런 건 있으면서 열심히 하면서 하고나서 뿌듯함 있잖아요. 주변에서 이번 활동 좋았던 거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뿌듯한 거 같아요. 저희가 우선 짜인 거를 따라간 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기획하는 것부터 능동적으로 하니까 하고 나면 뿌듯한 거 같아요. 또 주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SD청소년문화의집)

최지현: (운영위원회 활동)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잖아요. 기획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니까요. 그거에 대한 뿌듯함이 있죠. 저희가 했는데 평가까지 다 마치고 잘 되었다는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5월 달이나 12월 달에는요. 어린이 잔치라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해요. 초등학교 학생들을 데리고요. 근데 그때 케이크 만들고 편지를 쓰고 그러는데, 가끔마다 한 애들은 저희한테 편지를 써주고 케이크를 만들어 주고 그래요. 그때 감사했다고(SD청소년문화의집)

박지영: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장) 또 이런 거 하면서 청소년 욕구가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제가 행사하면서 느껴지고, 그런 거 봐 오니까 같은 청소년으로서 기분이 좋고 보람을 느껴요.(DD청소년문화의집)

다음은 SD청소년문화의집의 운영위원회 회의의 한 장면이다.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장을 중심으로 여름 워크숍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이 워크숍을 통해서 청소년 참여, 리더십, 그리고 지역사회의 유해환경감시 사업

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회의 참석 인원은 12명이었으며, 지도자와 함께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회의일시: 2008. 7. 12

이드현: 그럼 바로 토의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용! 먼저 여름방학 활동에 대해서 토의하겠습니다. 워크숍입니다. 7월 달에 워크숍 있는 거 알고 계시죠? 7월 22일 23일입니다. 장소는 가평으로 확정이 됐고요. 여름 워크숍 참석 가능 인원부터 파악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실 수 있는 분 전에 말씀드렸죠. 생각하고 계시라고 손들어 주십시오.

윤홍상: 비용 2만원

이드현: 비용은 2만원입니다. 박지현 분과장님은 가지죠?

박지현: 가죠. 다 가는 거지?

이드현: 어떻게 여기 있는 분은 전원 참석입니까? 여기서 지금 못 가시는 분 손들어주십시오. 없죠? 그럼 전원 참석이네요. 어, 그러면 워크숍에서 분과별로 조를 나누기로 했는데요. 조 추천하기로 했는데, 조를 우선 분과별로 나눠서 그 안에서 추천을 할 거예요. 그니까 분과장이 한 조에 조장이 되고, 다른 분이 한 조의 조장이 되겠죠. 근데 그거는 저희가 위원장, 서기 이렇게 다 나눌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불만 없으시죠? 불만 있으신 분 손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최지현: 추천이 제비뽑기 같은 거죠?

이드현: 그렇죠. 저희가 제비뽑기를 해서 그거는 일단 파악이 되는 데로 최종으로 되면 월요일이든 저희 지도 선생님과 임원진이 모여서 추천을 한 후에 조 추천 결과는 클럽에다가 공지를 띄울 거예요. 전혀 조작되는 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첨부자료가 있습니다. 이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첨부 자료에 청소년운영위원회 여름 워크숍 계획서가 있죠. 봐주세요. 프로그램명은 아시고, 목적은 다 아시죠? 목적은 저희가 가서 청소년참여활동을 통해서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고, 나눔 실천 리더로 양성합니다. 대상은 저희 30명으로 하고 있지만, 못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7월 22일

23일로 날짜가 확정 되었고요. (중략) 저희 워크숍은 일단 이번 리더십 특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유해환경사업 있죠. 그거에 대해서 회의를 중점적으로 할 것입니다. 예. 아셨죠? 보고 계시죠. 조별모임 및 저녁 식사는 조 추첨으로 되는 거 그리고 이거 조가 추첨이 돼서 결정되면 조 끼리 따로 연락을 하셔야 되요. 그래서 우리는 뭘 만들기로 했다 그런 거를 생각해 주셔야 되요. 아니면 너는 족발 가져와라 내가 김치 가져간다. 이렇게 정해 놓으셔야 되구요. 아시겠어요?

다음 GSG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도 역시 지난 상반기 청소년들이 진행한 사업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주말 지역 문화존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역시 청소년들이 스스로 주제와 진행방식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고 있다.

회의일시: 2008. 8. 20

이모지: 네. 지금부터 제11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반기 마무리에 대해서 말할 건데요. 먼저 되돌아보기. 우리가 상반기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6개월동안 무엇을 했는지 한번 말해볼까요?

(중략)

이모지: 그럼 일단 적어 놓을게요. 그럼 우리 이거 할래? 웰빙이라고 해서 물 마시고 풍선 빨리 불고 막 팔굽혀펴기 열심히 하고.

최초훈: 그걸 누가 참가할까요?

이모지: 일단 위원들은 다 참가하세요. 일단 이걸 재껴 놓고. 사회는 누가 볼까요?

황지길: 회장님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모지: 제가 볼까요? 나랑 누가 보고 싶나요? 저 혼자 사회 볼까요? 난 무등이랑 하고 싶어. 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사회?

최초훈: 강승혁을 추천합니다.

이모지: 네. 일단 승혁이로 정해 놓을게요. 문화존 주제는 웰빙이랑

웃음이에요. 우리 부스에서 이거 할래요? 녹즙 마시기.

백모등: 복불복으로하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이흥아: 건강해 지기도 하고.

이모지: 녹즙 마시기 일단 적어 놓을게요. 또 다른 건 없어요?

황지길: 요가 배우기. 요가선생님 모셔놓고

이모지: 요가선생님 돈 들겠네. 일단 요가 적을 게요. 요가 배우기.

이흥아: 우리 줄넘기하기 할래요? 줄넘기 오래 뛰기.

최초훈: 2단 뛰기 괜찮을 것 같아요.

이모지: 네. 줄넘기 2단 뛰기 하고요. 그리고 현수막 제목은 뭘로 했으면 좋겠어요? ‘몸짱되세요’로 할까? 경석이?

최기석: ‘건강하세요’가 좋을 것 같아요.

이모지: ‘건강하세요’ 괜찮아요?

위원들: 네.

이모지: 또 괜찮은 의견 있어요?

이흥아: 주제가 웰빙이니까 비만 평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모지: 비만도 테스트 좋을 것 같아요?

위원들: 네.

이모지: 다른 의견 있어요?

위원들:

이모지: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회의 내용 정리해 볼게요. 오늘 회의는 우리가 했던 걸 이야기해 봤고요. 뒤돌아보았죠. 잘된 점 나왔고요. 못된 점 이렇게 나왔어요. 개선점은 부스 운영 시간과 홍보를 잘하면 되겠고요. 9월 문화존 계획 주제는 웰빙으로 했습니다. 팜플렛 만들고 홍보할 때 주제는 ‘건강하세요’로 할 거예요. 물마시기대회, 풍선 빨리 불기 대회, 요가 배우기, 2단 뛰기 이 네 가지를 할 거고요.

나. 남을 도움으로써 얻는 보람

이ㄷ현: (운영위원회 동아리활동) 일단 기관의 운영위원회니까 그리고 동아리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 봉사를 하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람도 있고

질문자: 어떤 것을 하세요?

이ㄷ현: 보조인데요. 한 조에 명칭이 선생님이로 붙일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럴 때 보람을 느끼고요. 재작년에는 북한 어린이 돕기 운동화 빨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거는 보람이 있죠. 북한주민을 알게 모르게 돕는다는(SD청소년문화의집)

김스현: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저희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제가 처음 와서 한 게 운동화를 빨아가지고 북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조그마한 수세미를 가지고 몇 번 문지르면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큰 거잖아요. 막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헛거지만 그래도 신발을 신고 다니니까 그런 것 보면서 저는 작은 행동인데, 그 사람에게는 큰 행복을 주는 거잖아요. 너무 뜻 깊고...(SD청소년문화의집)

김홍진: (운영위원회 회장) 저보다 어린 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원의 날을 진행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애들이 즐거워하고 재미있어 하고 그래요. 또 다음 달에 또 온다고 그런 식으로 그것부터 애들이 좋아하고 그래요.(YT청소년문화의집)

실제로 YT문화의집 회원의날 행사에서는 중·고등학생 운영위원들이 행사 전반 진행 준비와 진행을 도맡고 있었다. 이날 행사는 보드게임을 준비하였다. 10여개의 테이블에 각기 다른 종류의 보드게임 도구가 놓여 있고 행사가 시작되자 고등학생 운영위원들은 참가자인 초등학생들을 모아서 조를 만들었다. 한 조씩 한 테이블에 배정하고 운영위원들이 각 테이블에 한 명씩 자리잡아 게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도왔다. 한 게임이 끝나면 다른

테이블로 이동하여 여러 가지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행사장 한 구석에서는 보드게임 승리자를 위한 상품으로 “달고나”를 만들고 있었다. 성인 지도자는 중간중간에 사진을 찍거나 돌아보는 정도였으며 시작부터 끝까지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다. 보상에 따른 성취감

조○희: (댄스 동아리활동) 연습하면서 땀 흘리고 그리고 공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 보람되었어요.(DY청소년문화의집)

홍○호: (댄스 동아리활동) 어려운 점은요. 일단 저희만 연습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는데 연습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연습을 많이 못하는 게 좀 아쉬워요. 그리고 보람된 점은 열심히 연습해서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탔을 때 뿌듯했어요.(DY청소년문화의집)

정○한: (댄스 동아리활동) 저희 동아리는 여러 공연을 하고 있고 대회를 많이 참가하고 있고요. 가끔씩 수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저희 동아리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데요. 리더이다 보니까 힘든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아이들이 지각을 많이 해서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보람될 때는 다 같이 연습을 하고 대회 준비를 했는데 대회 나가서 수상을 좋게 할 때 많이 느껴요.(MS청소년문화의집)

⑤ 친구, 선후배들과 함께 하는 공간

학교에서는 시간부족, 성적으로 인한 경쟁 등으로 원만한 교우관계나 선후배 관계를 맺을 수 없었던 청소년들은 문화의집 활동을 통해 친구관계를 형성하거나 선후배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입시 준비로 점철되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친구나 선후배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시되지 않는 사회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기의 적절한 사회관계 형성은 향후 자존과 독립을 얻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청소년문화의집 프

로그램이나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모티브로 친한 친구가 함께 하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프로그램에의 지속적 참여는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과거 20여년 동안 사회과학자들은 청소년의 발달에 있어 친구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해 왔다. 친구관계는 세계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며 정체성을 탐색하고 문제 해결과 사회적 지지의 기회를 준다. 청소년기 우정은 십대들로 하여금 부모에의 의존에서부터 점차 벗어나 독립과 자존을 얻게 한다(Hirsch, 2005).

윤홍상: (청소년운영위원회) 재미있죠.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무엇을 한다는 자체가 재미있었어요. 여기서 살아요. 집에 있으면 괜히 컴퓨터 게임 이런 거 하잖아요. 집에서 공부도 잘 안하고 그래서 여기는 한마디로 아지트예요. 친구들 다 모이니까, 학교가 다들 틀리거든요. 여기 매일 와요.(SD청소년문화의집)

이근현: (청소년운영위원회) 매일 옵니다. 전부 위원들도 매일 와가지고요. 여기 모여서 가끔은 운영위원회 문제가 조금 커질 때는 이것 때문에 긴급하게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흔히 말하는 수다타임을 하면서 친목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각자 소리 없는 경쟁이더라고요. 제가 공부 못하거든요. 제가 전학을 왔어요. 실업계 다니다가 전학을 왔는데 어, 이거 아니다 할 정도로 소리 없는 경쟁이고, 친구 성적이 오르면 좋아해 주는 게 아니고 약간 질투심 같은 거가 눈에 보일 정도로 보여 가지고요. 여기는 서로 도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친목도 도모가 되고 (SD청소년문화의집)

최지현: (청소년운영위원회) 저희는 독서실 이용해요. 고3이어서요. 저희끼리 공부동아리를 만들었거든요. 청운위 내에서도요. 그래서 저희 고3위원하고 고2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하고 저희끼리 공부동아리 만들어서 시험기간이 되면 독서실에서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여기 올라와서 서로 질문해서 하는 식으로 해요. 문화의집에서 만나는

친구들은요. 같은 활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같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다보면요. 같은 방향이니까 같이 의견이 많이 맞잖아요. 더 친근감이 있고요. 학교친구들하고는 솔직히 좀 경쟁하게 되잖아요. 성적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청운위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그런 게 없이 오직 프로그램 활동을 하고 진실되게 만나는 게 여기서 진짜 만나는 거 같아요.(SD청소년문화의집)

진ஹ령: (청소년운영위원회, 동아리활동) 맞아요. 진짜 학교에서는 진로얘기 하기가 힘들어요. 쉬는 시간 짧아서...

박○주: (청소년운영위원회, 동아리활동) 여기 오면은요. 대학생 언니들도 있고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같은 조언도 많이 얻고 지금 중학교 애들한테는 저희가 중학교를 거쳐 왔으니까 이때는 이렇게 해줘야지 고등학교 가서 고생을 안 해...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줄 수도 있으면서 바꿔주고 상호작용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화제가 좀 더 광범위해지고 할 수 있는 얘기를 툭 터놓고 할 수 있고 아무래도 학교친구랑 문화의집 친구랑은 확실히 다른 게 느껴져요 있어요 그런 게...

진ஹ령: 그렇다고 해서 편애를 하는 게 아닌데요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박○주: 근데 우리학교는 그런 게 있어요. 저희학교가 여고잖아요 이미지 관리라는 게 없어요. 매점에 가면요 배가 고파서 10분동안 라면을 끓여먹고 가요 뽕글이 먹는 사람도 있고 컵라면 해먹는데. 진짜 쉬는 시간 때만 되면 불 딱 키고 있다가 막 달려가요. 스프를 빛의 속도로 뜯은 다음에 물도 빛의 속도로 뜯 다음에 빨리 한 다음에 쫄꼬들꼬들한 면을 먹어야 되요. 바삭바삭한 과자같은 면? 컵라면 먹는 데 국물까지 딱 해치우고서 그런 다음에 아직 식도가 뜨거운 채로 교실에 들어가면 쉬는 시간이 끝나요. 그런 식으로 전쟁터다 보니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DS청소년문화의집)

⑥ 소통이 있는 공간(지도자와 청소년간의 소통, 성인과 청소년)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학교에서의 경험과 달리, 청소년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보다 개방적으로 대처하게 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자신감을 갖고 활동을 하려 한다. 주로 학교 교사들에 비해 청소년지도사들은 청소년들을 이해하려 하며, 먼저 청소년들에게 다가가서 소통을 하고자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학교 교사들이 형식적이고 규범적인 관계라면 청소년문화의집의 지도사들은 비형식적이고 어려운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가족같은 관계라고 여기고 있다. 이모나 삼촌, 혹은 부모님과 같이 없어서는 안되는 편안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비유하고 있다.

김지영: (청소년운영위원회) 일단, 학교에서는 저희랑 완전히 구별이 되잖아요. 선생님이고 너희를 가르치려고 한다. 이런 생각에서 가르치려고만 들고, 혼내려고만 하잖아요. 선생님들은... 근데 여기는 들어주려고 하고 학생들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마음이 열리고 저희가 더 자신감이 생기고, 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저희가 더 개방적이게 되는 거 같아요. 선생님이 저희를 저희 입장을 들어주고, 같이 어울리려고 하니까 학교랑 학교에서는 제가 많이 밀리지만, 여기서는 선생님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자기주장을 펼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BB청소년문화의집)

윤희상: (청소년운영위원회) 개인적으로 저는 학교 담임선생님보다 여기, 방쌤(청소년지도사)이 더 좋아요. 학교선생님은 저희 담임선생님이 30년 근무하셨거든요. 지금 담임선생님이요. 30년 동안 계속 받을 맡으신 거예요. 반애들이 보통 30명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기도 인턴까지 30명 되는데, 담임선생님은 학교에서만 보니까 한사람씩 사정을 모르니까, 좀 뭐랄까? 여기가 저희를 더 아끼고 방쌤이 일단 젊잖아요. 같이 노래방도 가고, 영화도 보러가고,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하고 친구처럼 지내니까 더 좋은 거 같아요. 학교선생님은 어려우니

까 이런 말도 하면 혼날 거 같고, 학교 선생님은 엄하시잖아요. 여기는 친구처럼 잘 대해주시니까 좋은 거 같아요.(SD청소년문화의집)

이드현: (청소년운영위원회) 학교에서는 학문적이고, 이쪽에서는 정서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SD청소년문화의집)

최지현: (청소년운영위원회, 동아리활동) 학교선생님들은요? 일단은 목표가 대학이잖아요. 학교선생님들 실적도 있잖아요. 너희가 찾아오면 나는 원서만 써줄게라고 하고 대학을 그냥 보내는 그런 건데요. 문화의집 선생님은 직접 행동으로 볼 수 있는 스타일, 선생님이 먼저 다가와서 챙겨주시는...저희가 학교에서 힘든 거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건 다 솔직하게 털어 놓을 수 있는 분 인거 같아요.(SD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과 지도자 간의 유대는 학교에서의 선생님과 학생의 형식적인 관계와 가족이나 친척 사이의 비형식적 관계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학교와 학교 이외의 사안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친밀한 대화 방식을 통해 청소년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청소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성인으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인식하는 경우 청소년들의 참여는 더욱 활발해진다(Hirsch, 2005; Priscilla, 2007).

김지민: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학리더) 학교선생님 같은 경우에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형식에 짜인 걸로 우리 반 애니까 학교 아이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많이 있어요. 학교선생님하고 속내를 털어놓으면서 말하는 적은 거의 없잖아요. 힘들거나 좋거나 그런 건 진짜로 웬만하면 잘 안 털어놓고 반에서는 그냥 선생님한테 모르는 거 있으면 여쭙보고 그러잖아요. 속마음은 거의 안 털어놓고 공부에 관한 거, 그런데 방모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속마음을 저 뿐만 아니라 모두 많이 말을 해요. 힘들어도 그렇고,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방모자 선생님한테 말을 많이 하는데 항상 선생님이 잘 받아주시

죠. 얘기 듣고선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해결 방법도 잘 찾아주시고 고민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대학 갈 때도 작년에 저희가 수험생이였잖아요. 학교선생님은 그냥 너 성적에 맞춰서 여기 쓰면 되겠다. 그거로 딱 끝나고, 방〇즈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저희한테 파이팅도 많이 외쳐주시면서 힘이 많이 된 거 같아요. 오히려 학교선생님보다 더 저희 마음을 헤아려 주시죠. 학교선생님은 보통 너희 왜 그러냐. 그러면서 학생들 마음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 많잖아요. 근데 방〇즈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지 원래 그런 거야 그러면서 많이 위로도 해주시고 다들 의지를 많이 해요. 저희한테는 진짜 없어서는 안 될 분이죠. 저도 그렇고, 친구들, 동생들도 그렇고 많이 좋아하고 잘 따르고 항상 감사하고 진짜 없어서는 안 되는...(SD청소년문화의집)

김스현: (청소년운영위원회) 저희 담임선생님은 조희시간 때 보고 종례시간 때 보고, 수업시간 때 보는데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상담 몇 번 할 때 빼고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저는 아무리 친한 교과 선생님이 계시더라도 선생님들이 시간 날 때만 만날 수 있는데, 여기 방〇즈 선생님도 시간이 많이 없으시기는 하시지만 저희가 가서 그냥 선생님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시간이 되든 안 되든 저희를 다 걱정해 주시면서 해주시거든요. 저희는 여기가 저희끼리 매번 그래요. 어디 있어? 그러면 우리 집에 있어. 우리 집이 이 집이에요. 애들이 집에 있어? 그러면 나도 곧 집에 갈게 이러거든요.

질문자: 같이 사는 줄 알겠어요.

김스현: 네. 저희끼리 누나, 동생, 언니, 엄마 이러면서 이려고 하는데 진짜 선생님이 아니고요. 가족이에요. 한 가족 누가 아프다고 하면 누가 아프데, 정말요? 어떡해요 그러면서 다 같이 걱정해주고 병문안 가고 그래서 학교는 딱딱한데 여기는 편안해요.(SD청소년문화의집)

박〇주: (청소년운영위원회, 동아리활동) 담임을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저희 담임이 하늘에서 내려준 청소부예요. 오면은 청소만 시켜요. 딱

오자마자 하는 말이 난간에 있는 물건 치워라 딱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학교에도 그런 선생님이 아주 없다는 건 아닌데 잘 챙겨주질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할 때 그리고 선생님들이랑 말도 많이 해보고 싶고 이런데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저한테는 한 명의 선생님이지만 선생님한테는 몇 백명의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 개인이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그냥 다 똑같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걸 알면서도 서운한 게 있고 알면서도 속상한 게 있고 그런데 여기 DS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모나 삼촌처럼 되게 친한 사람처럼 서로 농담도 주고받고 ‘요즘 속상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기꺼이 언제든지 들어줄 수 있는 분들이시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른이지만 내 얘기를 무시하지 않고 들어줄 수 있는 어른. 그런 게 진짜 감사할 정도로 막 진짜 되게 감사해요. 학교선생님들한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을 문화의집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세요. (DS청소년문화의집)

진홍령: (청소년운영위원회, 동아리활동) 그런 진로상담 같은 것도 학교선생님들보다 오히려 더 세세하게 잘 알려주세요. 성격검사 이런 것도 해 봤구요. 여기서 저 2학년 겨울이었나 그때 그런 것도 했었어요. 진로검사 같은 거 그런 것도 해 보고, 이런 것 고민이나 막 그러면은 제가 3월 달에 자퇴하려고 했었거든요. 너무 방황의 시기여서 그때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때 ○르선생님이 자기 조카 얘기해주시면서 진짜 자세하게 해주시고.(DS청소년문화의집)

서홍영: (청소년운영위원회) 학교선생님은요. 요즘 선생님들 선입견 그런 거 있잖아요. 학생들 평균이 얼마고 무슨 대학을 보내고 어떤 선생님들은 심지어 그런 것도 있어요. 공부랑 관련된 거 아니면 학교에 게시를 안 해준다던가 교실 뒤에 게시판에 쇠고기 그런 파문있잖아요. 쫓불집회 참가자 그런 공문을 친구들이 붙이면 선생님이 이런 거 왜 붙이냐고 학생이 공부해야지 본분에 벗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학생들이라하면은 줌..그 나이 때는... 저희가 많이 어린 것도 아니니

간.. 저희가 사회에 참여한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디게 방해하는 거 같아요 저희가 문화활동에 참가하고 싶다고 하면 공부해야지 이러는데...여기 선생님은 가족 얘기를 할 수 있어요...제가 첫째인데 부모님이 저를 주워온 자식처럼..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친구관계 그런 상담 얘기도 말씀도 해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문화존 끝나고 나면 가끔씩 밥 먹으러도 가고 가족이랑 있는 시간이 작잖아요. 자는 시간 그 시간 밖에 집에 없어요. 근데 같이 밥 먹으러 가면 가족 같고 어머니 같고 이모 같고 이래요.(GYT청소년문화의집)

⑦ 사회성 발달/사회관계 형성

문화의집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회성과 사회관계를 발달시키게 된다는 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청소년문화의집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의사소통과정에서 남을 배려하게 되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기며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진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대인관계를 맺는 데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되며 자신감을 갖게 된다.

백초연: (동아리활동) 어, 보람된 점이라면 여기 와서 사람 사귀는 자체가, 사람 알게 된다는 게 보람되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니, 그렇다고 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사교성이 좋은 편이에요.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저를 알리고 저를 알아가는 스타일이여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지만, 사람을 많이 알수록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그런 걸 자기도 그런 걸 배우게 되잖아요. 좋아하는 존경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 따라하고 싶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을 안다는 게 좋은 거 같아서 그 모습이 보람되고...(BB청소년문화의집)

안지호: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장) 보람됐던 거는, 일단 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해야지만 뭔가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저 혼자 뜻대로 안 되는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잘 타협하는 법,

그리고 뭐 대인관계, 사람 만났을 때 좀 그런 거를 좀 배운 거 같아요. 일단 친구들도요. 좀 이해하게 되고, 여러 각도로 볼 수 있고, 성격이 일단 좀 안 맞더라도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각도로 보게 되는 거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어른들이 말하는 더불어 사는 사회 있죠. 그게 맞는 말인 거 같아요.(BB청소년문화의집)

김지영: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연령층대로 다 어울려서 사귀니까 일단 여기 오면은 사람들 다 알아가거든요. 다른 데보다 사람들 다 알아갈 수 있어요. 그니까 그런 거 때문에 더 밝아지고 적극적으로 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 아니면 저희 친구들이니까요. 다 똑같잖아요. 솔직히 연령도 그렇고 다 똑같은데, 여기는 초등학교생들부터 아줌마들까지 있고, 선생님들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다 알아요.(BB청소년문화의집)

김수현: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여기 오다 보면요. 봉사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다보면 선생님도 되고, 어떻게 하다보면 배우는 입장이 되는데, 선생님이 될 때는 많이 가르쳐주고 뭘 해주고 그래서 보람 많이 느끼고, 제가 배울 때는 색다른 걸 아니까 되게 좋은 거 같아요.(SD청소년문화의집)

⑧ 프로그램 참가를 통한 새로운 체험

청소년들은 문화의집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함으로써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문화의집 활동의 의미를 찾는다. 특히 학교생활을 통해서는 체험하기 힘든 글로벌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MT, 문화의집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참가는 청소년들에게 즐거움을 줄 뿐 아니라 경험세계를 넓히는 역할을 한다.

이수현: (글로벌 프로그램 참가) 하고 싶어서 다들 다 합니다. 근데 저는 운영위원회 중에서 가끔 돈이 드는 거는 조금 못하는 위원들도

있는데, 보통 농사봉사활동은 보통 하는데요. 농활도 기억에 남지만 글로벌 챔피언이라고 했었는데요. 몽골을 가는 게 있었는데 그게 기억에 남는데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타국이다 보니까 갔을 때 말이 안 통하는 거 둘째 치고, 우리나라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길거리에 들쥐들이 돌아다니고, 그것도 그렇고 절 보면 약간 덩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갔다 와서 약 4kg이 빠졌습니다. 미치겠더라고요. 칭기즈 칸이 만들었던 것도 만들어보고 그런 게 보람 있었고, 어려웠던 거는 식생활이나 잠자는 것들 몰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SD청소년문화의집)

이○화: (동아리활동 참가) 1년에 한번 씩 동아리활동 한 걸 모아서 문집 낼 때랑, 문학에 대해 알아갈 때요..

문○예: 저희 동아리에서 시화전을 하는데요, 다 같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개 보람 있는 것 같아요.

김○란: 시화전도 좋지만, MT갈 때가 가장 즐겁고 보람 있어요. 선배들을 많이 볼 때.. 막 친목 같은 거랑 또 대학 얘기도 듣구요.. 좋아요...돈 없이도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경제적인 거 돈이 걱정이 없는 거..(IS청소년문화의집)

조○영: (요리 프로그램 참가) 음식도 만들 수 있게 되었고...만들고 먹어서 좋았어요.(GSG청소년문화의집)

김○수: (동아리활동) 저희 동아리는 만화버튼이라고 해서 뿔치 제작을 많이 하는데요. 자신이 그림을 그리면 만들어 준다거나 코스프레를 해서 무대에 나가는 형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보통 학교에서 못하는 활동이나 축제도 주최를 해보고 많이 접하지 못하는 활동을 한 번씩 참여해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MS청소년문화의집)

곽○은: (영상미디어프로그램 참가) 영상미디어교육에 참여하여 영상을 만들고 나서 보면 되게 뿌듯하고요. 편집하거나 촬영할 때 힘든 것이 있어서 그런 점이 어려워요.(MS청소년문화의집)

(3) 문화의집 참여 후 긍정적 변화

청소년들이 문화의집 활동에 참여하고 나서 스스로 느끼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청소년들은 운영위원회 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프로그램 참가 및 진행과정에서 다양한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었다. 먼저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에 대해 배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된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 사회적 질서, 원활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 특히 상호작용을 위해서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발표력과 표현력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성격과 태도가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인식하고 있다.

① 타인에 대한 배려 증가

먼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주변의 다양한 소외계층에 대해 배려를 하게 된다. 지역사회의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편견에 대해 되돌아보게 된다. 또한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청소년들간의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서로를 존중해주는 의사소통을 해가는 과정에서 인간관계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기르게 되며, 남을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가 길러지고 있다.

윤홍상: 예전에 봉사활동이라면 그 힘든 거를 왜 해? 봉사활동은 대가가 없는 거잖아요. 저 힘든 거를 대가도 없이 왜 할까? 이랬다가 막상 하고보니까 봉사는 이래서 하는구나, 재미있네. 이래서 봉사활동 하는구나, 봉사활동이 꼭 필요한 거구나...그리고 예전에는 할머니가 버스에서 있어도 철이 없어서 그런지 안 비켜드리고 그냥 앉아 있어서 자는 척하고 그랬는데 할머니들 얼마나 힘드실까, 외로우실까, 이러면서 별 생각이 다 들면서 자리 비켜주고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그냥 비켜주고 그런 거(SD청소년문화의집)

남o장: 예전에는 그냥 봉사 받으셔야 하는 분들 그냥 지나쳤죠. 근데 하면서 이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께 도움을 드릴 생각이 들어요.(SD청소년문화의집)

정o옥: 좀 시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봉사활동 하기 전에 장애인을 보는 거랑 장애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안 좋잖아요. 선입견이 있는 건데, 그런 시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생각이 많이 바뀐 거 같아요. 봉사활동 하면서...(YT청소년문화의집)

김z민: 긍정적인 변화는요. 저희가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프로그램 있을 때는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여기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여러 명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을 상황은 없을 거 같아요. 여기는 문화의집 기관이니까 다 같이 모여서 내 의견도 말하고 남의 의견도 들어주고 그러지 여기 아니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거 같은데 회의를 할 때도 그렇고 활동을 할 때도 그렇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하니까 이해심도 좀 많아지는 거 같고 그리고 웬지 모르게 긍정적으로 변하는 거 같아요. 어떤 면에서 딱히 그렇다고 하기 보다는 같이 생활을 하다보니까 혼자 이기적인 그런 게 없어지는 거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같이 활동을 하다가 이기적인 마음이 좀 없어지는 거 같기도 하고, 이해심이 좀 있는 거 같아요. 남의 말을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웬지 기관에 오면 웬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요. 이런 묘한 게 있어요. 그런 건 있잖아요. 나 학원 가야돼 그러면 가기 싫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기관가야지! 기관 가자! 그러면 어, 그래 그러면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같이 생활을 하니까 찡그리는 일도 많이 없는 거 같고, 나 긍정적으로 변했어. 이런 거 보다는 어느 순간 나는 웃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 같아요. 같이 서로 이렇게 협력하면서 한다는 게...(SD청소년문화의집)

이ㄷ현: 긍정적 변화는 좀 많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사고를 많이 쳤어요. 그래서 성격도 고치고 흔히 말하는 보스처럼 행동했거든요. 야! 이거해. 그랬는데, 일단은 위원장이 되면 중립적인 입장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야! 해라! 라고 하면은 절대 위원들이 하지 않습니다. 자! 같이 하자! 라고 하면서 같이 일어서야 하거든요. 그런 변화도 있고, 성격이 일단 듣는 거 많아졌어요. 제가 할 말만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끊었거든요. 이제는 듣고 할 말은 적게 하고 많이 듣고 적게 말하고...(SD청소년문화의집)

최ㄷ현: 사람을 대할 때요. 감정적으로 대하는 게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감정적으로 친구들을 대할 때가 많았거든요. 초등학생들 선생님도 해보고, 여기서 프로그램도 하다보니까요. 사람이 감정적으로만 안 되는 걸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많이 변한 거 같아요. (SD청소년문화의집)

② 발표력 신장

청소년들은 운영위원회나 소그룹 활동 등을 진행하면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언어적 소통을 많이 하게 되고 발표력을 신장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

진ㄷ령: 저는 말을 예전보다는 조리있게 하는 거 같아요. 회의하다 보면은 말 계속 하잖아요. 저 발표할게요. 그리고 그런 거 보면 말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네. 예전보다는 말을 많이 조리있게 하는 거예요...(DS청소년문화의집)

이ㄷ미: 저는 대외적인 활동하면서요, 그룹 분임이나 대표 같은 거 말고.. 지역별로 토의하고 이런 거 하면서 발표력이 생긴 것 같아요...(IS청소년문화의집)

③ 대인관계 확장 및 사회에 대한 학습

청소년문화의집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는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사회관계나 조직의 구조에 대해 학습하게 되며, 대인관계를 관리하는 능력을 쌓기도 한다. 이는 인간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는 현재의 청소년들에게 향후 원만한 성인기로 접어들게 하는 바람직한 토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여진다.

진○령: 하나의 사회조직을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그게 있잖아요. 회장 있고 서기 있고 총무 있고 부회장 있고 부장 있고 부원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아 이런 게 내가 사회를 배워나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죠. 마찰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이진데 제가 생각하는 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면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해요. 활동하면 할수록 더 괜찮은 것 같아요.(DS청소년문화의집)

박○주: 되게 좋은 거는 인맥이 늘어나요. 여기 있으면 덕분에 여기 오는 바람에 지금은 그만 두셨어도 작년에 하셨던 여기 위원분들하고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인맥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인맥이 넓어진다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대인관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점점 길러지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대인관계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를 미리 기반을 쌓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을 그리고 워낙 좋아해서요. 사람들이랑 말하는 거 좋아하고 성격자체가 별로 낮가림도 없고 활발한 그런 편이라서 사람들 진짜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들 착한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사람들이 진짜 사람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인맥 넓혀가서 진짜 좋아요.(DS청소년문화의집)

문ㄷ예: 저는 사람들을 알아가는 것? 그런 거..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좋아요..(IS청소년문화의집)

서ㅇ재: 일단 친구들과 어우러져서 함께 고민을 나누는 게 많이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CC청소년문화의집)

④ 적극적인 성격, 자신감, 리더십 향상

청소년들은 학교 공부 이외에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하면서 자신감을 얻기도 하며,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하게 된다. 또한 활동을 스스로 리드하거나 운영하면서 리더십을 기르게 된다. 청소년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영역으로서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임원 역할 등이 지극히 소수에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적극성이나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여건이 제한적이다. 하지만 청소년문화의집의 동아리활동, 운영위원회 활동은 소집단에서 리더, 프로그램 진행자 등 다양한 역할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리더가 되어 상황을 주도하거나 흐름을 이어가게 하는 역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조ㅇ희: 댄스 팀에서 활동하면서 다른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DY청소년문화의집)

김ㅇ현: 옛날에는 제가 소심한 편이에요. 누가 말을 걸어주기 전에 말을 먼저 건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와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선생님이 하고 리더십캠프 같은 것도 하면서 리더십도 기르고 친구들과 놀다 보니까요. 이제는 제가 먼저 다가가고 이려고 야! 심심한데 우리 뭐 할까? 라면서 제가 먼저 리드하는 것도 생기고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기뻐하면은 가서 좋은 것 좀 배워와라 이러시거든요. 가냐? 어, 늦게 와, 더 있다가 와 이래요.(SD청소년문화의집)

지○진: 저는 원래 좀 소심하고 그랬었는데 코스프레 덕분에 자신감이 생기기도 했는데 여기와서 계속 게임도 많이 하고 선생님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다보니까 좀 봉사같은 게 있잖아요. 시설 이용만 하는 게 아니라 봉사도 할 수 있고 봉사활동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DS청소년문화의집)

김ㅎ기: 음...왠지 주말이요 평소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안가잖아요 그럼 학교 가던 그런 일상패턴이 무너지면서 완전 마음대로 놀아요. 티비도 보고 하는데 그럼 나중에 후회를 해요. 주말에 너무 헛되게 보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주말에 거의 이렇게 청운위 활동이라는 활동이 딱 잡히니깐요 조금 주말을 계획도 잡고 잘 보내는게 긍정적인 변화인거 같아요...저는 잘 못 느끼겠는데 친구들도 적극적으로 변했다 그런 말을 해주는 반 친구가 있어요.(GYT청소년문화의집)

김ㄱ백: 제가 소심한 성격인데 문화의집에(만화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음) 오면서 어느 정도 자신감도 생긴 것 같고,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도 생긴 것 같아요.(MS청소년문화의집)

이ㄱ화: 저는.. 동아리활동하면서 사교성이 좋아졌어요.(웃음) 사람들을 챙겨야하는 직위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IS청소년문화의집)

김○란: 저는 활동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낯가림이 심했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IS청소년문화의집)

송차람: 저는 프로그램 기획을 하면서, 음.. 수동적보다는 능동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IS청소년문화의집)

김ㅎ인: 동아리의 회장이 되면서 다른 친구들도 많이 챙겨야 되고 그래서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DY청소년문화의집)

장□리: 운영위원을 하다보면 사람을 많이 만나고 그러다보니까 사교성도 많아지고 자신감도 좋아지고 리더십도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소심하고 그래서 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다가가지 못했는데 전국청소년참여대회 같은 거 참여하면서 다른 친구들 보면서 많이 배우고 사교성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사교성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DY청소년문화의집)

이○원: 체력이 좋아졌구요. 자신감이 생겼어요.(YS청소년문화의집)

전○미: 저 소심했거든요. 앞에 서보고 그러니까 소심하다기보다 의외로 적극적이고, 전에 회의 같은 거 하면 저는 얘기하면 옆에서 말을 해 하면서 저 혼자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거 아닌 거 같다. 말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YT청소년문화의집)

양○희: 긍정적인 변화는 일단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의견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저 사람이 그러면 그냥 따라가야지, 그랬는데 이제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성격도 밝아졌어요.(YT청소년문화의집)

정○봉: 원래 좀 내성적이었는데요. 여기 다니면서 성격이 좀 달라진 거 같고 그래요.(CC청소년문화의집)

⑤ 태도 및 생활습관 변화

청소년문화의집 활동에 참가하면서 태도나 생활습관이 변화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자신을 돌아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도 하며, 관심분야 동아리활동을 함으로써 보다 부지런한 생활습관을 기르고, 이는 학교생활에도 활력소로 작용하게 된다.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면서 체력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이다.

이○지: (운영위원회 회장) 제가 솔직히 중학교 때는 못 된 애였어요. 맨날 애들 괴롭히고 사고치고, 고등학교도 겨우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짜증났어요. 봉사를 왜 하여야 하는가 먹고살기 바쁜데. 그런데 하다보니까 또 얘기하다 보니까 봉사하는 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많이 착해진 거 같아요. 제가...(GSG청소년문화의집)

정○한: (댄스동아리) 저는 원래 게으른 편이고 늦게 일어나는 편인데 여기 오고 난 후부터는 부지런해졌어요.(MS청소년문화의집)

최○성: (춤동아리) 더.. 학교생활이 즐거워졌어요.(IS청소년문화의집)

홍○호: 제가 많이 낮을 가렸었는데 이곳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활발해지고 학교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풀다보니 학교생활에도 더 충실하게 되는 것 같아요.(DY청소년문화의집)

최○아: 신체적으로 건강해졌어요. 연습하면서요.(YS청소년문화의집)

서○리: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활발해지는 것 같아요.(DY청소년문화의집)

김○진: 일단은 노는 토요일이 바빠졌다는 점 그게 제일 좋고요. 집에서 만날 빈둥거리다가 활동하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회의를 할 때 마다 각자 의견을 준단 말이에요. 원래 학교 학급회의에도 의견 잘 안 내고 발표 잘 안하는데요. 이런데 오면 한 명씩 다 하게 되니까요. 제 의견도 말할 수 있고, 제가 주체가 돼서 진행하니까요. 더 좋아진 거 같아요.(YT청소년문화의집)

송○림: 아까도 말했는데, 운동을 하게 되는 거 같아요. 집에서 더 동영상도 보고 집에서 TV보고 그런 거 보다는 움직이는 게 몸에도 좋잖아요. CA때문에 집에서 더 움직이고 그러는 거 같아요.(YT청소년문화의집)

홍츄기: 토요일날 많이 시간이 남으니까 그때 그냥 집에서 먹고 놀기만 했는데 이제 남은 시간을 조금 더 보람 있게 보낼 수 있어서 좋아요.(CC청소년문화의집)

(4) 시설이용상의 장애 및 어려움

한편, 청소년들이 문화의집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점들도 있는데 그것은 시설의 장비나 공간 부족, 혹은 학교 교사들의 인식 부족, 활동진행 상에 부딪히는 의사소통 문제 부모님등 주변의 이해 부족 등이다.

① 공간 부족

동아리활동이 활발한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특히 주말에는 연습 공간이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 평일 오전 및 학교 수업이 끝나기 전까지 청소년문화의집 공간은 여유가 있지만 학생들이 몰리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빈 공간을 찾아보기 힘들다. 더욱이 여러 동아리들이 나누어서 공간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연습 시간 등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임○진: 어 그런 어려운 점 같은 거는 저는 아무래도 고3이다 보니까 저희는 예체능 쪽이라서 공부하는 편은 아닌데, 연습시간 때문에 못 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또 공연 같은 거를 저희는 많이 해야 되는데 밴드나 그런 거 여기 가입하는 이유가 공연이나 그런 거를 많이 접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쪽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좀 밴드수가 많은데 시간은 짧고 그래서 많이 못나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속상한 경우도 있죠.(DD청소년문화의집)

전○영: 저희 청소년동아리만 쓰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여기서 자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겹치니까 시설 이용하는데 힘든 게 있어요. 지금도 방금 저희 쫓겨났어요. 프로그램한다고 해서....(YT 청소년문화의집)

김○철: 이제 계속 제가 밴드연습실이 좋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춤을 추는 연습실도 하나밖에 없고, 컴퓨터 같은 경우는 여러 대 있지만 이러한 합주실이나 연습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시간이 겹치는...고등학생들한테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 시간에 몰리면은 서로 어느 팀은 못하고 어느 팀은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더 많은 시설이나 더 넓은 공간이 있었으면……. 네 그렇게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CC청소년문화의집)

② 교사의 인식 부족

청소년들이 문화의집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사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학업과 입시 위주의 교육에 치우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심을 활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속에서 외부에서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 부족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을 위축되게 한다.

김○정: (학교선생님들은)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내가 거기 가서 뭐하나? 공부나 할 것이지, 그런데 왜 가냐? 이런 식? 공문이 내려올 때 명예기자? 이런 식으로 내려 오나 봐요. 근데 내가 무슨 명예기자냐 이런 식으로...(DD청소년문화의집)

지○진: 아 학교선생님들께서는 저희 부 하면 너네 무슨부냐 물으셔서 저희 코스프레부요 하면 거기가 뭐하는 데냐 하시고 너네 맨날 모여서 노는 거 아냐 이런 식으로 하시고 걸으로 보기에 저희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해해 주시는 분들은 이해해 주시는데 어떤 분들은 너네 옷이나 만들 거면 그냥 그만둬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DS청소년문화의집)

한○지: 학교선생님들한테는 말을 못해요.

김○정: 춤 추는 걸 이해를 안해줘요.

한○지: 심지어 저희 담임선생님은 아예 하지 말라고도 해요. 회장하

지 말라고 나오라고 해요

김흥정: 춤 동아리 자체를 정말 안좋게 봐요.

한흥지: 지원해주시는 선생님은 해주시는데 근데 선생님 대부분 공부 같은거 때문에 이런거 빠져있으면 안된다고 그러시니깐...(GYT청소년 문화의집)

김흥기: 음...학교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쉬운 게 이 학교라는 공간 말고 다른 공간에서... 애들 같은 경우도 분명히 저 선생님을 학원이나 다른 공간에서 이런 신분으로 안 만났으면 좋게 지냈텐데 그게 좀 아쉬워요...(GYT청소년문화의집)

이근현: 학교에서는 학업에 방해될까 봐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세요. 예전에는 저도 처음에 활동할 때 그러셨거든요. 공부는 안하냐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학생들이 하면 적절히 하는데 이거는 제2의 삶이라고 보거든요. 제1은 자기가 하고 있는 공부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차선책으로 두면 상당히 좋을 거 같아요. 이거를 우선순위로 보는 거는 좋지 않다고 봐요.(SD청소년문화의집)

전비미: 학교선생님들은 일단 인식이 안 좋아요. 그 아이는 춤만 춘다 그러는데, 2학년 들어와서 여기서 리더십을 많이 배워서 2학년 초기에 애들한테 리더십을 학교에서 많이 발휘를 했어요. 그거 때문에 반장이 되었는데, 담임선생님은 반장이 춤만 추고 돌아다닌다. 계속 그런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학교선생님은 리더십은 좋은데 춤만 추고 그러니까 공부 좀 열심히 하지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여기 센터선생님 같은 경우는 인식이 저희를 항상 보니까 나쁜 쪽으로 안 되어 있어요. 편하고 더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차이 같아요. 학교선생님은 제가 연습하는 거를 못 보고 센터선생님은 제가 연습하는 거를 보니까 보는 거에 틀린 거 같아요.(YT청소년문화의집)

양ㄸ희: 아, 그 차이점은 큰데요. 학교 선생님은 제가 비트박스해요. 그러면 그 정도로 알고 계시고, 시선 안 좋게 보세요. 공연 다닌다고 그러면 진짜 시선이 안 좋아요. 양아치 그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선생님들은 밀어주시고, 좋아하시고 잘해 주니까...(YT청소년문화의집)

③ 활동 진행상의 어려움

다음으로 문화의집 활동에 참가하면서 부딪히는 어려움은 청소년들이 직접 행사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들이다.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문화의집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비협조,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제도적 개선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며, 조직이나 집단 활동을 수행하는데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경험이 단체 생활과 사회관계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진ㅎ령: 그냥 세세하게 얘기해도 되요? 사소한 건데 완전 저기 5월쯤에 가족과 함께 하는 숲이야기라고 행사를 열어요. 대학생자원봉사자들 끝났다고 저희 마지막 팀을 짜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DS 운영위원회해서 팀 짜서 지도자분들이 몇 분 안 오셔서 지도할 사람이 저뿐이 없는 거예요 중학생 남자애들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애들이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때 너무 속상했고, 그전에도 회장님 안 오시고 그럴 때 회의할 때 그럴 때는 좀 답답하죠. (DS청소년문화의집)

박ㅇ주: 저희 회의하는 운영위원회 보면 중학교 2학년 남자애들이 많아요 8명? 7명? 이 정도 되는데 되게 많은데 몇 명은 그중에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보여요. 저도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이런 말 해서 웃기겠지만 솔직히 개네보다는 나이가 많잖아요. 막 개

네가 뭐라 그러면 그건 쯤 그렇겠더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몇 명 애들이 자기친구들 오니까 아니면 그냥 재미삼아서 이런 식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의 본연의 목적보다는 놀러오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서 회의에도 참여 잘 안 해주고 의견내라 그래도 듣고 있다가 시키면 앞사람이 했던 말 따라하고 “그냥 열심히 하고 싶어요” 얘기하고 우선은 위원들의 참여가 제일 중요한 건데 쯤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줬음 좋겠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 게 있구요 그래도 괜찮아요.(DS청소년문화의집)

장□리: 우선 힘든 일어요. 문화의집에서 저희가 하는 행사가 많아요 근데 이러한 행사들을 위원회가 아닌 친구들도 같이 많이 배우고 체험하면 좋을텐데 자기 할 일 바쁘다고 안하고 시간관계상 못하고 그러니까 쯤 아쉬워요.(DY청소년문화의집)

김스현: 어려웠던 점은 제가 가끔가다 선생님을 하잖아요. 초등학생들을 지도해 주는데 제가 아직 어리니까 사회경험이 없잖아요. 애들이 말을 안 듣는데 이거를 어떻게 터치를 해줘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화가 나는데 저도 똑같이 화를 낼 수 없잖아요. 선생님은 참으시면서 애들아 왜 그래 하면서 잘 이끌어 주시는데,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 힘들었어요.(SD청소년문화의집)

④ 주변의 이해 부족(부모, 친구 등)

청소년문화의집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부딪히는 어려움은 주변의 이해 부족이다. 특히 부모님이 제대로 이해해주지 않는 경우 혹은 친구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부모님들의 경우 부정적 시선에서 긍정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으며, 오히려 개방적으로 활동을 격려하는 경우도 있었다.

진홍령: 엄마는 그래 가라 이런 거였고, 그렇게 저희엄마가 단힌 분이 아니라 되게 개방적이세요. 통금시간만 쯤 잘하면 그래서 좋은 거

하는구나 이러면서 엄마도 관심 많이 가지시고 이렇게 했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엄마랑 고등학교선생님은 전화 통화할 때에도 혜령이가 이런 활동한다고 하는데요.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이제 친구들이 문제죠. 어른 분들은 이런 사회에서 활동한다고 하면 좋은 일을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격려하는데 친구들은 “그게 뭐야?” 이렇게 반응하죠. 그게 “뭐야? 뭐하는 거야?” 이렇게 반응들이 너무 제가 똥똥지같은 소리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식이죠. “그게 뭐하는 건데? “아 이런 저런 활동 하는 거야” 그 쪽 대충 서론에 뭐 봉사시간도 주고 그러면 그때부터 눈이 확 뒤집어지죠 “뭐? 봉사시간? 나도 할래 나도 할래” 이렇게 되죠. 애들이 봉사시간을 채워야 하니까 힘든니까 봉사시간 때문에 막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DS청소년문화의집)

박○주: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늦둥이여서 언니랑 차이가 있어서. 아빠가 연세가 63살이시구요. 어머니께서 인제 59살이세요. 엄마 아빠는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이 지금 무섭게 바뀔걸 아시면서도 “열심히 하면 돼” 하시면서 그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현실보다 쉽게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쉽게 해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약간 보수적이신 편이세요. 제가 뭐한다고 하면 “에이 그런 것 하지마”하시고, 저는 힙합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런 것 하다보면 제가 듣고 있는 음악 엄마가 들으시고 이게 노래냐고 지껄이는 거지...랩 딱 틀어주면 저는 그 비트가 너무 좋아서 듣고 있는데 엄마는 이게 지껄이는 거지 음악이냐고 엄마에게 음악은 트롯?(DS청소년문화의집)

전비미: 부모님들은 처음에 반대를 했는데요. 제가 대학을 이쪽으로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깐 너 알아서 하라고 하시고, 인식이 바뀌셨어요. 지금 교육청 같은 데서 상도 받아오고 그러니까 내신도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친구들은 아무래도 또래도 보니까 춤추는 애 보면 멋있어 하고 신기해하고,..(YT청소년문화의집)

(5)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안

① 청소년 요구 수준에 맞는 시설 보강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문화의집을 이용하게 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 및 장비들이 지속적으로 보강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장비나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지영: 아이들도 약간 커가고 문화적으로도 자꾸 세대들도 변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컴퓨터 하지 않아도 여기서 컴퓨터 예를 들어서 3명에서 컴퓨터 하고 있으면 친구가 5명에서 왔는데 다 같이 못하잖아요. 그냥 PC방 가서 그냥 돈 주고 하면 되거든요. 그냥 천원 내면 하면 되니까, 노래방도 여기는 좀 청소년 그런 거 하기 때문에 긍정적 문화이기 때문에 노래방도 시간이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데, 노래방같은 것도 친구들끼리 돈 모아서 가면 많이 안 들고요. 그래서 노래방도 일부러 여기서 잘 안 갈려고 하는 것 같고, 문화적인 거에 부족한 게 있는 게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기물 같은데 많이 파손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바로바로 채우지 못하면 청소년들도 바로 바로 또 오기 싫어하고, 노래방도 한때는 신곡이 엄청 오래 안 들어왔어요. 당장 불러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애들도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 게 많이 부족했던 거 같아요. 근데 그런 게 많이 고쳐지고 있으니까 다시 모든 게 달라지고 있다는 걸 친구들도 빨리 느꼈으면 좋겠어요. (DD청소년문화의집)

이희희: 청소년 면에서 봤을때는요 일단 애들이요 피씨방을 많이 가는 이유가요 보통 보면요 거의 80프로가 인터넷 느리고 한시간 밖에 못한다고 안 오구요. 노래방도 제한 시간이 너무 짧다고 안 오구요. 다 보면 시간제가 너무 짧아서 안와요.(GYT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여가를 보내는 공간인 노래방이나 PC방이 청소년문화의집에 자리잡고 있는데 이를 마음껏 이용하고 싶어한다. 대중소비 공간으로서의 노래방이나 PC방은 시간 제한이 없으며 시설면에서 최선을 따라가지만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이를 여유있게 사용하는 것은 부담이 있다. 그에 따라 안전한 청소년문화의집에 이러한 시설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원하는 컴퓨터 시설이나 보드게임방 같은 여가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눈높이와 분위기에 맞추어 인테리어가 개선되어야 함도 지적된다.

윤홍상: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의집인데, 딱히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없어요. 북카페도 청소년이 이용하는 거를 못 봤고, 다 초등학생들이 읽고, 독서실도 시험기간에만 오고 어른들만 독서실 오시고, 청소년이 이용할게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요. 청소년들을 위한 컴퓨터를 할 수 있거나,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거 설치한다면 많이 올 거 같아요.(SD청소년문화의집)

이근현: 일단은 청소년문화의집인데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설을 솔직히 여기 휘트니스 보면 청소년보다 어른 사용자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보드게임방같은 거를 다른 곳보다 조금 더 싸게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SD청소년문화의집)

임○진: 아무래도 다목적 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을 다 저희가 만져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모르는 것도 있고요. 특히 공연연습실 같은 경우는 드럼이나 키보드 그런 게 가끔 고장 나기도 하는데 그런 게 빨리 빨리 안 고쳐지니까 그런 게 조금 불편하긴 해요.(DD청소년문화의집)

김ㅎ기: 더 커졌으면 좋죠. 디자인도 예쁘게 하구. 건물모양도 막 청소년들에게 뭔가 느낌이 오는 모양을 하면 좋죠.(GYT청소년문화의집)

송ㅎ림: 여기 유치원생도 많고, 초등학생도 많은데, 벽지가 어두운거 같아요. 밝게 꾸미면 좋겠어요.(YT청소년문화의집)

② 공간 확장 및 양적 확충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단일 시설에 대한 공간 확충 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신지희: 좀 더 공간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해가 갈수록 저희 연합회 회원들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좁으니까 아이들이 불편해하는 거 같아서 좀 공간만 확장이 되었으면, 시에서도 요즘 지원이 적어져가지고, 그냥 여기 자체보다 시에서 지원이 많았으면 좋겠어요.(DD청소년문화의집)

최ㅎ희: 중 고등학생, 초중고 애들은 컴퓨터. 저, 저랑 저 오빠까지만 해도 놀이터 있으니깐 그때는 놀이터가 그렇게 무섭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위험하잖아요. 놀이터가 놀이터가 아니라 애들을 못 내보내니까 그런 놀이 공간이 없어요. 노래방, PC방, 놀이터? 놀이터도 아니죠. 놀 공간이 없어요...편하게 애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적은데 여기는 있는 게 부모님들이 아까도 어머니랑 같이 오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초등학생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은 안전한 장소가, 안전한 놀이 장소가 있으니깐 여기가 근데 작잖아요. 시설이 작잖아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BB청소년문화의집)

김사라: 저기 연습실 강당 있잖아요. 거기를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밤 되면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더 컸으면 좋겠어요.(YT청소년문화의집)

③ 변화하는 청소년 문화에 맞춰 지속적인 업데이트

청소년문화 및 관심은 시대에 따라 바뀔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 문화의집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지나치게 초등학생이나 주부대상 프로그램이라서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도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지영: 또 여기 프로그램 중에 1층에서 하는 프로그램 4층에서 하는 프로그램 재즈댄스나 이런 거 다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에 종목도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관심있어서 하려고 보면은 거의 아줌마나 초등학교 애들하고 하는 거나 아줌마나 할 수 있는 거나 그런 거 밖에 없는 거 같은 거예요. 저희랑 관련된 저희 고3과 관련된 진로탐색 그런 거나 아니면은 저희 학생들을 위한 그런 것도 좀...아무튼 프로그램도 몇 개 좀 늘려주고, 그리고 만화책 좀 바꿔주고, 기계 좀, 놀 수 있는 것 좀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플스씨디나 너무 다했던 건만, 봤던 건만 하고 했던 것만 하니까 저희가 흥미를 점점 잃게 되요.(BB청소년문화의집)

안지호: 개선될 부분은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는데, 애들이 놀 수 있는 종목이 늘어난 게 거의 없어요. 만화책도 있었고, 포켓볼도 있었고 피씨 방도 있었고, 플스도 있었고, 영화 보는 것도 있었고, 거기서 좀 더 다른 거 애들한테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에 좀 더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BB청소년문화의집)

④ 청소년생활시간 및 생활환경에 맞는 공간 개방

청소년들의 생활시간에 맞는 공간 개방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방과후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늦추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윤홍상: 여기 북카페 같은 것도 1층 식당 같은 경우에 시험기간에 사람, 학생들 많이 오는데요. 10시까지 하는데, 식당은 8시면 식당이나 그런데 1층 문 닫거든요. 저희 친구들도, 저는 원래 여기 다니니까 “야, 여기 문 닫혔어. 밥 어디서 먹으라고” 이러면서 라면 사먹고 오는데, 라면도 한 7~8시면 안 팔고, 8시면 식당 문 닫으니까, 잠깐 쉬려고 해도 설 곳이 없는 거예요. 한 10시까지 여기도 같은 곳인데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가 말 했었나 봐요. 근데 10시까지 여기 문 열어놓으면 여기 밀이 북카페 인데, 책 같은 게 분실되서 안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청소하는 분도 10시까지인데, 10시까지 애들 들락거리니까 어지럽히고 그러니까 솔직히 싫으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SD청소년문화의집)

김홍진: 그니까 청소년들이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확대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벤트 같은 것도요. 이제 많이 공개해서요. 청소년들이 놀러 와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그런 폭도 넓힐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여기가 체육시설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설이 좀 일찍 닫는 다고해서 조금 시간 늦게 까지 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올 수 있을 거 같아요.(YT청소년문화의집)

⑤ 홍보 강화

청소년문화의집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아서 참가하는 청소년들이 적다고 말한다. 특히 학교를 통한 홍보가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학교 교사들이 협조하지 않음에 대해 지적한다. 또한 다양한 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제안을 하고 있다.

가. 학교를 통한 홍보 협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학교를 통한 문화의집 홍보는 문화의집 참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ㄷ현: 저 말고 다른 위원들은 다른 동아리를 하고 있어요. 학교동아리예요. 학교에서 CA인데, 동아리를 하는데, 후배들이나 선배 보면 언니가 하니까 관심 있어서 와서 한번 해보는데 재미있어서 하는 거 근데 홍보가 절실해요. 홍보하는데 절대로 만만치 않아요. 종이 몇 장 만드는데 몇 만원씩 나가니까요. 저희들 돈이 상당히 없거든요. 학교도 많이 배포해도 학교에서는 이런 거 많이 버리거든요. 저희가 그때 개시하는 거 못 봤어요. 운영위원회 것을 각 지역 분야별로 홍보가 상당히 필요해요. 저희가 저번에 홍보할 때는 위에 애들이 홍보지를 크게 만들어서 학교별로 같이 잡았었거든요. 선생님들한테 이거 홍보 좀 해 달라. 그랬는데 알겠다고 하셨는데 선생님들이 한 번도 홍보를 안 하더라고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 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학교 쪽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학업에 방해가 될까봐요.(SD청소년문화의집)

김스현: 저희가 다문화프로그램 이러면서 뭐 만들고, 대안생리대 만들면서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도서관도 있고, 그런데 애들이 이런 프로그램은 모르고 독서실 있고, 휘트니스 있고 그냥 동아리 실 있는 것만 아니까요. 단면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줘요. 야! 우리 이런 거 있어, 몽골도 가는데 싼값에 간다. 가볼래? 이러면서 야! 여기서 그런 거 해? 그러면서 여기를 낫설어 해요. 입으로 전하는 것도 홍보지만 좀 더 학교에 이런 거를 알려서 저희 뭐 합니다. 이렇게 알려주었으면 좋겠어요.(SD청소년문화의집)

지ㅇ진: 애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여기가면 돈 받는거 아냐? 하고 아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선생님들께 너희가 학교 끝나고 나서 피씨방이나 오락실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그런 거를 선생님들께 부탁을 해서...(DS청소년문화의집)

김ㅎ기: 아무래도 청소년들의 홍보타켓을 고등학교 미만으로 주로 사용해야 될 거 같구요. 아무래도 초등학생 중학생은...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잘 밖으로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홍보를 하는 게...(GYT청소년문화의집)

나. 방송을 통한 홍보 강화

학교를 통한 홍보 외에 방송을 통한 홍보를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일상에 큰 파급효과를 주는 TV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청소년문화의집에 관한 홍보를 제안하고 있다.

박○주: 저희학교가 그나마 가까우니까 애들이 아는거지 솔직히 저 이 친구 아니었으면 DS 아니 청소년문화의집보다는 그 뒤에 있는 다목적 체육관이 크니까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와 저기가자 우리 런닝머신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해요. 거기가 뭐하는 곳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하는 텐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상상 이상으로 되게 좋은 곳인 거예요. 그런 거를 이 행복을 혼자 누리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더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전파를 시켜야죠...무한도전, 1박2일 이런 것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중파 같은데서 만들어가지고 청소년들 막 문화의집마다 따라다니면서 요즘 무슨 일을 하고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이런 것처럼 다가가기 낯선 소재 임에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유명해진 책들도 있고 그게 프로그램화가 된다면 학생들은 TV 많이 보고 컴퓨터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TV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홈페이지도 만들어질 꺼고 좀 더 청소년문화에 대한 인식이 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DS청소년문화의집)

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홍보

청소년들은 문화의집을 알리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축제나 공연 등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도심의 대형백화점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놀이 공간에서 문화의집을 홍보할 것을 제안한다.

진○영: 홍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딱 보면 청소년문화의집하면 대부분 그냥 아는 애들만 아는 거죠...저희가 그래서 그 여기 문화의집을

알리자 해서 고안해낸 게 2006년도 초에 나온 얘기가 그러니까 애들이 보통 좋아하는 코드가 공연, 축제 문화 이런 거 같아요 놀고 먹고 즐길 수 있는 이런 거라서 고안해낸 게 축제문화고 그래서 열은 게 우당청...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했었는데 저는 2년 동안 관객이었죠 맨 앞자리 애한테 로비 좀 넣어가지고 맨 앞자리 애한테 부탁하고 맨 앞자리 내꺼야. 딱 찾는데 거기 제자린데 이려고 와가지고 앞에서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호응을 해야 하나 멈칫할 수 있는데 옆에서 박수 치고 호응에 주면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게 되었으니까 저 그것만 믿고 죽어라고 앞에서 계속 뭐만하면 “까” 이려고 “멋있어요” 박수 치고...저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홍보인 것 같아요. 알린다는 말 자체가 포함되어있는 단어에다가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은 뭘 알아야 참여를 하고 뭘 알아야지. 뭘 생각도 하고 이러는 거니까 우선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DS청소년문화의집)

전홍은: 다 좋은데, 이용하는 애들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홍보를 해도 효율적으로 하지 않는 거 같아서 그게 좀 아쉬운 거 같아요. 저번에 홍보도 홈플러스 앞에서도 했거든요. 그런 장소에서 하는 것 보다 차라리 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 있잖아요. 놀이터라든지 찾아가서 홍보하는 게 더 많은 홍보를 올릴 수 있을 거 같아요.(YT청소년문화의집)

라. 인터넷을 통한 홍보

개별 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 뿐 아니라 청소년문화의집이 대중적인 검색 엔진으로 찾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근래에 청소년들은 궁금한 정보를 찾는 데 있어 인터넷이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이나 관심 프로그램 등을 검색했을 때 청소년문화의집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손서희: 좀 그 홈페이지만 치우치지 말고 다음인가 그런 새로운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새로 개설된 사이트도 블로그나 검색할 수 있게 검색해서 알아 볼 수 있게 했으면...(GYT청소년문화의집)

3) 요약 및 소결

이상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청소년들과의 면담을 통해 그들의 이용실태, 시설이용 과정에서 부여하는 의미, 시설이용과정에서 인식되는 긍정적인 변화, 시설 이용과정의 어려움 및 향후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1) 이용 계기

먼저, 청소년들의 시설 이용 계기를 살펴보면 청소년문화의집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 원하는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이용하게 되거나 관심있는 동아리나 단체활동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용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대부분 친한 친구나 선배 등이 문화의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계기로 문화의집을 이용하게 되며, 부모님의 권유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 운영위원회 활동이나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어 학교에 붙어있는 공문을 통해 문화의집 활동을 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2) 시설 이용 의미

청소년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여하는 의미를 살펴보면 자신의 관심분야나 진로에 대한 산지식을 얻고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들 수 있다. 관심 분야의 동아리활동, 문화의집의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및 경험을 쌓는 경우도 있었으며, 아동 및 청소년들과 상호작용하는 지도사 및 복지사들을 접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미래도 이와 관련된 직종으로 향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직접적인 진로에 대한 지식은 아니지만 문화의집 운영위원회 및 동아리활동을 통해 향후 진로를 위해 필요한 설득 기술을 익히고 있는 청소년도 있었다. 또한 청소년문화의집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학교와 학원 집을 오갈 때는 알 수 없었던 지역사회의 현안과, 다양한 이웃들을 만나면서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실이나 안식처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만나는 친구들이나 선배, 지도사들과의 사회관계를 통해 대인관계 방식을 배우며, 사회 집단과 조직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사회적 측면과 함께 새로운 활동이나 프로그램 참가 등을 통해 기존에 체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지식이나 경험 등을 함으로써 자신의 인생 행로의 전환점을 마련하거나 목표를 새롭게 다지는 경우도 있었다.

(3) 시설 참여와 개인적 변화

이러한 청소년문화의집 참여과정을 통해 청소년들 스스로 인식하는 변화는 먼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에 대해 배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된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 사회적 질서, 원활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 특히 상호작용을 위해서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발표력과 표현력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성격과 태도가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변하였다고 인식하고 있다.

(4) 청소년 이용 활성화 방안

한편, 청소년들이 문화의집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점들도 있는데 그것은 시설의 장비나 공간 부족, 혹은 학교 교사들의 인식 부족, 활동진행 상에 부딪히는 의사소통 문제 부모님등 주변의 이해 부족 등이다.

향후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들이 제안하고 있는 것들은 청소년 요구 수준에 맞는 시설 보강, 공간 확장 및 양적 확충, 변화하는 청소년문화에 맞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업데이트, 청소년생활시간 및 생활환경에 맞는 공간 개방, 홍보강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문화의집 홍보를 위해서는 학교교사들의 협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서의 축제 등 이벤트 개최, 방송프로그램 활용, 인터넷 검색 엔진 활용 등을 제안하고 있다.

3.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실태 조사

1) 조사개요

청소년문화의집을 꾸려나가는 또 다른 중심축은 운영자와 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이 청소년문화의집을 제대로 운영하고 안정적으로 청소년들과 상호작용할 때 청소년 참여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그에 따라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자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시설이용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각 시설별로 운영자와 지도자 1-2명을 대상으로 시설에서 청소년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얻는 보람, 청소년들이 시설 이용 및 활동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역사회에서의 위상,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 향후 개선방안 및 방향성 모색 등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들에게 보다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고 그 시설 내에서 청소년들과 상호작용하는 지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III-20> 조사개요

조사대상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자와 지도자
면담조사내용	연령대 경력 청소년문화의집 종사 계기 시설현황 시설운영(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보람 시설운영에 대한 개선방안/발전방안 지역사회에서 시설의 위상/지역사회와의 관련성/연계방안 청소년들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의 보람/어려움 청소년들의 공간/프로그램 이용 추세에 대한 인식 청소년 참여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청소년문화의집 관장 및 지도자 등을 포함하여 총 24인이 면담에 참여하였다. 면담 참가자의 특성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II-21> 참가 청소년지도자 현황

	소속시설 (문화의집)	지도자 이름	직책	나이 (만)	성 별	경력 (해당문화 의집)	이전경력	중사계기
수도권 대도시	SD청소년 문화의집	양ㅇ리	관장	54	여	3년	YWCA사회복지(10년), 여성인력개발 (10년)	YWCA는 다방면으로 해야되고 청소년분야 알아야 해서
		방ㅇ즈	지도사	26	여	4년 (첫 직장)		친구소개로 지원
	BB청소년 문화의집	고ㅇ비	관장	43	남	1년 8개월	서울YMCA (10년)	공모 지원
		이ㅇ사	팀장	35	남	11개월	청소년관련 센터 (3년)	청소년미디어센터와 같은 재단이어서 인사이동
	DD청소년 문화의집	김ㅇㅇ	관장	47	여	9년	교육운동 (9년)	위탁기관 대표, 관련 자격증 갖추 (사회복지, 작업훈련교사 등)
		이ㅇ즈	팀장	35	여	6달	서울지역 청소년수련관 소속 청소년문화의집 (3년)	주위사람 소개
	YT청소년 문화의집	김ㅇㅎ	관장	34	여	6년	YWCA 청소년부서 근무	YWCA에서 위탁을 받아서 책임자로 인사이동
		김ㅇㅎ	주임	27	여	4년	타 청소년 문화의집	YT에서 새로운 비전과 유능한 관장님과 일하고 싶어서
	DS청소년 문화의집	서ㅇㅎ	국장	38	여	4년10개월	청소년단체 활동 (7년)	공고가 있어서 지원
		김ㅇ리	지도사	38	여	4년10개월	사회복지관	청소년 쪽 일하고 싶었는데 개관해서 오게 됨.

	소속시설 (문화의집)	지도자 이름	직책	나이 (만)	성 별	경력 (해당문화 의집)	이전경력	종사계기
중소도시	GYT청소년 문화의집	최○사	사무 국장	54	남	4년	흥사단 회장	흥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즈	지도사	41	여	4년	흥사단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	흥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CC청소년 문화의집	신○사	관장	46	여	2년	YWCA부설기 관 (6년)	YWCA에서 인사 발령 받음
		신○사	지도사	30	여	1년6개월		공고가 나서 지원
	IS청소년 문화의집	박○사	관장	47	여	17년		청소년에 관심 많아서(교사자격증,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박○비	지도사	44	남	8년		청소년시설 근무한 분 얘기를 듣고서
		이○호	지도사	25	여	2년6개월		사회복지전공인데 아동 청소년에 관심 있어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따고 오게 됨.
	YS청소년 문화의집	이○사	관장	53	여	13년		성직자이고 종교인이기 때문에
		최○흥	지도사	33	여	8년	대학교 조교	공예전문가 모집을 하여서 전공을 살리기 위해 지원함
	MS청소년 문화의집	이○즈	관장	39	여	6년	YMCA 청소년부 간사	YMCA에서 위탁을 받아서
		김○흥	지도사	34	여	6년	YMCA	YMCA에서 위탁을 받아서
	군·읍· 면지역	DY청소년 문화의집	김○사	관장	62	남	2년	
안○사			지도사	31	남	6년		다른 과였지만, 우연히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따서 들어오게 됨.
GSG청소년 문화의집		이○○	지도사	27	여	4년6개월	복지관(1년)	우연한 기회에 문화의집 종사하게 됨

2) 조사결과

여기서는 현장조사를 수행한 청소년문화의집 관장 및 팀장, 혹은 담당 청소년지도자와의 심층 면담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내용은 청소년문화의집의 존재에 대한 의미부여, 청소년들의 시설 이용 및 활동 참여 지도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 지역사회 및 학교와의 연계 현황, 청소년참여 활성화 방안 등이다.

(1) 청소년문화의집의 존재 의미

청소년문화의집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로 정의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이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성과들이 보여지고 이를 통해 보람과 청소년문화의집의 존재 의미를 찾고 있었다.

① 청소년 문화 생산에 기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자들 및 지도자들은 청소년들이 일반 대중소비 공간에서 여가를 즐기며 소비문화를 즐기는 데 머무는 경향이었지만,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면서 소비공간을 문화의집으로 끌어들이어 청소년 활동을 양성화하면서 오히려 소비공간에서 청소년문화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갖게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다. 대중문화가 단순히 소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은 춤이나 음악, 만화 등을 즐기면서 나름대로 문화생산을 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문화 생산의 장(場)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김○□ 관장: 아이들이 이 공간을 편안한 집 같은 공간으로 생각한다는 게 가장 기쁘고, 한번 여기서 꾸준하게 열심히 일했던 아이들은 꾸준하게 여기를 찾고, 찾아와야 한다고 생각한 것만으로도 좋고... 제가 문화의집 운영하면서 기본방침은 거실문화였어요. 거실문화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편하게 노는 공간이 없잖아요. 함께 논다는 놀

권리를 찾아주거나 거실에서 편안하게 부모님들이 지켜보면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또 하나는 방문화. 어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방을 다 열어놔요. 피시방, 놀이방, 만화방, 춤방, 오디오, 비디오방 방을 모이는 거잖아요. 소비문화를 다 모아놔잖아요. 그 소비문화를 모이는 거를 안방에서 거실에 놀듯이 한다는 특성 하나와 또 하나는 소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비적 공간을 생산적 공간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거죠. 그 아이들의 힘으로...노래방은 노래방을 통해서 아이들이 연습하고 랩 대회를 한다거나, 전국 랩 대회를 한다거나 춤방이 있으면 전국 춤 대회를 한다던가. 만화가 있으면 만화경진대회를 통한대던가, 뭐 만화 교육을 한다던가, 피씨 교육을 한다던가.

김○ㅎ 지도사: 마산은 청소년이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적은 편입니다. MS청소년문화의집이 유일무이한 공간이기도 하고 청소년단체들은 많이 있지만 이런 환경을 제공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작년까지는 없었고 올해 우리누리 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을 하면서 지금 상황을 추이를 보고 있는 상태이고 지역의 특성상 이 곳이 접근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화의집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내고 직접 청소년들이 요구로 인해서 그들이 직접 운영도 하고 기획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만화가 정말 좋아서 모인 친구들이 학교에서는 코스프레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학교 선생님의 눈으로는 그런 문화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코스프레를 한다거나 하면 조금은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친구들이 한 곳에 결집을 하고 모여서 직접 자기들이 그 문화를 주도해 나가고 직접 축제로까지 기획해내는 과정을 보고 공연까지 올리는 과정을 보면서 청소년들의 힘은 무한하고 어디가 끝일까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하는 일은 정말 없어요.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자극만 조금 주면 아이들이 해내고 또 그것을 보면 제가 한 것은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해내는 것을 보면 보람이 있어요.

이○스 지도사: 우리가 2004년에 오픈을 하고 첫 청소년의 달 행사, 청소년주간 행사였는데 그걸 기획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게 좋을까 라고 했을 때 왜 거의 모든 청소년 축제나 행사가 대동소이하잖아요. (중략) 그러다가 아이들이 서는 무대는 많고 하지만 현재 가요제나 이런 축제위주로 가는 것들 그나마 우리가 좀 해서 제대로 된 무대에 한번 세워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데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개사를 한다거나 창작곡 같은 것을 한번 올려보자 라는 취지로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처음 그렇게 해서 나름 무대를 만들고 했었는데 그 때 그 남구인데 남구에 남구청장님이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청소년 달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문화의집이 처음 생겨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이런 실력이 있고 이런 무대를 만들 수 있구나 더군다나 그 예산으로 할 수 있구나 하고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2회 3회 하면서 또 우리가 힘을 얻어서 그때는 국가청소년위원회였는데 위원회 위원장 상도 받고 상신을 하고 받고 이러면서 올해는 4회째 하는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매월 5월이 되면 전국에서 홈페이지에 눈으로 보고 신청을 하고 해서 100 몇 명 팀이 신청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이렇게들 하면 그때마다 보람이 있고 뿌듯함을 느끼죠. 그게 대표적으로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② 문화의집을 거쳐 간 청소년들의 성과

문화의집에서 활동을 하던 청소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여 뛰어난 성과를 보일 때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문화의집의 의미를 찾게 된다. 문화의집 댄스 동아리에서 활동하던 청소년들이 최고 댄스가수의 춤 지도를 하는 위치에 오른 경우도 있고 세계 B-boy 경연대회에서 1위를 하기도 했다는 사례를 들면서 이들의 다양한 역량을 살려줄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열악한 지역여건 속에서도 문화의집 활동에 참가해 온 청소년들이 전국대회 입상 등의 성과를 보일 때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의 의미를 찾고 있다.

김○□ 관장: 1200만원 가지고 1년 내내 쓰는 그중에 70만원 가지고 전국대회를 4번을 했다. 그러면 280-300만원 갖고 안 되는 돈으로 출혈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과물이 얼마나 뛰어나요. 이효리 선생에다가 연대 교수 강사까지 나가는 애가 나타나지 않냐하면....그 수많은 자기 잡(job)으로 활동하는 애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 게 세계대회 나가서 1등도 하고, 전 세계 1등도 했어요. 한 친구가...왜 그런 것들을 모르냐는 거죠. 그 당시 그 애들 설 땅이 없었어요. 연습할 땅도 없어가지고 울고 다니는 애가 생긴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100개가 있었어요. 100개 동아리가 그냥 몰려와서 이 B-BOY특성은 내가 찾았다. 내 땅이 아니라 여기서 연습하면 여기서 연습하고 보고 서로 같이 응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었으니까 가능했지 이 좁은 땅이 여기도 얼마나 좁아요. 저 마루가 돼 있는 땅이 없었던 거야. 마루가 없는 수련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난 마루에 목숨을 걸은 거예요. 저 조그만 마루라도 얼마나 큰 빛을 발했는지 몰라요.

신○□ 관장: 제가 연초에 동아리 오디션을 해요. 그러면 각 학교에서 이제 청소년문화의집 소속 동아리가 되기 위해서 많은 동아리들이 신청해서 오디션을 봐요 처음에는 좀 서툴고 하더라도 1년여에 걸쳐서 저희가 또 많은 공연 기회도 만들어주고 하다보면 아이들이 자신감 있게 공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변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보람을 느끼고요. 처음에는 그 사회 진행을 맡겨 봐도 이렇게 좀 어눌하다가 그게 능숙해지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각 학교하고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초창기에 그 프로그램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과 또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1년여의 선생님의 케어를 받은 후에 받은 자존감이 높아지거나 그래서 말이 긍정적으로 자기표현을 한다거나 웃음이 더 많아진다거나 선생님한테 더 친하게 와서 접근을 한다거나 이런 변화를 본다는 것이 보람이 있지요.

김홍수 관장: 저희들이 작년에 모형비행기라고 그것을 프로그램을 작년
 년에 했었는데, 거기서 학생들이 시간을 내서 짬짬이 모형비행기 연
 습을 많이 하고 또 그래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거기서 은상을 받았을
 때, 그 학생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아..그래도 단양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본인으로서는 단양 여건으로 봐서는 경제사정으
 로 그 모형비행기를 움직일 수 있는 학생들이 없는데, 저희들 시설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그런 걸 모형비행기 연습을 하고, 또 전국대회
 에 나가서 은상까지 받았다는 건 참으로 학생들이 기분 좋아하는 걸
 저희들 시설을 이용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좋은 경험을 갖게 되었
 다는 거... 그런 것이 저희들로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서지홍 국장: 그 친구가 여기 변동중 가까운 중학교를 다니는데, 자
 주 여기를 놀러오고 공식동아리는 아닌데, 춤도 춘다고 하고 연극도
 한다고 하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12월 달마다 청소년 동아
 리 대축제라고 강당에서 여기 있는 아이들 밴드도 하고 가족끼리 오
 라고 해서 풍물 수업도 받고 하는 거 공연도 시켜요. 엄마들 와서 보
 시라고, 그 아이가 똘똘하고 그래서 너 한번 사회 볼래? 그랬더니 중
 학교 2~3학년 때? 해보겠대요. 욕심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도 회
 장하고 했던 아이예요. 리더십이 있던 아이예요. 제법 잘해요. 그래서
 청소년운영위원 있는데 해볼래? 그랬더니 좋대요. 하면서 그때부터
 하는데 당차요. 내가 봐도 진짜 똘똘해요. 그 아이가 대전에서 한발
 고 여기 다니면서 회장을 하다가 어떻게 아버지가 천안으로 가서 전
 학을 갔는데, 거기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와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번 주 토요일 날도 보건복지부 상이 상금 10만원이었대요. 과일이
 랑 케이크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하여튼 공부도 제법 잘하고, 리더십
 도 굉장히 잘하고 이 애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우리 생각도 마찬
 가지지만 청소년운영위원회가 공부 못하고 짜질한 아이들 받기 싫다
 는 거야. 이미지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우리는 그 아이가 청소
 년인데도 많이 배웠어요. 굉장히 당차요. 완전 카리스마예요. 레크리
 에이션 강사가 어떻게 빵꾸가 났어. 그래서 우리 어떡하면 좋겠냐고

했더니 내가 좀 해보고 싶다 하는 거예요. 몇 백 명 앞에서 너무 오버를 해서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이번에 장관 상을 받았더니 교장선생님이 점수가 올라간다니?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이 자기를 너무 예뻐해서 죽겠데요. 그러더라고요. 상 받은 것 때문에...

③ 부적응청소년 변화

문화의집 활동은 학교 부적응청소년이나 가정이나 사회의 다른 영역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적응이 어렵거나 비행을 일으킨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문제행동을 했던 청소년들을 자원봉사 동아리에 가입하게 하여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주도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사는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며, 가정이나 학교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심리치료까지 지원해 줌으로써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가. 동아리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변화

청소년문화의집의 동아리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 혹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기르게 된다. DD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지역사회 정화 활동을 하는 동아리를 결성하여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보였던 청소년들을 참여하게 하여 성과를 보였고, YT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댄스 동아리활동을 통해 문제행동을 보이던 청소년이 비보이 대회에서 상을 받고 댄스 지도까지 하게 된 경우, 학업 중단을 생각하던 청소년이 비보이 활동을 허락받고 학교도 충실히 다니게 된 사례도 있다.

김○□ 관장: 갈취도 하고 나쁜 짓 많이 하고 여자아이인데 근데 여기 와서 DYP(청소년스스로지킴이활동) 처음 결성해서 DYP 준거야. 갑자기 자기를 인정해 주는 곳이 생겼잖아. 목숨을 거는 거지. 목숨을 걸고 하니깐 또 상까지 받았어. 상 받는 장면을 본거야 학교에서...

기가 막히게 내놓은 문제아가 여기 교장선생님이 마침 여기 또 왔어. 상을 받는 장면을 보고 기절하신 거야. 재네가 무슨 상을 만나고. 어떻게 상을 받을 수 있냐, 어쩌냐 하면...DYP는 다 문제아예요. 갈취도 하고 다 그런 게 많아...한번 실수할 수 있잖아요. 어느 한 공간이라도 부모한테도 인정 못 받지, 학교도 인정 못 받지. 어느 한 공간에 서라도 인정을 받으면 애들이 다 커요.

김지홍 주임: 우선은 학교에서는 공부를 좀 안하고 좀 말썽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희 동아리활동을 하는 친구였는데, B-BOY 동아리 하는 친구였어요. 좀 가정 형편도 안 좋고 할머니랑 같이 사는 그런 친구인데, 춤을 추면서 상도 타고 B-BOY대회에서 상도타고, 지역 큰 대회에서도 수상을 하고, 그 동아리가 세계대회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춤을 추면서 아이들이 삶의 목표도 생기고...싸이언에서 B-BOY대회를 했었는데, 그때 넷TV에도 나오고, 그중에 한 친구는 세계에 그런 B-BOY 대회에 나가고, 아이들이 굉장히 춤을 잘 추게 되어서 삶의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아이들이 공부도 안하고 말썽 피우고, 싸움하고 경찰서도 갔다 온 적도 있고 이러는데 아이들이 춤을 추면서 굉장히 성실해지고, 춤을 하루에 12시간 정도 추거든요. 그니까 우리나라 B-BOY가 켈 강한 게, 그 거래요. 정말 그 끈질긴 열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근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리나라 B-BOY가 최고로 알아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살고, 또 학교도 원래는 좀 못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춤가지고 스트리트 댄스 과에 합격을 하고 아이들이... 대학교도 가고, 그리고 그중에 한 친구는 저희 강사로도 활용할 만한 수준이 돼서 활용도 하고 그런 거 같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역시 같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활동하고 있는 춤에 관심있는 또 다른 청소년 사례에 대해 말하고 있다.

김지흥 주임: 저희 동아리활동이 있는데 B-BOY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찾아오셨어요. 우리 애가 왜 춤꾼이 돼야 되냐고 저희가 강요한 거 아닌데, 저희가 강요했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계속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아버지한테 이 친구가 그나마 춤을 춤으로써 자기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말 열심히 살 수 있는 삶의 목표를 얻은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라고 우리 애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근데 꼴찌 하는 친구거든요. 정말 공부에 관심 없는 애예요. 본인은 아이를 계속 공부를 시켜야 된다. 물론 부모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공부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 이 친구가 만약에 이런 것까지 막으시면 더 어두운 곳으로, 문화의집이 정말 건전한 곳인데 이런 문화의집이 아닌 정말 어두운 곳에 가서, B-BOY문화가 하위문화잖아요. 그런 하위문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놀래시더라고요. 그럼 여기가 그렇게 좋은 곳이냐고 여기 설명해 드리고 알겠다고 허락하겠다고, 그래서 그 친구 지금도 춤을 추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잘 할 수 있는 무언가에 집중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막는다면 제가 많이 설득해 보았어요. 너, 공부가 중요하다. 계속 설득했는데 자기도 공부가 중요한 거는 알지만, 공부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그 친구가 잘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공부와 춤을 병행하라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그 친구 춤을 막으면 학교를 포기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학교를 포기하느니 2개 같이 하는 게 좋잖아요. 학교포기 하지 말라고 얘기해서 지금 학교도 잘 다니고 있고, 춤도 열심히 추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가장 보람이 있는 거 같아요.

한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인내심을 배운다든지, 새로운 체험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배우거나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었음도 나타났다.

이○○ 지도사: 프로그램 하는 애들은 제가 3개월 만났는데 제가 요리를 하잖아요. 요리를 하면 조금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븐

을 돌린다든지 10분이든지 20분이든지 기다려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는 빨리 안 돼요? 빨리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는 타이머가 있으니깐 그걸 보면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많이 변화가 된 건가 느끼게 돼요.

양□□ 관장: 작년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외프로그램 하나 했거든요.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해줬는데, 몽골탐방을 갔어요. 칭기즈칸 리더십을 찾아서, 그걸 하면서 청소년 봉사활동 같이 겸해서 했거든요. 거기 참석하는 애들이 이쪽 애들(대부분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임)도 포함되지만, 강남 애들이 있었어요. 외국어 고등학교, 특목고 가는 애들 많았어요. 애들이 가서 그 애들 세계를 본 거예요. 같이 있다 보니까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다른 애들도 있구나, 나만 뒤졌구나. 이런 것을 느낀 거예요. 나는 안 되겠다. 도저히 내가 한국에 존재하려면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피터지게 하더라고요. 칭기즈칸 리더십하면서 대학과정 강의도 듣고, 칭기즈칸이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걸 공부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볼 때 그런 위대한 부분은 자기가 배울 건 배워야 된다. 굉장히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씩 애들에게 체험 하나 하나가 다르더라고요. 강남에 있던 애들도 부모님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자기는 정말 잘 사는 집이기 때문에 유럽쪽이고 선진국은 굉장히 많이 다닌다는 거죠. 근데 몽골 갔다 와서 가치관이 달라졌다고, 자기가 정말 공부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공부에도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하게 된다고 적극성을 띠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청소년지도사들의 관심을 통한 변화

청소년문화의집의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들의 변화도 있지만 청소년지도사들의 꾸준한 관심을 통해 부적응청소년 혹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던 청소년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정환경이 어렵거나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고민이나 어려움을 털어놓을 곳이 없

었지만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청소년문화의집 지도사들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열고 보다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되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지도사들은 직업적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양□□ 관장: 여기 동네 훗집 하는 그 분이 계시는데, 도대체 방□□ 선생님이 누구냐고? 자기 아들이 누구 칭찬하는 거 본적이 없는데, 문화의집 다니고 나서 애가 달라졌다고 그래요. 지금 그런 애들이 청소년위원회 31명에서 반 이상 그래요. 그 부모들이 문화의집만 간다고 하면 뭐든지 다 믿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 만큼 안심이 된다는 거죠. (중략) 한 친구는 결혼가정이라 어머니가 안 계시거든요. 아버지도 지방에 내려가서 건축 일을 하고 그러는데, 형하고 둘이 사는데도 그렇게 자기는 너무 방황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냥 이 동네 여기가 공원이었는데, 안 좋은 애들 몰려있는 공원이었어요. 여기가 그때 애들이 여기 와서 지지고 볶고 살았었는데, 자기가 여기 와서 정말 사람 하나 태어났다고...

결국 비행이나 문제 청소년들에 대한 훈계나 처벌보다는 성인지도자의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가 부적응 청소년들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 지도사: 저희 기관에 독서실이 있잖아요. 독서실에 왔는데 너무 떠드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눈여겨봤다가 그 친구들이 라면을 먹으러 내려왔는데, 너네 봉사시간 필요하지 않아? 우리 이런 프로그램 있는데 같이 해볼래? 했는데, 어 그래요. 그러면서 왔었어요. 그때 애들이 왔던 것도 그 전에 제가 계속 떠든다고 뭐라고 했기 때문에 뭐야 저 여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왔었어요. 같이 활동하다 보니까 재미있고, 경험해보지 못한 활동이었고 색다른 프로그램이었고 자기네 들끼리 할 수 있고 오던 친구들이 계속 활동 위주로 돌아가기도 했었어요. 이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뭐가 고민이야 얘기 하다보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이제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될 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자, 2006년은 그 친구들 데리고 남자 학생 4명을 데리고 공부동아리를 제가 만들었어요. 학교 끝나고 바로 와서 저는 스케줄 체크만 하고 공부 계획 짠 것 체크만 해주고 같이 공부하고 그러다보니까 애들끼리도 너무 친해지고 저도 그 아이들과 너무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갔는데, 솔직히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 문제 학생들이었어요. 싸움도 하고 소위 말하는 일진들이고, 동네에서 싸움하면 조금 이름 있고 선배들하고 관계있고 이런 친구들이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실업계를 갔어요. 실업계 가서 있었는데 활동을 하고 계속 지나다 보니까 그 중 2명 실업계 갔던 친구들이 목표가 생긴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거는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왔던 실업계가 자기한테 맞지 않고 목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전학가게 되고 전학 가서 다시 이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주위 애들한테 변화가 되고...(중략) 정말 놀란 게 우연히 길거리를 가다 저희 아이들을 보면 너무 안 어울려요. 정말 썩 양아치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의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애들 중에 저희 애들이 같이 있어요. 너무 안 어울려요. 너, 거기서 뭐해? 친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애들이 그 무리 안에서 그 문화에 젖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따로 목표 세우면서 자기 친구들은 이렇지만 본인은 해야 될 게 있고 자기 대학은 어떻게 갈 거고, 전혀 그런 거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자기는 수시로 가고 싶은데 어느 학과로 가면 좋은지, 자기는 커서 뭐하면 좋은지 진로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그런 식으로 한두 명씩 연계가 돼서 조금씩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조금씩 그 안에서 친구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조금씩 변해가는 거 같아요.

신코스 지도사: 조금 비뚤어진 아이들이 여기도 가끔 와요. pc부스가 있다 보니까 자퇴를 했다거나 학교를 안 갔거나 무단결석했다거나 그런 아이들이 여기 왔을 때 저희가 막 쫓아내지를 못하잖아요. 그

아이들 뭐 이렇게 간식도 좀 주고 포용하면서 상담도 좀 해주고 이러면 또 자기네가 고마움을 많이 표시를 해요. 그런 것들도 참 보람이 있는 거 같아요.

서지호 국장: 뿌듯한 거는 그냥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커 가는 게 다 보이잖아요. 초등학교 때 왔던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가면 자주는 못 와도 일 년에 한두 번 오면 확 커버리니까 처음에는 못 알아봐요. 그 아이는 잊어먹지 않고 와요. 대학가서도 와요. 그리고 우리가 못 알아보면 얘기하다 보면 너 어떻게 알고 왔니? 그러면 누구잖아요. 어, 네가 그 애구나. 찾아오더라고요. 생각이 나나 봐요. 또 한 예로는 그 아이가 엄마가 있는데 친엄마가 아닌가 봐요. 때가 됐는데 밥 먹으러 안가고, 밥 안 먹어도 된다고 하고 애가 계속 그래서 그런 가보다 했는데, 애가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 아이가 4학년 초에 항상 빼닥선 탸어요. 하루는 봤는데 손이 통통 부었어요. 반지를 쥘는데, 이게 안 빠진다는 거예요. 손이 새까맣게 이거 손에서 빼야지 했는데, 지가 해 봤더니 안 빠진다는 거야. 남자아이인데 한 500원짜리 반지를 했나 봐요. 엄마한테 얘기해 했더니 얘기 했데요. 선생님한테 얘기 하라고 했더니 했데요. 그래도 가만있는 거야. 안되겠더라고요. 여기 선생님도 안 되겠다고 해서 금은방가면 이거 잘라준다고 하더라고요. 데리고 갔어요. 저까지 근데 너무 부어서 못 자른다는 거야. 그 애도 걱정이 되지, 통통 부어 가지고 시커멓게 피가 안 통해서 이게 이틀이 됐다는 거야. 안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여기 와서 119를 불렀어요. 119가 와서 풀어줬어요. 그 뒤로 애가 눈빛이 풀어졌어요. 눈빛이 풀어지고, 뭔가 나를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 우리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끊어 주었으니까 그 뒤로부터 애가 풀어지고 살갑게 하고 친구들 하고 잘 지내고, 제가 좀 챙겼어요. 공부할 거 가지고 와서 하라고 자꾸 얘기해 주고, 수업 있는 거 들어가라고 하고 하니까 애가 제 생각에는 눈빛이 많이 틀려졌다.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박지수 관장: 생각나는 아이가 사실은 아빠하고 아들 둘이 사는데 아이 둘이 저희 방과후를 거쳐서 나갔거든요. 큰 아이는 병원에 입원했

어요. 그 아이들은 둘 다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수학도 지능이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이였거든요. 저희가 수학 경시대회도 내 보내서
 금상도 받고...처음에 애들 아빠가 강원도로 일 나간다고 한 달 동안
 집을 안 오는 거예요...자기들이 일어나서 밥해서 먹고 학교 갔다가
 오고...학교선생님들을 만나 봤더니 자기들이 늦게 일어나면 학교도
 점심때나 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우리 문화의집에 와서 놀
 아요. 노는 거 보면 봄인데, 한 겨울 옷을 입고 오고 여름인데 긴 팔
 옷을 입고 오고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물어본 거죠. 어디서 왔냐고,
 강원도에서 이사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방과후를
 시작했죠. 그렇게 된 거죠. 방과후에서 관리를 하니까 사실은 초등학
 교 4~6학년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학교 1~2학년 때 중요하고 초등학
 교 4~6학년 때 이미 아이들이 거칠어지면 중학교 때 자기가 너무 힘
 들고 이 기간을 잡아주면 그나마 좀 넘어가고...그래서 방과후에 4~6
 학년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아이 같은 경우는 형이
 아파서 그렇고, 작은 애가 수학을 잘하는데 도벽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분야 선생님한테 했는데 애는 쉽게 고쳐줄 수 있는 아이, 이 아
 이는 힘든 아이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지능이 있고 그래
 서 보니까 눈빛이 굉장히 반항적인 게 이글이글 타는 게 보여요. 규
 칙을 어기면 밥 먹는 순서를 40명 줄을 서는데, 그 때 당시 60명인데
 오늘 너는 뭘 규칙을 어겼으니까 제일 늦게 가서 밥을 먹어 그러면
 애가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눈이 이글이글 타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
 니까 형하고 둘이 있잖아요. 이 아이가 준비를 다 해야 하더라고요.
 형아가 동생을 보살펴 주는 게 아니고 형아가 동생을 부러먹는 형아
 였어요. 아빠는 매일 집에 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서 동생이 반항적이
 고 그렇더라고요. 도벽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 사실은 지원센터
 직원들은 도벽 상담은 맡을 수가 없다고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래서
 전주에 상담센터 실장님께 방문을 했죠. 그랬더니 놀이치료 붙여주시
 더라고요. 36회를 저희가 데리고 다녔거든요. 저희 선생님들이...도벽
 이 없어졌어요. 눈빛이 순해졌어요. 그리고 중학교 갔거든요. (중략)
 저 같은 경우는 애들을 단체로 보지 마라. 애들은 개인이다. 하나하

나 개인을 다 파악을 해야 개인 세세한 파일을 정리하고, 빨리 전문 분야에 데리고 가고 애들 한명씩 파악을 하는 거죠. 애, 손가락이 몇 개인가 까지도 파악을 해라. 하거든요. 준비물을 못 하는 아이 같은 경우는 주로 후원자 연계해요. 그러면 문방구에 가서 구입을 해 가서 결제를 해주고 후원자에게 그것까지 해주거든요.

최지홍 지도사: 가장 큰 보람은 졸업하고 저희들로 인해 인생관이 바뀐 친구들이 있어요. 대학교를 진학할 때 사회복지과를 간 친구들도 여섯명 정도 되고, 청소년기관에 욕심을 둔 친구들도 몇 되구요, 여기서 드림을 쳤던 친구데 남들의 시선에서는 비행에 가까운 친구였는데 고등학교 때 자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순간 사회복지를 하더라고요. 완전 새로운 친구가 됐죠.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가 꿈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구요. 또 잊지 않고 항상 찾아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스승의 날 때 그런 날은 눈물이 납니다. 학교선생님 못지않게 생각해주고 있구나 할 때는 더 잘해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지오 관장: 예를 들면 재작년에 청소년운영위원장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원래는 학교에서 운동을 했었어요. 학교에서 맞으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해서 이 곳으로 왔는데 무엇을 하고 싶냐고 상담을 하다가 춤을 추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의논을 해보자고 해서 할머니와도 상담을 하고 학교 교사와도 상담을 해서 그 친구가 운동부를 탈퇴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운동을 하던 친구라서 특별히 공부를 한 적이 없으니까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춤을 추어서 이 근방에서 알아주는 댄서로 자리를 잡았어요. 처음에는 도망쳐서 왔던 친구가 문화의집에 와서 운영위원장도 하고 아이들에게 춤도 지도해주고 변화해 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청소년들을 보면서도 소스만 던져주면 그 아이들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 보람인 것 같아요.

결국 가정에서 부모의 돌봄이 결여되어 있고 학교에서도 교사들의 관심이 세심하게 주어지지 않는 청소년들의 경우 청소년문화의집 지도자들의 배려와 관심은 이들로 하여금 보다 세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를 갖게 함을 할 수 있다.

④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

청소년문화의집 활동에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문화의집 동아리활동이나 문화의집 환경 개선 활동에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계획하는 것을 보면서 운영자 및 지도자들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

고흥B 관장: 역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늘 때 가장 행복함을 느끼죠. 뭔가 주어졌을 때 와서 이것 좀 해가 아니라 스스로 청소년들이 제가 뭐 도와줄 거 없어요? 지난번에 그거 재미있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 친구 좀 데리고 왔어요. 그런 점들이 굉장히 많은... 저희 같은 경우는 동아리활동 중에서는 트러스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면산 살리기를 청소년이 직접...모금활동을 하고, 지역사회의 환경을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영향력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지만 그것들을 변함없이 꾸준히 한다는 자체가 저는 그런 점을 보면서 참 밝다, 서초의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런 점들이 자기가 갖는 가장 큰 보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그즈 팀장: 이런 공간들을 혹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청소년 스스로 바꾼 거 거든요. 하도 오래된 공간이 낙후되 가지고 아이들이 기획을 해요. 이 공간을 좀 아이들 우리 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청소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더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공간을 좀 예쁘게 꾸미자 해가지고 교육을 받고, 아이들 스스로 벽을 페인트칠하고, 밖에 동네까지 페인트칠하고 그런 거 보면은 시설에 대한 변화

를 아이들 스스로 주는 거죠. 이번에도 좀 문화제 기간에 기획해서 내놓은 게요. 놀이가 체험놀이가 없고, 컴퓨터나 만화책을 보는 놀이가 많다 이래서 그런 애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 것들 공기나, 제기차기, 땅따먹기 이런 거를 배치하자 해 갖고 계획서를 냈었거든요. 그 계획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거기서 또 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문화의집을 체험공간을 애들 스스로 바꾸는 거죠. 이런 시설을 아이들이 바꾼다는 거 자체는 보람찬 거고. 애들 스스로 이용하는 거를 이끌어 내는 거 같아요.

양□□ 관장: 그니까, 참여활동이 열심이다 보니까 자원봉사 점수도 높아지는 거예요.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다가, 장충고등학교 전학을 갔는데 거기 있는 선생님이 딱 보더니 자원봉사 점수가 너무 다양하고 너무 성실하게 잘했다. 내가 너를 자원봉사 이거를 해서 대학교를 보내 줄테니 걱정 말라고 하더라요. 너처럼 자원봉사 활동 하는 애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다방면으로 그걸 인정받으니까,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조직한 참여위원회...거기도 참여하기도 하고, 그만큼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하더라고요. 자기도 나중에 꿈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데 모르죠.

⑤ 미래세대 성장에 기여한다는 자부심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이나 지도자들은 청소년들이 청소년문화의집 참여를 통해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청소년문화의집이 미래세대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에게 체험을 하게 한다든지, 청소년들의 성장과정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는 가이드를 주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신사○ 관장: 보람이라면 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그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

회를 줄 수 있다는 거 그게 제일 큰 보람이구요. 그 다음에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또 하나의 보람이라면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가 많은 것 같으면서도 주변에서 청소년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이 피부에 닿는 프로그램으로 유익함을 제공해주는 그런 기관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흔하지 않은 일을 저희가 한다는 것이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은 또 미래의 희망이라고 하거나요? 그러니까 그 미래의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거 자체가 또 나라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약간의 애국심?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의미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 관장: 그 애들 앞으로 10년 후는 뭔가 됐을 거라는 느낌이 와요. 저 정도로의 마음가짐으로 살고선 뭔가 하나를 이룰 거라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공부는 못했지만 공부 말고 다른 분명히 뭔가 욕구가 강하거든요. 하려는 욕구가 강하고, 해보겠다는 눈이 초롱초롱해요. 눈이 살았다니까요. 애들이요. 그만큼 욕구가 있으면 방향만 잘 잡아주면 이뤄요.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틀어야 하는가가 중요한 거지, 방향 틀 때 약간 손만 봐주면 가는 거예요. 시설에서 문화의집이나 청소년 업무 담당하는 자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제가 그 애 인생을 살아줄 수는 없지만, 방향을 틀어줄 순 있잖아요. 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는 직원들이고, 진행자니까, 그런 거를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직원이 잘해요. 거의 희생적으로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구청에서도 굉장히 놀래요. 한 사람이 이렇게 일 한 거는 볼 수가 없었다고...

이○○ 지도사: 아까 말했듯이, 어려운 그런 가정형편이 있는 애들도 저희가 돕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년소녀가장 애들 후원을 한 달에 한번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맡아 가지고 관장님이 거의 하시는데, 관장님은 이제 좀 대외로 하시고, 제가 뭐 챙기고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있거든요. 울타리라고. 소년소녀가장 돕

는 건데, 그거 하다보면 이렇게...소년소녀가장 제가 많이는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있거든요. 맨날은 제가 못 가는데, 제가 몇 번 갔어요. 3-4번 갔나? 가서 애들 사는 것도 보고, 그렇게 고마워하시고, 그런 거 보면은 마음도 아프고, 애들이 또 그런 애들이 바르게 커가고 그런 거...

박스B 지도사: 이제 시설 이용한 청소년들도요 갈 곳이 없어서 어디 마땅한 데 놀 곳이 없어서 주변에 뭐 음침한 놀이터라든지 그럴 때 밖에서 놀 수 없는 청소년들이, 이런 곳이 있음으로써 저희들이 여기서 이렇게 근무를 함으로써 그래서 여기 와가지구 건전하고 재미있게 이렇게 이용을 하다가는 것 보면 그런데서 보람을 찾는 것 같아요.

⑥ 청소년들의 진로설정에 도움

청소년들은 관심분야의 활동을 하기 위해 청소년문화의집을 찾게 되나 지속적인 활동 참여와 그 과정에서 만나는 청소년지도사들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진로 방향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즉, 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이나 지도사들은 청소년들이 문화의집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진로설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관심사가 청소년문화의집 활동을 통해 진로로 연결되기도 하며,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활동하는 지도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게 하는 동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안스A 지도사: 일단 뭐.. 아직은 많이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해보진 못했지만, 일단은 중학교 때부터 봐오던 친구들이 중고등학교 여가를 문화의집에서 보내고 그런 다음에 대학을 가서 군인이 되어서 돌아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되서는 저희의 운영위원회 활동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고, 서로 도움주고 도움받고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사회인으로서 같이 만날 수 있다는 부분이 참 재미도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만나

고 나서도 진로라던가 많이 고민 못했지만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이 라던가 우리가 지냈던 그 부분들을 같이 어려움을 나누었던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하면서 지낼 수 있다는 거...그리고 서로 꾸준히 연락을 할 수 있다는 거...전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보람이 있습니다. 아,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봐온 여학생이 청소년지도학과를 간 학생이 한명 있습니다.

이○○ 지도사: 우리 때는 선생님이 진로상담을 점수에 맞춰서 가는 경우가 많았고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보면 참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마디 해주고 또 칭찬 한마디 해준다던지, 니가 이런 데 재능이 있다든지 제가 그냥 상담은 아니지만 이야기 한마디 하는 걸로 해서 애들이 변화되는 것. 그리고 여기 항상 오는 아이들은 제가 엄청 좋은 모양이에요. 항상 놀고, 캠프가고 그러니까 좋아 보이나 봐요. 그래서 진로를 이쪽으로 생각하는 아이들도 많고, 남자애들은 좀 그렇지 않고 여자들은 좀 그러는 편이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은 이야기를 다 해주고 선택은 이제 본인이 하게 하는 거죠. 제가 귀찮긴 해도 조금 신경을 써서 이야기를 해주면 조금 변화가 되거든요. 그런 것. 내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조금 해줬더라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김○ㅎ 지도사: 저희는 주로 중학생 때부터 활동한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처음 왔을 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고 싶은 것이 없어서 그냥 놀러오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한 해, 두 해 과정을 거치고...저희가 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기고, 영상교육을 받고 영상 동아리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영상 관련학과를 갔어요. 대학에 가서 자기가 그 영역에서 직업을 꿈꾸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한편 제 직업이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영향이 큰지를 생각하면서 보람도 느끼지만 조금 두렵고 무섭기도 해요. 그리고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럴 때 보람을 느껴요.

이즈○ 관장: 여기서 영상교육을 하는데 처음에는 영상교육을 할 때 영상기자재가 없어서 지역의 대학교와 네트워크를 해서 대학교의 비싼 영상 기자재를 빌려서 왔었어요. 아이들이 2000년도쯤 2박3일 동안 잠도 안자고 영상을 찍고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일본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상을 찍고 싶어서 무작정 일본에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일본으로 갔대요. 일본에 연고도 없고 일어를 잘 아는 것도 아닌데 우선 일어공부를 하고 일을 하면서 학교 다니겠다고 영상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작년에 전화가 왔는데 일본에 있는 자기가 다니는 대학교에서 영상축제를 하는데 자기가 가르치는 후배들도 여기에 영상작품을 출품하면 좋겠다고 해서 번역은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무심코 던진 씨앗 때문에 아이들이 급속도로 자리를 잡고, 작년에 영상축제를 진행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5~6명이 신방과로 들어가더라고요. 자기가 접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것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지켜보는 거죠. 겁나기도 하고 혹시 내가 잘못 가르쳐주는 것이 아닌가 하기도 하고 그래요.

(2) 시설운영의 어려움

① 청소년지도 인력충원/인건비 확보의 어려움

청소년들과 원활한 상호작용을 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흥미롭고 유익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도인력 확보가 가장 우선시 된다. 하지만, 문화의집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인력 충원 및 인건비 확보로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청소년지도사 1명이상 배치라는 법적 기준으로 대부분의 시설에서 1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상대적으로 많은 4명의 고정인력을 확보한 DD청소년문화의집 경우도 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과 “싸움”이 없는 대부분의 지방에 위치한 문화의집은 지도인력 1명이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도맡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제

대로 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와 함께 인건비 지원이 절실하며, 인건비에 대한 일관된 지침이 없다는 점도 인건비 책정 및 상승분 반영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결국은 근무 사기를 저하시켜 청소년문화의집을 떠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 관장: 내가 4명을 따낼 때가 2003년도에 문광부에 있을 때... 문광부 산하에서 잠깐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지침을 그것도 잠깐 있다 없애더라고. 보니까 문화의집 적정인원 4명이라고 쓰여 있는 거야. 그거 두고 시장하고 싸웠잖아요. 2003년도에 그거 두고 치열하게 1년을 두고 싸웠어. 1년을 싸워서 따낸 거예요. 그래도 그런 거 하나라도 주시면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온다면 그걸로 인해서 힘이 서는 건데...근데 그걸 아무도 몰라. 지자체에서 내가 하도 몰라 해서 가져다 줬어. 아 이거라도 뽑아서 가져다 줬어요. 이렇게 두껍게 해서 만들어 줬더라고요. 거기에 꽤 많은 양의 얘기가 있었고 너무 좋은 지침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시설 만들 때 청소년의견 반영하는 것도 있었고, 정말 우린 나는 그런 지침 보지도 않고 했던 건데 정말 올바르게 시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건 이걸 운영자다. 이 내부시스템을 고쳐야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나름대로 기준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시와 국가와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이들에게 좀 더 발전되게 가는 건데, 무조건 너희는 무슨 프로그램이고, 근데 실제로 한 명이 있는 거는 프로그램은 개인의 영향이죠. 그건 무리예요. 사실 요구하는 거 자체가. 지키는 일도 힘든 거고. 청소하다보니 다가고, 나 같은 경우는 인턴까지 5명 따내고...

신○□ 관장: 춘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어서 저희기관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보조금을 달라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뭐 지역아동센터도 도와줘야 되고 각 복지관도 도와줘야 되고 뭐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바람이 있다면 직원 인건비 정도는 지자체에서 좀 지원이 될 수있을만큼 보조금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씨 관장: 제가 92년도(청소년수련실로 시작)에는 24만원 받고 시작을 했거든요. 자원봉사 시간으로 해가지고, 그때는 청소년지원센터랑 똑같이 24만원이었어요. 자원봉사 시간으로 해서 그런데 건물로 같이 들어와서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지금 보수가 200여만 원 정도 대학 쪽의 보수로 해가지고 도에서 지침을 내려줬어요. 지침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시에서 그 보수 지침이 없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 그래서 같은 건물에 근무하면서도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는 토, 일은 근무를 안 하거든요. 공무원을 맞춰서 근무가 이루어져요. 6시에 퇴근을 하고 토, 일 근무를 안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8시까지 근무를 하고...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되니까, 여기도 섞여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다른 곳에서도 지원을 받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홍보 같은 것도 제대로 쳐주지도 않고, 기본급 이외에도 수당 같은 게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런 것을 심하게 표현하면 투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겨우 경력이 조금 제대로 산정이 되었지만, 그 외에 보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사실 이직률이 높고 그래서 전주가 저희 가까운 시거든요. 거기는 저희 보다는 보수가 높아요. 저희한테 배워가지고 전주 쪽으로 전부다 직원들이 나가게 돼서, 1~2년 바로 키우면 빠져 나가고, 저희가 많이 그랬었거든요. 최근에는 그나마 경력도 인정이 되고, 상여금도 지급이 되고 그래서 현재는 좀 오래있어요. 그래도 항상 못 미쳐...그래서 직원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중략) 저희 전 직원이 저까지 해서 총 3명이에요. 관리자, 관장 1명에 시설관리사 1명 아시겠지만 저희가 건물이 320평에 대지가 600평이에요. 청소관리도 없고 아이들이 하루에 100명이 와서 앓다 보면... 그런 아이들 수발을 하는데 그 인원 가지고 처음에 3명이 청소를 했거든요. 하다하다 안 되서 제가 시에 들어가서 청소 인력을 좀 해 달라 처음에 공익요원 2명 배치가 되었어요. 2년인가 근무하고 나가니까 위탁시설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를 하다가 자활을 현재 2명이 해주고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 다른 시설에 비해서 깨끗하게 유지가 잘 된다고 사람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활이 그나마 2명이라도 배치가 되어 주기 때문에...저희 같은 지역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받은 사람 뽑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번에도 직원 채용하는데 3차? 4차까지 냈는데도 안 와서 어쩔 수 없이 사회복지사를 썼거든요.

방口Z 지도사: 문화의집은 청소년지도사의 배치 기준이 1명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1명 가지고 힘들잖아요. 그 기준자체가 그러니까 수련관은 또 다른 기준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몇 명 이상이 확충이 되었으면 훨씬 더 좋을 거 같아요.

질문자: 그러면 4년 6개월 동안 혼자 계셨던 거예요?

이○○ 지도사: 그렇죠. 저 선생님들 오기 전에는. (중략) 일단은 근본적으로 상담실은 그런 게 잘 되어 있잖아요? 상담원에서 중앙으로 해서 공문이 오잖아요. 인원을 충원하고 운영지침이라고 할지 그런데 우리는 운영지침이 없어요. 그런 것도 없고, 보수도 없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그리고 매뉴얼이 전혀 없잖아요. 연수할 때 보면 책자가 만들어져서 다 보고 그러는데 그런데 저희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하는 건 맞는데 무언가 기본이 있고 난 뒤에 개발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니까 청소년기본법에는 문화의집은 지금 한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무에 상관없이 거기 있는 지도사 한명이랑 배치가 달라요. 그런 게 위에 상부에서는 한명이라면 한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② 예산 지원의 문제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에 관심을 갖고 이용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것은 관심있는 사업과 청소년욕구에 부응하는 시설 환경에 대한 지원이다. 하지만, 인건비 확충과 함께 청소년문화의집 사업비와 운영을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함이 지적된다. 지속적으로 시설의 장비를 유지 보수하고, 필요한 비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수준으로는 운영이 매우 어렵다. 이는 청소년들이 시설 이용 관심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흥B 관장: 실질적으로 제가 예산지원이 되더라도 인건비 부분이 60% 정도 높을 거다. 인건비 더하기 기관운영을 합치면 과연 흔히 얘기하는 사업,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비가 얼마큼 될 거냐? 30% 될까요. 전체 예산에 30%에 대한 부분에 예산으로 연간단위 사업으로 해서 청소년들에게 준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것이 좀 더 높아져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지 열심히 일하는 지도사들의 급여를 깎을 수는 없죠. 그렇다고 높은 것도 아니고...그 외에는 문화의집 관련된 보조 예산이 있습니다. 동아리활동 지원비라든가, 문화의집 관련해서 연간 200만원 정도 주는 그런 예산으로는 예를 들면 시설에 대한 보수...포켓볼이 있다. 포켓볼 다이 한번 바꾸는데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4회에서 5회 정도 다이를 갈아줘야 되는... 찢어지거나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책 같은 거, 책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라도 저희 같은 경우는 한수협이나 지역의 여러 출판사 쪽에서 책들을 그나마 저희가 받아서 많이 충원하고 있지만 그런 연결고리가 없는 곳은 역시 책이 어려울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 운영의 첫째 어려움은 역시 예산이다.

신사O 관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재정적인 부분이 제일 크겠죠. 예, 저희가 춘천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연 5천5백 뿐이 안돼요. 이천이백오십은 인건비 부분이고 나머지 이천이백오십이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진행비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저희 전체에는 유급, 저희가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 세 명의 직원 중에 한사람 뭉뚱이 안되기 때문에 두 사람 몫의 인건비를 프로그램 운영을 유료로 해서 그 수익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口스 지도사: 이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친구들한테 지원이 돼야 되는 것들도 많은 부분이긴 한데, 사실은 그런 지원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운영위원회 지원 자체도 2006년부터 정부지원금이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123만원에서 200만원 올랐을 때 저희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 작은 차이가 애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이 달라지고, 비록 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돌아갈 수 있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저희는 공모로 선정을 받아야 되고, 자체적으로 돌리기에는 문화의집의 여건으로서는 그런 재정적인 부분이 하고는 싶은데...저희 예를 들면 청소년 축제 같은 거 애들이 정말 크게 벌려서 하자라는 의욕이 굉장한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까운 거 같아요.

박스스 관장: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VUCC 같은 경우는 금강방송이라고 이 지역에 방송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떻게 알고 왔더라고요. 저희를 취재하겠다고 그래서 취재를 하고 갔거든요. 프로그램 너무 좋다고 그 기자분이 사실 저희가 홍보 내는 것을 보고 프로그램이 너무 좋으니까 당신 자유로 그것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국가에 공모사업이 되어가지고 했던 거고, 올해는 공모사업이 안될 거 같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 좋은 프로그램은 할 수 없어요. 그걸 지금 작년에 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올해에도 그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준비 다 했다가 떨어지니까, 공모사업이 안되고 예산도 안 되니까 못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애로사항도 참 많이 있죠. 해년마다 저희가 전국투어를 했고, 저희 익산을 상대로 했고 해놓으니까 그 학교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가면, 전국 이번에도 가냐고 전화가 와요. 저희 프로그램 할 수 있냐고, 저희가 그 공모사업을 내기도 전에 신청을 한 학교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내놔야 된다고, 예산 확보가 돼야 된다고...저희 같은 경우에 학교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반응을 봤을 때, 참여한 학생, 학부모, 학교선생님 이런 반응들을 보고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거든요. 계속 하고 싶어도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못하게 되는 거고, 어려움은 굉장히 많죠.

③ 공간확보 및 청소년들의 요구 변화에 부응

청소년 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사용 공간의 부족과 청소년 요구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시설 환경이다. 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여가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말에는 동아리활동과 일반이용자들이 몰리면서 턱없이 공간이 부족함을 토로한다. 특히 공공시설을 개조하여 문화의집으로 만든 경우 공간이 더욱 부족하여 청소년들이 원하는 활동을 하기에 어려움이 크다. 또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설의 환경 변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운영의 어려움으로 부각되고 있다.

김○□ 관장: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평일에는 부족하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주말에 이거 너무 메어터지니까. 조직 동아리들이. 그 35개의 조직 동아리들이 한번 모인다 싶으면, 모일 수도 없는 곳이잖아요. 진짜 지장들 모여서 회의 하느라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놀토에 이 공간을 놀아야 할 애들이 못 놀 때가 많아요. 그게 피로운 거야. 이걸 진짜 피로움의 극치예요. 아 그니까 놀 애들이 왔는데,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조직들이 와서 회의할 공간도 없는데, 조직만 해도 굉장히 많은 조직이 있잖아요. 그니까 거기다가 뭐 이거 앓을 데도 없는 거예요. 그니까 주말에는 미어터지고, 주중은 한가하고,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게 참 뭐냐? 저희는 그 지금 이런 모양이 하나있고, 다목적 같은 홀 같은 모양 큰 게 위에 하나 똑같이 있으면서 동아리 방을 쪼갤 수 있는 정말 놀 애들과 동아리 좀 구분하고, 이럴 수 있는, 그리고 평상시는 큰 행사 때 확 재껴버리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더 있으면 좋고 하니까 2층이 적당한 거 같아요.

고흥비 관장: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문화의집 형태만 보면요. 그 군소 도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3,4층 건물에 반 층, 한 층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지방들을 다니면서 문화의집을 보면 그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그렇지 않은 곳도 있지만, 문화의집 운영형태가 정말 청소년 문화진흥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아주 좁은 단층정도의 운영으로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이용하게 하고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고 많고 하더라도, 일단은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두 번째 운영의 어려움은 또 뭐냐면, 우리 친구 청소년들이 있는 공간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늘 똑같은 공간을 주면요. 아이들이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한 시기기 때문에 색, 구성된 공간의 색, 인테리어 이런 것에서도 굉장히 영향이 크거든요. 수시로 환경들을 바꾸어줘야 돼요. 색이 됐든,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내부적인 인테리어에 대해 한번 만들어 놓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 프로그램 못지않게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아이들이 찾아오고자 하는 참여욕구를 훨씬 높아진다는 것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점들은 또 하나는 가장 제가 주변에서 문화의집 운영하시는 관장님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가장 어려운 점들이 공간 활용을 최대한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있을만한 여유 공간들이 없어서 그게 제일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안디사 지도자: 주말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쓰기위한 자리쟁탈전이 치열하다고 보면 되죠... 저희가 이쪽(사무실)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10가지가 넘다보니깐, 각 시설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데 평일에는 학원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말에 다 몰리다 보니깐, 저희가 뭐 문화창작실, 관람실, 카페 여러 곳이 있지만, 이 사무실에서는 저희가 수화도 하구요 그리고 마술수업을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 관장: 노래방 시설을 상당히 좋아 했었는데 여기 오면서 그 시설이 없어져서 그게 참 아쉽죠. 그래서 노래방 시설이 아이들한테 매력이 있는 시설이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동아리방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아이들이 자기네들만의 연습 공간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매력 있어 하는데 저희가 또 여기 오면서 동아리방 시설도 축소가 돼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④ 시설환경에 대한 지원 부족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문화의집을 이용하려면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면서 기본적인 냉난방 기구나, 사무기기 등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임기응변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나 청소년활동 지도 등에 신경을 써야 하는 지도자들은 기본적인 사무용품이나 냉난방 기구들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구입을 하거나 포상을 받아 해결하는 방식으로 비품 구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 관장: 무슨 뭐 우리 얼어 죽을 뻔 했어요. 이게 없었거든, 이런 것도 상 타니까 들어오는 거야. 에어컨 시설도 상 타니까 들어오고. 또 뭐야 상 타니까 들어오고 저 책장도 좀 들어오고, 책장도 없었어요. 고런 수준으로 해주는 거야. 선생님들 자재가 있었다, 선생님용 컴퓨터도 따로 지원을 해주나, 노트북도 제가 들고 왔어요. 제가 따로 샀어요. 그리고 여기가 원래 동아리랑 같이 쓰니까 어쩔 때는 제가 나가줘야 할 때가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날 자리를 내줘야 돼. 사실 나 정도면 무지 많은 사람들이 보러오기 때문에 따로 공간이 하나 있어야 돼, 근데 독점하기는 커녕 다 더부살이 하는 거야. 애들하고 더부살이하는 형태이고, 뭐 그런 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일정이 좀 뭐랄까 전문적인 시설들이 들어있는 공간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애들이 접할 때가 됐다 이거야. 컴퓨터로 뭐 별거다 접할 수 있지만, 뭐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 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도 없죠.

시스템 그런 것들 녹음할 수 있는 시스템, 음악을 자기네가 와서 하니까 그런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시스템 형태가 여기 있어서 좀 더 많은걸 여기서 실험해 볼 수 있는 거 원하죠.

양□□ 관장: 다른 곳 하고 우리는 시설 면에서는 문화시설이 아닙니다. 솔직히 전혀 시설된 부분이 없어요. 아까 얘기 했지만은 문화시설로서는 꾸며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설 자체가, 기구 자체도 하나도 없어요. 건물만 주었어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방송시설 하나를 해주었나, 엠프 그런 것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하나도 없어요. 청소년들이 앉아서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공간이에요. 전혀 없어요.

질문자: 그럼, 여기 내용을 채우는 거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성하게 됐어요?

양□□ 관장: 우리가 프로포절 따가지고 그런 부분은 지원받아서 한 부분, 운영 시에서 지원을 해주죠. 그렇게 해서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혀 없어요. 시설이 그러니까 강당에서 애들 춤추는 댄스 그룹이 많거든요. b-boy들이 좀 있어서, 그거는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그거야 공간만 있으면 되니까 활용이 되는 거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옥상도 있지만은 옥상 있으면 탁구대라도 좀 해서 애들이 와서 뛰어놀 수 있는 거를 해주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운영, 인건비도 헉헉 거리는데, 이 무슨 돈을 벌겠어요. 헬스로 해서 지금 1억 예산이 돼 있는데, 1억 예산은 지금 뭘니까? 인건비 나가면 8,9천 인건비 다 나가면 우리는 뭐 1천만 원 해가지고 운영비 보태고 있는데, 마이너스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헬스로 돈 벌어서 운영하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는 헬스가 그런 체육시설이 회관에 도움이 안 됩니다.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로요. 오히려 마이너스 볼 걸요.

서지홍 국장: 어려운 점은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보수, 저희 직원이 3명밖에 안 돼요. 큰 건물 하다 보니까 청소부터 다 하거든요. 고철

수 있는 거는 웬만큼 다 고치고, 정 안 될 때 A/S받고, 무조건 A/S받기에는 예산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어쩔 때 힘들 때 뭔가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이라던가. 운영 쪽에 더 신경을 써야 할 때에 그런 쪽으로 왜냐하면 날 잡아서 청소를 하루정도 해도 표도 안 나오. 지금 2층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감당이 안 돼요. 동아리 아이들 여기까지 풀어놓으면, 여기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층만 행사 있을 때만 풀어놓고, 다 닫아요. 다행이도 CCTV가 있어요. 이거 설치되었을 때부터 방마다 CCTV가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관리를 하고, 일일이 다닐 수가 없어서 그게 조금 애로예요. 개인적으로 구청에다 공공근로 같은 분 오셔서 청소만이라도 일주일에 2번만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공공근로도 많이 없어졌다고, 운영위탁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청소도 해요. 그니까 청소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충○ 지도사: 그 문화의집 본래 목적이 시설을 이용을 하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시설 업그레이드도 많이 필요할거구요, 특히 만화책이나 노래방 신곡 같은 거 좀 빨리. 사실 잘 안 되고 있는데, 신곡 같은 것도 빨리 넣고, 그 다음에 시설 보수. 이제 뭐 탁구나 농구 같은 것도 교체를 잘 해주고, 공이나 이런 게... 보수도 잘 해주고 그렇게 해야 좀 참여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⑤ 기성세대의 인식

근본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청소년활동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성세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이 학생과 동일시되고 입시위주의 교육만으로 성장기를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사회 풍조는 청소년들이 학업을 넘어서는 다양한 활동 참여에 제약이 되며, 사회적으로도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대한 철학이 부재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고흥비 관장: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해서 지역에 많은 단체장님들이나 정치하시는 위원장님들 보면 그런 말씀을 자꾸 드려요. 깔려워하시는데 분도 있고, 맞다라는 분도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아직도 청소년들을 기르기 위한 성장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기르기 위한 기를 육자에 대한 합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상징적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을 뭔가 내가 표현을 해야 내가 앞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정치적 활동이 되던 뭐가 됐든 저 사람은 다 갖추었구나 그런 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도로만 지금 대우하고 있다는...단적인 예가 청소년들이 초청을 하거나 청소년들 행사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그런 점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저는 그런 점들이 변화가 없이는 결국은 예산에 대한 거나 문화의집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 그 안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숨 쉬고 활동하는 청소년지도자들에 대한 대우, 처우문제 이런 것들의 개선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청소년계에서 많이 너무 관행적으로 익숙해져서 이제는 뭔가 변화에 의해 자성과 반성과 그 다음에 이 변화의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판단력 부분들을 업그레이드시켜야 될지 고민들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저도 아직까지는 생각만 했지 실질적인 실천 액션을 하지 않는 부분에 반성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문화의집이 됐든 청소년 수련 이용시설이 됐든 만들어질 때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지도사: 사실 제가 오기 전에는 공익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공익이 한명 있고 남자선생님이 한명 있었는데 그 때는 애들이 여기를 게임하러 오는데 집에서 가지마라 그러면 몰래 오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때는 프로그램을 안 하고 있었던 때니까.

(3) 청소년활동 지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청소년들이 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약사항과 함께 청소년들이 직접 프로그램이나 활동 참여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학업 위주의 교육환경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데 방해요인이 되고 있다. 토요일업일에도 수업을 받거나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에 문화의집 활동을 할 시간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공부시간에 비해 청소년들의 지식이 풍부해지는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또한 청소년활동을 위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논의하여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묶여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口 관장: 무슨 놈의 제도가 계속 바뀌는데 바뀔 때마다 애들 안 좋아지고, 애들이 설 땅이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이럴 사항이 아니 거든요. 애들이 내신등급제 생기면서 이상하게 된 거예요. 내신등급제가 추가되는 순간, 애들은 더 학원에 묶이고, 더 자율이 없어졌지. 사실은 진짜 과외까진 난 모르겠는데, 학원은 도움이 안 돼요. 학원은 스타일이 중3 정도 애들이 7시쯤 간다. 음 묶어두고 있잖아요. 불가능하게 토요일도 묶이고, 이 동네 고3들 토요일까지 수업 없는데, 토요일도 수업 생겼어요. 올해 점점...고3은 그렇죠. 그래서 고3애들이 활동하려면 우리가 일요일 날 회의를 해야 돼요. 고3애 한명이 회장 이거든요. 문화의집 동아리 쪽은 그런 식으로 그렇게 제도에 따른 아이들의 억압 구조는 뭐...갈수록 집요한 거죠. 억압구조가 집요한 거야. 한마디로... 그렇다고 애들이 또 틀려진 건 아니예요. 10년 동안 외국 나갔다 와서 우리 아이들 한명을 보면은 지금 애들 전부 문맹 들인 거 같아. 애들 보면은 40등에 든다고 하는데 30등 안팎인 애들 특성은요. 깊이가 없어서. 한문도 모르고, 나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책을 안 읽는 애들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가 있고, 책을 읽을 시간을 안 주잖아요.

이즈스 팀장: 현실 여건상 아이들이 많은 참여를 한다는 거는 점점 힘들어 지지 않나 사교육이 많고 저희가 사회교육 강좌 중에 원어민 강좌가 있는데 아주 초등학생 대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영어교육에 대한 아주 메어서 터질 정도로 하고 있고...

② 학교연계 활동 진행의 어려움

주5일 수업제가 부분 실시되면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학교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도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한 학년 전체에 대한 프로그램을 요구하거나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담당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를 하는 등 실무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김○□ 관장: 놀토 프로그램이 학교가 어떻게 요구 하나면 내가 몇 번을 시도하다가 다 No를 했는데, 한 학년이 다 와야 된다. 불가능하잖아요. 놀토 할 수가 없어요. 저희 때 애들 통해서 놀토 프로그램을 돌려야지. 학교는 무식하게 요구해요. 전원을 요구하잖아요. 자기네가 편하려고, 그러면서 내가 놀토 프로그램을 잠깐 시범으로 운영한 적이 있는데, 학교장 말씀이 너무 재미있어. 학교를 떠나서 출발하는 시점이 다 우리 책임이래. 너무하지 않아?

신○△ 지도사: 어려운 점이라고는 일단 저희가 학생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보니까 주로 평일에는 학교를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말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말도 토요일 밖에는 할애가 안돼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또 학교에서 아이들이 동아리활동을 한다 그러면 학교에서 지원을 해 준다거나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 부분을 여기 문화의집에서 채워주고 채워준 부분을 제가 이제 담당을 하게 됐는데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학교 뭐 야자도 있을 것이고 선생님들이 또 동아리활동하는 것

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행사를 한다하면 미리 공문을 보낸다거나 이제 양해를 구한다거나 하는데 좀 억지스럽게 좀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고 전화해서 항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이들 공부하는데 왜 방해하나 그리고 왜 문화의집은 이렇게 자주 아이들을 빼가냐 그거고 토요일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어렵구요, 우선 또 문화의집이랑 학교선생님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협조가 거의 없으니까 또 동아리 아이들이 이쪽으로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연습실도 없고 선생님도 관심 없고 학교에서는 내놓은 아이들 취급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채워주려고 하는데 이 위치상으로도 너무 힘들고 아이들 한번 오려면 택시타고 멀리 돈도 많이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시설이 많이 줄었어요. 지금 규모가 여기가 그래서 연습실도 지금 하나 가지고 거의 150명이 돌아가면서 정말 전쟁처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점들이 너무 어렵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다기보다는 아이들이 너무 힘들죠.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신口스 지도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선생님들이 지금 도움을 안주세요. 우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포스터를 보내도 모른 척을 하시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뭐 동아리 모집 다 입에서 입으로 우리 애들끼리 야 이번에 오디션 한다더라 또 가야지. 이런 식이니까, 홍보를 좀 주려해서 아 문화의집에는 동아리들을 원래 모집을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끔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다보면 또 시설도 크게 되고, 아이들은 많아지는데 시설이 계속 그대로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선을 해나갈 수 있겠죠?

③ 청소년들과의 의사소통 및 의견교환 어려움

청소년활동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청소년 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하는 시간을 갖기가 매우 힘들다. 특히 야간 자율학습이나 방과후 사교육을 받아

야 하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인 관계로 회의 소집이나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은 개인 전화를 통해서나 가능하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통신비 사용에 제한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문자 사용이 불가능하여 연락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의 어려움은 청소년 활동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신口스 지도사: 어려운 점은 딱히 없어요. 제가 말하면 다 듣는 척은 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 위치상의 어려움 때문에 뭐 회의를 한번 하려고 그리고 무슨 행사를 하나 하려고 하면 아이들을 모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의사소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 요즘에는 문자로 주고받는 거를 잘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으로 해서 문자를 다보내주고 문자로 제 핸드폰으로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회의 한번 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런 거 밖에는 어려움 없어요.

이그즈 팀장: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의논을 주고받고 하니까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도 않지만 전화로 문의할 때 시간, 학교시간 방과후 이외에 학원에 걸리지 않게 하려면 거의 10시 이후에 통화를 하든가 아니면 잠깐 잠깐 통화를 하면서 이건 어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게 힘들고. 문자로도 이렇게 물어봐요. 이건 어때. 애들한테도 짜고 한사람이 열 몇 명한테 문자를 보내고 애들이니까 알인가? 비기비기 그런 게 있으면 답장이 오고. 그런데 문자가 남아 있지 않으면 답장도 안 오고 전화통화는 못하고. 그러니까 의견 수렴하는 게 전체 의견 수렴하고 싶은데 대표의 견밖에 수렴 못할 때 그런 거는 좀 아쉽죠. 시간적인 그게 좀 안 맞아서. 급하게 할 때 많아요. 근데 시청에서도 꼭 문서 줄때 급하게 주시더라고요. 여유 있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내일모래까지 해주세요.

이러한 의견 교환의 어려움과 함께 자기 주장이 강한 청소년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며 의견을 모아가는 것은 또 다른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의견 충돌로 갈등 상황이 빚어졌을 때 청소년지도사들은 갈등을 중재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방○즈 지도사: 많이 있죠. 하다 보면 이 친구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친구들도 있으니, 여학생 남학생 충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저희가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떻게 할래? 라고 했을 때, 약간 좀 아닌 거 같아요. 한다든지 애들끼리 붙는 경우 아니면 저랑 그런 마찰 부분은 끊임없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애들한테 고마운 게 저희 애들은 착해요. 싸워서 감정이 상해도 일단은 무조건 와요. 매일 같이 와서 보통 싸우면 안 봐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와요. 와서 불편한 상황인데도 와서 자꾸 부딪히고 하다보니까 다시 얘기하게 되고, 서로 오해 풀리면서 계속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오해도 풀리게 되기도 하고요.

④ 부모의 인식 부족

청소년들이 문화의집을 이용하고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부모들의 인식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청소년문화의집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는 학부모들의 경우 PC방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곳인 줄 아는 경우가 많으며, 이곳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곳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부모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활동지도 과정에서 부딪혀야 할 부분이다.

김지흥 주임: 아버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실 때 그때는 참 어려워요. 마음이

질문자: 그러니까요. 아까 공부 안하고 여기만 온다. 이런 식이에요?

김지흥 주임: 예.

김○흥 관장: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김지흥 주임: 문 닫게 하라! 심지어는 시에다 전화해서 문 닫게 하겠

다. 그래서 그런 기성세대 인식을 깨우치는 게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질문자: 프로그램 같은 것도 참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김지흥 주임: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모르세요. 그러니까 컴퓨터 PC방 인 줄 알고... 그런 게 제일 힘든 거 같아요. 단순시설 이용하시는 분들 설득하는 게, 교육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너무 좋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극과 극이에요.

방코지 지도사: 어려운 거는 일단 기관적으로 부딪히는 거는 아직 지역 내에서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인식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수련관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문화의집은 뭐하는 데야 라면서 처음에 저희 기관에 온다던지 활동을 하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들이 문화의집 자체를 너무 낮설어 하시기 때문에 처음에 경계를 하시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일단 부모님들을 설득시키고, 같이 워크숍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게 켈 어려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신뢰도 서로 쌓이고 있고, 문화의집 간다고 그랬을 때 집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친구들도 나도 가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기도 했고요.

⑤ 청소와 생활지도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생활을 지도해야 하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에 대한 청결 유지,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에 대한 지도 등이 부가적으로 따라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된다.

최지흥 지도사: 제일 큰 어려움은 저희들이 청소문제가 제일 큰 거 같아요. 매일 치운다고 치우지만 아이들의 특성상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어요. 두 번째로는 흡연문제죠. 선생님들 눈을 피해서 담배를 피는데 와서 주의를 주고 타이르는 데도 잘 안 될 때 지도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안ㄸ스 지도자: 일단 처음에 들어와서는 DY문화의집이 청소년들의 공간이지만, 어른들의 비중이 조금 더 컸던 것도 사실이구요. 그런데 그중에 문화의집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제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분들이 없다보니깐, 너무 자유분방하다보니깐, 사고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음주를 하고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흡연을 하고 친구들을 괴롭힌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있었어요. 그러한 부분을 학교에서도 잘 통제가 안되는 부분을 여기 선생님들과 같이 통제를 하려고 하다보니깐, 그러한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서지ㅎ 국장: 저는 잔소리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청소년운영위원이 그래요. 우리 엄마보다 더 무서운 엄마라는 거야. 워크숍을 갖는데 그래 너희 엄마야, 쌤은 너희들 다 똑같아. 매일 잔소리를 하니깐 혹시 학교 가서도 공부 안하고 그러면 그건 아니거든요. 너 할 일은 해야지 너 청소년운영위원이라고, 딴 짓하면 선생님은 그거 못 봐. 계속 잔소리 하니깐 그 얘기를 하니깐 엄마보다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왜냐하면 이 때가 가장 중요할 때라서 실은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해요. 애들이 무서워하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잘해줘도 일단 전체적으로는 뭔가가 있어야지 이미지가 많이 솔직히 청소년문화의집 다니는 애들 다 이상해, 저는 그건 아니거든요.

서지ㅎ 국장: 여기 와보면 학교에서 동아리 하는 애들 보면 아닌 애들도 있지만. 잘 하는 애들이 더 많아요. 여기 오면 담배도 피려고 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제가 따끔하게 해요. 가끔 오면, 그러고 싶은 아이들은 못 와요. 왜냐하면 여기 대 놓고 이상하게 하는 애들 있어요. 오고 싶지만 없는 곳에서 그러면 굉장히 따끔하게 학교보다 더 심하게 해서...담배 같은 거는 여고가 앞에 있는데도, 요즘 모범생들도 많이 해요. 반성문 쓰게 하면 다 알아요. 알고 쓰더라고 나중에 결혼해서 애까지 다 알아, 다시 부각시키는 거지 애들을

계속 부각...너랑 나랑 약속했으니까 하면 내가 내 선에서 어떻게 하겠다. 나랑 약속하자! 다시 이런 일 있으면 학교를 옮긴다. 어쩔 수 없다. 그런 식으로 타협을 봐요.

⑥ 지방시설로서의 어려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활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는 입지는 다양한 문화적 자원을 동원하기 어렵게 한다. 대도시 위주로 문화시설이나 문화예술 공연 기회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 소도시나 읍면지역 등에서 문화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된다.

김홍서 관장: 저희들은 청소년들한테 지금까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모든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도시에서 많은 혜택이 있고, 지방에선 혜택이 없는 게 무엇이나면, 저희들은 문화활동입니다. 문화활동이 지금 저희들이 그 가끔씩 음악회나 그런 것을 하고 있지만, 음악회 같은 거는 저희들은 사실 정부에서 보조금이 많질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이 할 수 없고, 또 지방이고, 학생이 워낙 적어서 중앙에서부터 대도시 편중으로 있기 때문에 대도시 편중이 있는 모든 문화사업을 이런 시골이든지 단양시에서 문화사업을 많이 투자를 해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있는 것보다 지금보다 많은 문화사업에 음악회, 공연같은 것을 여러 가지 공연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4) 지역사회에서의 위상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시설의 위상은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지역사회시설의 건립배경, 이미지 등이 크게 좌우하고 있다. DD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청소년문화의집 활동으로 지역정화사업을 꾸준히 해왔으며 이러한 활동이 지역의 이미지를 바꾸는데 큰 기여를 했다. 또한 BB청소년문화의집은 건립배경에서부터 지역의 통, 반장들이 주도하여 만든 것이기 때

문에 각별히 관심을 받고 있으며, 관장의 의지도 청소년시설이 단지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시설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자녀들과 함께 부모들이 시설을 활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처음에는 문제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인식도 있었지만 꾸준한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들의 변화과정을 통해 청소년문화의집의 위상을 바꿔가고 있었다.

① 호의적인 반응과 관심

가. 지역정화사업을 통한 이미지 개선

아래의 사례는 지역사회에서 긍정적 위상을 심어가는 과정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함을 보이고 있다. DD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지역사회 정화사업과 민원 해결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 홍보 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인 입지를 세워나가고 있다.

김○□ 관장: 작년 같은 경우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애들이 정화사업 조끼 입고 막 한거야. 우리는 무슨 관 냄새 나잖아요. 관변냄새, 정화활동하면은 근데 쉘 좋아해. 그 정화활동 하는 거를. 그래서 이미지가 작년에 확 바뀌었어요. 착하고, 청소도 하고, 담배 핀 놈들이 담배 주우러 다니고, 이런 게 지역 이미지하고와의 싸움이 굉장히 커요. 민원과도 치열하게 싸워야 되요. 담배를 폈다. 그래서 여기 놈들이 폈다고 그게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 민원 문제도 그렇고, 그 사람 설득하는 과정 그리고 그 담배 피는 공원 끊임없이 우리가 청소해주었지. 그러면서 민원이 사그러진 거죠. 청소년문제는 민원과의 상당한 연관성이 있잖아요. 시끄럽다고 민원이고, 애들이 모여서 다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다 민원상황이잖아요....그걸 언론플레이를 좀 잘 해요. 언론플레이를 제가 안양방송 위원이기도 하고, 각 신문사 위원이기도 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청소년 행사든 모든 나가는 부분에 대

한 언론 홍보. 그래서 위상 지역사회의 위상이다. 아 이런 저 그때도 말씀했듯이 플랜카드 걸었다는 것처럼, 어떤 좋은 사항이 있을 때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죠....진짜 이미지 메이킹 사업이죠.

나. 민간투자 지역사회 시설로서의 위상 정립

설립기반이 지역 주민들의 모금으로 이루어진 BB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설립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지역연계 사업과도 이어지고 있으며, 시설 운영자도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청소년문화의집이 지역사회 커뮤니티센터로의 위상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고흥비 관장: 한 2,000여명 되시는 통, 반장님들이 3년 동안 유급이지만, 무급으로 활동하면서 받으실 수 있는 수당들을 계속 한 해 동안 적립하시면서 30억이 넘게...그래서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만들자 그래서 건립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관 주도라기보다는 민간이 같이 협력해서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시설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점은 아마 타 지역에서 갖지 않는 그런 점들이라고 보거든요. 따라서 관심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서 지나가시다가도 잘 되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3년 동안 지역사회 유관기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주도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청소년 유스센터지만 저는 유스&커뮤니티센터가 돼야 한다고 봐요. 지역을 기반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청소년만의 공간이 되어져서는 결국은 더 많은 한계점을 우리가 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를 육자 그 육성은 저희 혼자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지역사회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인지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연결고리가 된 이후에 함께 고민해야 될 점이 무엇이나, 그런 합의점과 실질적으로 작용점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결국은 청소년 시설에 해야 될 지역사회 내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일이라고 생

각이 되요....오히려 그래서 저희들은 참 고마워요. 그런 점들을 잘 이해해주셔서, 이해 못하면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흔쾌히 다들 이해해주시고 함께 협력해주셔서 예를 들면 여성회관에서 어머님께서 지역여성분들이 바자회를 하십니다. 물물교환 식으로 헌옷들을 내주면 파는데요. 그게 연간 한 천만원정도의 수익이 생긴데요. 그것으로 여성분들 자립기금으로 심사해서 주시는데, 지난달 사례로 저희가 한 학생이 지체 3급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인데, 미용실에서 월 10만원을 받고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거의 노동착취에 관한 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재능은 미용이나 손재주가 굉장히 있고, 그런 것을 사례들을 제가 가져와서 얘기를 했더니 미용학원 등록비용하고 생활자립기금 400만원을 아낌없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어쨌든 지관이 아니라 민간단체의 협력으로 그런 것들이 가시화 되는 것들 그런 점들은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고 유스센터가 유스센터 기능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센터의 역할을 함께 해야 된다는 점에 확신하게 됐죠.

지역사회 시설로 출범하였고 문화의집만 독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유스센터 내에 위치해 있다는 점은 자연스럽게 지역주민 대상의 프로그램과 지역주민의 휴식 및 여가 공간, 교육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씨 팀장: 주말이나 일요일 오면은 아빠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같이 노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고요. 아무튼 지역 주거지역 내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에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그 주민들이 볼 때도 상당히 이제 마음이 좀 안정되고...

다. 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인식 개선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뿐 아니라 부모나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및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청소년문화의집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알려 나

가고 지역사회에서의 긍정적 위상을 심어 나가고 있었다.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주민이나 학부모들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문화의집이 알려지게 되는 결과도 초래되었다.

신사○ 관장: 그 청소년문화의집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오전이나 뭐 이럴 때는 시설활용도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기관이 그 지역에 홍보를 좀 많이 주력을 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 청소년문화의집을 알게 되고 이용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앞으로 인해가지고 본인과 본인의 자녀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모르면 손해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집에 한번 오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문화의집에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도 들어오시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문의도 자주하시고 그리고 저희 쪽에 한번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 핸드폰 SMS를 항상 정보제공을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아 그래서 수시로 정보를 SMS로 받습니다. 그것을 상당히 좋아들 하세요. 예, 그 SMS 받는 것을.

신口○ 지도사: (주변에) 집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뭐 가까운데 이런 곳이 있으니깐 좀 멀리서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이 동네가 후미지다 보니까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좀 오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쪽에서 저희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시설은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들이 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고마워도 하고 또 일반 pc방 담배냄새 나는 곳에 가서 있는 거 보다 깨끗한 시설 와서 무료로 이용하면 엄마들, 어려운 가정들한테는 좀 도움도 약간은 되겠죠? 단돈 500원, 1000원 이라도 아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가 청소년기관이니까 또 맡겨도 뭐 굳이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지 않는 거 같고 그래서 아직은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이

곳을 이용하는 저희 강좌 프로그램 강좌 같은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을 하세요. 긍정적으로. 네…….

김○ㅎ 회장: 저희 운영위원회님들의 구성이 법인의 이사님들도 계시지만 지역의 학부모님들도 운영위원회로 계세요. 그 분들은 거의 문화의집의 전도사예요. 나가서 문화의집을 많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주위의 반응들도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하시는데, 대부분 믿고 보내시고, 한번 참가하신 분은 그냥 꾸준히 계속 참가하시거든요. 하나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하셨던 분이 저것도 하시고 이러면서 문화의집에 팬이 되시고...저희가 밖으로 나가서 전단지 돌리고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효과가 가장 좋은 거는 구전으로 소개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평판이 좋은 거 같고요. 영통에 살아서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요.

김지ㅎ 주임: 가족프로그램을 하면서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소문을 내주세요. 너무 좋다고, 소문을 내주시고 특히 기금 사업 같은 경우는 수원지역 말고도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를 하거든요. 서울에서 사시는 분들이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경우도 있고...참여하려고 서울에서 직접 오세요. 안산에서도 오시고, 소문도 내시고, 너무 좋다고, 카페 같은데도 올려주세요. 저희 문화의집 프로그램 참여하니까 너무 좋더라. 수원에 사는 분들은 너무 좋겠다. 우리도 수원으로 이사 가고 싶다. 그런 식으로 홍보를 막 해주세요. 가족프로그램이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 거 같아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것도 본인이 참여해 봤는데, 너무 좋더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이런 거가 있어서 가족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는 거 같아요.

최지ㅎ 지도사: 처음 생겼을 때는 문제 있는 아이들이 오는 곳으로 생각하셨어요. 처음에 아이들을 데려오기 힘들어서 CA활동을 시작해 일반아이들도 많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지금은 부모님들을 위해

서도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님들이 아셔야 아이들에게도 홍보가 되기 때문인데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서지호 국장: 어떤 엄마는 좋다고 그래요. 체육관도 있고 여기가 문화의집이잖아요. 여기가 도마동인데, 도마동 말고 프로그램 신청하시는 분이 괴정동이랑 태평동이 아까 서대전역 거기가 태평동이거든요. 거기서도 접수하러 오시면서 농담 삼아 이 동네로 이사 와야겠다고 이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얘기 하세요. 그래서 다른 동네 사는 분들이 부러워는 해요. 아 이 동네 거기가 있구나, 그런 이야기는 하는 거 같아요. 이 동네에서는 고마워하고 여기 대화아파트 부녀회 회장님하고 장로님을 위촉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하시는데, 고맙게 생각해요. 부녀회장님도 우리 동네 아이들이 여기 와서 노는데 고맙다고...

라.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시설환경에 대한 신뢰

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라는 데에서 일단 신뢰를 하고 있다. 방과후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는 것보다는 안전한 환경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된다는 데에서 안도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박사비 지도사: 반응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대개 일반인들 어른들이죠. 어른들 보면, 자기 어렸을 때 이런 시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한번씩 와서 보시구 가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주시고, 가끔 애들 데리고 오시는 부모님이 계세요..

이중오 지도사: 저 여기에, 저희 기관이 문화의집도 있고, 2층에 청소년상담실이 이제 별도의 기관이 따로 있는데, 상담실 오시는 분이나 또 위에 기관이 또 있어요. 이제 어른들이 가끔 오세요. 저희 쪽은 청소년 담당해서 오는데, 위에 기관에 뭐 어른들 오실 때도 있고, 그러면 아 이런 기관이 있었냐면서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좋다고 막 하면서 애들 데리고 오고 같이 가족단위로 평일에는 거의 없고 주말에 아버지랑 같이 탁구 치러 오고, 가족끼리 오세요. 많지는 않은데

보통 애들끼리 오는데, 이렇게 부모님이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이 또 계세요. 그런 분들은 진짜 좋다고 얘기하시고, 우리도 어렸을 때 이런 거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이런 얘기도 하시고, 여기서 교육이나 이런 세미나 같은 게 3층에서 가끔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어른들 오시면 좋다고 얘기하시고, 꼭 애들 이렇게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이 직접 전화하셔서 여기서 봉사활동 애들 하게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김홍수 관장: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음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그.. 알게 모르게 그.. 옆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해주고, 또는 그 학생들이 그 인제..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걸 주민들이 알고, 문화의집이 있음으로 해서 안심을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 학부모 되시는 분들은 학생들이 학교를 끝나고 어디서 어떻게 헤매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문화의집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부모님들이 안심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안근식 지도자: 사실은 저희가 2001년도에 개관을 해서, 2002년에서 2003년도까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2002년도에는 제가 없었지만, 제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문화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저희가 하다못해 극장도 없어요. 그러니깐 청소년들이 어디 마땅히 설만한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용률이 대도시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이 시설 저희들이 사용하고 사무실조차도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사용을 하고 있고,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문화교실과 수련거리 문화존 사업 이렇게 해서 보통 10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부다 무료이구요, 그렇다 보니깐, 학부모들이 더 적극적으로 자기 자녀들을 참여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깐, 저희들의 이용률도 더 좋은 것 같고..

② 오해와 부정적 인식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신뢰를 쌓아가고 있지만 일부 지역 주민들의 경우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다.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다양한 청소년활동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모르는 경우 청소년들에게 단지 컴퓨터와 일부 시설을 제공해 주는 곳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학업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 청소년활동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학업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청소년의 문화활동이나 동아리활동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민원도 제기되고 있었다. 일부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위탁단체의 성향에 따라 청소년들이 저항 행위를 표출할 수도 있다는 데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지홍 주임: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다 아세요. 청소년들도 알고, 학부모님들도 알고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이고, 이 시설은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는 거를 알아요.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교육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단순 시설만 이용하시는 분들 청소년들이 PC만 하다 가고, PC만 하는 시설만 이용하다 가는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오해를 하세요. 오셔가지고, 이게 뭐하는 곳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교육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를 아는데, 시설만 이용하면 여기가 PC방 같은 느낌이 드니까 정말 왜 여기 지어가지고 아이가 PC만 하게 되냐고 이런 것 들을 때 저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거를 설득하는 거예요. 여기는 시설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다. 아이가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는 곳이다. 막 문화의집을 홍보해요. 그러면 아, 그러냐. 난 여기가 PC방인 줄 알았다고 여기가 불량 청소년들이 가는 곳인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들을 때 가장 힘든 거 같고요.

이○즈 지도사: 처음에는 2004년도에 생겼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도 그랬지만, 지역주민들 여기가 전에 동사무소였었거든요. 있다가 없어지고 밤새도록 밴드부터 해서 기타

소리 나지, 드럼소리 나지, 애들 떠들지, 여기서 팽과리 치지 이러니까 진짜 민원이 수도 없이 들어왔고, 구청장실 찾아가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당장 문을 닫게 하겠다든가 이런 것도 그때는 정말 여기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지금도 이런 면은 있지만 왜 보통은 이 시간 때에 아이들은 학원에 가있고 이래야하는데 재들이 여기 와서 하는 거는 정말 뭐라 해야 하나 잘 노는, 질 나쁜 아이들이라든가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더 이상 말을 해도 안되고 거의 주민들도 소음 방지벽이나 나뭇대로 하고 서로 또 익숙해지고 이래서 어느 정도는 그런 아 여기가 그냥 아이들이 와서 뭐 음악하고 그런 곳인가 보다 하는 게 인식이 되어있고..

김○ㅎ 지도사: 그 부분은 저희가 미치는 부분도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모님들은 아직까지 우리 아이가 공부만을 잘하길 원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그 외에 친구들이 가진 자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부모님 몰래 활동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부모님들이 도와서 저희가 무대공연을 한다든지 하면 직접 오셔서 음료수라도 사주시면서 고생하신다고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그런 반응들은 좀 극과극인 것 같아요. 학교선생님들도 저희가 학교와 연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연계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저희 문화의집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홍보도 직접 해주시기도 하는데 그 외에 저희 YMCA 일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촛불문화제에 참여를 한다든지 학교 자율화 방안이 발표 되었을 때 저희가 학생들과 함께 토론회를 한다든지 했을 때 학교에서 반발도 심했었고 예를 들면 여름방학 때 토론회 같은 것에 안 보내는 경우도 있고 학교마다 다른 것 같아요.

(5)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현황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시설이 학교와 지역사회와 연

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비교적 연계가 잘 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 수 년 동안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학교의 인식을 바꾸었고, 학교와 공간을 공유하며,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와 학교와의 연계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들과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연계가 학교와 이어져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① 학교연계 현황

가. 학교와 협약체결

학교연계방식으로 인근 학교와 청소년활동 및 공간 사용에 대한 협약을 맺고 있는 사례도 있다. 학교연계는 단 시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주변 학교에 관심을 갖고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한 모금 및 지역 행사 등에 참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김○□ 관장: 지역사회학교의 관련성은 학교연계잖아요. 사실은 학교 연계고요. 지역에서 무슨 큰 어린이날도 지역행사잖아요. 그럴 때 결합하고, 학생의 날이라는 지역행사도 결합하고...군포중학교 몇몇 중학교랑 협약서도 체결한 상태이고, 군포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학교를 내줘요. 우리가 공간 부족한 거 다 어차피 아니까. 학교도 그동안 우리가 주문하면 공간을 쓸 수 있게끔...또 우리가 매년 모금운동을 해요. 소년소녀가장돕기. 한 돈 백 정도씩 모아서 전달식도 하고, 학교로. 도움을 주는 거지. 학교입장에서 처음에는 도움을 줘도...어, 백만 원이 뭐야. 이런 짓궂은 아 내가 너무 괴롭더라고요. 우리는 일 년 내내 모아가지고 일 년 때마다 모금해서 갖다 주는데, 태도가 그렇게 안 좋았어. 이게 다년간에 걸쳐서... 피크로 좋아진 게 작년, 재작년 때부터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니까 믿고 맡기고 학생 털컹 맡기고 오늘은 아예 텃석 맡겨 버린 거야. 그런 식으로 관계가 급진전됐죠. 다 쉬운 건 하나도 없어요.

나. 학교에 청소년지도사 파견

학교와의 연계 방식으로 학교로 청소년지도사가 직접 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주제의 교육을 하기도 한다. 일부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특정 분야(폭력예방, 환경 등)의 교육 사업으로 전문성을 쌓아온 위탁 단체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배경은 학교에 청소년지도사가 직접 투입되어 교육활동을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씨 팀장: 관내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는 대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학교로 가서 직접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있는 것도 또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는 다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지역 내에 어떤 상담실이 있다는 거는 학교에도 인지를 많이 하시고 계실 거예요. 학교가 지역에 있는 학교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폭력예방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활동진흥팀에서 하고 있는 학교 CA연계 사업도 있고...

방씨 지도사: 저희 기관으로 오기도 하고, 저희가 학교로 직접 파견을 나가기도 하고요. 환경교육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성동구 내에 있는 중·고등학교는 다 연계가 되어 있고요. 성동구뿐만 아니라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까지 연계가 돼서 그쪽에서도 오시기도 하고 저희가 가기도 하고 그렇게 연계가 되어 있고요.

질문자: 혼자서 다 하시는 거예요?

방씨 지도사: 어, 프로그램 기획이랑 연계는 저희가 다 하고, 실제 교육도 저희가 나가는데 제가 다 하기가 힘든 부분을 운영위원회 졸업한 친구 대학리더 모임을 통해서 그 친구들이 매월 회의하고 교환 연구하고 나름대로 스터디 하면서 그 친구들이 계속 강사로 육성을 시키고 있고요. 그 친구들이 같이 회의하면서 그 교안을 가지고 저와 함께 같이 나가서 같이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신사○ 관장: 학교하고도 프로그램 연계를 해서 좀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학교동아리 담당선생님들을 다 모셔놓고 저희가 또 식사대접을 하면서 간담회도 했어요. 그래서 학교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락체계를 그렇게 구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었는데 각 학교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들을 하는 학교들이 춘천에 여러 군데 있어요. 그 학교들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이런 것을 저희가 적극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민간단체로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을 해서 그 각 학교에 저희 쪽에서 배출한 그런 선생님들을 파견을 해서 그 학교에서 각 학교 아이들을 방과후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하게 지역의 여러 기관과 연계해서 문화의집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학교들 하고 연계되는 게 제일 많아서 초등학교에 네 학교가 있어요, 후평초등학교, 효재초등학교, 문화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에 네 학교에 방과후 선생님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하고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학교에 직접 가서 진행을 풍선아트, 뭐 이런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월부터는 후평중학교에 저희가 그 이번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청소년 활동진흥 지원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승인을 받아서 ‘함께 가자 로봇의 세계로’ 라고 해서 로봇강좌를 또 무료로 진행을 해 주기로 지금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한편 CA활동이나 특별활동 시간에 청소년지도사들이 투입되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학교연계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단지 몇 차례의 청소년지도사 방문교육 보다는 청소년문화의집과 학교가 보다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고흥비 관장: 오히려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수는 감소되어질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의 변화를 어떻게 줄 것인지가 우려되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그 점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담당 간부 여러분들과 학교현장과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지금까지의 방향, 예를 들면 CA에 강사파견을 한 다던가, 이렇게 굉장히 소극적 활동보다는 우리가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좀 연구해 보자 해서 지금 그런 자료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 학생들이 청소년문화의집 방문 활동 참여

학교로 청소년지도사가 방문하여 연계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청소년문화의집에 직접 방문하여 활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환경교육으로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의집의 경우 이미 주변 학교에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으며, 매주 청소년들이 문화의집을 방문하여 직접 환경체험을 통한 교육을 받고 있다. 특히 소집단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며 직접 만들어보고 체험해보는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한다.

양곡리 관장: 지금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학교연계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평일에 가서 한다거나 평일에 와서 10명조 단위로 모아서 청소년 교육을 시켜요. 우리는 환경이 화두이기 때문에 환경교육을 자원봉사 형태로 시키거든요. 우리 엄청난 숫자예요. 토요일은 토요일마다 나가서 하고, 평일에는 학교에서 파견돼서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학교랑 연계가 굉장히 잘 되요. 학교에서 한 학급에 30명을 세 번으로 나누어서 보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거든요. 그러면서 단위가 적게 오면 교육이 알차게 할 수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와서 일회용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봉사가 어떤 거다. 1시간정도 시켰다가 요즘은 환경이 화두예요. 환경을 어떻게 키워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체험하기도 하고 중학생이기 때문에 대안생리대를 많이 만듭니다. 왜냐하면 요즘 생리대가 병의 원인이잖아요? 사서 쓰는 게, 그런 생리대의 구분이 되어주면서 직접 만든 것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만드는 거 가르치기도 하고 대안 수세미, 수세미 좀 떠라, 떠서 엄마들 갖다 주고, 사서 쓰는 거 말고 이거 활용하면 환경도 절약이 되고 비용도 절약이 되고 애들은 바느질 못해요. 난 놀란 부분이 손 바늘도 못하고 바느질도 못해요...애들은 우선 학교를 떠난다는 자체가 재미있거든요. 기분 좋은 거거든요. 그 기분 좋은 거를 어디서 받아줘서 조금만 서포트 해주면 애들은 커요. (중략) 직접적으로 뛰어야 되는 부분은 학교에서 못해요.

김지홍 주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학교 CA 진행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학교와 연계를 하고요. 또 학교에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할 때 공문발송이나 이렇게 해서 저희 프로그램을 많이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와 연계는 잘 되고 있는 편이에요...저희 문화의집을 알리기 위해서 그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이쪽 문화의집에 와서 CA를 해요. 저희 문화의집을 한 번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직접 나가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그러면은 그래도 모르거든요. 문화의집이 있어요. 아, 그래 있구나, 알고는 있지만 오지를 않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을 이쪽으로 와서 저희가 CA 진행을 해요.

반면 지방의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청소년지도사 1인이 상주하며 운영 실무 및 프로그램, 활동 지도를 도맡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도사의 학교 방문 활동은 지속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경우 학교 학생들이 문화의집을 방문하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지도사: 저희가 작년까지는 학교하고 연계를 했거든요. CA시간이나 정해진 시간에 프로그램을 했는데 제가 학교에 직접 가서 성교육이나 자원봉사교육을 했었는데 보니까 문화의집에 저 혼자 있었어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오전에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가도 되

지만 그래도 안에가 집안이 엉망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하고 올해부터는 필요하면 이곳으로 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옆에 고등학교가 토요일이나 CA시간에 여기에 와서 공연연습을 한다든지 그 정도가 하고 있어요. 조금 인원이 확정되면 할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학교는 제가 프로그램을 하면 캠프나 체험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라. 교사대상 간담회, 자문위원회 운영

학교와의 연계를 위해서 지역 학교 교장 및 교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협조를 얻고 있었다. 특히 특정사업을 시작하거나 소개할 필요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자문위원회를 활용하고 있다.

김○ㅎ 관장: 우선은 저희가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전문가 그룹해서, 자문위원 이렇게 있는데, 그 자문위원회에 여기 YT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자문위원회로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 사업만 보내면 적극 협조해 주시고 그러셔서...저희를 잘 모르시는 기관도 있기도 해요. 그렇게 자문위원으로 계시는 학교는 당연히 아시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 영통을 벗어난 수원시내만 해도 지금 고등학교만 해서 30개가 넘거든요. 중학교는 40개가 넘고, 초등학교는 80개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저희를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희가 다 학교를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모르는 기관도 있을 수 있겠죠.

방○즈 지도사: 경제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일 처음에 경제교육을 시작을 하면서 성동구 내에 있는 학교장님들을 다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어요. 저희 사업 소개를 하고 전반적인 사업 소개랑 중점사업이라든지, 특색사업을 소개하면서 그 자리에서 교장선생님들의 인식을 다 바꾸었고요.

질문자: 교장선생님들이 처음에 간담회 하신다고 이렇게 초청공문 발송하실 때 반응이 어떠셨어요?

방口스 지도사: 거의 따뜻미지근 하셨죠. 외면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구요. 근데 일단은 오신 분들 대상으로 잡았구요. 오지 못하신 분들과 지역 내의 가까운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찾아가서 말씀드리기도 했고, 일단 학교장 간담회를 하고 나니까 교장선생님 생각이 바뀌니까 밑에 교직원 선생님들은 당연하게 다 바뀌셨구요. 그 분이 다른 학교로 가시면 또 다른 연계가 되고, 이 안에 계셨던 교직원 선생님들도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시고 이게 점점 퍼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서지호 국장: 여기 초중고 가까운 학교는 가정통신문에 나가요. 저희가 놀토 때는 문화존이라고 해서 바깥에서 상설로 한마당도 하고 할 때마다 그거를 도마초등학교는 놀토, 금요일 아니면 목요일 날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문화존 한다고 가정통신문에 나가요. 가까운 학교에서는 자유게시판 올려주고, 학교 교장선생님을 우리가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1년에 한 두 번은 형식으로 회의를 하지만, 부탁을 할 거라든가 저쪽에서 스승의 날 행사 때는 변동중학교랑 우리랑 협약을 맺어서 같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제공하고 한 학년이 와서 선생님 사랑한다고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많이 탔거든요. 작년부터... 그래서 그런 것들 해서 일단은 학교랑 연계되고...

마. 학교 행사 및 다양한 활동 참여

주변 학교 교사들을 자문위원회 등으로 네트워크하고 지속적으로 연계를 유지하는 문화의집들은 축제 등 학교 행사나 특별활동, 특기적성활동을 학교와 함께 담당하기도 한다.

서지호 국장: 서대전여중은 학교 CA활동 다 있어요. 학교 밴드나... 학교 CA는 토요일 날 오전에 부화초등학교는 놀토 중심으로 연결해 주고, 또 중학교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있을 때 우리가 갑자기 큰 행사가 있을 때, 그 쪽에서 중학교 행사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중략)
(학교 선생님들과도) 연결이 되 있어요. 급하게 인원이 필요할 때 개

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자문위원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참 그게 좋은 거 같고, 작년에 도마중학교는 협약식까지 아예 맺었어요. 거기 학교 운영위원회까지 해서 강당에서 그래서 하나의 협약을 맺어서 작년에 드림 난타 교실을 도마중학교 아이들이 여기서 특기적성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연결했었어요.

최지흥 지도사: 학교는 근영여고부터 17개 학교 CA활동을 하고 있어요. 축제지원은 6~8개 학교 나가고 있구요. 대학교는 1년에 두 번 정도 이쪽에서 교육도 받고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박수비 지도사: 학교 주변에 이제 바로 옆에 원광여중 같은 경우는 3학년들하고 매년 시험이 끝나면 저희가 이틀정도 여기 와 가지고 수험생 격려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구요. 학교 CA 7개 학교 정도가 와서 CA활동을 하고 있구요.

안다스 지도사: 문화의집을 중점으로 단양 관내 전체의 분교까지 11개가 있구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11개가 있고, 인근에는 고등학교 한 곳과 중학교 읍내만요... 고등학교 한 곳... 고등학교 두 곳...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요. 네, 그렇게 있는데.. 저희가 오히려 타 벽지학교요, 벽지학교에서도 한 100여명 정도밖에 안되는 학교하고는 며칠 전에도 전교생이 참여해서 레프팅도 하고, 서바이벌도 하고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도 많이들 참여도 하고 있는데, 인제 가장 가까이 있는 단양고등학교라던가 단양중학교 같은데에서는 읍내라고 그래서 그런지 학원도 많이 다니고, 청소년들의 시설도 일단 학업이 우선이라는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지오 관장: 학교와의 연계는 위원회에 선생님들이 들어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학교와 연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는 축제나 마산의 315

축제들은 학교와 연계를 하는데 그럴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를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오거나 학교로 가거나 하는 것으로도 연계가 되어 있어요. 토요일에 마산중학교 같은 곳에서 CA시간에 우리 문화의집으로 오기도 하고, 우리 문화의집에서 학교로 가서 민주시민교육 같은 것을 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사고친 아이들을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자원봉사 인증터전이기도 하고 유해환경감시단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 사업들로 연계를 하고 있어요.

② 지역연계

가. 지역의 청소년관련 단체 및 기관 연계

학교 연계와 함께 지역사회의 아동 및 청소년단체와 관련 기관들과의 연계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부족한 자원을 보완하기 위해 상호 연계하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교환하여 제공하기도 한다.

김○□ 관장: 지역에 굶직한 어린이, 청소년 쪽은 개입을 해요.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고, 청소년단체협의회도 따로 있고, 그 청소년단체협의회 기관단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있고 그런 연계형태는 좀 뛰어나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그쪽도 운영위원회가 내가 들어가고, 이쪽도 운영위원회 내가 들어와 있는 형태고, 아이들 무슨 프로그램 있으면 다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아이들한테 자원을 줄 수 있으면 자원을 주기도 하고, 교육 쪽 많이 하고, 여기 공간이 필요하면 공간도 와서 공간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연계도 되고,

박○△ 지도사: 이제 아동센터와는 저희가 방과후아카데미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요,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방과후교실 같은 걸 하잖아요? 거기와 연계해서 같이 프로그램도 하고 있구요.

최지흥 지도사: 아까 얘기했지만, 전주시에 있는 전체적인 복지뿐만 아니라 총 여섯 기관이 모여서 워크샵도 하고 체육대회도 열립니다. 지도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구요. 걷기대회도 열었고, 평생학습한마당이라는 프로그램도 연합으로 지도를 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도 전체 모든 기관의 청운회를 일 년에 두 번 정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구요. 계속적으로 새로운 연계사업을 만들어 내고 있는 중입니다.

박지수 관장: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가까운 곳도 있고, 저희 익산에 100개인가 있다는 거 같아요.

질문자: 그럼 연계 한다는 지역아동센터는 어디?

박지수 관장: 그때 당시에는 20개가 참여를 했거든요.

질문자: 그럼 여기 문화의집 하나랑 지역아동센터 20개랑 같이 해서요.

박지수 관장: 같이 아이들이랑 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도 차가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저희한테 와가지고

질문자: 굉장히 프로그램 참여 인원수가 많았겠네요.

박지수 관장: 네. 그래서 저희가 300명 이상 들어가면 힘들어요. 근데 300명 이상이 들어와 가지고, 어우 너무 좋아하시긴 하더라고요. 지역연계가 사실 굉장히 잘 됐다고 해서 작년에 상 받는 것도 지역연계 쪽이에요. 최우수 받았던 거예요. 기타 그런 여성단체라든지, 사회단체, 저희 익산시에 있는 단체랑 연계 많이 했거든요.

질문자: 연계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박지수 관장: 지역연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상 목적이 솔직히 되면 어떤 곳이 있느냐 찾아가지고 섭외를 하고, 그리고 한 번에 섭외가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꾸준히 세월이 좀 흘러야 처음에는 많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한 해가고 그 다음에 축적이 되면서 되고...(중략)

김○흥 관장: 우선, 영통 안에서의 연계보다도 수원시 전체를 연계를 하고 있고요.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다 협의체가 시·군마다 있지만 협의체에 저희도 같이 기관으로 들어가 있고, 그 안에서 청소년기관들이 같이 또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서로 프로그램도 교환

을 하고 그렇게 연계를 하고 있고요. 또 수원에서 청소년 관련된 큰 행사,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학생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것 할 때도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을 접수 받을 때 어떤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몇 자리 비워놔서 그 아이들을 받기도 하고 저희 운영위원회나 동아리 아이들이 그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와 계속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김홍수 관장: 지역아동센터가...원래는 그 지역아동센터가 재미보파리라고 해 가지고 별도의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방과후 숙제 주도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현재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을 정식으로 설치해 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현재 본격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 지역의 문화 및 활동 자원 연계

아동 및 청소년단체 연계와 함께 청소년문화의집은 지역사회 문화 예술 자원 확보를 위해 지역사회 전문가 및 시설과의 연계를 하기도 한다. 또한 청소년문화의집의 활동 내용과 관련하여 노인정이나 각종 평생교육센터 및 진로, 상담관련 기관과의 연계도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 상업 시설과의 연계를 구축하여 축제 등을 진행하고 있는 시설도 있었다.

김○홍 지도사: 저희가 되도록 지역연계를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존이라는 축제를 매월마다 하고 있는데 지역연계체가 되어 있어요. 마산지역 내에 있는 청소년단체 5개와 연계되어 있고, 각 지역 전문가들, 예술가들, 공공미술기관과도 연계가 되어있고, 시설관리소의 소장님이 저희 지원협의회에 직접 들어오셔서 운영에도 참여해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사업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각 지역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문화전문가도 있고, 연극 감독도 있고, 가수도 있고, 의사부터 해서 지역 MBC의 PD분들도 들어와 있어서 지역연계체가 잘 되어져 있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거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죠.

방口스 지도사: 단체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저희 봉사프로그램 자체를 지역 내의 노인정들과 연계를 해서 아이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노인정 가서 어르신들과 함께 문자 발송법을 배운다든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지역 내에 학교는 기본으로 다 되어 있고요. 보건소나 노동청 동부센터랑 연계해서 아이들 진로체험 상담프로그램이라든지 같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 교육청 상담센터랑 연계가 돼서 처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쪽에서 상담을 하고 봉사프로그램으로 저희 기관에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어 있고요.

신스O 관장: 지역네트워크를 저희가 활용을 참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이 또 이제 문화의 도시이고 축제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예요. 또 저희는 문화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청소년동아리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각 축제단위라든가 지역축제와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또 올해에는 M백화점이라고 큰 대기업 백화점이 이 명동에 들어와 있어요. 그 백화점하고 연계해서 우리 아이들이 백화점 무대에서 자발적으로 공연을 매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또 저희 문화의집에서 부족한 그런 연습 공간을 또 무료로 아이들한테 제공도 해주고 해서 잘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센터 같은 곳 하고도 연계가 잘 되어 있는대요. 저희가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에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매번 공문이나 전화나 이렇게 자주 드려서 아이들이 특히나 저소득 아이들이 문화의집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하고 있고요.

이OO 지도사: 그리고 우리 봉사동아리가 있거든요. 또 우리 음식동아리가 있거든요. 음식을 해서 센터에 게시는 할머니들에게 방문해서

나누어주는 그런 동아리가 있거든요. 복지관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가 참여하고. 복지관에서 자원봉사 교육이 있을 경우어나 그리고 박물관 같은 곳이 있거든요. 칼박물관. 거기서도 참여를 하고 같이.

다. 자원봉사자 연계

지역사회 연계를 단체나 기관·시설 차원의 연계 뿐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자원봉사자가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도 있다.

박씨 관장: 지역연계가 물론 어떤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개인지도로 와서 봉사활동으로 하는 게 저희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역에서 봉사활동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할 곳을 찾지 못해서 그리고 또 가보면 재미가 없고 보람을 못 찾아서 안 가게 되거든요. 사실 재미도 있고, 보람을 찾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와서 재미있으니까, 저희 봉사자가 많은 이유는 한명이 오면 그 한 명이 또 한 명을 데리고 와요. 내가 해보니까 재미있다. 너도 가서 해볼래! 그러면서 오거든요. 한 명, 두 명 늘어나다 보니까 많아지는 것도 있고, 그렇게 많다고 하면 옆에 대학교가 있어서 그렇게 그러는데 사실적으로 교통편이 굉장히 안 좋은 곳이에요. 여기가 원대에서 여기로 오려고 하면 저기서 내려 10분 이상을 걸어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한 번에 버스 노선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봉사자가 많다고 하는 거는 그 만큼 저희가 보람을 살릴 수 있는 꺼리가 있다는 거예요.

라. 위탁단체의 연계 자원 활용

한편,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하고 있는 단체의 인프라를 활용한 연계를 하기도 한다. YMCA에서 위탁운영하는 경우 관련 자원과 인프라들을 활용하고 있다.

이지오 관장: 저희는 청소년단체 6개 정도와 연계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문화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심으로 하고 그 단체들이 같이 들어와서 결합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 형태로 있어요. 청소년단

체와는 그렇게 연계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YMCA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특징은 YMCA가 가지고 있는 지역 인프라들과 다 같이 연계되어 있어요. 위원회나 이사회들이 갖고 있는 자원과 함께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YMCA에서 문화단체들과 관련이 많은데 풍물패, 연극패 등과 같이 해서 프로그램을 연계를 하고, 또 그런 NGO들과도 관련이 있고요. 수탁시설의 장점은 수탁기관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도 연계를 하고 시가 갖고 있는 공적 네트워크도 운영을 해요.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마. 타지역 및 협회 등과의 연계

청소년문화의집 활동을 특성화하는 과정에서 유관 협회, 단체 및 타지역 시설과의 연계를 갖는 경우도 있다.

안디사 지도자: 저희는 지금 자매결연을 서울시청소년수련관하고도 맺고 있고요, 그리고 단양의 한재민마을이라는 곳과도 자매결연을 맺고, 저희가 그 충분히 단양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과 협의처를 모두 갖춘 구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프로그램과 연관을 해서는 수상스키협회, 패러글라이딩협회, 모형항공협회 다음에 해양소년단, 우주소년단 그리고 학교하고도 어떠한 계기가 있지만, 그 저희가 단양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단양의 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시청소년수련관과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작년서부터는 잘 못했는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수련관에서 청소년들이 내려오고, 저희 운영위원회 매포, 단양 다 합쳐서, 같이 워크샷을 했었습니다.

(6)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

이상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을 통해 청소년문화의집의 의미,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활동 지도상의 어려움, 지역사회에서의 위상,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연계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러한 청소년문화의집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

한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① 청소년들의 욕구 파악 및 반영

청소년문화의집에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은 먼저 이들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청소년들의 욕구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은 그 변화를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근래에 청소년들은 공연이나 댄스와 같은 활동을 즐기며 이를 위한 동아리들이 활성화되는 반면, 각 시설은 동아리 방을 확충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신사○ 관장: 이제 청소년들의 욕구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주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가장 참여도를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는, 동아리 아이들 오디션 할 때 너희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나? 라고 물었을 때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아주 많이 주십시오. 그것이었던데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청소년들이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자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연기회가 또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피곤하지는 않을까 뭐 이렇게 염려가 되요. 지치기도 하는데 그렇게 기회를 주니까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들 참여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들이 선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부모님들에 의해서 아동들이 참여를 많이 하는데요. 요즘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이라면 과학, 로봇 뭐 이런 쪽의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말을 잘하게 자신감있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스피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아주 선호를 초등학교들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신사○ 지도사: 저희 청소년문화의집 주력사업이 원래 동아리활동 지원 사업이 가장 중심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지도

하는 동아리가 12개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주로 뭐 락밴드라던지 노래동아리, 댄스동아리, 비트박스 하는 친구들도 있고, 주로 공연을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연습실이 굉장히 필요한 친구들이에요. 여기 시설을 보시면 pc부스도 있고 뭐 도서나 비디오, DVD 이런 거 볼 수 있는 시설도 있고, 뭐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거는 연습실인데 지금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2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을 150명이 돌아가면서 써야 되는 현 상태예요 그나마 멀기 때문에 잘 못오는 거, 예 그러고 장비나 시설같은 경우는 당연히 음향이나 그런 장비나 뭐 앰프라든지 그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영상물 이렇게 뭐 아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보면서 뭐 어떤 춤연습을 한다든지 그런 시설이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냥 딸랑 방 있고 드럼하나 있고 앰프 몇 개 있고 그게 전부니까, 너무 부족한... 시설 면에서는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 선호도에서는 공연, 행사, 큰 행사 그 왜 축제나 어떤 큰 행사들 있잖아요. 그런데 무대에 나가서 공연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거 같아요.

박지수 관장: 동아리활동 할 수 있는 동아리방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비해서는 사실 춤동아리 아이들은 좀 줄어들었지만, 음악동아리 아이들은 많이 늘어난 추세이고, 음악동아리라든지 마술동아리 지금 다양화 돼 있죠. 그때 아이들은 다양한 동아리가 아니고 춤동아리만 그때 서태지 영향으로 그렇기도 하고, 아이들이 얽매어 있다가 사실 부모세대는 아직 보수적인 게 강했잖아요. 다양화 되지 못하고, 그런 발산을 춤으로 했지만 지금처럼 다양하게 부모들이 꽃다발 들고 올 정도로 많이 변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화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악동아리를 유치 해 준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밴드, 드럼이라든지 저희가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② 재미, 프로그램의 흥미도

청소년들의 참여는 일단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청소년들의 관심사를 적절히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스 관장: 그리고 아이들이 변화를 굉장히 추구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변화 추구하는 거는 청소년들 특징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져서 예산확보도 중요하고 저희가 작년에 VUCC가 잘된 이유가 V가 사실은 봉사활동을 VUCC로 제작한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봉사활동을 점수 때문에 해야하는데 사실 그냥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 하지 여기서 교육 같은 거 못하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UCC를 잘 하니까 UCC 첨가를 한번 해보자. 봉사활동+UCC 해보자 해서 자기들이 활동한 거 자신들이 찍고 만들어 가지고 UCC를 제작한 거 저희들이 강사를 해 가지고 UCC만드는 것만 해주었거든요. 지금은 각 가정에 디지털카메라가 있잖아요. 디지털카메라 가지고 와서 하는데, 사실 컴퓨터가 있어야 만들기를 하잖아요. 그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집에서 하기 힘든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어야 되고, 예산만 된다고 하면 그런 정보 쪽이라든지 음악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시설 지원은 저희가 갖춰져야 하지 않을까

박스 지도사: 학교에서 연계돼서 오는 경우에는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연계로 이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학교선생님들 때문에 계속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일단 학교는 그 선생님과 저희가 연계가 됐기 때문에 학교에서 대상이 바뀌더라도 선생님들이 그 친구들을 계속 데리고 오거든요. 근데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봉사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모집을 했을 경우에는 한번 오고 안 오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나름 프로그램의 마니아층이 따로 생겨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환경교육이 2006년부터 지금 계속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이 되기도 하고 했는데, 내용이 조금씩 변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거든요. 그

안에 체험 내용이 바뀌는 거지 그런데 2006년 했던 친구가 2007년에
 도 하고, 매년 저희가 공고를 내고 프로그램도 미래체험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체험도 마찬가지로 공고를 낼 때마다 계속 와서 학교 친구
 구들이 그 프로그램 마다 마니아층이 조금씩 생기는 했어요. 카이
 스트 같은 경우도 카이스트 갔던 친구들이 그 다음 미래체험에 다른
 대학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연계가 돼서 대학체험을 이 친
 구들이 계속 가는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교육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고, 이 친구가 오니까 계속 주위에
 친구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재미있어야겠죠. 일
 단은 재미가 제일 큰 것 같고요.

③ 동기부여

청소년들의 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는 흥미와 관심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참여과정에서 상을 받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면 청소년들의 참여
 동기는 더욱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참여에 대해 지도자들은
 간접적 지원과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활동의 결과에 대한 보상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코지 지도사: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재미로 시작한 아이들이 하
 다보니까 봉사 시간이 자꾸 쌓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친구들이랑
 활동에 관한 보상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잖아요. 이것저것 찾아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고, 일단 입시도 해야 되고, 이곳
 저곳 있을 때, 학원이고 입시 때문에 많이 못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
 문에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 친구들한테 줄 수 있는 가산점이 상이
 었거든요. 저희 활동을 열심히 했던 친구들을 모범청소년으로 추천을
 해서 구청장 상을 받는단든지, 아님 성동구청에 잘 되 있는 게 자원
 봉사 인센티브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속 봉사자들
 서는 구청차원에서 아예 보험가입을 다 해주셨고요. 그리고 250시간
 이상 분들부터 구청장상 동메달, 은메달 이런 식으로 쪽 시상이 들어

가요. 일반인 분들한테는 얼마나 큰 메리트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청소년들한테는 본인들의 시간이 쌓여서 그게 구청장 상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였고, 사실 학교에서 저희가 작년에 받았던 친구들이 학교에서 네가 봉사상을 받아? 의아해 하셨던 분들도 많았어요. 저희 동아리회장 같은 경우에는 놀았다가 이 친구가 상을 받고 그러더니 이 친구가 봉사 좀 하는구나 그래서 누적시간을 봤더니 600~700시간이 다 되고, 좀 있으면 1000시간이 다 되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예 진로부장님이 너 봉사활동 하면 내가 대학 보내주겠다. 어느 정도만 해 달라 이렇게 얘기까지 하시니까 더 힘을 받고 아이들 안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안하던 애 같았는데 구청장상을 받아왔다는 자체가 애들한테는 굉장히 큰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운영위원회 공개모집할 때도 알려지잖아요. 여기 활동을 잘하면 어느 정도까지 그런 게 있다더라.

서지호 국장: 청소년운영위원들이 우리는 담당 청소년들하고 개최를 하는데, 작년에 우리 청소년위원들이 그걸로 상을 받았는데 우리가 재작년에 워크숍을 가면서 청소년운영위원들끼리 행사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해봐라 했는데, 대전에 갤러리아백화점이라고 큰 백화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 무대가 있어요. 야외로 거기 뿐만 아니라 대전의 롯데백화점 다른 주위의 백화점에서 무대를 빌려서 우리 이용하는 동아리 애들이 공연을 좀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임원진들을 불렀어요. 워크숍 끝나고 나서 좋은 생각이다. 우리 선생님들도 감히 기업체 끼고 못해 봤는데, 우리 그냥 시내 사람 많은데서 길거리 공연 하면 어떻겠니. 일단 그렇게 해보고 후년에 해보자고 그랬더니, 그 청소년운영위원 그 당시 회장이 선생님은 해보지도 않고 왜 우리를 못하게 하냐고 혼났어요. 속으로 너희 잘 하나봐라, 너희가 다 알아서 해라 우리가 행정만 해주겠다. 이 아이들에게 공문을 만들어주어서 아이들이 갖고 대전시에서 사람 많이 다니는데 갔다가 퇴짜를 맞았죠. 우리는 속으로 그래 이걸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랬는데 아이들이 거기서 굴하지 않고 갤러리아백화점으로 갔더라고요. 거기

서도 확답을 안 주고 알았다고 해서 애들을 그냥 보냈나 봐요. 이 아이들이 또 쓴 맛을 보고, 롯데백화점을 가려는 순간에 갤러리아 백화점 홍보 담당자가 전화를 했나 봐요. 너희 한번 다시 와봐라 그래서 애들이 거기서 협약을 했어요. 거기서 행사를 하는데, 갤러리아백화점이 세일기간 때 우리가 10월 달에 행사를 하는데 거기 조명이랑 무대 세팅을 다 해준 거예요. 거의 돈 100만원 들었나 봐요. 갤러리아 전단지에서 우리 홍보까지 다 해주어가지고 500~600명이 거기에 바글바글 하고 해서 그 아이들이 그래서 동아리 연습 한 10개 정도 동아리 이용하는 운영위에서 매주마다 리허설하고 우리 청소년운영위원들이 그래서 딱 올렸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백화점 세일기간도 겹치고 해서 그 야외무대 그리고 거기가 분산도로라 차들도 하면서 저녁때 하나까 조명 뽐뽐하고, 우리는 상상치도 못하게 거기서 다 투입을 해준 거예요. 아이들이 굉장히 호화스럽게 행사를 하고 하나까 내년에도 하시라고, 제가 고맙다고 전화 드리겠다고 해서 저희가 두 해를 했어요. 이거 가지고 작년에 애들이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그걸 프레젠테이션 회장이 설명을 했어요.

④ 관계형성

활동과 프로그램의 흥미, 보상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적절한 관계형성이 중요하다. 즉, 청소년들간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과 지도자 사이에도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소규모의 상호작용이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윤희유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김지홍 주임: 친구처럼 대하면 될 거 같아요. 정말 그 친구의 입장에서 내가 그 친구를 훈계하거나 권위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친구의 진정한 친구처럼 얘기를 해주고, 진정 공감을 해주는 거, 이해

해 주는 거, 친해지고, 이런 일정 이외에 다른 시간들, 밥을 같이 먹거나 놀거나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저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해주는 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믿게 해주는 거 그런 거, 굉장히 필요한 거 같아요.

방코즈 지도사: 저희 같은 경우에 기존에 오래 해왔던 아이들이 있으니까 신규 아이들이 오면 기존에 해왔던 애들 2명이 이 친구 1명을 위해서 ‘무한도전 친해지길 바래’를 했어요. 한명을 책임지고 나랑 친해져야 되는 그거를 하다 보니까 서로 특별한 관계가 되고,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고, 뭔가 오면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그것들 때문에 애들끼리도 친해지고 그래서 더욱 재미있어지는 거 같아요.

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프로그램 참여는 재미와 흥미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 뿐 아니라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에서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사회적 변화와 요구는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수요에 반영될 것이며, 이는 프로그램 참가율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일례로 글로벌 교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YT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시험기간에도 프로그램 출석은 100% 이루어진다고 했다.

김○ㅎ 관장: 우선은 그 시대의 흐름과 국가의 어떤 정책의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한 발 빠른 움직임. 그런 거에 초점을 항상 두고 있어요. 시대는 어떻게 흘러가나, 요즘 트렌드는 어떤 것인가, 국가의 청소년 정책은 어떻게 흘러가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지만 그런 쪽에 많이 저희 프로그램도 그 흐름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고...우선 개관 초기에는 국제프로그램들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사회가 글로벌 사회이고 하니까 그런 쪽의 국제프로그램들을 계속 고민을 해왔었는데, 시작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씩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올해는 사업을 2개나 하거든요. 영통지역은 기본적으로 방학 때 해외에 나가는 게 기본이에요. 겨울방학 때는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동안 캐나다, 필리핀 이런 곳 가는 게 많고, 저희는 아마 국제 프로그램을 유료로 해도 굉장히 프로그램의 질만 좋다면 성과가 있을 거 같아요.

김지홍 주임: 저희는 일본이랑 국제교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본 프로그램이 2개가 있어요. 첫 번째 프로그램은 한 15명 정도 되는 소수의 인원을 데리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터치 트렌트 수원열풍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지역특화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37명 친구들을 데리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면접을 봐서 합격한 친구들에 한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참가비는 육십만원 정도 내고 하고 있어요. 항공료정도 부담을 하는 걸로 그거 이외에 다른 교육비나 프로그램 진행비는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김○홍 관장: 100% 출석률, 시험기간인데도...그런 예가 있고, 또 하나 예는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잘되는 게 가족프로그램이거든요. 처음에는 가족프로그램을 하지 않았는데, 주5일제 되고 아이들 놀토가 하루에서 월2회로 늘어나고 있죠. 이러면서 주5일제 직장에도 이런 변화가 있으면서 주말에 쉴 수 있는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그런 흐름에 맞추어서 저희가 가족프로그램도 점점 확대하고 있고...

⑥ 소속감 부여

청소년들이 문화의집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소년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된다. 자기 집과 같은 분위기를 느끼며 스스로 소속감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회원카드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김○홍 관장: 우선은 아이들이 첫 번째로는 내가 이 시설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거,...아무리 옆에서 잘 받쳐 주어봤자 내가

여기 주인이 아니다, 나는 거기 별로 관심 없다, 이러면 안 되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 주인이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자부심도 좀 길러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첫 번째 인거 같고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받쳐 주는 거, 특히 가정과 학교에서 오고 싶어도 부모님이 거기 가지마라 이럴 수도 있고, 가고 싶어도 너 수업해야지 어딜 가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와 저희가 긴밀하게 관계를 맺는 거 그런 거도 중요할 거 같고요. (중략) 저는 처음에 문화의집을 위탁 받고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이랑 대화도 안하고 문 닫고 자고 나오는 정도, 그렇지만 집이 제일 편하잖아요. 그런 이미지. 집에 가면 좀 편안하고 쉽도 얻을 수 있고, 또 동생 언니 오빠들과 재미있게 노는 것처럼 내가 혼자 왔지만 다른 친구들과도 만날 수 있고 쉴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 2~3년 후에는 회원카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물론 처음에 발단은 그런 거에서부터 있었지만 기자재 관리나 이런 관리를 위해서 회원카드를 만든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회원이라는 거 내가 문화의집의 회원이라는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거 어쩌다 한번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저기 회원이야 이런 소속감을 가지고 문화의집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회원의 날도 하고 있거든요. 그 회원의 날은 내가 문화의집의 회원으로서 대접을 받고, 다른 회원들과 만날 수 있고, 저기 문화의집에 가면... 예쁜 애들 많대, 이렇게라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갖춰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문화의집이 편안함과 안락함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정말 집 같은 내 집 같은 편안한 공간...

⑦ 청소년 친화적 외관

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들로부터 관심을 받기 위한 방안은 먼저 청소년들이 들어가고 싶도록 하는 시설 외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된다. 대부분 관공서나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들어선 문화의집들의 경우 청소년시설이라는 이미지는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결국 청소년들의 시각

으로 디자인되고, 고정관념을 깨는 고급화된 시설이 갖추어진다면 어느 청소년들이라도 가고 싶은 시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양모리 관장: 우선 시각적으로 아이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여야 되요. 고급화가 필요합니다. 호텔 수준으로 왜 못 지어요? 청소년 시설 한번 해보세요. 하고 싶은 공간만 된다면 되요. 어디든지 어른도 마찬가지로요. 들어가고 싶은 곳, 찾집도 들어가고 싶은 곳 누가 가지 말라고 해도 가요. 스스로 가게끔 하는 방법을 만들어 놓고 유인을 해야 되는 거지... 너, 무조건 가라 하면 뒷문으로 도망가요. 그런 거를 왜 합니까? 이제는 거꾸로 집도 있는데, 청소년들이라고 거꾸로 집이 있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거꾸로 집도 해봐 봐. 똑같이, 그냥 규격화 시켜가지고...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 대해서 직책이 있잖아요. 크게 소유하고 있다는 게, 큰집에서 위치도 높아 보인다는 거 이런 게 있잖아요. 옛날부터 대궐집 그런 거를 바꿔야 돼요. 작더라도 정말 아름다운 집, 고급스러운 집...애들한테 건축시키면 더 잘 해요. 상상외의 집들이 나오니까, 청소년시설에 거꾸로 집이 필요해요. 마인드가 조금 바뀌면 시설 하나라도 아주 정말 한국에서 이 시설은 세계적으로도 청소년시설 왔을 때 청소년 담당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시설 하나 있어야 돼요. 허공에 떠 있는 집도 재미있잖아요. 정말 청소년들이 가보고 싶다. 청소년들이 이곳은 정말 무얼까? 궁금한 곳이 되어야 돼요. 그냥 거기가면 다 거기서 거기더라 그러면 실 패작이에요. 거기가면 뭔가 있을 거 같다. 뭔가 있을 거 같지 않니? 가보자! 이렇게 좀 돼야 되거든요.

⑧ 시설운영 지원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청소년시설을 찾고 그들의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이 지적된다.

가. 테마시설 지원

먼저 테마시설로서의 지원이 제안된다. 지역마다 자리잡은 청소년문화의 집이 특정 테마로 전문화된다면 청소년들이 관심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 전문화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양〇리 관장: 그니까 서울 전체시도 환경이면 환경테마, 어떤 테마가 열 군데 있으면 그 시설을 두 군데만 집중적으로 키우기 시작하면은 청소년들의 변화는 매년마다 달라질 거예요. 집중으로 키워주는 거예요. 그럼 노하우가 쌓일 거 아니예요. 그 대신 그 직원이 전문화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럼 그게 아주 좋은 거죠.

나. 공공시설로서의 정책적 지원

청소년시설이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공공시설로서의 입지를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설 운영지원 면에서 학교나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공공시설로 인정을 받고 여러 가지 운영상의 재정 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〇홍 관장: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문화의집이 지역사회에 공공시설이라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에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서두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문화의집이 뭐 하는 기관인지 모르는 일반인들 학교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지역사회 안에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화의집이 정책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 같아서 공공시설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는 국가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문화의집의 전반적인 얘기인 거 같고요. 저희 문화의집을 보자면, 저희는 내년도에 신축계획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새로 시작하는 마음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 같아요. 여기 안에서 있으므로 해서 수원 체육문화센터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문화의집인지,

수원 체육문화센터의 하나의 한 층인 건지, 구분이 없으시거든요.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새롭게 단독 건물로 나간다면 여기는 청소년시설이다.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분들도 곁에서 딱 한 건물이 있으니까 보이실 수 있을 거 같아서, 좋은 기회니까 그 기회를 삼아서 저희가 지역사회 안에서 좀 청소년시설로써 청소년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구체적인 방안은 고민을 해야 될 거 같고요.

박지수 관장: 지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공시설의 성격을 강하게 부여하면서 거기에 따른 지침이 내려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련원하고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유스호스텔, 근데 유스호스텔하고 청소년수련원은 사실 캠프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의집은 생활권이라서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와서 프로그램 참여나 시설 이용하면서 가는 시설이잖아요. 그럼 학교와 같은 성격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만큼의 그런 공공적인 성격을 뿜 수 있게끔 어떤 지침도 해주고 예산도 지원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자체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청소년 법에 지자체가 알아서 하게 되어있다. 지자체에서는 어떤 지침이 없는데 우리가 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의원이라든지 분명한 그런 역할이 없는 한 예산확보를 할 수 없고, 그리고 청소년이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시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관심 밖에 인물이 될 수밖에 없고,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제일 사실 큰 거고요. (중략) 우리가 일을 안 하고 그런 분들을 쫓아 다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문화의집 관장님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실무 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직원이 적다보니까 거의 공모사업도 제가 기획하고 직원도 하지만 저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무에 대해 매달려야 하는데, 외부적인 활동을 하는데 시간이 안 돼요. 그런 공공적인 성격을 준다면 그나마 아이들이 이런 시간을 가질 텐데, 외부적인 활동 시간을 많이 가진다면 좀 그렇지 않은가, 강하게 주장하고 싶은 게 공공적인

성격을 뿔 수 있게 그런 안을 마련해 주고 학교와 같은 걸로 의미를 부여해 달라 국가에서...교육+청소년 활동 같이 갈수 있게끔, 학습은 학교에서 하고 활동은 청소년시설에서...

다. 종사자에 대한 지침 및 직업 안정성 보장

다음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이 안정된 운영 기반을 갖고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문화의집 종사자들에 대한 직업 안정이 보장되어야 함이 지적된다. 더욱이 청소년문화의집 종사자들의 경우 일관된 근무 및 보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일임되어 있어서 시설마다 보수 규정이 다르며, 위탁 운영에 따른 지도사의 신분 불안 등 어려움도 제기된다. 또한 지도사들이 새로운 감각을 갖고 청소년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연수 등의 재교육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지호 국장: 처음에 일단은 문화의집 뿐만 아니라 이런 청소년문화의 집도 있고, 수련원도 있고 다 있듯이 뭐하나 지침이라고 해야 되나? 처음에 있듯이 그게 제일 절실해요. 절실하고, 일단은 문화의집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든가 시설 면에서 일단 선생님이 편안해야 아이들한테도 가는 건데 이 선생님이 불편하면 다 애들한테 가요. 화가 나니까 짜증을 부릴 수 밖에 없어요. 아이들한테 일단 청소년지도사들이 첫 번째는 신분보장이예요.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되어야지 청소년문화의 집에서도 발전이 되고 아이들한테 가는 거고 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그런 것들 같아요. 청소년문화의집에 종사자들 저는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저는 월급은 청소년 쪽이 기대는 안 하는데, 뭔가 항상 불안해요. 위탁을 2~3년마다 하면서 진짜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 상황에서 요즘 같은 젊은 친구들이 무슨 기대를 무슨 목표의식을 갖고 일을 하겠어요. 청소년지도자의 마인드가 안 되어 있으면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아이들과 양질의 서비스가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당연히 재정적으로 풍족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깔려야 할

거 같아.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뭔가가 좀 그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가 있으면... 법적으로 고용승계는 됐는데, 위탁단체가 바뀌면 그만 두어야 돼요. 그거는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법으로 되어 있지만, 일 년 안에 그만 두게 되어 있어요. 자기사람 쓴다고 하잖아요. 이런 데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남자들은 불안하죠. 여자들도 불안하긴 하지만, 일단 가장으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직업이죠.

이즈○ 관장: 문화의집도 사실은 대통령도 바뀌었지만 이제 더 이상 정부지원에 목을 매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산을 늘려달라는 이런 이야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현재 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에 여기서 성장한 아이들이 또 다시 여기서 후원자가 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군대 갔다 온 아이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 문화의집은 졸업생이 젊은 문화의집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아이들을 다시 또 여기서 후원자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고요. 문화의집이 이 지역쯤에 하나가 있다면 지금 신마산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하나씩 더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지금 마산시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이들이 먼 곳에서 이곳을 억지로 찾아오는 것은 만무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서 놀 곳이 있어야 한다고 시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더 활성화시켜야 할 것 같고요. 지도력에 대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죠. 요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도사들이 긍정적인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재교육과 세계를 볼 수 있는 시각들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정부가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요약 및 소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자와 지도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정과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부여하는 의미 및 어려움, 지역사

회 및 학교와의 연계 방안, 향후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1) 청소년문화의집의 존재 의미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자들 및 지도자들은 청소년들이 일반 대중소비 공간에서 여가를 즐기며 소비문화를 즐기는 데 머무는 경향이었지만,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의 문화 생산의 장(場)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문화의집 활동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여 뛰어난 성과를 보일 때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문화의집의 의미를 찾게 된다. 문화의집 댄스동아리에서 활동하던 청소년들이 최고 댄스가수의 춤 지도를 하는 위치에 오른 경우도 있고 세계 B-boy 경연대회에서 1위를 하기도 했다는 사례를 들면서 이들의 다양한 역량을 살려줄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참여는 학교 부적응청소년이나 가정이나 사회의 다른 영역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적응이 어렵거나 비행을 일으킨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이들은 관심있는 동아리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하거나 청소년지도사들의 꾸준한 관심을 통해 부적응청소년 혹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던 청소년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정 환경이 어렵거나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고민이나 어려움을 털어놓을 곳이 없었지만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청소년문화의집 지도사들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열고 보다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되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지도사들은 직업적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다음으로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문화의집 활동에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미래세대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에게 체험을 하게 한다든지, 청소년들의 성장과정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는 가이드를 주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끝으로 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이나 지도사들은 청소년들이 문화의집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진로설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청소년들의 관심사가 청소년문화의집 활동을 통해 진로로 연결되기도 하며,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활동하는 지도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게 하는 동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2) 시설운영의 어려움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 먼저 청소년지도 인력충원 및 인건비 확보의 어려움이다. 청소년들과 원활한 상호작용을 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흥미롭고 유익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도인력 확보가 가장 우선시 된다.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 배치라는 법적 기준으로 대부분의 시설에서 1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더욱이 인건비에 대한 일관된 지침이 없다는 점도 인건비 책정 및 상승분 반영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결국은 근무 사기를 저하시켜 청소년문화의집을 떠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에 관심을 갖고 이용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것은 관심있는 사업과 청소년욕구에 부응하는 시설 환경에 대한 지원이다. 하지만, 인건비 확충과 함께 청소년문화의집 사업비와 운영을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함이 지적된다.

청소년들의 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사용 공간의 부족과 청소년 요구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시설 환경이다. 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마음놓고 여가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말에는 동아리활동과 일반이용자들이 몰리면서 턱없이 공간이 부족함을 토로한다.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문화의집을 이용하려면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면서 기본적인 냉난방 기구나, 사무기기 등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임기응변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나 청소년활동 지도 등에 신경을 써야 하는 지도자들은 기본적인 사무용품이나 냉난방 기구들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구입을 하거나 포상을 받아 해결하는 방식으로 비품 구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청소년활동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성세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이 학생과 동일시되고 입시위주의 교육만으로 성장기를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사회 풍조는 청소년들이 학업을 넘어서는 다양한 활동 참여에 제약이 되며, 사회적으로도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대한 철학이 부재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3) 청소년활동 지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청소년들이 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행하는 제약사항과 함께 청소년들이 직접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데 방해요인이 되고 있다. 토요일 휴업일에도 수업을 받거나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에 문화의집 활동을 할 시간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학교연계의 어려움이다. 주5일 수업제가 부분 실시되면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학교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도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한 학년 전체에 대한 프로그램을 요구하거나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담당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를 하는 등 실무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청소년활동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청소년 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하는 시간을 갖기가 매우 힘들다. 특히 야간 자율학습이나 방과후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인 관계로 회의 소집이나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

한 의견 교환은 개인 전화를 통해서나 가능하며 그나마 경제적으로 통신비 사용에 제한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문자 사용이 불가능하여 연락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의 어려움은 청소년 활동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청소년들이 문화의집을 이용하고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부모들의 인식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청소년문화의집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는 학부모들의 경우 PC방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곳인 줄 아는 경우가 많으며, 이곳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곳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부모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활동지도 과정에서 부딪혀야 할 부분이다.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활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는 입지는 다양한 문화적 자원을 동원하기 어렵게 한다. 대도시 위주로 문화시설이나 문화 예술 공연 기회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 소도시나 읍면지역 등에서 문화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된다.

(4)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현황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시설이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비교적 연계가 잘 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 수 년 동안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학교의 인식을 바꾸었고, 학교와 공간을 공유하며,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와 학교와의 연계를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시설들과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연계가 학교와 이어져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학교와의 연계 방식은 학교와 협약체결이나 학교의 특활이나 CA활동에 청소년지도사 파견, 학생들이 청소년문화의집에 방문하여 활동 참여, 교사 대상 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 학교 행사 등에 참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식은 지역의 청소년관련 단체 및 기관 연계, 지역의 문화 및 활동 자원 연계, 자원봉사자 연계, 위탁단체의 연계 자원

활용, 타지역 및 협회 등과의 연계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5)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

청소년문화의집에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은 먼저 이들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함이 강조된다. 청소년들의 욕구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은 그 변화를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근래에 청소년들은 공연이나 댄스와 같은 활동을 즐기며 이를 위한 동아리들이 활성화되는 반면, 각 시설은 동아리 방을 확충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은 프로그램의 흥미도이다. 청소년들의 참여는 일단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있느냐하는 것에 달려있다.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청소년들의 관심사를 적절히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동기부여이다. 청소년들의 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는 흥미와 관심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참여과정에서 상을 받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면 청소년들의 참여 동기는 더욱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참여에 대해 지도자들은 간접적 지원과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활동의 결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활동과 프로그램의 흥미, 보상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적절한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즉, 청소년들간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과 지도자 사이에도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문화의집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소년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된다. 자기 집과 같은 분위기를 느끼며 스스로 소속감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설 외관과 관련하여서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들로부터 관심을 받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청소년들이 들어가고 싶도록 하는 시설 외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된다. 대부분 관공서나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

하여 들어선 문화의집들의 경우 청소년시설이라는 이미지는 거의 없다. 결국 청소년들의 시각으로 디자인되고, 고정관념을 깨는 고급화된 시설이 갖추어진다면 어느 청소년들이라도 가고 싶은 시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청소년시설을 찾고 그들의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이 지적된다. 이를 위해서는 테마시설 지원, 공공시설로서의 정책적 지원, 종사자에 대한 지침 및 직업 안정성 보장이 요구된다.

IV. 청소년문화의집 방향성 및 주체적 청소년참여 방안 모색

1. 청소년문화의집 방향성 모색
2. 주체적 청소년참여 활성화 방안

IV. 청소년문화의집 방향성 및 주체적 청소년참여 방안 모색

이 장에서는 주요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바람직한 청소년문화의집의 위상을 정립하고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시설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개인적으로 청소년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한 지역사회 시설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논의들을 제시한다.

1. 청소년문화의집 방향성 모색

청소년문화의집은 개별 청소년들의 이용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청소년들이 관심분야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업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 관심분야의 동아리활동, 교육프로그램, 청소년 지도사들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히거나 진로에 대한 관심을 구체화시키고 있었다. 또한 성인의 지시에 따른 활동보다는 스스로 관심있는 일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주어졌을 때 큰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를 통해 OECD의 세가지 핵심역량 중 하나인 자율적인 행위 능력(Rychen & Salganik, 2003)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반면에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동아리활동이나 운영위원회 활동을 함으로써 보람을 얻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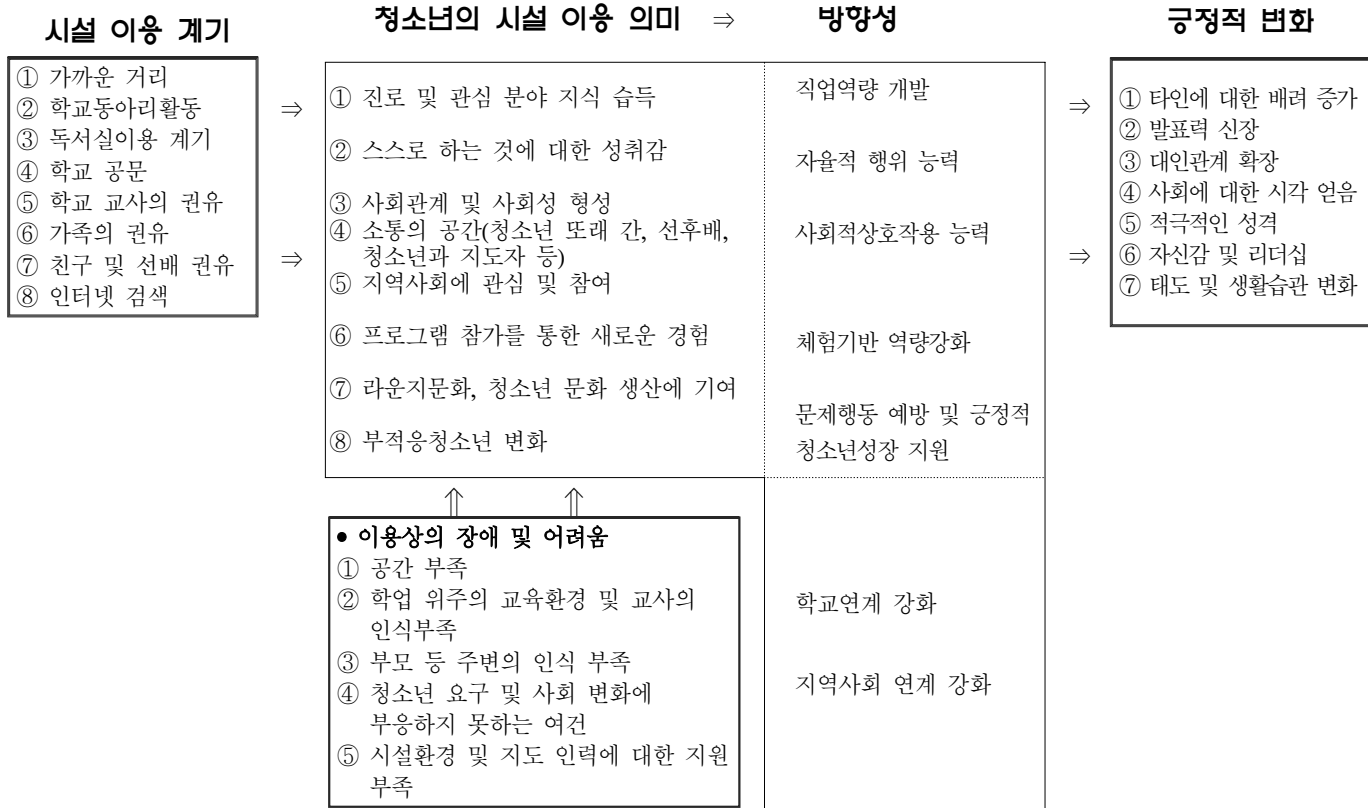
청소년문화의집 이용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상호작용함으로써 대인관계의 폭을 넓히며, 타인을 이해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문화의집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이나 현안에 대한 관심을 갖게된다. 이러

한 활동은 OECD의 세가지 핵심역량 중 하나인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하는 능력(Rychen & Salganik, 2003)을 길러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비록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갖추고 있는 영상관련 장비를 통해 학교에서 접하지 못하는 새로운 도구(정보 기술 및 언어사용 능력)를 사용하는 능력(Rychen & Salganik, 2003), 환경 교육을 통해서 체험을 통한 학습 등을 하고 있었다.

이 밖에 청소년문화의집 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체험들을 하게 되고 이는 자신의 경험세계를 넓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여가 시간에 들러 또래와 편안히 이야기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장소로 기능을 함으로써 청소년들간의 교류를 위해 소비 및 유희 공간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안전판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학교와는 달리 형식적인 상호작용이 아닌 열린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들과의 관계에서 부적응청소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결국 향후 지역사회 청소년시설로서 청소년문화의집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애초의 시설 기능인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에서 보다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변화하는 청소년 문화와 관심사를 반영하는 시설로서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위에서 언급한 기본적인 시설의 정의를 반영할 뿐 아니라 나아가 청소년들의 진로 및 관심 분야의 지식 습득, 스스로 다양한 활동을 기획함으로써 자율적 행위능력의 향상, 소규모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및 참여 증대를 통한 사회적 상호능력 배양, 다양한 프로그램에의 참여 및 경험기회 증가 등이 청소년문화의집 활동 및 사업 운영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원활하게 가동하기 위해 지역사회 및 학교와의 연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 생산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며, 원활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문화의집의 이용 의미 및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IV-1]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의미와 성과

2. 주체적 청소년참여 활성화 방안

1) 시설 건립 측면

(1) 청소년 중심의 시설 및 공간 구성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이 주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운영 또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시설의 계획으로 인하여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즉, 활동프로그램, 시설공간, 환경 및 설비 등의 모든 계획이 관리운영 중심의 사고로부터 파생됨으로써 주 사용자인 청소년의 행태와 이용동선 및 환경, 요구사항 등이 고려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하여 사용자 중심의 개념전환을 통한 환경조건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청소년문화의집을 자율적으로 이용하고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문화의집 환경 조성과 공간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부분과 자연적인 환경의 조화를 유도하여 청소년의 여가를 활용하기 위한 행동 및 행위 유발이 가능해야 한다. 청소년문화의집의 조형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첫째, 청소년문화의집은 다양한 조형성의 원리를 이해하고 주요한 개념을 포함하는 구성요소를 도입하여 특성화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창의적인 여가문화 활동의 가능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의 차별화된 체험전략과 감각적 경험의 범위를 확장하여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요구와 프로그램 이용을 통한 청소년 정서 및 의식 함양과 동시에 균형있는 신체적 발달을 추구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문화의집은 다양한 기능성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문화의집은 특별한 기능에 따른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고 요구변화에 따른 환경 및 공간의 변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인 환경 및 시설구성을 유지하여 청소년문화의집의

특성과 기능에 대한 전제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청소년의 요구변화에 따른 환경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형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문화의집은 시각적, 공간적으로 개방성과 폐쇄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청소년문화의집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모든 청소년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시설과 공간의 개방, 폐쇄 등의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어느 곳에서 어떠한 놀이, 스포츠 등 여가문화가 가능한 지 시각적으로 정보를 습득,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연스러운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

끝으로 청소년 친화적 외관이다. 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들로부터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들어가고 싶도록 하는 시설 외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된다. 대부분 관공서나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 하여 들어선 문화의집들의 경우 청소년시설이라는 이미지는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결국 청소년들의 시각으로 디자인되고, 고정관념을 깨는 고급화된 시설이 갖추어진다면 청소년들이 가고 싶은 시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청소년문화의집은 학교 주5일제 수업 등 사회적 환경변화와 함께 청소년여가활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청소년활동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에 관한 이론체계 정립과 함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모형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되고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확충과 공간다양화의 요구를 수용하고, 청소년들의 문화와 정서, 환경, 지역 사회적 배경에 적합한 문화의집이 개발되어야 한다.

(2) 효율적 공간이용

사용자의 이용행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획함으로써 기존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중화 현상으로 인한 공간 이용상의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정적 공간과 동적 공간을 분리함으로써 불분명한 혼재로 인한 활동 프로그램의 진행 및 공간이용의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일정 프로그램의 운영과정에서 파생되는 여유시간을 고려한 공간 및 운영

계획을 함으로서 공용 공간의 효율적 이용 및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간의 효율성을 위해 가변적 단위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문화의집은 필요 공간들의 단순 배치 계획에 의한 부산물이 아니라 사용목적에 따라 단위시설의 구성 및 각 단위시설간의 분리 및 통합에 의한 가변성으로 수요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많은 청소년문화의집들이 이용대상의 모호한 설정으로 사용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법적 구분인 9세부터 24세의 광범위한 사용자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프로그램 운영 및 공간이용에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주 공간뿐만 아니라 대기, 동선의 경로 및 흐름, 통과 공간 등의 계획시에 사용자 그룹의 연령 및 이용시간대에 따른 공간의 분리 및 통합에 대한 배려가 절실히 요구된다.

(3) 접근성

청소년 면담이나 지도자 면담 또는 시설 참관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청소년문화의집의 위치가 주택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외진 곳에 위치한 경우들이 비교적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설이 33.9%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청소년들이 손쉽게 시설을 찾거나 활동을 하기 위해 방문하기가 힘들어진다. 청소년문화의집은 학업시간 부담으로 여가시간이 많지 않은 주중에는 학교, 학원, 독서실, 도서관, 공원, 쇼핑센터, 거리, 식당 같은 청소년들의 주동선 근처에 시설이 위치해야 하며, 집 근처의 가까운 곳에 시설이 위치해야 한다. 여학생의 경우는 쇼핑센터 같은 근처에 동선이 차별적으로 발달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접근성을 고려한 가능한 장소는 아파트 저층이나 건물의 옥상, 쇼핑센터의 앞거리, 공원, 한강둔치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토요일에는 약간 떨어진 청소년 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화시설의 제공이 필요하다.

(4) 지역 특성 및 청소년 요구를 반영하는 설립

청소년문화의집이 지역 특성 및 청소년들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문화의집의 건립 자체를 국가에서 주도하기보다 각 지자체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국의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시 심의 절차를 아예 각 지자체에 맡겨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청소년시설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국립시설과 청소년수련관만 지도 감독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시·도에 일임하여 각 시·군·구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청소년문화의집의 건립 초기에 결정되는 부지 위치, 규모, 세부 시설면적, 건축기본계획 등 건립 기본계획 단계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각 지자체에서 건립한 청소년문화의집은 위치 선정이나 지역청소년의 욕구를 무시한 천편일률적인 세부시설 등 지금까지 청소년전문가와 건축전문가들이 지적한 청소년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들의 원인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기초지자체에서 청소년시설의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광역지자체에 일임하여 지도 감독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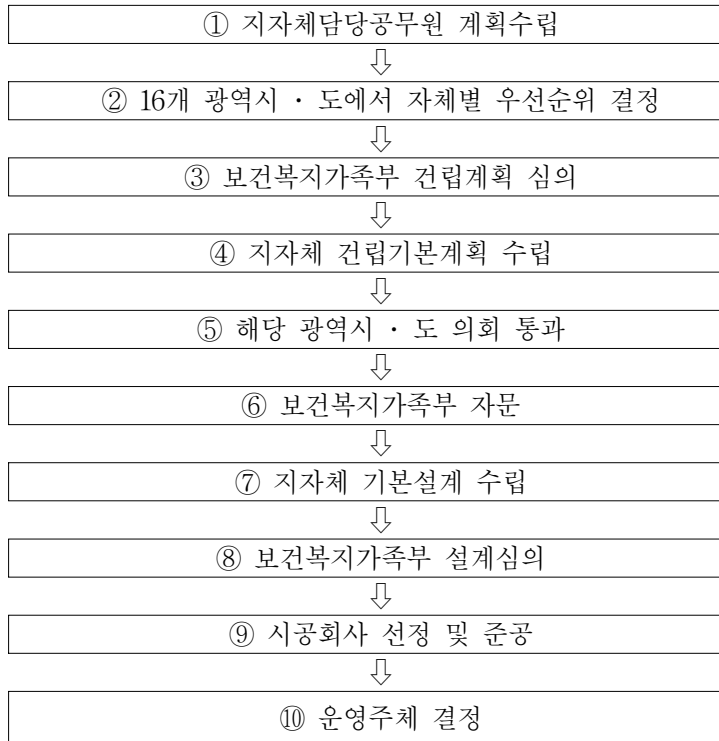
① 시설 건립 절차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청소년시설의 건립은 건립 절차상에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시설은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자체담당공무원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초기계획 시점에서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초기계획이 탁상공론에서 출발하게 된다. 그 후에 절차상 중앙정부(보건복지가족부)의 설계심의를 거치지만 이 단계에서는 시정 불가능한 상태로 계획이 확정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초기단계에서 전문가가 참여하여 각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청소년시설이 계획될 수 있도록 사전심의과정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본설계 등 사업 초기 단계부터 청소년을 참여토록 권장하여 기본설계시 청소년의 요구조사 반영 및 자치단체별 설계검토심의회에도 청소년

2명이 필히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 역시 형식적인 것이 대부분이어서 시설의 주인인 청소년의 의견과는 별개로 행정상의 시설이 건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유진이, 2008b).

신규건립사업 기본설계 역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검토하여 접근성, 청소년요구도 반영 여부 등을 중점 검토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 단계에서는 수정 불가능하다. 또 마지막으로 시공회사를 선정하여 건립이 진행되고 시설의 준공이 다르면 지자체에서는 그때서야 시설 운영계획을 세우고 운영위탁자를 선정하는 등의 행정을 하고 있다. 이 때 운영될 프로그램과 적절하지 않게 설계된 공간의 경우, 건물이 완공된 후에 불필요한 공간의 낭비와 운영자가 다시 시설을 변경하여 예산의 낭비는 물론 건축 구조적으로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행 청소년시설 건립절차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V-2] 청소년시설 건립절차

이러한 절차를 통해 최종 건립된 후 중앙정부에서는 특별히 각 지역의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있어서 관리하는 것이 없다. 따라서 위의 그림에서의 ③건립계획 심의과정과 ⑥자문지도, ⑧설계심의 등의 현행 보건복지가족부의 심의를 차라리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맡기고 모든 절차를 광역시도에 일임하여 건립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② 운영자 결정 시기

일반적으로 기본설계가 완성되고 난 후 실시설계과정에서 운영자가 결정되는데 이때 운영자측에서 프로그램에 따른 전면적 설계변경을 요구할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제반비용과 예산미비로 수정이 절대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이와 같이 설계과정에서의 운영자결정이 늦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운영자가 구상하는 공간프로그램과 설계된 내용이 상이하여 공간을 변칙적으로 사용하거나 운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운영자결정이 건립 초기 단계에서부터 결정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운영자와 설계자와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조정역할은 전문가가 아닌 주로 예산에 따라 조정됨으로써 발생하는 시설변경상의 문제는 심각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위주의 조정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③ 공모전의 심사위원과 설계자문위원의 상이한 기준

현재 청소년시설 실시설계과정에서는 4차에 걸쳐 건설안전본부의 자문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공모전에서 당선작을 선정할 경우 심사위원의 기준에 의해 결정되고 공모전에 참여한 심사위원은 심사 이후 설계진행에 참여할 기회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공모전의 심사위원의 기준과 설계자문위원의 기준이 상이하여 실시설계 시 수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자문위원의 구성과 자문방법에 있어서 산발적이 아니라 체계적인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또 설계심사위원에 대부분 건축관련 전문가만이 심사위원으로 내정되어, 청소년의 입장에서 검토할 방법이 없는게 일반적인 현실이다. 그리하여 심

사과정에 청소년시설인지 다른 행정시설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등 건축적인 기능과 미관만을 보고 심사가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청소년시설의 심사시에 청소년전문가와 청소년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2) 시설 유지 및 운영 측면

(1) 프로그램 및 사업 기획 등에 청소년 참여

시대 및 사회적 요구에 맞고 청소년들의 변화하는 관심사에 맞는 프로그램 및 사업 기획이 요구된다. 설문조사에서 기관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청소년을 참여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청소년문화의집에서(91.5%) 청소년을 참여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관 운영이나 프로그램 관련된 각종 회의에 청소년 대표를 참석시키거나 청소년과 직원들간의 간담회나 세미나 개최 정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각각 14.2%). 결국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이나 사업 기획상에서의 청소년 참여는 명목상의 참여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명목상의 참여는 단지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일 뿐 성인들이 주도하는 참여이다(Hart, 1997).

청소년문화 및 관심은 시대에 따라 바뀔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문화의집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지나치게 초등학생이나 주부대상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관심이나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및 진로탐색프로그램 등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프로그램 참여는 재미와 흥미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 뿐 아니라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에서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사회적 변화와 요구는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수요에 반영될 것이며, 이는 프로그램 참가율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일례로 글로벌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YT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시험기간에도 프로그램 출석은 100% 이루어진다고 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관심사와 시대적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및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청소년 참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시대에 맞는 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

① 청소년욕구에 부응한 다양한 활동도구 개발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듯이 청소년들의 욕구 역시 매우 변화무쌍하여 새로운 사회환경에 부응한 프로그램들을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청소년들의 욕구에 걸맞는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활동도구의 개발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② 청소년의 직업과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

미래사회의 직업은 보다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될 것이므로 이러한 직업과 연계된 청소년활동이 보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청소년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하게 청소년의 인성개발이나 체험활동에만 머무는 기능적 활동이 아닌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며 청소년 스스로의 미래와 연계성을 가지고 청소년기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제반 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청소년활동으로 발전되어야 하므로 청소년의 미래 직업과도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③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을 병행한 활동프로그램 개발

미래사회에는 지금보다 훨씬 빠르고 지속적으로 정보화, 과학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가 매우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며, 청소년 분야 역시 이러한 사회변화에 부응하여 엄청난 내용과 체계가 변화될 것이므로 다각적이고 시대적 상황에 걸맞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멀티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을 병

행한 새로운 차원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3) 변화하는 청소년문화 및 요구 반영하는 시설 장비

청소년문화의집에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은 먼저 이들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청소년들의 욕구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은 그 변화를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문화의집을 이용하게 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비들이 지속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문화의집 내부 시설과 공간 배치 등은 청소년들의 문화욕구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에 대해서도 5점 만점에 평균이 2.95로 나타나 보통 수준보다 다소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시설 및 장비 등이 청소년들의 문화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율도 25.5%나 나타나고 있어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은 컴퓨터 시설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나 보드게임방 같은 여가 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눈높이와 분위기에 맞추어 인테리어가 개선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근래에 청소년들은 공연이나 댄스와 같은 활동을 즐기며 이를 위한 동아리들은 활성화되는 반면, 각 시설은 동아리 방을 확충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생활시간에 맞는 공간 개방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방과후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늦추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4) 청소년참여를 위한 동기 및 소속감 부여

청소년들의 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는 흥미와 관심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참여과정에서 상을 받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면 청소년들의 참여

동기는 더욱 강화된다. 지속적인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을 통해 포상을 받고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는 등 성취에 대한 명시적 보상이 이루어지면 청소년참여는 더욱 강화된다. 이를 위해 지도자들은 간접적 지원과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활동의 결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설의 주인이라는 의식 등 소속감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무료회원증, 회원의 날 등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참여를 증진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5) 시설 운영 지원

청소년들이 청소년시설을 찾고 그들의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이 지적된다.

먼저 테마시설로서의 지원이 제안된다. 지역마다 자리잡은 청소년문화의집이 특정 테마로 특성화된다면 청소년들이 관심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 전문화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환경이나 국제교류, 가족프로그램 등이 활성화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인지도는 지역 사회를 넘어서는 시설도 있었다. 이처럼 문화의집의 일반적 기능과 함께 프로그램의 테마를 특성화한 시설의 운영 지원을 함으로써 청소년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청소년시설이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공공시설로서의 입지를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설 운영지원 면에서 학교나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공공시설로 인정을 받고 여러 가지 운영상의 세제 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이 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중요한 의미의 일부는 성인지도자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이 있었다. 청소년들이 이들 지도자와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멘토로서 이들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직업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청소년문화의집이 안정된 운영 기반을 갖고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문화의

집 종사자들에 대한 직업 안정이 보장되어야 함이 지적된다. 더욱이 청소년문화의집 종사자들의 경우 일관된 근무 및 보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일임되어 있어서 시설마다 보수 규정이 다르며, 위탁 운영에 따른 지도사의 신분 불안 등 어려움도 제기된다. 또한 지도사들이 새로운 감각을 갖고 청소년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연수 등의 재교육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3) 인적 자원 측면

(1) 이용자들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

활동과 프로그램의 흥미, 보상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적절한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청소년 또래 및 선후배 간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과 지도자 사이에도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소규모의 상호작용이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나 동아리활동을 위해 처음 방문하는 청소년들을 기존의 회원들과 긴밀하게 연결시켜주며, 활동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식적인 동아리나 운영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상호간에 원활한 소통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참가자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문화의집의 중요한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가동하여 시설의 운영 및 의사결정과정, 프로그램 및 사업의 기획 등에 참여하도록 하며, 청소년운영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여 이미 성인이 된 청소년 운영위원 출신들과 현재의 청소년 운영위원들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한다.

또한 동아리활동이나 프로그램 참가, 시설 이용자 중에서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례들을 발굴하여 이용 청소년들에게 제시하고, 이들이 시설

이용 청소년들과 상호작용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진로 설정 등에 도움을 받도록 한다.

(2) 지도 인력의 역량 강화

① 효율적 청소년활동 수행을 위한 전문성 배양

향후 우리사회는 청소년들의 욕구 변화는 물론 시설 인프라의 변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변화 등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청소년지도자들이 보다 효율적인 청소년활동 수행을 위한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함께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현재 청소년지도사가 매년 수천명씩 배출되고 있는데 이들 청소년지도사들이 단순한 시험을 통해서만 배출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청소년들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전문적인 청소년지도사들로 배출될 수 있도록 보다 깊이 있는 양성과 교육을 위한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② 청소년활동 지원 및 촉진자 역할을 위한 미래형 리더십 함양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활동의 단순한 지원자나 촉진자가 아닌 전문성을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는 전문가인 만큼 미래형 리더십을 함양시킬 수 있는 전문화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새로운 장의 마련이 필요하다.

리더십이란 단순한 직업인으로서 자격을 가진 자의 지도력이 아닌 청소년 지도자 자신의 지식과 기술,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며, 청소년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전문가로서의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매우 가치있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리더십이 더욱 촉진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청소년지도자 개인도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③ 가정, 학교, 청소년 기관 등의 네트워크 구축 역량 배양

청소년지도자는 지역의 가정과 학교, 청소년기관 등과의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향후 청소년활동은 단순한 조직 내에서의 활동이 아닌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국 및 국제사회로까지 연계되는 활동이므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④ 청소년활동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역량 배양

청소년활동에 있어 청소년지도자의 역량 중에서 청소년활동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역량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뿐만 아니라 홍보 및 마케팅 전문가로서의 역량 배양이 요구된다.

⑤ 청소년활동 재원 확보능력의 배양

지방정부의 재원과 기업이나 청소년 관련기관의 재원을 비롯하여 자체적인 수입창출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재원 마련능력이 필요하다.

4)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

(1) 학교와의 연계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강조되고 있다. 비교적 연계가 잘 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 수 년 동안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학교의 인식을 바꾸었고, 학교와 공간을 공유하며,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하지만 대체로는 학교 연계가 활성화되지 않은 편이며 설문조사 결과 연계하는 학교는 초, 중, 고등학교 각각 2개교에서 3개교 이내로 나타났다.

① 학교와의 협약 체결

학교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먼저 인근학교와의 협약 체결 방

식을 들 수 있다. 협약을 통해 학교 공간 사용, 교사들을 시설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중요 행사 및 학교 행사 등을 연계하여 참여하고 있었다. 학교연계는 단 시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주변 학교에 관심을 가진 후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② 청소년지도사의 학교 방문 활동 지도

학교와의 연계 방식으로 학교로 청소년지도사가 직접 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주제의 교육을 하기도 한다. 일부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특정 분야(폭력예방, 환경 등)의 교육 사업으로 전문성을 쌓아온 위탁 단체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배경은 학교에 청소년지도사가 직접 투입되어 교육활동을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③ 학생들의 청소년문화의집 방문 활동 참여

학교로 청소년지도사가 방문하여 연계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청소년문화의집에 직접 방문하여 활동에 참여하는 방안도 있다. 환경교육으로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의집의 경우 이미 주변 학교에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으며, 매주 청소년들이 문화의집을 방문하여 직접 환경체험을 통한 교육을 받고 있다. 특히 소집단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며 직접 만들어보고 체험해보는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활동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놀토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수 있다.

④ 교사 네트워크 활용

학교와의 연계를 위해서 인근 학교 교사와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지역 학교 교장 및 교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교사 네트워크를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특히 특정사업을 시작하거나 소개할 필요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자문위원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도자 면담을 통해 보았을 때 주변 학교 교사들을 자문위원회 등으로 네트워킹하고

지속적으로 연계를 유지하는 문화의집들은 축제 등 학교 행사나 특별활동, 특기적성활동을 학교와 함께 담당하기도 한다.

(2) 지역 연계

청소년문화의집에 청소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적, 물적, 사회 문화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먼저 지역의 사회적 자원으로 청소년 관련단체 및 기관과의 연계이다. 이러한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부족한 자원을 보완하기 위해 상호 연계하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교환하여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청소년문화의집의 활동 내용과 관련하여 노인정이나 각종 평생교육센터 및 진로, 상담관련 기관과의 연계도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 상업시설과의 연계를 구축하여 축제 등을 진행하고 있는 시설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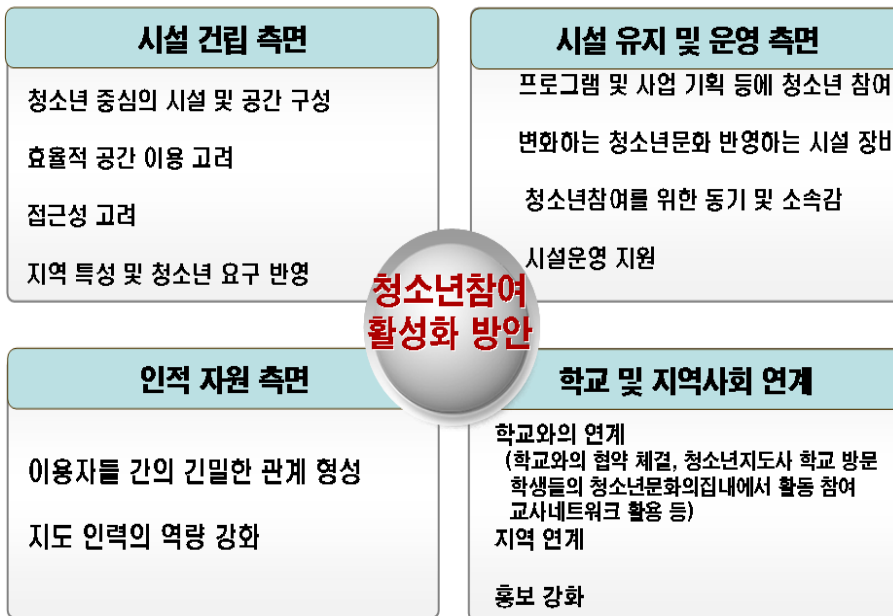
또한 지역의 문화 및 활동 자원과 적극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역의 예술가, 체육인, 과학인 등 지역 전문가 등 인적 자원과 적극적으로 연계함으로써 활동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청소년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인적자원 연계방안으로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 풀을 구축하고 문화의집 활동과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지역의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해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연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홍보 강화

청소년문화의집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아서 참가하는 청소년들이 적다고 말한다. 특히 학교를 통한 홍보가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학교 교사들이 협조하지 않음에 대해 지적한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제안을 하고 있다. 먼저 학교를 통한 문화의집 홍보는 문화의집 참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의 인식

을 개선하여야 하며, 교사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청소년문화의집과 학교의 관계 개선, 교사 간담회, 자문위원회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학교를 통한 홍보 외에 방송을 통한 홍보를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일상에 큰 파급효과를 주는 TV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청소년문화의집에 관한 홍보를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은 문화의집을 알리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축제나 공연 등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도심의 대형백화점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놀이 공간에서 문화의집을 홍보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을 알릴 수 있는 이정표와 표지판을 제대로 설치할 것이 제안되며, 개별 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 뿐 아니라 청소년문화의집이 대중적인 검색 엔진으로 찾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근래에 청소년들은 궁금한 정보를 찾는 데 있어 인터넷이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이나 관심 프로그램 등을 검색했을 때 청소년문화의집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림 IV-3] 청소년문화의집 주체적 청소년참여 활성화 방안

V.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 론
2. 정책제언

V.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 론

이상으로 지역사회 청소년시설로서 청소년문화의집의 이용실태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바람직한 방향성 및 청소년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들은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먼저, 자신의 관심분야나 진로에 대한 산지식을 얻고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들 수 있다. 관심 분야의 동아리활동, 문화의집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및 경험을 쌓는 경우도 있었으며, 아동 및 청소년들과 상호작용하는 지도사 및 복지사들을 접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미래도 이와 관련된 직종으로 향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직접적인 진로에 대한 지식은 아니지만 문화의집 운영위원회 및 동아리활동을 통해 향후 진로를 위해 필요한 설득 기술을 익히고 있는 청소년도 있었다. 또한 청소년문화의집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실이나 안식처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만나는 친구들이나 선후배, 지도사들과의 사회관계를 통해 대인관계 방식을 배우며, 사회 집단과 조직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사회적 측면과 함께 새로운 활동이나 프로그램 참가 등을 통해 기존에 체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지식이나 경험을 함으로써 자신의 인생행로의 전환점을 마련하거나 목표를 새롭게 다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청소년문화의집 참여과정을 통해 청소년들 스스로 인식하는 변화는 먼저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에 대해 배려심 증가,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 사회적 질서, 원활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된다. 특히 상호작용을 위해서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발표력과 표현력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성격과 태도가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변하였다고 인식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문화의집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점들은 시설의 장비나 공간 부족, 혹은 학교 교사들의 인식 부족, 활동진행 상에 부딪히는 의사소통 문제, 부모님 등 주변의 이해 부족 등이다.

향후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들이 제안하고 있는 것들은 청소년 요구 수준에 맞는 시설 보강, 공간 확장 및 양적 확충, 변화하는 청소년문화에 맞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업데이트, 청소년생활시간 및 생활환경에 맞는 공간 개방, 홍보강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문화의집 홍보를 위해서는 학교교사들의 협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서의 축제 등 이벤트 개최, 방송프로그램 활용, 인터넷 검색 엔진 활용 등을 제안하고 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자들 및 지도자들은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의 문화 생산의 장(場)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문화의집 활동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여 뛰어난 성과를 보일 때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문화의집의 의미를 찾게 되며 청소년들의 다양한 역량을 살려줄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문화의집 참여는 학교 부적응청소년이나 가정이나 사회의 다른 영역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적응이 어렵거나 비행을 일으킨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관심있는 동아리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하며, 청소년지도자들의 꾸준한 관심은 부적응청소년 혹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던 청소년들의 변화를 끌어내고 있다.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문화의집 활동에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미래세대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에게 체험을 하게 한다든지, 청소년들의 성장과정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는 가이드를 주는 것에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청소년문화의집에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은 먼저 이들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함이 강조된다. 이들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및 시설 장비의 도입, 공간 배치, 시설 외관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주인의식 및 동기부여,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적절한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이 청소년시설을 찾고 그들의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이 지적된다. 이를 위해서는 테마시설 지원, 공공시설로서의 정책적 지원, 종사자에 대한 지침 및 직업 안정성 보장이 요구된다.

결국 향후 지역사회 청소년시설로서 청소년문화의집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애초의 시설 기능인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에서 보다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변화하는 청소년 문화와 관심사를 반영하는 시설로서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위에서 언급한 기본적인 시설의 정의를 반영할 뿐 아니라 나아가 청소년들의 진로 및 관심 분야의 지식 습득, 스스로 다양한 활동을 기획함으로써 자율적 행위능력의 향상, 소규모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및 참여 증대를 통한 사회적 상호능력 배양, 다양한 프로그램에의 참여 및 경험기회 증가 등이 청소년문화의집 활동 및 사업 운영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원활하게 가동하기 위해 지역사회 및 학교와의 연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 생산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며, 원활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정책제언

1) 단기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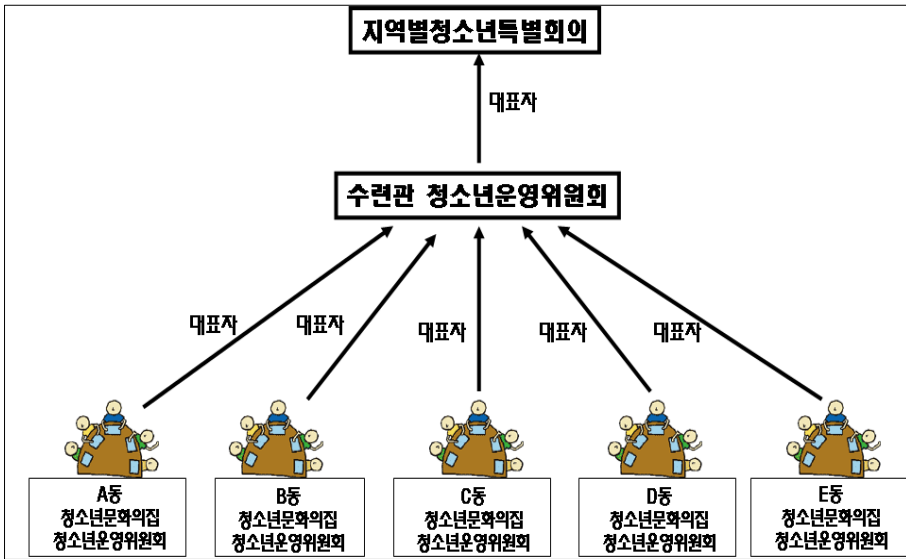
(1) 청소년운영위원회 내실화

청소년문화의집에 청소년 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 시설마다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단체나 시설에서는 청소년이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자치기구인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특히, 1998년도에 청소년 ‘자율·참여’를 기조로 하는 청소년정책 변화로 청소년 단체·시설에서의 ‘청소년위원회’ 운영이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의 목적은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들로 구성된 기구를 구성하여 청소년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중심 시설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시설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문화의집 운영이나 프로그램 기획 등에 전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에 따라 문화의집 사업이나 프로그램 기획 등에 청소년운영위원 및 운영위원 출신들의 참여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육성기금 공모사업이나 지자체 지원 사업 지원 과정에 청소년 운영위원이 참여했는지를 명시하도록 하고, 이것이 공모 선정 과정에 점수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의집 운영위원회와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위원회 기능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이다. 일례로 한 구 안에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청소년들은 수련관의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문화의집 운영위원회로 활동하기도 한다. 결국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여 문화의집 운영위원회는 읍·면·동 단위에서 활동하도록 하며, 동 단위 문화

의집 대표자들이 모여 수련관 운영위원회에서 시·군·구 차원의 논의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수련관 차원의 운영위원회는 16개 시도의 지역별 청소년특별회의에 대표자로 참여하도록 하며, 선발된 시도의 특별회의 대표자들이 전국 규모의 참여기구인 특별회의에 대표자로 파견되어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의제를 제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림 V-1] 청소년운영위원회 역할 정립 방안

(2)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청소년문화의집에 청소년들이 보다 활발하게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학교 수업시간 중에 청소년문화의집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교과와 연계한 문화의집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반교과 시간에 환경, 경제, 진로, 영상 체험 활동 등 직접 소집단 체험 및 현장 경험이 필요한 교과목 활동은 시설이나 관련 프로그램을 갖춘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학교와의 연계를 위해서는 먼저 학교 교사들의 인식 개선사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교사들과의 간담회,

학문위원회, 학교와의 협약 체결 등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여 학교와의 관계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의 연계 정도를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연계강화를 더욱 도모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현재는 지역사회 자원인력활동 정도와 지역사회 기관연계 협력 정도만 평가 지표에 반영되어 있다.

학교와의 연계와 함께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문화의집 활동 및 사업 진행과정에서 지역의 물적, 인적, 사회적 자원을 동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체험의 폭이 넓어질 수 있으며 다양한 역량개발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의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공 및 민간 시설과의 공간 활용 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특히 지역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활동진흥센터, 종합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문제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하여 이 시설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이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운영위원회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듯이 IS청소년문화의집, BB청소년문화의집 등은 이미 지역아동센터와 지역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다.

(3)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 및 연수 기회 보장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의 법정 지도인력 배치 기준은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으로 되어 있다. 그에 따라 청소년지도사들은 시설 내의 활동 지도, 사업 기획 및 운영, 시설 관리 및 유지 보수, 청소 등 다양한 업무 및 업무 외 잡무 등으로 적절한 재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 이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어야 청소년들을 지도하는데 있어 재충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 직영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청소년지도사 1인이 실질적인 운영·관리, 프로그램 및 사업 기획 등을 모두 떠맡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활동 프로그램이나 사업 기획 등을 하

거나, 시설 운영을 위한 지원 요청을 적극적으로 할 여력이 없다.

청소년지도사 처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일임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게 된다. 일관된 보수지침 마련에 대해 중앙부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으로 보고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의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수 규정을 정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안정된 처우와 체계적인 보수가 없는 상황에서 청소년시설의 지도사들은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을 지도하기 어려우며, 결국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체계화된 보수 지침 마련 및 지도사의 재교육 등 연수 기회 마련이 시급하다.

(4) 청소년문화의집 관련 법체계 정비

청소년문화의집의 기준은 문화적으로 빠른 공간변화를 담아야하는 미래지향적 시설기준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설계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청소년활동진흥법상의 청소년시설기준 및 세부시설기준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시설기준(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건립된 후 바로 현실적 운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나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 등을 다시 리모델링해야 하는 등의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히 수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서 주택건설단지에 청소년수련시설을 포함하여 건설하도록 하는 것은 구체적인 시설의 내용과 규모 등에 대한 관계법령의 개정이 뒤따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즉 주거단지에 도입되는 청소년시설이 별도의 건물로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민시설의 일부로 다른 기능과 같은 건물에 수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가까운 거리에 청소년 관련시설이 있을 경우에 대체가 가능한지, 세대 규모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면적기준과 시설기준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유진이, 2008b).

이상과 같이 청소년시설의 의무적인 설치를 위해서는 관련되는 법체계상

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우선 청소년시설 중에서 청소년수련시설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체계적인 청소년시설의 입지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규정인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는 청소년시설에 관한 세부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청소년시설을 어떠한 규모로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 등 청소년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관련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시설 종류별 또는 지역별 기능, 용도에 따른 위치 선정 및 최소 적정규모와 각 세부시설별 적정면적을 제시하여야 한다(홍영균 외, 2004).

(5)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체계 마련

현재 청소년시설은 복지시설도 아니고 교육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효과적인 청소년활동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청소년 수련시설도 복지시설이나 교육시설의 범주에 포함시켜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본래의 역할과 기능 수행은 물론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박옥식, 2008).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평택시나 안양시, 성남시 등의 사례와 같이 청소년육성재단으로 청소년독립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비전문가인 공무원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시설운영 책임을 맡고 있어 청소년활동의 전문성과 거리가 먼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박옥식, 2008). 따라서 수요자인 청소년 중심의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법인이 중심이 되어 청소년전문가가 시설을 운영책임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전문 청소년지도사가 배치되어 활동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의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의 안전 및 관리에 대한 점검, 프로그램 및 지도자 등을 포함하는 운영체계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따라 청소년

년시설별 안전도와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한 인증제를 시행함으로써 청소년 시설 운영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박옥식, 2008).

이와 함께 지역 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기존 청소년 문화의집 중 낙후된 시설과 관련 프로그램을 정비하는 등 현재 다양한 청소년 관련시설과 운영상태를 통합하여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 내에 청소년전문가와 청소년시설전문가로 구성된 청소년시설정책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시설정책위원회에서는 청소년문화의집의 운영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청소년활동에 관련된 시설의 표준프로그램과 설계도를 개발하여 배포함으로써 시설개선의 지표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지표를 개발, 보급하여 청소년활동 관련 시설의 운영 및 시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지역단위의 청소년시설의 운영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문화의집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2) 중장기 정책

(1)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확대: 향후 5년 동안 1000개 건설

현 청소년활동진흥법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은 각 읍·면·동마다 1개소 이상 건립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198여개의 시설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음을 반영한다. 청소년들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더욱 많은 청소년문화의집이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기존의 유휴 시설 활용 및 학교의 빈 교실 활용도 고려할 만하다. 최근 동사무소의 기능이 축소되어 기능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공공시설을 청소년시설로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박옥식, 2008).

주거지역 내에 청소년문화의집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축 관련법을 활용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에 청소년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정

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도시관련법을 활용하여 도시계획지역 내에 청소년문화의집이 건립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등 타 행정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 수립이 필요하다(홍영균 외, 2004). 또 수련시설의 확대설치를 위해 마련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9조(주택단지안의 수련시설 설치)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련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활동진흥법시행령 제16조(주택단지 내 수련시설 설치) 규정에 따라 수련시설을 포함하여야 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은 주택 3천호 이상의 경우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신도시 건설에서조차 3천호 이상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어 이 조항은 유명무실한 법으로 남아있다. 차라리 현실을 감안하여 현재 읍·면·동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토록 하는 현행법을 적용하여 오히려 아파트 200세대마다 소규모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성있는 방법이다. 현재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하고 있는 노인정이나 부녀회관과 같이, 제도적으로 공동주택 내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구밀집 지역의 부지확보 어려움으로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입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기존 공공시설이나 관공서 건물을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시설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설평가인증제 등을 청소년 시설정책에도 도입하여 지역사회 특성에 적합한 시설을 인증하여 확보해 나가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2) 시·군·구 내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수련관의 연계 체계 확립

향후 청소년문화의집은 학교 주5일제 수업 등 사회적 환경변화와 함께 청소년여가활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청소년활동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역할 및 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에 관한 이론체계 정립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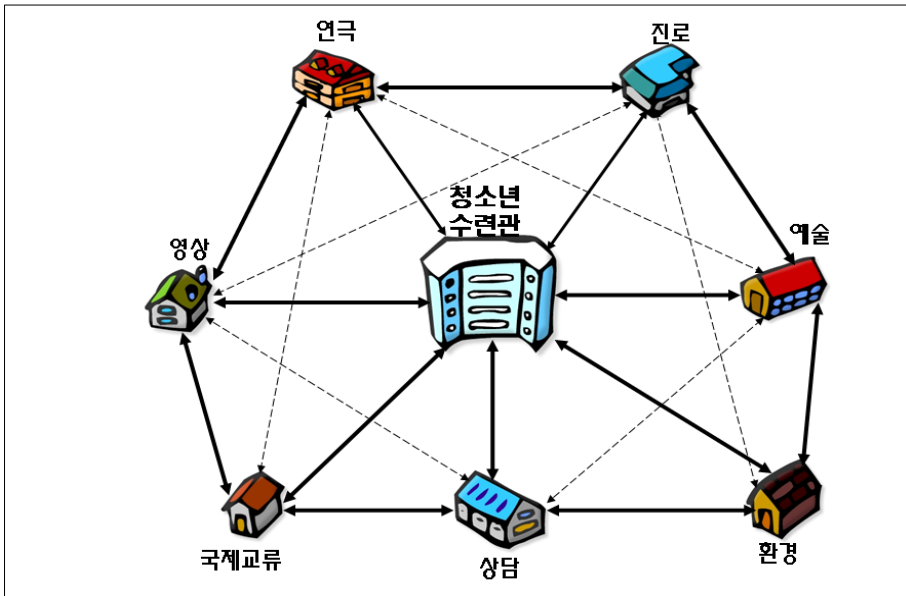
학적인 모형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와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한 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확충과 공간다양화의 요구를 수용하고, 청소년들의 문화와 정서, 환경, 지역사회적 배경에 적합한 문화의집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에 관한 기능과 규모, 배치기준 등이 우선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또 지역특성에 따른 청소년문화의집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따른 공공청소년시설의 성격, 기능 및 용도를 규정하여야 한다.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은 대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도서벽지지역 등 지역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인 욕구 및 수련활동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로는 여러 가지 부족한 면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이것은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면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여 그들의 문화 및 여가활동을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차이를 지니고 있는 청소년의 이용 욕구 및 미래의 변화경향에 맞는 환경을 올바르게 제공하여 정상적인 청소년 여가문화 활동을 충족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청소년활동 증진을 위한 시설 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읍·면·동에 1개씩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하는 청소년시설의 유형을 한가지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화 청소년시설의 설치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건립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적합한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청소년문화의집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목표와 건립방향을 포함하여 청소년문화의집 자체에 대한 기본개념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지역특성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 청소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청소년시설의 도입을 위한 세부지침이 미흡하다.

또한 현재 지역 내의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상 중복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간의 명확한 연계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250여개의 시·군·구를 중심으로 1개씩의 청소년수련관이 개설되어야 할 것이며 3,600여개의 읍·면·동을 중심으로 1개씩의 청소년문화의집이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적어도 1개의 시·군·구에 10개 내외의 청소년문화의집이 네트워크 되어야 할 것이며, 청소년문화의집은 나름대로의 일반적인 기능과 특성화된 기능을 개발해야 할 것이고, 문화의집 간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역량 개발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의집의 기능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청소년수련관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V-2] 지역 내 청소년문화의집과 수련관 네트워크 모형

참 고 문 헌

- 강병연(1998). 청소년수련시설 비전. 사단법인 무등청소년회.
- 강효민(2004). 정보화사회, 한국 청소년의 여가행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44권 2호, pp.525-535.
-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2006 청소년시설 종합평가.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청소년활동참가 실태조사 연구.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국가청소년위원회(2007a).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연구.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국가청소년위원회(2007b). 청소년백서.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국가청소년위원회(2007c). 2007 청소년시설 종합평가.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국가청소년위원회(2007d). 선진 각국의 청소년 조직 및 정책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청소년문제연구센터.
- 국가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7). 2007년 청소년활동참가 실태조사연구.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권일남·김혁진·오해섭(2007). 청소년이용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표준 업무관리 요령.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김경호(2003). 청소년시설과 교육시설의 연계방안. 청소년시설과 한국의 미래. (사)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 김정주·김혁진(2003). 청소년문화의집 시설공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2003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335-355.
- 김정주·김혁진·김진호·성기원(2002).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방안연구. 문화관광부.
- 김호순(2005). 주5일 수업 실시에 따른 청소년 여가시간 및 여가 선호 변화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2권 제4호, pp.59-82.
-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2003). 청소년수련시설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박구원(2006). 청소년의 여가활동 및 문화시설 이용에 대한 고찰. 문화관광연구, 제8권 1호, pp.7-24.
- 박옥식(2008).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 활동시설의 역할.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강화방안 모색. 청소년계 대토론회 발표원고.
- 부귀현·양명환(2006). 주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청소년의 여가활동참여가 여가만족과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제11권 제1호, pp.73-90.

- 송영민·이훈(2006). 여가촉진요인의 구조모형 분석: 주5일수업제 청소년 여가환경을 중심으로. 관광·레저 연구, 제18권 2호, pp.7-24.
- 유진이(2002). 청소년수련관의 공간 분석을 통한 시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유진이(2007). 청소년시설정책의 뉴 패러다임. 미래청소년학회지, 제3권 2호, pp.49-69.
- 유진이(2008a). 청소년여가문화시설 모형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청소년시설환경학회, 제6권 2호.
- 유진이(2008b). 청소년역량강화를 위한 시설정책의 현황과 과제. 청소년의 사회적역량 강화방안 모색. 청소년계 대토론회 발표원고.
- 이경훈(2004). 도시지역 청소년들의 여가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2003년도 한국스포츠헌학회 동계워크숍 및 후기학술대회 자료집. pp. 59-72.
- 이종경·홍승달(2005).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청소년 여가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헌학회지, 제16권 4호, pp.695-705.
- 이창수(2006, 5월호). 청소년을 위한 도시공간 시설계획. 지방행정, pp.7-36.
- 정철상(2004). 청소년들의 생활권 수련시설 활용실태와 만족도. 미래청소년학회지, 제1권 1호, pp.151-169.
- 조국남(2005). 청소년 여가활동의 실태 및 시설수요에 관한 조사연구. 시민교육연구, 제37권 1호, pp.169-192.
- 조아미(2004). 강남구 청소년의 여가활동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생활연구, 제8집, pp.207-225.
- 조용하(2006). 주5일 수업제에 따른 청소년여가활동의 증진방안.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30권 3호, pp.297-309.
- 주범·마르코 브루노(2004). 독일의 청소년시설 II: 청소년 참여에 의한 시설 설립. 청소년시설환경학회지, 제2권 제1호, pp.3-15.
- 청소년위원회(2005). 2005년 청소년 시설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청소년위원회.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4). 생활권 여가 인프라의 협력체제 구축 및 주민참여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2004). 청소년 여가문화시설 소재 및 모형 개발 연구.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7). 청소년문화의집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홍영균(2007). 청소년시설정책의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청소년시설환경학회지, 제5권 제4호, pp.79-88.

- American Youth Policy Forum(2007, June). Strengthening Afterschool for Older Youth through Policy and Practice: A Policy Brief.
(<http://www.aypf.org/programs/briefs/AfterschoolPolicyBrief2007.pdf>)
- Batsleer, Janet. R.(2008). *Informal learning in youth work*. Sage.
- Bjarnadottir, Ragnhildur.(2004). Modern adolescents' leisure activities: A new field for education? *Young*, 12(4), pp. 299-315.
- Bloom, Martin(2000). The use of theory in primary prevention practice: Evolving thoughts on sports and after-school activities as influences of social competency. Danish Steven, J. & Gullotta Thomas, P. (eds.) *Developing competent youth and strong communities through after-school programming*(pp. 17-66). Washington DC: CWLA Press.
- Danish Steven, J. & Gullotta Thomas, P. (eds.) *Developing competent youth and strong communities through after-school programming*. Washington DC: CWLA Press.
- Delgado, Melvin(2002). *New frontiers for youth development in the twenty-first century: revitalizing and broadening youth developmen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Dumazedier, Joffre(1967). *Toward a society of leisure*. New York The Free Press.
- Durlak, Joseph A. and Weissberg, Roger P.(2007). The Impact of After-School Programs that Promote Personal and Social Skills.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http://www.casel.org/downloads/ASP-Full.pdf>)
- Edmondson, Kathryn(2000). Issues in after-school youth development programming. In Danish Steven, J. & Gullotta Thomas, P. (eds.) *Developing competent youth and strong communities through after-school programming*(pp. 217-237). Washington DC.: CWLA Press.
- Feinstein, Leon, Bynner, John & Duckworth, Kathryn(2006). Young people's leisure contexts and their relation to adult outcomes.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9. No. 3, pp. 305-327.
- Hart, Roger A.(1997). *Children's participati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volving young citizens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are*. Unicef. London: Earthscan Publications Ltd,
- Henderson, Sheila(2007). Neighbourhood. In Martin, Robb (Ed.), *Youth in context: Frameworks, settings and encounters*(pp. 124-154). Sage Publications.
- Hirsch, Barton J.(2005). *A place to call home: After-school programs for urban youth*. New York and London: Teachers College Press, Columbia University.

- Kahne, Joseph, Nagaoka, Jenny, Brown, Andrea, O'Brien, James, Quinn, Therese & Thiede, Keith(2001). Assessing after-school programs as contexts for youth development. *Youth and Society*, 32, pp.421-446.
- Kelly, J. R.(1978). A revised paradigm of leisure choices. *Leisure Sciences*, 1(4), pp.345-363.
- Larson, Reed(1994). Youth Organizations, Hobbies, and Sports as Developmental Contexts. R. K. Silbereisen & E. Todt(Eds.), *Adolescence in Context: The Interplay of Family, School, Peers and Work in Adjustment*(pp. 45-65). New York, Berlin: Springer-Verlag.
- Lave, Jean and Wenger, Etienne.(1991). *Situated learning: 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ve, Jean(1988). *Cognition in prac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eulinger, J.(1981). *The psychology of leisure*(2nd ed.). Charles C. Thomas.
- Pittman Karen T., Merita Irby, Nicole Yobalem. and Alicia Wilson-Ahlstrom(2004). Blurring the lines for learning: The role of out-of-school programs as complements to formal learning. In Gil G. Noam(ed.) *New directions for youth Dvelopment: After-achool worlds Creating a new social space for development and learning*(pp. 19-41).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Priscilla M. Little(2007). The Quality of School-age Child Care in After-school settings. (<http://www.researchconnections.org/SendPdf?resourceId=12576>)
- Rhodes, Jean E.(2004). The critical ingredient: Caring youth-staff relationships in after-school settings. In Gil G Noam.(ed.) *New directions for youth development: After-school worlds creating a new social space for dvelopment and learning*(pp. 145-161).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Rogoff, Babara(1990). *Apprenticeship in thinking: Cognitive development in social context*. Oxford University Press.
- Rychen, Dominique Simone & Salganik, Laura Hersh(2003).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ing society*. USA: Hogrefe&Huber Publishers.
- Samdahl, D. M.(1988). *A symbolic interactionist model of leisure: theory and empirical support*. *Leisure Sciences*, 10(1), pp.27-39.
- Silbereisen, Rainer K. & Todt, Eberhard(1994). Adolescence: A matter of context. In R. K. Silbereisen & E. Todt(Eds.), *Adolescence in context: The interplay of family, School, Peers and Work in Adjustment*(pp. 3-24). New York, Berlin: Springer-Verlag.
- Vygotsky, L. S. (1978). *Mind in socie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부 록

1. 연구대상 청소년문화의집 개관
2. 청소년문화의집 조사지
3. 조사대상 청소년문화의집의 특성화
사업 및 프로그램

부 록 1. 연구대상 청소년문화의집 개관³⁾

시설명	시설규모	시설(공간)활용	프로그램	동아리	기타
SD 청소년 문화의집 (개원일 1998년 9월 22일)	*건물규모: 지상 4층, 지하 1층 *수용정원 350명 *활동공간 건물면적: 388.47㎡	*지하1층 · 안내실 · 사무실 · 북카페 · 휴게실 *1층 · 독서실(114석) · 교육실A, 교육실B *2층 · 피트니스센터 · 샤워실 · 옥사우나실 · 관장실 *3층 · 유스텍 · 동아리A, 동아리B · 방송실 *4층 · 창고 · 동아리C *기타 · 방과후아카데미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 그림그리기 · 창작미술 · 어린이 발레 · 어린이 체육 · 주말 농구교실 · 만화그리기 · 점핑클레이 · 리듬체조 · 창작종이접기 · 프리토킹반 · 어린이 동화구연 · 논술교실 · 어린이독서지도 · 집중력향상 속독반 · 사이언스 스쿨 · 한문예절교실 · 헬스 · 재즈댄스 · 다이어트 댄스 · 비보이스쿨 * 성인프로그램 · 한글교실 · 원어민영어회화 · 손뜨개 교실 · 아기성장맞사지 · 켈트 · 토피어리 · 요가 · EM그것이 알고싶다 * 놀도프로그램 · 초등생역사체험단 “방방곡곡” · 초등생 미래체험단 “백문이 불여일견” · 어린이 경제교실	*봉사동아리 · 품앗이 *댄스동아리 · 소울킹즈 (고, 대학생 연합 동아리) · 슈퍼히어로 · LUXURY · Funky.Da.B's · 슈퍼 크레이지 · 브레이크 데빌 · 지박 · 공주	* 학교연계 프로그램 · 직업체험여행 · 창작 만화반 · 요가 · 스포츠 댄스반 · 천연비누 · 선물포장반 · 켈트반 · 테디베어반 · 바둑반 · 미술반 · 태보 · 힙합 · 브레이크반 · 비즈공예 · 풍선아트반 · 종이접기반 · 손뜨개반 · 한지공예반 · 청소년 경제교육 · 환경교육 * 청소년 운영위원회 · “아세미” (이름다운 세상 만들기)

3) 주로 홈페이지 정보를 토대로 함

시설명	시설규모	시설(공간)활용	프로그램	동아리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먹고, 요리먹고” · 초등생 다문화체험 교실 “글로벌 챔피언” · 초등생 발명체험 교실 “에디슨과 퀴리 부인” · 어린이날, 성탄잔치 · 여름경제· 리더십캠프 “나를 따르라” · 겨울캠프 “날아라 슈퍼보드&스키” · 월별 어린이 특강 *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 숙제지도 및 자기주도 학습 · 영어야 연극하자 · 창작미술 · 내마음을 열어봐 · 인간과 역사 · 키크는 농구교실 · 독서지도 · 이야기 한자여행 · 천재수학 · 과학나라, 실험나라 · 종이공예 · 창의력 쓱쓱 글짓기 * 피트니스 프로그램 · 헬스 · 요가 · 태보 · 필라테스 		
BB 유스 센터 (개원일 2003년 8월 2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규모: 지상 5층, 지하 1층 * 수용정원: 326명 * 활동공간 건물면적: 977.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1층 · 주차장 · 기전실 · 관리사무실 · 창고 * 1층 · 업무지원팀 사무실 · 여 샤워장, 탈의실 · 파워플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 여름방학동유럽 6개국 체험 문화캠프 · 서초영어캠프 · ‘미래로가는 타임머신’ · 무료영화 * 청소년 상담실 프로그램 · 학교폭력 피해학생 집단상담 · 청소년누리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나브로 · 청소년 English서포터즈 · 트러스트 (우면산 트러스트) · 천사랑 (봉사활동) · BMC(미술) · 스카우트 · 인권동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연계 · 박물관에서 찾는 나의 꿈 · 요리 속 세계사 여행 · 발도르프 인형 만들기 · 장애체험 · 비즈공예 · 핸드폰줄 · 로봇만들기

시설명	시설규모	시설(공간)활용	프로그램	동아리	기타
		체육실 · 남 탈의실, 샤워장 · 주민휴게실 너울가지 · 주민휴게실 샘 연구실 · 안내데스크 * 2층 · 문화복지팀 · 시네마천국 · 뿔뿔1(뿔뿔은 강의실) · 뿔뿔2 · 인터넛존 · 청소년문화의집 (포켓볼,보드게임, 테이블사커, 만화, 플레이스테이션) · 수익정보팀 * 3층 · 관장실 · 상담실 · 꿈틀어린이 도서관 · 집단상담실 · 기자재실 *4층 · 뿔뿔3, 뿔뿔4 · 우리자기 (동아리실) · 기자재실 · 틴스페이스 (강당) *5층 · 도란도란 식당 · 옥상	사업‘WOW체육대회’ · 개인상담 · 좋은친구사귀기 프로그램 · 여름방학 학습습관 향상 프로그램 · 자녀와 나의 성격 알아보기 · 간부 리더쉽 교육 · 또래상담 · MBTI · 청소년 금연, 음주 예방, 성교육 · 교육소외계층 무료 심리검사 · 새 마음으로 나의 학습과 진로 알아보기 * 학교폭력예방치료 센터 · 학교폭력예방 인형극 공연 · 학교폭력예방교육 * 사회교육체육 프로그램 · 아모레이미지메이킹 메이크업 특강 · 천연비누 만들기 · 가족과 함께 로봇 만들기(진행됨) · 종이&나무공작 클래스(진행됨) · fun fun놀토(진행됨) · 해피캐릭터 도시락 만들기 · 오감만족 이동요리 체험 · 여름학기 눈술 반 · 방배어린이합창단	· 영상동아리	· MBTI · 토피어리 · 진로적성검사 · 도미노 · 경제스쿨 · 종이접기 · 청소년요가 · 청소년출동119 · 케익만들기 · 케리컬처 그리기 · 자연숲체험 · 환경교육 · 리본공예 · 풍선아트 · 미술 · 홈페이지반 · 애니메이션반 · 핸드주얼리 · 학교폭력 예방 인형극 * 청소년 운영 위원회
DD 청소년 문화의집 (개원일 2000년	*건물규모: 지상 1층, 지하 1층 *수용정원	*1층 · 다목적홀 · 공연연습실 · 음악연습실 · 열린도서관	* 프로그램 · 창작만화 경진대회 · 리더쉽 교육 · 청소년 운영위원회 & 동아리 연합회	· 문화예술 동아리 연합회 (노나메기) · 군포시 만화 동아리 연합회	* 청소년 운영 위원회(모도리) * 학교연계사업 · 풍물 · 풍선아트

시설명	시설규모	시설(공간)활용	프로그램	동아리	기타
9월 27일)	150명 *활동공간 건물면적: 463.92㎡	· 사이버공간 · AV감상실 · 노래방 · 동아리방 · 창작공방 · 유스카페 · 안내데스크	워크숍 · 만화캠프 · 문화예술축제 기획 워크숍 · 군포 청소년만화 축제 · 창작 애니페스티벌 “릴레이 애니교육” · 레인보우-진로탐색 (진행됨) · 레인보우-영어회화 놀이 (진행됨) · Enjoyable Dancing	(군만연) · 청소년 기자단 (그림비) · 청소년 스스로 지킴이(DYP)	· 만화 · 힙합 · 역사기행
YT 청소년 문화의집 (개원일 2002년 11월 8일)	*건물규모: 지상 3층, 지하 1층 *수용정원 150명 *활동공간 건물면적: 1,077.16㎡	· 인테넷부스 · 음악CD부스 · 서고 및 정보이용실 · DVD실 · 노래연습실 · 댄스연습실 · 음악연습실 · 동아리실 · 창작공방/ 취미교실	*청소년프로그램 · 별하 방과후 교실 · 기자교실 · 놀토 문화체험 · 1318 이롭다움 세상 만들기 · 맹부모 삼천지교 (진행됨) · 도시가족의 주말농장 이야기 ·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 리더십 · 가족테마기행 · 자연과 친구되기 ·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 나누리 문화학교 · 방학 프로그램 · 경제야 놀자 · 세계가 보인다 · 직업체험 · 부모 아카데미 · 짬들이 캠프 · 학교CA	*밴드 · 파라독스 · UPMPP · feeithers *힙합 · shimming-star *댄스 · midst of music *영화제작 · 영상제작부 *미트박스 · 박치기	* 청소년 운영위원회 · 날개 * 아망기자단
DS 청소년 문화의집 (개원일 2003년 11월)	*건물규모: 지상 2층, 지하 1층 *수용정원 223명	* 지하1층 · 포켓볼실 · 소회의실 · 다목적실 * 1층 · 멀티인터넷실	*프로그램 · 우리동네 최고 (찾아가는 야외 문화 체험 활동) (진행됨) · 놀토 영화상영 · 재미있는 생활과학	(동아리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 DS 문화존 * 청소년 운영 위원회

시설명	시설규모	시설(공간)활용	프로그램	동아리	기타
18일	*활동공간 건물면적: 668.67㎡	· 정보서비스실 · 상담실 · 열린자료실 * 2층 · 다용도활동실 · 탁구장 · 음악활동실 · 문화창작실	교실 · 숲으로 떠나는 가족 여행(진행됨) · 부모님 사랑합니다. (진행됨) · 한자아카데미 · 풍물아카데미		
GYT 청소년 문화의집 (개원일 2004년 6월 25일)	*건물규모: 지상 2층 *수용정원: 150명 *활동공간 건물면적: 415.5㎡	· 열린자료실 · 다목적홀 · TOP시네마 · 포켓볼게임 · 뮤지션룸 · 보드게임 · 노래방 · 영상다큐실 · 플레이존 · 인터넷부스 · 샤워실 · 쉼터	* 프로그램 · 청소년미디어영역 · 아나운서 교실 및 방송체험(진행됨) · 디카속에 세상을 다 담아라(진행됨) · 청소년 환경사랑 · 들꽃기행 · 압화 만들기 · 생태 체험 학습 · 청소년 인성교육 및 학습프로그램 · 리더쉽 아카데미 · “어기여차 한마당 캠프”(진행됨) · 창의적 놀이 교실 · “창의력은 내친구” · 꿈나무 방과후 학습 교실 · 청소년 예절 교실 · 풍선아트교실 · “희망을 붙어요” · 나도 청소년 ·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 청소년 상담 · 청소년상담 · 직업체험 프로그램 · 진로 적성검사/직업 안내 · 청소년문화활동 · 즐거운 꿈터 릴레이 축제 · 민속놀이 한마당 (진행됨)	홈페이지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 음	* 청소년운영 위원회(꿈아)

시설명	시설규모	시설(공간)활용	프로그램	동아리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탐방 ·청소년 밴드교실 ·청소년 수화교실 ·청소년 마임교실 ·청소년 미술교실 ·도자기 체험교실 ·고3과 대학사이 ·청소년 문화체험교실 ·지역사회봉사 ·우리동네 체험활동 ·청소년 농촌 체험 활동 ·청소년 봉사활동 ·주민교양강좌 ·주민교육강좌 ·웰빙 요가 교실 ·현직교사에게 듣는 학부모 교육 ·학부모 성교육 		
<p>CC 청소년 문화의집 (개원일 2001년 4월 17일)</p>	<p>*건물규모: 지상 1층</p> <p>*수용정원 200명</p> <p>*활동공간 건물면적: 735㎡</p>	(장소변경)	<p>* 청소년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로봇 만들기 교실 ·어린이 웃음 교실 ·방송댄스 ·드럼 기초 ·뚝뚝 스피치(진행됨) ·어린이 북아트 논술 ·레고 닥터 ·어린이 마술 ·클래식 기타 <p>* 성인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봄맞이 미니정원 무료특강(진행됨) ·어린이 스피치 지도자 자격증반 (진행됨) ·동화구연 기초반 ·해금 ·성인드럼 기초 중급반 ·동화구연 고급반 ·클래식 기타(진행됨) <p>* 특성화프로그램</p>	<p>*노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쏘울스토리 ·MOST <p>*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지창조 ·뮤사이 ·혼 ·샌디보이 <p>*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에기르 ·친궁 ·힙스터 ·P.S 힙합 ·찬상무 ·프로젝트 <p>*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루터기 ·터알 	<p>* 청소년 운영 위원회</p> <p>* 학교 연계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드럼 ·미술기초 ·미니정원 만들기 ·클레이 소품 만들기 ·북아트 ·풍선아트 ·비즈공예 ·영화감상 ·스피치 훈련 ·가치관 경매 ·웃음치료 ·레크레이션 <p>* 특화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춘천시 청소년 자원봉사 센터 ·춘천시 청소년 문화존

시설명	시설규모	시설(공간)활용	프로그램	동아리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18프린지 페스티벌 · 춘천시 지원 동아리 지원사업 · 청소년 위원회 청소년 교류 사업 · 수질보전사업 물사랑 환경캠프 · 지역사회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 청소년 스스로 지킴이 활동 · 함께가자! 지능로봇의 세계로 · 봄 시내 교육 공동체 만들기 사업 ‘자신있는 나, 멋있는 나’ · 공지천 푸른쉼터 문화존 활동 * 현장체험 프로그램 · 박물관 기행 · 견학 체험 · 생태탐방 · 직업체험 · 대학탐방 		* 상담실
IS 청소년 문화의집 (개원일 1999년 11월 2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규모: 지상 3층, 지하 1층 *수용정원: 150명 *활동공간 건물면적: 777.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고, 락카장, 공연연습실 *1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구장 · 청소년사랑방 휴게실 · 사무실 안내데스크 · 정보자료실 · 인터넷 부스 · 노래방 · 열린독서실 /북카페 · 비디오 부스 · AV감상실 · 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둑교실 · 국어교실 · 영어교실 · 수학교실 · 사회교실 · 족구교실 · PC정비사교실 · 일본어교실 *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주도학습 · 댄스스포츠 · NIE, 논술 · 요가 · 한자교실 · 중국어, 일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N · 휘모리레이디 · 뮤즈 *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레이지 *그룹사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16 	*청소년 운영위원회 (유너터)

시설명	시설규모	시설(공간)활용	프로그램	동아리	기타
		*2층 · 방과후아카데미 교실, 교무실, 휴게실 · 범죄예방위원 상담실, 사무실 · 익산시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 창고 *3층 · 공연자 대기실 · 다목적홀 · 휴게실	· 수화 · 한자자격검정 · 구연동화 · 캠프 · 문화체험 · 집단상담 · 전문심리검사 · 무료건강검진		
YS 청소년 문화의집 (개원일 1996년 1월 4일)	*건물규모: 지상 4층, 지하 1층 *수용정원 215명 *활동공간 건물면적: 991.74㎡	· 공연연습실 · 댄스 연습실 · 다목적실 · 안내 데스크 · 인터넷 부스 · 비디오 부스 · 컴퓨터 교육실 · 열린 독서실 · 휴게 라운지 · 코스프레 작업실 · 체육관 · 동아리방 · 인공 암장 · 야외 농구장 · 야외 쉼터	* 프로그램 · 컴퓨터 기초교실 · 워드 자격증 교실 · 기초 한자교실 · 어린이 NIE 교실 · 노래로 배우는 수화교실 · 보드게임 교실 · 오카리나 교실 · 전래놀이 한마당 *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 (지역주민대상) · 컴퓨터 기초교실 · 인터넷 정보교실 · 워드자격증 교실 · 풍선 아트 교실 · 요가 교실 · 한국 춤과 요가 교실 · 부모들과 자녀성교육 · 합기도 교실 · 중급 풍물 교실 · 신나는 노래 교실 *특성화 프로그램 · 체험으로 즐겨보는 우리문화 · 전래놀이의 새로운 발견 · 세시명절의 새로운 발견 세시풍속 따라	*동그라미 (전주시내6개 학교자원봉사 동아리 연합) *음악분야 -풍물 · 연희패살림반 · 불휘 · 어우러이 · 여흥 · 한판 · 찬동소리 -그룹사운드 · 블루웨건 · 라온 · 가디록 · 텔리스피치 · 아간비행 -댄스 · 디스포르 · 히아신스 · Gesture · 루시페르 · R.O.D · S.G -통기타 · 아프페지오 · 나우 *과학분야 -컴퓨터	* 학교연계 프로그램 · 순간조형 체험하기 · 자연염색 체험하기 · 비즈공예 · 한지공예 · 사물놀이 · 영화감상 · 레크레이션 *청소년 운영위원회 (히페리온)

시설명	시설규모	시설(공간)활용	프로그램	동아리	기타
			잡기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 자기주도학습 · 전통악기 배우기 · 리본공예 · 퀼트&펠트 · 짜즈댄스 · 일본어회화 · 미술치료 · 수화 · 체험활동 · 부모교육 · 북카페 · 캠프	· W.W.W · interface -과학 · 플라이어 · C&C *학술분야 -문학 · 글빛모듬 · 창 -연극 · 나루지기 *봉사분야 -수화 · 아름다운 침묵 · 마음소리 -자원봉사 · 근영동그라미 · 중앙동그라미 · 유일동그라미 · 전주동그라미 · 동암동그라미 · 완산동그라미 · 아름다운 동행 -RCY · 근영RCY · 전일RCY · 전여상RCY *기타분야 -기타 · 스킨(패션) · Airwalk(농구) · 창세기(만화) -성인동아리 · 손만세 (생활공예) · 요가사랑 (요가) · 텃밭가꾸기 (자연환경) · 장구 (사물) · 신협아이키도 (합기도)	

시설명	시설규모	시설(공간)활용	프로그램	동아리	기타
MS 청소년 문화의집 (개원일 2002년 4월 20일)	*건물규모: 지상 3층, 지하 3층 *수용정원: 120명 *활동공간 건물면적: 420.4m ²	· 변신강당 · 동아리 모임방 · 인터넷 부스 · 만화와 도서 및 비디오 대여 · 영상편집실	* 프로그램 · 학교폭력예방 전문가 연수 · 청소년문화프로그램 (방송안무댄스)	*댄스 · 게토 · gentleman *힙합 · 테스 *B-boy · IdealStyle *만화 · 블루스타 *기타 · popsterGirls · 너울막 · 반땅 · 포인트	* 청소년 운영위원회
DY 청소년 문화의집 (개원일 2001년 4월 13일)	*건물규모: 지상 3층, 지하 1층 *수용정원 300명 *활동공간 건물면적: 644.43m ²		*프로그램 · 바이올린 · 첼로 · 플룻 · 발리댄스 · 마술 · 인라인스케이트 · POP에쁜글씨 · 스피치 · 민화그리기	*댄스동아리 · Apache · TBJ *보컬동아리 · IE밴드	*청소년 운영위원회 *문화존 사업
GSG 청소년 문화의집 (개원일 2000년 4월 21일)	*건물규모: 지상 1층, 지상 2층 *수용정원: 115명 *활동공간 건물면적: 707m ²	*1층 · 영사실 · 공연연습실 · 다목적실 · 준비실 · 보관실 *2층 · 청소년사랑방 · 개인연습실 · 체력단련실 · 비디오부스 · 안내데스크 · CD부스 · 비디오부스 · 열린독서실 · 정보자료실 · 인터넷부스 · 동아리방 상담실 · 창작공방실	*프로그램 · 유적지 탐방 · 문화체험 (홈페이지에 프로그램 정보 나와 있지 않고, 2004-5년도 프로그램임)	(홈페이지상 동아리에 대한 활동 모습이 보이지 않음)	* 청소년 운영위원회

부 록 2. 청소년문화의집 조사지

--	--	--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실태 및 방향성 모색을 위한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한국의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청소년 정책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기관에서는 청소년들의 지역사회청소년시설 이용실태 및 참여방안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역사회시설로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염두에 두고 청소년문화의집의 발전방안 및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향후 주 5일 수업제의 확대 실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 필요성 확대 등 청소년문화의집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며,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청소년문화의집의 운영실태 및 향후 방향성 모색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한분한분 만나 뵙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나, 현실적인 여건상 조사표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한국의 청소년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응답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적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을 것임을 명시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우) 137-715
조혜영
전화번호: 2188-8813
팩스번호: 2188-8819
이메일: jhy@nypi.re.kr/johye821@hanmail.net

■ 답변을 해 주신 선생님들께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해 드릴 예정이오니 주소와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록은 답례품 지급을 위한 정보이며, **개인 정보 유출은 절대 없음**을 보장합니다.

이름:

전화번호나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주소:

근무처:

사업명	운영 년도	운영 회수	청소년참여인원	주요내용

◆ 청소년 참여 및 활동실태 관련 ◆

9. 귀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기관운영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___(1) 없다

___(2) 있다

10.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방안으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복수 응답 가능합니다.)

___① 청소년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다

___② 요구조사 또는 의견조사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___③ 청소년 의견함 등을 설치하여 청소년 의견을 수렴한다

- ___④ 기관운영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각종 회의 등에 청소년 대표를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한다
- ___⑤ 청소년들과 직원들간의 간담회나 세미나를 개최한다
- ___⑥ 청소년들과 비공식적인 대화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 ___⑦ 기타_____

11. 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동아리 활동상황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구성한 자체 동아리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활동하는 학교 등 외부 동아리	
(1) 동아리수	(2) 회원수	(1) 동아리수	(3) 회원수

12. 귀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청소년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월평균 이용자 수	연평균 이용자 수
(1)	초등학생 수		
(2)	중학생 수		
(3)	고등학생 수		
(4)	전체(성인 등 포함)		

◆ 청소년 이용실태 관련 ◆

13.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이 지역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① 전혀 그렇지 않다
- ___② 그렇지 않다
- ___③ 보통이다
- ___④ 그렇다
- ___⑤ 매우 그렇다

14. 귀 청소년문화의집 내부의 시설과 공간의 종류는 청소년들의 문화욕구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① 전혀 그렇지 않다
- ___② 그렇지 않다
- ___③ 보통이다
- ___④ 그렇다
- ___⑤ 매우 그렇다

15. 현재 청소년문화의집 공간 규모는 어떠합니까?

- ___① 매우 좁다
- ___② 좁다
- ___③ 보통이다
- ___④ 넓다
- ___⑤ 매우 넓다

16. 청소년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배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① 전혀 적절치 않다
- ___② 적절치 않은 편이다
- ___③ 보통이다
- ___④ 적절한 편이다
- ___⑤ 매우 적절하다

17. 현재 청소년문화의집 공간 활용도는 어떠합니까?

- ___① 매우 낮다
- ___② 낮은 편이다
- ___③ 보통이다
- ___④ 높은 편이다
- ___⑤ 매우 높다

18. 청소년문화의집 공간활용도가 낮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복수 응답 가능합니다.)

- ①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이 청소년들의 기호에 맞지 않아서
- ② 시설공간의 배치가 부적절해서
- ③ 시설공간별로 적절한 장비가 갖추어지지 못해서
- ④ 시설공간을 활용해서 운영할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 ⑤ 프로그램을 운영할 적절한 인력이 부족해서
- ⑥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수가 적어서
- ⑦ 기타(_____)

19. 청소년들이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시설의 청결상태나 냉난방 상태가 좋지 않다
- ② 청소년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 ③ 관련 자료나 장비가 너무 오래되거나 고장 나서 이용하기 불편하다
- ④ 공간이 비좁고 부족해서 활동하기 어렵거나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다
- ⑤ 방음시설이나 칸막이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집중하기 힘들다
- ⑥ 이동거리가 멀다
- ⑦ 특별히 없다
- ⑧ 기타(_____)

20. 귀 청소년문화의집에 설치되어 있는 공간 및 시설을 모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독서실
- (2) PC/인터넷 이용 공간
- (3) 북카페
- (4) 발표 및 행사공간(강당 등)
- (5) 동아리방
- (6) 노래연습실
- (7) 비디오(DVD) 관람실
- (8) 공연연습실(밴드 등)

- ___(9) 댄스/춤 연습실
- ___(10) 창작공방
- ___(11) 운영위원회 회의실
- ___(12) 실내 운동시설(탁구대, 포켓볼 등)
- ___(13) 실외 운동시설(농구대, 경기장 등)
- ___(14) 영상편집실
- ___(15) 인터넷 방송국
- ___(16) 기타_____

21. 현재 귀 청소년문화의집에 설치되어 있지만 잘 이용하지 않는 장비나 시설이 있다면 무엇인지 적어주십시오.
(_____)
22. 근래에 청소년들이 주로 찾거나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지만 예산 등의 한계로 도입이 어려운 장비나 시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_____)
23. 향후 청소년문화의집이 역점을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능 및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 관련 ◆

24. 귀 청소년문화의집이 위치한 지역(읍·면·동) 내에 청소년문화의집과 기능상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칸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종류	시설 유무			유사 서비스 제공 여부			연계 유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	종합사회복지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2)	지역아동센터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3)	문화센터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4)	여성회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5)	주민자치센터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6)	건강가정지원센터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7)	기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25. 귀 청소년문화의집이 연계하고 있는 학교 및 학생수 현황에 대해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수	학생수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26. 귀 청소년문화의집이 학교와 연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___ ① 청소년문화의집 지도사가 학교로 찾아가서 학교의 특활이나 CA 활동 지원
- ___ ② 학생들이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로 와서 특활이나 CA 활동 등 수행
- ___ ③ 학교의 동아리 활동 지원
- ___ ④ 학교의 놀토 프로그램 운영 지원
- ___ ⑤ 학교의 체험활동 프로그램 참여
- ___ ⑥ 학교의 일반교과 수업과 연계하여 활동 지원
- ___ ⑦ 기타(_____)

27. 향후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 등을 대비하여 학교와 보다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_____)

◆ 바쁘신 가운데 성심성의껏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 록 3. 조사대상 청소년문화의집의 특성화 사업 및 프로그램

지역	문화의 집	사업명	운영 년도	운영 횟수	청소년 참여 인원	주요내용
서울	사당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부모교육	2007~ 2008	7회	100명 (학부모 참여)	청소년을 둔 학부모의 대화법 개선이나 청소년 지도를 위한 다양한 대처방법 교 육으로 의식 개선 및 자녀상담위원으로 써 지역주민들 반응이 좋았음
		청소년 꿈따라 별따라	2006~ 2008	3회	청소년 120명	청소년들에게 자연환경부에서 다양한 체 험활동을 함으로써 도시에서 경험하기 힘든 활동을 교우와의 경험을 통해 리더 십을 갖추게 하는데 있다.
	노원 청소년 수련관	중랑천 환경 자전거 캠페인				인근 중랑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한 환경 보전 라이핑 캠페인
		해피 로그인				비 장애/장애 청소년이 함께 공동의 미션 을 수행해 나가는 프로그램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 집	사랑나눔 바자회	2004~ 2008	5회	127명 (1회)	어머니자원 봉사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동아리 가입 청소년이 함께 행사 진행. 지역주민의 관심과 호응 속에 청소년 장 학금 전달식에 쓰일 기금 마련
		청소년 장학금 전달식	2004~ 2008	5회	12명 (1회)	관내 중·고등학교 및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은 어려운 청소년에게는 장학금을 모 범청소년에게는 표창장을 수여. 지역신문, 소식지 게재
		사랑나눔 페스티벌	2004~ 2008	4회	152명 (1회)	동아리 발표회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발표회와 작품전시회를 병행하여 실시하 며 티켓 판매 수익금으로 사랑 나눔회 어려운 이웃돕기 기부
		장애 청소년 프로그램	2004~ 2008	5회	60명	미술, 댄스스포츠, 체육, 음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 청소년의 예·체능 능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취미활동 및 여가 선용을 도모
	서초 구립 방배유스 센터	청소년 문화의집 Fun&Free Day	2004	5회 (년 1회)	300명/년	매년 가정의 달 5월에 지역주민, 청소년,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 인터넷중독, 사이버폭력 윤리강의, 게 임대회 등

지역	문화의 집	사업명	운영년도	운영횟수	청소년 참여인원	주요내용
	신월 청소년 문화센터	H·R·C	2005~2008	연 10~13회	연 인원 603명	동아시아 주변나라 및 한국의 역사·문화·유산·중국·일본·동남아시아 각국 방문 및 탐구 활동
		Happy Together in 미터	2007~현재	연 10회~12회	연 인원 1,500명	여름캠프(한국전통문화체험, 다문화체험-각국음식·놀이체험) 캠프파이어, 별동별 보기 등 지역문화축제 시 지역 청소년 및 지역주민에게 세계문화소개
		논스톱 뮤직 비디오 만들기	2005~2008	연 10회	연 인원 185명	영상실습교육(이론, 실무)을 실시 후. 뮤직비디오 작품 제작
		놀토 Day(미터 Day)	2005~2008	연 8회	연 인원 3,000명	센터내에서 노는 토요일에 이루어지는 소규모 축제 내용은 놀이 활동, 먹거리 활동, 체험 활동 등
	성동 청소년 문화의 집	환경의 재발견	2006~2008	49회	3,951명	-EM을 이용한 재활용 비누 만들기 -친환경 캠프 -재활용 특강
		청소년 경제금융 교육 '씽크머니'	2006~2008	31회	2,504명	-학교 특강의 청소년 경제 금융 교육 -소단위 청소년 경제금융 교육 -경제 금융 현장 체험 활동
		환경, 지렁이, 우리는 삼총사	2007~2008	6회	326명	-지렁이 화분 분양 -대안생리대 만들기, 친환경 수세미 만들기 -유기농 마을 체험 등
		글로벌 챔피언	2007~2008	19회	573명	-청소년 리더십 교육 -청소년 다문화 이해 교육 및 현장 체험 활동 -내몽고 해외 체험 봉사활동
		해피투게더	2007~2008	7회	207명	-어르신이 좋아하는 음식 만들기 -지역 내 경로당 방문 어르신과 여가활동 함께하기(문자 발송법 지도, 피부 맛 사지, 화투 등)
	시립 서울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문화정보 기자단	2008	5회	50명	문화의집 내 시설 및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수집 및 교류
		문화 대축제	2007	4회	160명	놀토 프로그램으로 여가활동을 위한 축제프로그램(게임대회, 노래경연대회)

지역	문화의 집	사업명	운영 년도	운영 횟수	청소년 참여 인원	주요내용
	동작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인권축제	2005~ 2008	3회	1,500명	인권체험마당, 청소년운영위원회 주요 사업
		청소년 인권교육	2005~ 2008	15회	200명	청소년운영위원회, 학교연계 인권교육
		테마체험	2005~ 2008	25회	1,000명	계절 테마별 야외체험활동
		서울 유스데이	2007~ 2008	40명	3,450명	노는 토요일 보드카페, 다목적홀(PC, 만화방), 체험마당
		자원봉사 학교	2006~ 2008	3회	240명	년 1회 4회기 진행(주제별 진행) 예)미디어 교육
		영화상영	2005~ 2008	150회	1,800명	매주 일요일 영화 무료상영(대상: 주민, 가족단위)
		회원의날 동아리 축제	2008	1회	450명	회원의날 축제마당, 동아리 공연마당
인천	연희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만화 그리기 대회	2000~ 2008	9회	회당 250~ 300명	청소년 만화그리기 대회(초, 중, 고) 만화관련 이벤트(수상작전시,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등)
		한마음 도미노	2005~ 2006	2회	총 155명	협동하여 도미노칩을 세워 작품 만들기 또래와 가족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참여
		전통예절 체험학습 특수	2003~ 2006	3회	총 200명	전통예절체험 및 놀이 체험
		청소년 일일문화 교육	2006~ 2008	3회	총 137명	관내 중·고등학교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포크댄스, 비즈공예, 다레체험, 인형극 관람, 종이공예, 레크레이션 등)
	화수 청소년 문화의 집	꿈을 키우는 인형극장	2003~ 2008	4회	연 760명 (유아 및 성인 포함)	인형극 공연 및 부대행사
		청소년 탁구 대회	2004~ 2008	연 6회	연 96명	초등부, 중·고등부 탁구 대회
		청소년이 준비하는 직업 박람회	2006~ 2008	연 10회	연 685명	-진로탐색 검사실시 및 해석 -직업인 교육 및 대학, 공공기관 견학 체험 -청소년 직업박람회 진행

지역	문화의 집	사업명	운영년도	운영횟수	청소년 참여인원	주요내용	
		신나는 문화 속으로 GO GO	2007~2008	연 12회	연 214명	지역 기초 생활 수급 가정 아동에게 과학정보, 환경의식, 모험개척 등의 다양한 문화 활동의 체험을 진행	
		나름이	2006~2008	연 11회	연 158명	주5일 수업대비 초등학교 프로그램으로 과학, 역사, 모험개척 등의 의식을 높여 주기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youth day	2004~2008	연 1회	연 200명	청운위 행사로 청소년이 1년 하루 시설을 운영.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진행~평가하는 날. 김밥팔기, 청소년 동아리 공연 및 발표	
	인천 동구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세계를 overlap 시키다	2007				청소년과 중국대학생들이 미디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하고 의사소통하는 프로그램
		딱! 풀!	2007	6회기	25명	청소년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독거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직접제작, 만들어주는 사업	
		더 늦기전에 제자리로 u턴	2008	12회기	20명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사회적응(가정, 학교, 사회)프로그램	
		마음밴드	2008		20명	음악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청소년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주고 음악의 재능을 살려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함.	
경기	부발 청소년 문화의 집	꿈돌이의 여름나기	2006~2008	연 약 10회 총 30회	1회 15명 연 150명 총 450명	<초등생 중심의> 1회: 기초소양교육(문화체험, 논술, 수리 등) 2회: 환경을 주제로 한 체험 학습(환경 박물관, 갯벌탐사, 공연관람) 3회: 전통문화 체험(떡, 숯대, 전통의상, 예절, 교육 등)	
		신토끼	2006~2007	17회	1회 30명 약 510명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학습(스킨아트, 카나페 만들기, 재활용품 장식품 만들기)	
		즐크파	2004~2007	4회	400명	크리스마스 파티를 함께 즐기기. -장기자랑, 케이크 만들기, 참여마당 등	
	창전 청소년	청소년 문화존	2004~2008	111일	65,513명		

지역	문화의 집	사업명	운영년도	운영횟수	청소년 참여인원	주요내용
	문화의 집	영상캠프	2004~2008	20일 (5회)	163명	
	오산 남부 청소년 문화의 집	수청동 아카데미	2008	14회기	매회 40명	숲 체험, 경기도립 물향기 수목원 활용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
		신나는 토요일 100% 충전하기	2008	16회기	매회 30명	외국문화체험(현지인 강사 섭외) 가족체험(별난 박물관, 우주센터, 전통놀이 등)
	팽성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캠프	2005~2008	4회	360명	오지를 찾아가 직접 청소년들이 자연을 체험하고, 체험활동을 진행 함
		가족과 함께하는 '놀도'	2007~2008	6회	340명	주5일제를 맞이하여 가족들이 모두 함께 테마를 정해 가족체험 프로그램 진행
	원평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신용경제 교육 및 캠프	2004~2008	연 1회	매 50명	-신용/경제교육 -건전소비 문화만들기 캠페인 -조별 용돈 및 미션만들어 가기 -금융박물관/한국은행 견학
		청소년 리더쉽 캠프	2005~2008	연 1회	매 40명	-리더쉽 강의 교육 -세계의 리더자 찾기 -조별활동 등
		청소년 농구대회	2002~2008	연 1회	매 12여명	청소년 3:3 길거리 농구대회
	장안 청소년 문화의 집	역사특강	2005~2008	매년 2회	회기당 60여명 내외	한국을 빛낸 위인들을 알아보자. 우리 역사 속으로 빠져봅시다.
	영통 청소년 문화의 집	도시가족의 주말농장 이야기	2006	22회		다양한 환경체험, 주말농장, 캠프, 환경 오픈마켓 운영
		맹부모삼천 지교 "가족의 재탄생"	2006	11회		청소년문화 VS 부모님 문화 비교체험 수 원방송 보도
		더불어 사는 한마음 문화 학교	2003	300회 이상		장애청소년과 비 장애 청소년 멘토 체험, 기행
	신갈 청소년 문화의 집	역사 기행단	2006~2008	40여회	단원 50여명, 연간 500여명 참여	용인 문화재 전시관, 박물관 등 답사

지역	문화의 집	사업명	운영 년도	운영 횟수	청소년 참여 인원	주요내용
		새싹 꽃을 피우다	2008	1회	200여명	먹거리, 전시, 공연, 성인 자원봉사
		국토 대장정	2008 (지속 사업)	1회	70여명	용인의 문화재를 직접 걸어서 답사
	고양 청소년 문화의 집	자녀와 함께하는 예술체험 프로그램	2007~ 2008	연 80회		자녀와 함께 다양한 예술체험 프로그램 진행
		놀토에 만나는 전통문화 놀이	2008	11회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송내동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국토 대장정	2005~ 2008	4회	200명	100km 도보순례, 지역문화탐방, 공동체 놀이, 훈련
		청소년 팀 프로젝트 공모전	2005~ 2008	4회	500명	3~5명 팀 구성 주제에 따른 기발한 아이 디어 기획·실행.(환경, 가족, e-미디어 다 이아트, UCC예정)
		TV 바로보기 모니터링	2005~ 2008	연 5회 이상	800~ 1,000명	TV 유해성, 선정성 등 지표에 따라 모니 터 활동. TV바로보기 교육, 훈련
		청소년 길거리 상담	2003~ 2008	월 2회	회 100명	진로 및 개인 적성, 성격 유형 등 1:1 길 거리 상담
	고리울 청소년 문화의 집	국제교류 활동	2003~ 2008	총 12회	500명	-아시아 평화 기획단 -부천-가와사키 청소년 포럼 하나 정기 교류회
		미디어 프로그램	2001~ 2008	수시	연 10,000명	-찾아가는 미디어 교실(소외계층 대상 미 디어 교육 및 제작) -미디어 센터 운영
		다문화 체험	2007	수시	연 2,000명	-아시아 각국에 대해서 현지인이 직접 교류하고 체험하는 활동 -글로벌카페(상시 운영)
	부천 여성 청소년 센터	진로사업 '무한도전 보물찾기'	2008.7~ 2009.2	132회	320명	-대상: 중·고생 320명 -내용: 진로탐색 동기부여 프로그램 및 제빵 기능사, 포토샵 및 쇼핑몰 창업과 제 체험
		미래설계 프로그램 '성장통'	2008	15회	40명	-대상: 중·고생 40명 -내용: MBTI를 통한 자기이해, 인생목표 설정, 자기탐색, 직업이해 등

지역	문화의 집	사업명	운영 년도	운영 횟수	청소년 참여 인원	주요내용
	당동 청소년 문화의 집	우리동네는 문화 전시장	2007	1회	210명	-지역사회 구성하는 청소년 단체들과 네트워킹 -민주시민 교육 통해 유해환경 정화 권리 주장 -유해환경 진단을 통해 환경개선 활동
		창작만화 경진대회	2002~ 2008	7회	매회 100여명	초·중고 대상으로 주제를 바탕으로 창작만화 경진대회
		인권 토론회	2005	3회	1,260명	인권 릴레이 -토론회장·체험마을·퍼포먼스
	광정동 청소년 문화의 집	군포 청소년 연극축제	2002~ 2008	7회	1,585명 (2007년)	-관내 중·고등학교 연극동아리들의 공연의 장 -특수학급 청소년들의 연극공연 -전체 OT/연극 전문교육/캠프/공연
		돌아이 스트릿 힙합 페스티벌	2008	1회	1,928명 (2008년)	-수도권 지역 힙합 청소년들의 축제의 장 -힙합의 정신을 계승하여 거리에서 공연(산본 중심상가) -유명한 힙합팀의 초청공연
		미라클 미술 경연대회	2005	3회	200명 (2007년)	-중·고생 미술 청소년들의 경연의 장 -소속 동아리인 미술 동아리 '미라클'이 프로그램을 직접 계획&진행(심사위원/게스트 섭외)
	통진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경제놀이 체험	2008	1회	회 20명	경제 관련 프로그램
		세계문화 체험	2007~ 2008	3회	회 20명	세계에 대한 이해 및 체험학습을 통한 학습
		행복나눔 프로젝트	2008	1회	회 20명	자원봉사를 통한 행복 나누기
		3·3 Youth	2006~ 2007	2회	회 450명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준비 완료시기에 중3, 고3 청소년을 위한 문화체험
	광명 5동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뮤지컬	2007~ 2008	2년차	회 30명	뮤지컬 기본 교육, 집중(분야별)교육, 위문(초청)공연
		진로 캠프	2007~ 2008	2년차	회 40명	진로탐색 P/G, 직업탐색, 체험 나누기 등
		미디어 음악 활동	2007~ 2008	2년차	회 15명	음향교육, 컴퓨터 음악교육, 작곡 실용 음악학과 진로교육 등
	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	농촌체험	2008	2회	90명	농촌 체험활동(벼베기, 황토체험 등)
		관내 문화 유적지 투어	2008	6회 (실시예 정)	270명	관내에 역사적으로 유명한 유적지 탐방 및 전통공연 관람

지역	문화의 집	사업명	운영 년도	운영 횟수	청소년 참여 인원	주요내용
	안산 청소년 문화의 집	장애 청소년 여가교실	7년	10회	1,200명	-시설이 비어있는 평일 오전시간을 활용한 학교 특수 학급과의 연계 -장애청소년 여가활동 지원 및 청소년시설 이용을 통한 사회성 함양
		다문화 청소년 공존문화 만들기	2년	2회	300명	-지역 다문화청소년에게 한국문화, 타문화 알기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멘토링 활동, 문화활동, 어울림 캠프 등
		타임머신 타고 고고성	2년	2회	800명	-놀토와 주말을 이용한 부모세대와의 공감 프로그램 -옛날놀이, 문화, 먹거리등 청소년과 부모세대 놀이문화체험 활동
		청소년 진로직업 아카데미	3년	30회	1,800명	-분야별 직업 전문과의 만남 -직업 체험과 경험을 통한 청소년 진로 선택의 기회 제공
	문산 청소년 문화의 집	평생교육 프로그램 (문화강좌)	2001~ 2008	분기별 주1회 또는 2회 연 251일	매 분기별 150명~ 200명	어린이 발레/창작미술/과학교실/연기지도/ 취미바둑교실/달크로즈음악/찰흙만들기/ 재즈댄스/스포츠댄스 등
		청소년을 위한 건전놀이 문화 교실	2001~ 2008	연 5회~ 7회	1,000명 전후	-학생간부 회의진행법/축제기획/리더십교육 -이미지메이킹/재즈댄스/인성교육/레크레이션 등
		청소년 연극단 운영	2001~ 2003	연 1회 발표 3월~ 12월	연 10명~15 명	-연기 기초(리딩/워킹) -각자 역할분담·무대 연기
		청소년 패러디 개그 콘테스트	2003~ 2006	연 1회	연 150명	모창, 따라하기, 패러디 개그, 성대모사 등
		모여라! 우리들만의 축제	2002~ 2008	연 1회	200명	청소년위원회 축제 기획, 홍보, 운영. 실 시 운영팀 년 15명 내외(선후배 관계 형 성 등)
		병영체험	2002~ 2005	연 10회	연 1,000명	1박 2일 또는 2박 3일 군부대 유격훈련, 막사체험 포병부대 방문, 전방 견학 등

지역	문화의 집	사업명	운영년도	운영횟수	청소년 참여인원	주요내용	
		가요 댄스 경연 대회	2001~2005	연 2회	연 300명	수시 청소년 장기 자랑을 통해 청소년들의 장기를 개발하는 기회를 갖고 정착시켰음	
		부모와 함께하는 테마여행	2007~2008	7회	280명	좋은 공연장, 전시관, 박물관, 유적지 등 관람 후 운영자 또는 배우자들과 기념촬영 및 대화 현장 학습 등	
		장원급제 퀴즈대회	2003~2008	6회	연 200명	과주 역사 인물, 문화에 대한 문제 50문항 출제	
	만안 청소년 문화의 집	출발~놀토 탐험	2005~2008	15회	회당 25명	이색박물관 관람 및 이색체험	
		문화지도길 라잡이	2007~2008	12회	회당 20명	-인양일번가 청소년 갈만한 곳 조사활동 -문화지도 제작	
		태마가 있는 문화의집	2005~2008	4회	회당 100명	문화의집 이용청소년을 위한 이색 테마 파티	
		만안청소년 축제	2001~2008	1회	회당 200명	-청소년 트렌드에 맞는 이색체험활동 -청소년 동아리 공연 -먹거리 체험	
	석수 청소년 문화의집	올빼미 캠프	2004~2008	10회	900명	-아빠와 함께하는 야간산행 -별자리 관측 -가족 이해하기	
	사우 청소년 문화의 집	우리도 주인이다	2005	3회	60명	청소년들의 시민의식 함양	
		방학숙제 체험박람회	2006	5회	1,000명	저학년 방학숙제를 청소년들이 직접 지도	
		푸른 꿈 우리가 만들어요	2006	3회	20,000명	어린이날 축제	
		English Talk	2008	1회	80명	방학기간동안 영어 체험활동	
		장애우 모듬북	2007	40회 이상	800명 이상	장애우 모듬북 체험	
	충북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	R/C car	2006	3회	20~50명	R/C car를 통해 생활속의 과학으로 호기심을 접근, 시도함으로써 과학적인 사고 유추와 친구들과의 어울림을 조성,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시켰음.
		괴산 청소년 문화의 집	보물찾기	2007	연중		책속에 상품권 건분을 찾아낸 후 찾게되는 청소년에게 독후감을 쓰게 한 후 도서상품권지급(책은 무작위 선정)

지역	문화의 집	사업명	운영 년도	운영 횟수	청소년 참여 인원	주요내용	
		나만의 꿈 찾기	2008	1회	15명	도자기 핸드페인팅을 통해 나의 꿈을 표 현하는 프로그램	
	보은 청소년 문화의 집	해피 패밀리 팡팡	2007~ 2008	3회	57명	-수련활동 인증 484호 지정 -가족과 함께 풍선만들기를 통해 가족 여가 문화 조성	
		문화 체험 활동(탐방)	2007~ 2008	3회	150명	-박물관, 유물, 유적지 탐방 -농장체험 활동	
		동아리 경진대회	2006~ 2007	2회	98명	-청소년의 문화·예술적 소질 개발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 아리 연중행사	
		비즈공예	2007~ 2008	2회	45명	-청소년들의 다양한 취미 활동 -팔지, 반지, 목걸이, 브로우치, 핀 등 만들기	
	음성 청소년 문화의집	향토문화 유적답사	2004	12회	1,100명	관내 향토유적을 답사하여 내 고장 바로 알고 자긍심 고취(중1 대상)	
	제천 청소년 문화의집	과학교실	2008		매회 40명	매주 저학년, 고학년 반으로 과학 실험	
		문화재 답사	2007~ 2008	7회	40명	인근 유적지 답사	
	충남	부여군 청소년 문화의집	효·예절 교실	2002		500명	절하는 법, 인사예절, 방문·식사예절 등 일상생활 예절 및 전통예절 교육
			취미·특기	2001		100명	원어민 영화회화, 종이공예 등 청소년들 이 여가 시간에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 그램 진행
당진군 청소년 문화의집		나눔의 캠프	2005	4회	20명(매 회)	장애인과 2박 3일 캠프	
		청소년 애국심 고취 국토순례	2007	1회	50명	충남 서북부(당진, 예산, 홍성, 서산, 태안)의 애국열사의 유적지를 도보로순례	
공주시 청소년 문화센터		청소년 문화체험 프로그램	2007~ 2008	15회	600명	다양한 체험 장소 역사박물관 등을 찾아 가는 프로그램	
		청소년 푸른나래 축제	2006~ 2007	2회	1,200명	관내지역 청소년 동아리들의 축제 전시· 부스운영·공연 등	
		독거노인을 위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2008	8회	160명	독거노인과 청소년들이 손자 손녀 결연 을 맺고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활동함.	

지역	문화의 집	사업명	운영년도	운영횟수	청소년 참여인원	주요내용	
	홍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교육문화 프로그램	2007	연중 각 수업별 매주 1~2회	188명	군내 청소년 대상 무료 교육문화 수업 실시(사물놀이, 어린이요가, 주산암산, 한자급수반, 독서지도, 댄스스포츠, 영어교실, 중국어교실)	
		여름, 겨울방학 특강 프로그램	2007	방학 기간중 매주 3회	120명	군내 초등학생 대상 무료 방학특강 실시 (영어야 놀자, 원어민과 함께하는 중국어 교실, 어린이 바둑교실)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풍선아트	2006~2007	주1회	25명	초급단계부터 자격취득까지 시주관 어린이날 행사 참여	
		국제교류	2006~2007	연1회 (추석)	57명	한서대 교환학생(동남, 중앙 아시아, 중국, 일본 등)들과 추석 전통문화체험	
		T-ball	2007	월 2회	20명	야구형 레저 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 스포츠 문화 활동을 함.	
		예쁜글씨 교실	2006~2007	주1회	30명	인터넷 채팅언어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언어 사용 및 맞춤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움.	
		청소년 자원봉사단	2008	월 1회	17명	관내 무의탁노인 가정 방문(제기복지) 손 마사지, 수화 교실 병행하여 단조로운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도 흥미 유발을 꾀함.	
	연기군 청소년 문화의 집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의 집	2007	5회	500명	문화체험: 폼아트, 리본공예, 네일아트, 페이스페인팅, 전통매듭, 풍선아트 등	
		제빵체험	2007	1회	20명	식빵, 공보빵, 야채빵 등 만들기	
		리본공예	2007	2회	50명	헤어핀, 핸드폰 줄, 머리방울 등 만들기	
		풍선아트	2007	2회	50명	이벤트 장식, 풍선아치, 인형 만들기 등	
	강원	상장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문화 아카데미	2007~2008	2회	400명	어린이발레교실, 종이접기, 점토야 놀자, 젤리 향균 만들기, 영어동화읽기, 논술교실, 미술심리치료

지역	문화의 집	사업명	운영 년도	운영 횟수	청소년 참여 인원	주요내용	
		농촌체험 교실	2007	1회	30명	두부만들기 체험 황토염색 체험	
		견학 프로그램 운영	2008	2회	60명	-우주센터 견학: 08.5.20(강화도) -영어마을 캠프: 08.5.28(경기도 파주)	
		문화체험 교실	2007~ 2008	2회	100명	바이올린 이야기, 창작종이접기, 재미있 는 오카리나, 신나는 영어세상	
	고성 청소년 문화의집	신용카페	2006~ 2008	6회	1,500명	청소년 신용경제 교육	
		도보 CAP	2006~ 2008	3회	200명	평화, 국토 사랑 캠페인	
		청사넷	2007~ 2008	연중	1,200명	지역사회 교육부지 운동	
		축제	2006~ 2008	3회	1,500명	청소년 종합 문화 축제	
	춘천 청소년 문화의 집	드럼 강좌	2001	연 5회	연 500명	드럼 교육	
		청소년 문화존	2006	연 9회	연 2,000명	청소년을 위한 문화체험 및 공연 지원 활동	
		청소년 자원봉사	2004	연 10회	연 500명	자원봉사를 통한 청소년 정서활동교육	
	문곡 청소년 문화의 집	소외지역 청소년 국악교실	2006	3회	연 600명	가야금, 피리, 대금	
		크리스마스 이브 자선공연	2005	4회	연 150명	청소년 동아리 8개 자선모금 공연	
	철원 청소년 문화의집	행복 에너지 퍼트리기	2007	10회	20명	천연비누 만들기, 남대문 공작 만들기, 보드게임 함께하기 등 프로그램을 통해 중간 사진을 찍어 전시하기.	
	대전	대전 중구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힙합 뮤지컬 아카데미	2007~ 2008	100회	300명	-공개 오디션·시나리오 작업 -힙합 뮤지컬 연습 및 공연
			마음을 읽는 미술놀이 캠프	2007~ 2008	6회	150명	-미술놀이 체험 심리 분석 -미술치료사 전문가와 함께 심리진단
스스로 찾아가는 대학탐방			2008	3회	66명	-진로탐색 프로그램 검사 -공동체 훈련 (복불복) -조별 대학 탐방	

지역	문화의 집	사업명	운영 년도	운영 횟수	청소년 참여 인원	주요내용
	삼천 청소년 문화의 집	I CAN (학교연계 사업)	2008	1회	10명	방과후 학습지원, 집단상담, 문화·여가활동 *지역학교와 연계 운영
		토요사랑나 무교실 (학교연계 사업)	2008	1회	30명	문화·여가 활동(댄스, 클레이아트, 오카리나) *지역학교와 연계하여 운영
	도솔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애니메이션, 코스프레 문화세상	2005	1회	80명	-애니메이션 및 코스프레 이론 및 실습 교육(특강) -코스프레 문화세상 공연 및 시상을 통 한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진행
		우리는 당당한 청소년 입니다.	2005~ 2008	2회	8,000명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직접 기획부터 운 영까지 담당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가 요, 댄스, 미술, 비보이, 밴드 등 청소년 동아리들의 공연
		행복한 세상 내가 쓴다	2007	1회	5,000명	폭력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 캠페인 프로 그램으로 찰칵 행복한 사진 및 내게 힘 을 줘 문자 콘테스트 개최 시상식 및 우 수작품 전시회, 캠페인 운영
		Hi~해피 도솔친구	2005~ 2008	2회	100명	자원봉사 기본소양 교양부터 장애체험 활동 후 직접 장애청소년 시설을 방문 본 시설에 장애 청소년을 초청하는 등 비 장애 청소년과 장애 청소년의 어울림 프로그램
	장대 청소년 문화의집	족욕체험장 에서 펼쳐지는 별난 콘서트	2008	3회	300명	-청소년 동아리 공연, 체험부스 운영
		청소년 생활예술 시장 아싸	2008	1회	200명	청소년 벼룩시장, 생산자 교육
		청소년 패밀리 가요제	2008	1회	400명	-청소년 패밀리 가요제(2인 이상 팀을 구 성하여 가요 경연) -동아리 축하공연 -시상식
	갈마 청소년 문화의	숲체험	2008	1회	50명	장태산 숲 체험
		전통문화 체험	2008	1회	200명	찾아가는 전통문화체험(웃놀이, 단체 줄 넘기, 투호 던지기 등)

지역	문화의 집	사업명	운영년도	운영횟수	청소년 참여인원	주요내용	
	집	로켓 만들기	2007~2008	4회	80명	물로켓 만들고 날리기 체험	
		청소년 불법 주차 단속반 활동	2007~2008	4회	200명	불법주차차량 단속하여 노란풍선 붙이기 캠페인	
	대전 서구 탄방 청소년 문화의 집	생활과학 교실	2007~2008	12회	360명	생활 속에서 과학의 원리 찾기 -매직볼 만들기, 연구소 견학, 손가락 화석 만들기 등	
		심리검사	2007	3회	90명	PAI 자아검사를 통한 자아개념 확립	
		NIE 교실	2007	8회	160명	신문을 활용하여 어휘력, 창의력, 융통성 기르기	
		점핑클레이		16회	480명	점핑클레이를 이용한 다양한 소품 만들기	
	전북	효자 청소년 문화의 집	우리지역 청소년문화자 원봉사단	2006~2008	연 10회	회차당 30명	지역사회 내의 전통문화자원에 대한 교육 및 자원봉사활동
			세대공감 락 콘서트	2006~2008	연 1회	400명	판소리·대금 등 전통음악과 락, B-Boy 등의 결합된 콘서트로 세대간 소통과 통합의 자리마련
		익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열기구 과학캠프	2003~2007	50회	6,000명	열기구에 관한 과학이론 교육, 열기구 탑승체험, 모형열기구 만들기
			V-UCC	2007	2회	200명	V-UCC 제작 교육, V-UCC 제작 활동, 봉사활동
만경강 이야기			2008	2회	200명	내 고장 하천 만경강 생태체험, 하천정화 활동, 내수면개발 시험장 견학	
청소년배산 오리엔티어링			2000~2007	10회	1,500명	독도법 교육, 오리엔티어링, 자연환경정화 활동	
정읍청소년 문화의 집		스키교실	2006~2007	2회	80명	농촌도시는 스키를 접해보기 힘든 여건으로써 청소년이 겨울철 스포츠 스키를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무주 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		무주군 어린이 바둑대회	2005~2007	연1회 (총3회)	64명 (회당)	-무주·진안·장수군등 열악한 바둑환경의 극복 -타지역 또래 아이들과의 자연스러운 교류의 장 -건전한 놀이문화(바둑)의 보급	
		어린이 흙사랑 체험캠프	2005~2007	연 1회 (총3회)	30명 (회당)	흙을 만지고 직접 조형물을 만들어 봄으로써 자연의 소중한 흙을 통한 감수성 및 창의성 함양	

지역	문화의 집	사업명	운영년도	운영횟수	청소년 참여인원	주요내용	
	부안군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풋살대회	2006	3회	2,500명	청소년들의 꾸준한 요청으로 중·고생들 대상으로 풋살대회 개최	
		방학 배움마당	2007	3회	250명	방학마다 다른 수업으로 진행. 비즈, 오카리나, 한문, 포크아트 등...	
	완산 청소년 문화의 집	전래놀이 체험활동	1997	10회	3,500명	학교 축제 및 체육대회에 참여하여 전래놀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	
		청소년 세시풍속 따라잡기	2001	7회	210명	우리나라 고유의 세시명절 중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끼리를 찾고 퓨전 개발하여 부모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	
		아름다운 동행	2005	2회	150명	장애청소년과 비 장애 청소년이 함께하는 캠프로 1대1 매칭을 시켜 캠프기간동안 함께 생활하는 프로그램	
	남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Must Have Fun'	2005	5회	200명	남원의 청소년동아리의 경연장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소속 동아리와 운반청소년동아리의 실력과 끼를 열볼 수 있으며 청소년동아리간의 교류의 장이 된다.	
		“행복을 찾아서” 성장 프로그램	2007	2회	30명	학교연계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자기 찾기 활동을 통하여 자기이해와 자기 긍정을 도우며 자신의 가치와 소중함을 배우는 자존감향상 프로그램이다.	
		“1+1=하나” 가족공동체 프로그램	2008	1회	45명	주 5일제 쉬는 토요일 가족 프로그램으로 ‘허브를 이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스텐실을 이용한 생활소품만들기’, ‘핸드페인팅을 이용한 우리가족 티셔츠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가족에게 즐거운 추억과 여가생활을 줄 수 있다.	
	전주 청소년 문화의 집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	2007~2008	2회	1만명	전국 B-Boy Battle	
		한지랑 놀자	2006~2007	2회	100명	한지종합체험 프로그램	
	전남	광양시 청소년 문화의 집	천원의 행복	2004~2008	40회	600명	지역의 특성상 참가비가 저렴한 프로그램의 참여가 많아, 천원만으로도 체험할 수 있는 일일특강
			야외영화제	2004~2008	20회	3,000명	청소년과 시민들을 위해, 무료로 야외에서 영화를 상영함.

지역	문화의 집	사업명	운영 년도	운영 횟수	청소년 참여 인원	주요내용
		깨끗한 계곡 만들기	2007	4회	80명	우리고장의 주요 관광지인 계곡을 돌며, 시민과 청소년에게 환경의식 변화를 유도하는 캠페인 활동
	여수시 청소년 문화의 집	동화로 꿈꾸는 세상 (어린이 동화 구연)	2004~ 2008	주 2회	1회당 20명	동화구연기법, 자세, 낭독, 역할극, 동극 배우기, 종이접기 등
		부모와 함께하는 무료 종이접기 강좌	2006	연 2회	1회당 25명	종이접기 기초 교육 및 작품 활동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송년 페스티벌	2004~ 2008	연 1회	1회당 200명	청소년 동아리 공연 및 작품 전시회 등
		청소년 해양체험 활동 바다캠프	2004~ 2008	연 1회	1회당 45명	기초 체력 훈련 및 해양장비체험 활동, 바다 정화 활동 등
경북	경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테마가 있는 문화의집	2008	7개 과정	224명 (연 인원 440명)	집중력 향상 프로그램 5월은 가정의 달(문패, 가족 액자 만들기) 6월은 사이언스 대탐험(물 로켓, 호버크래프트 만들기) 7월은 시원한 여름보내기(영화보기, 팸핑수 만들기)
		여름방학 문화강좌	2008	9개 과정	154명 (연 인원 1,234명)	재미있는 과학교실, 나도 공예가, 방송댄스, 리더쉽, 발표력, 요가, 북 아트, 마술 등
	울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문화탐방	2004~ 2007	5회	580명	삼국시대별 문화 체험
		3대3 농구대회	2003~ 2007	1회	400명	3대 3농구를 통한 청소년의 여가활동 증대
		청소년 축구대회	2007~ 2008	1회	300명	초·중·고로 나누어 축구대회 실시
		청소년 문화마당	2003~ 2007	9회	연 700명	청소년 끼 자랑대회

지역	문화의 집	사업명	운영 년도	운영 횟수	청소년 참여 인원	주요내용
	김천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성교육 “여신이 소녀에게“	2006~ 2008	3회	각 20~30명 정도	초경을 준비하거나 초경을 겪은 청소년 들을 위한 성교육으로 초경에 따른 신체 적, 심리적 변화 이해와 성폭력 예방 교 육
		관내문화 탐방	2005~ 2006	2회	40명~ 80명	관내 문화재를 찾아가고 그것에 대한 전 설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문화해설 병행, 지역의 문화재에 대한 새 로운 발견과 문화재에 대한 소중함을 일 깨워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영덕 청소년 문화의 집	진로탐색	2008	4회	60명	진로탐색을 위한 검사 실시, 진로탐색을 위한 정보 활용, 현장 탐방
		바람아 불어라	2007	1회	30명	친환경 에너지 관련 교육 및 체험
		야생화 사랑하기	2008	1회	300명	야생화 나눠주기
		찾아가는 성교육	2008	4회	200명	성교육
	군위청소 년 문화의집	청소년 문화교실	2008	1회	80명	논술, 드럼&기타, 놀토 특성화 P/G운영
	문경시청 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문화존	2008	7회	1,400명	청소년 문화 활동 및 동아리활동 등을 상시 운영하여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구미 청소년 문화의 집	가족과 함께하는 송편만들기	2006	1회	9가족	송편의 유래, 송편만들기 등
		청소년 풋살	2008	15회	20명	풋살의 기본기, 풋살의 규칙 등
	포항시 청소년 문화의 집	전통예절 교육	2005~ 2008	월 2회	년 360명 (1회 20~25명)	전통예절, 사물놀이 교육, 다도 교육 등
	경남	진교 청소년 문화의집	방학 프로그램 (비누공예)	2008	3회	30명
짚풀공예			2007	5회	314명	작품 만들기(여치집, 곤충, 풀리जू)
작은 음악회			2008	1회	군내 청소년	오카리나 연주
방학 프로그램 (스키캠프)			2007	1회	모범청소 년 30명	스키강습 및 체험(리프트 체험)

지역	문화의 집	사업명	운영 년도	운영 횟수	청소년 참여 인원	주요내용
	진해 청소년 문화의집	우리놀이 한마당	2006~ 2008	3회	회당 100여명	다양한 우리나라의 전통놀이를 익혀보고, 대회 개최
		컬처클럽	2008	2회	80여명	2008년 도입된 단기방학을 더욱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테마파크 탐방, 문화체험 행사 등
		열린마당	2008	2회	50여명	가까운 학교와 연계하여 학부모 교실 개 최문화강좌 또는 숲 생태 체험 등의 행 사 진행
		놀토 프로그램	2007~ 2008	4회	240명	놀토에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지 원
	김해 청소년 문화의 집	김해청소년 문화의집 등록 동아리 축제 “모여라”	2008	1회	1,000명	청소년문화의집 등록 동아리 발표회
		청소년 락 페스티벌 “뛰어 ROCK”	2007	1회	1,000명	관내 청소년 락밴드 동아리 발표
		길거리 농구대회	2008	1회	500명	길거리 농구대회, 이벤트
		청소년 문화존	2008	4회	3,700명	가야문화체험, 동아리 발표(공연), 스포츠체험
	합천군 청소년 문화의 집	도자기핸드 페인팅	2007	2회	40명	초별 도자기에다 그림 그리기
		은 공예	2008	1회	15명	순은으로 목걸이, 반지 만들기
	고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자원봉사	2004	10회	100명	자원봉사교육과 현장 실습 및 체험을 통 한 봉사의 참뜻을 알고 배움
		게임데이	2007	1회	300명	14일 날에 게임데이를 삼아 전자오락과 컴이 없이 전통놀이와 친구들과의 놀이 문화 형성
		연극캠프	2006	3회	70명	거창 국제 연극제에 직접 가서 연극관람 과 연극을 배우는 시간
		도전 요리왕	2008	10회	150명	평소 집이나 학교에서 배워 보지 못한 서양 요리와 피자, 빵 등을 만들어 봄.
	양산시 청소년 문화의	청소년 락 페스티벌	2005~ 2008	4회	500명	8·15 광복을 기념하는 청소년락페스티벌 공연 및 부대행사

지역	문화의 집	사업명	운영년도	운영횟수	청소년 참여인원	주요내용
	집	청소년 한마음 축제	2003~2008	6회	2,000명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종합축제(가요제, 댄스경연 및 축하공연, 체험, 참여부스 등)
		청소년 문화제	2001~2008	8회	1,500명	청소년 연극제, 청소년 영화제
		시장 배 풋살대회	2006~2008	3회	300명	시장 배 청소년 풋살 대회
	하동군 청소년 문화의 집	전통문화 체험	2005~2007	연 1회	1회당 300명	자연자원(짚과풀)을 활용한 조상들의 지혜를 배우고 현대사회에서 공예로서의 가치성을 음미해 보는 프로그램(곤충 만들기, 또와리 만들기)
		방학프로그램(여름·겨울)	2006~2007	연 2회	100명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해봄으로써 방학을 좀더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기회 제공(리본공예·종이공예·펠트공예...)
		스키캠프	2007	연 1회	800명	겨울 스포츠의 꽃인 스키캠프를 통해 기술을 익혀 봄으로써 성취감과 도전정신을 배울 수 있고, 또래 친구들과의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기회 마련
		주말 프로그램(가족영화 상영)	2006~2008	매주 토요일 1회	450명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 제공
	창원시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아프지? 내가 도와줄게	2007	6회	2,250명	-생리성 교육 -생리팔찌, 면 생리대 만들기 -올바른 성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팸스데이 '네비게이션을 달다'	2007~2008	11회	440명	농어촌 팸스데이 마을을 찾아가서 맘의 소중함과 체험활동을 통해서 농어촌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변화 유도
	창녕청소년 문화의 집	우표늬 탐방	2005~2008	4회	200명	우표늬의 전반적인 사항과 생태, 자연수 생식물을 이용한 공예활동 등
	밀양 청소년 문화의 집	경상남북도 문화 탐방	2003	6회	250명	매년 각 학교를 선정하여 협조를 요청, 중·고등학생들과 함께 경상남북도의 문화유적지를 탐방하여 역사·문화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함.(관광버스 이용, 중식·석식, 기념품 제공)

지역	문화의 집	사업명	운영 년도	운영 횟수	청소년 참여 인원	주요내용
	거창군 청소년 문화의 집	락 라이브 콘서트	2001~ 2008	8회	1회 300명	인근지역 락밴드 동아리와 지역의 락 문 화 발전 및 락밴드 동아리 활성화를 위 한 밴드 공연 및 초청 공연
		문화 뽕뽕이 (고3수능 프로그램)	2005~ 2007	3회	1회 5,000명	고3수능프로그램으로 특기, 적성 프로그 램, 사회적응 프로그램, 취미 프로그램으 로 운영
		발달 장애우 자원 프로그램	2006~ 2008	5회	1회 30명	지역의 발달 장애우들을 위한 체험 및 창작 활동, 문화활동
		동아리 박람회	2007~ 2008	6회	1회 500명	지역내 동아리 축제
	영산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사랑 나눔 바자회	2005	3회	1,500명	-지역사회의 여러곳에서 후원물품을 기 증받아 지역내 주민들에게 바자회를 열 어 판매한 수익금 전액을 관내 중·고등 학교의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및 후원물품수여 -이 행사에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자원봉 사 및 참여로 행사의 주체가 되어 바자 회 행사를 진행시켜나감
		영산 청문과 함께하는 1박2일	2008	1회	30명	일일권 이용시설에 벗어나 하루 숙박을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어 려 학생들과 어울려 단체 생활을 해봄으 로써 친분을 쌓고 협동심과 양보를 통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
울산	문수 청소년 문화의집	벼룩시장	2006~ 2008	3회	500명	개인 소장품 판매 및 구입, 비즈공예 등 부스 운영
	울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따배놀이	2005~ 2008	연 5회 이상	500명	천연비누, 아이클레이, 폴리머, 젤리양초 등 각 강좌를 놀이형태로 즐기는 프로그 램
		테마카페	2006~ 2008	연 1회	회당 200명(600 명)	-문화의집 전 시설을 활용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직접 기획하고 운 영하는 축제
		퓨전역사 기행	2007	1회	45명	신라 밀레니엄 테마 파크와 함께 공연 (신라시대) 관람 및 역사놀이 체험
	공업탐 청소년 문화의 집	공업탐 청소년 예술제	2005	4회	5,000명	가요·댄스 경연대회

지역	문화의 집	사업명	운영년도	운영횟수	청소년 참여인원	주요내용	
		문화기행 OLD&NEW	2005	8회	320명	역사·문화 기행(자녀+학부모)	
		문제아 축제	2004	4회	2,000명	청소년들의 끼와 열정의 우대 문화를 즐기고 체(재)미있게 살아가는 안 이들	
		학교 밖으로	2006	월 1회		놀토 프로그램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 활동	
	울산 중구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과 선생님이 함께 만드는 푸른 축제	2001~ 2008	7회	매회 500명 이상	-청소년과 선생님께서 이루어진 공연팀 이 경연대회 -각종 체험부스 활동	
		청소년 문화존 4인4색	2008	1회	매회 1,000명 이상	차 없는 거리에서 벌어지는 청소년문화를 체험활동 부스 및 청소년 문화공연	
		가족과 함께하는 신나는 학교	2006~ 2008	매월 1회 이상	매회 50명 이상	-타 지역 역사, 문화 기행(가족 단위 참가) -우수한 체험활동 및 향토음식 맛보기	
		신나는 전래놀이 한마당	2005~ 2008	5회	매회 400명 이상	-전래놀이를 통한 가족의 화합 형성 -전통 체험 부스 활동	
	남북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 “나누리 학교”	2008	2회	80명	방학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에게 6회기에 걸쳐 이론교육 및 각 사회복지시설을 돌 며 다양한 실습을 하게하고 발표 평가를 할 수 있게 함.	
		청소년 영상제	2007	1회	1,000명	영상동아리들 및 지역 청소년들의 영상 공모전	
		동구박 체험교실	2007	24회	1,000명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2,4 노는 토 요일을 맞이하여 전국 각지로 나서는 체 험활동	
	부산	중구 청소년 문화의집	자연과 즐기는 헬빙꽃내음· 풀내음	2006~ 2008	7회	매회 40명	4~11월 간 월별로 자연소재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
			사색체험	2007	4회	매회 40명	연 4회 봄·여름·가을·겨울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서지원
		부산 진구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스포츠 클라이밍 스쿨	2004			전일제·놀토 등과 연계하여 상시 운영하 며 지역의 청소년 클라이밍 운동을 보급 함.

지역	문화의 집	사업명	운영 년도	운영 횟수	청소년 참여 인원	주요내용
		청소년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	2005	4회	100명	대회로 청소년들 참여
		소년 축구단	1999	연40회 (주1회)	1회 40명	지역 청소년들에게 축구를 통한 스포츠 문화 교류 활동 전개
		동구 밖 교실	1999	월 1회	1회 30명	초등 저학년들의 현장 체험 프로그램
	기장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서바이벌 게임	2005~ 2008	200회	50,000명	-안전 교육 및 게임 방법 선명 -깃발 쟁탈전 -물풍선 터트리기 등
		청소년 우주과학캠프	2001~ 2008	11회	1,100명	천문학의 이해, 과학 공작 활동 등, 야외 관측
		양성평등 캠프	2006	1회	110명	비누공예, 양성평등 강의 및 발표 등
	함지골 청소년 문화의 집	국악과 함께 하는 별헤는 밤	2008	3회	400명	국악연주회, 천체관련 체험활동(별자리판 만들기, 천체골든벨), 천체 관측
		동아리 축제 한마당	2001~ 2007	7회	2,100명	청소년 동아리 끼 경연대회, 청소년 활동 전시 및 홍보, 부스운영
	제주	하효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이 만들어 가는 감귤 축제	2004~ 2005	2회	500명
다우링 장터			2006	1회	2,000명	-교육, 리더십, 북아트, 페인팅, 티셔츠 제작 외 -캐릭터 카툰 공모전(“제주도” 주제) -캐릭터 응용 상품 제작 -장터 기획 및 운영 -봉사활동
청소년 7080 세대공감 통!통! 페스티벌 (컨소시엄)			2007	1회	2,000명	워크샵, 모의 법정, 옛날사진 공모전, 통 통페스티벌 기획 운영
아라 청소년 문화의 집		아라옥탑 문화체험의 날	2003~ 2004	2회	200명	청소년 참여 하트부스 운영. 지역주민(가 족단위)문화 체험 행사운영

지역	문화의 집	사업명	운영 년도	운영 횟수	청소년 참여 인원	주요내용
		흙으로 만드는 동화 세상	2008	1회	90명	인증 프로그램
	추자 청소년 문화의 집	추자열린 교실(학습)	1998			수학, 영어, 미술, 한문교실
		놀도 프로그램	1998	3회	120명	음식만들기, 생태학습, 함상체험, 클레이 아트
		캠프	1998	1회		여름캠프(1박 2일)
	법환동 청소년 문화의 집	탐라를 찾아서	2006~ 2008	6회	180명	지역 생태, 역사, 문화 찾기
		비전 21 청소년 축제	2006~ 2007	2회	3,000명	서귀포시 청소년 수련시설 연합으로 청 소년 동아리 공연, 다양한 체험부스로 청 소년 및 지역주민의 참여도 증진
		서귀포 Yes축제	2008	1회	500명	서귀포 수련 시설 컨소시엄으로(감정, 법 환, 서귀포시, 송산, 토평 청소년 문화의 집)연합으로 청소년 동아리 공연. 다양한 체험부스로 청소년 및 지역주민 참여도 증진
	남원 청소년 문화의 집	Lovely 가야금	2002~ 2008	30회	20명	가야금의 유래와 연주법 익히기 가야금 연주 봉사활동
		상상력에 날개를 달자	2005~ 2008	30회	25명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창의성 있는 미 술 활동
		재활용품과 함께 하는 Colorful한 토요일	2008	4회	20	주변에 버려지는 폐품을 활용하여 악세 사리 및 필요한 물건 만들기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자 문 진 ◆

(가나다 순)

- 김영미 군포시당동청소년수련관 · 관장
김정주 모든체험학교연구소 · 소장
박옥식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사무총장
전명기 한국청소년진흥센터 · 부장
한도희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역량개발과 · 주무관
홍영균 홍익대학교 · 교수

◆ 연구보조원 ◆

- 이아영 평택대학교 청소년복지학과 석사과정
-

2008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8-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 연구(KYPS) VI: 조사개요보고서 / 이경상·임희진·안선영
- 08-R01-1 빈곤이 청소년 성장에 미치는 영향 / 이경상·임희진·박창남·정익중
- 08-R01-2 청소년 고등학교 단계 진학 계열화의 관련요인 및 결과 / 이경상·안선영
- 08-R02 초·중·고·대학생 의식구조 비교에 의한 미래사회변동 전망: 세대관 및 교육·정보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이창호·김종길·이항우
- 08-R03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 III : 총괄보고서 / 최인재·임지연·김형주
- 08-R03-1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 III : 2008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 임지연·최인재·김형주
- 08-R03-2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 III : 청소년종합통계체계 구축방안 연구 / 김형주·최인재·임지연
- 08-R04 청소년의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이용실태와 주체적 참여 방안 모색 연구: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조혜영·유진이
- 08-R05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강화 정책방안연구: 글로벌 일자리와 관련하여 / 윤철경·유성렬
- 08-R06 청소년 성장환경으로서의 대안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 맹영임·김민
- 08-R07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 양계민·정진경
- 08-R08 청소년 성 의식 및 행동 실태와 대처방안 연구 / 백혜정·김은정
- 08-R09 국제기준 대비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III : 청소년인권실태의 국제비교 / 김영지·김희진·김진숙·김진호·안재희·이경자
- 08-R09-1 국제기준 대비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III : 청소년인권실태의 국제비교 [통계표] / 김영지·김희진·김진숙·김진호·안재희·이경자
- 08-R10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복지정책 비교 및 발전방안 연구 / 이해연·서정아·김영호·이용교
- 08-R11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 김영한·강혜규
- 08-R12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V: 인터넷채팅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 이춘화·성윤숙·조아미
- 08-R12-1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V: 인터넷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 성윤숙·이춘화·유익선
- 08-R13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 III / 김경준·오성배·강태중·정유성·이부미·조정아
- 08-R13-1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 III: 정규학교 재학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에 대한 질적연구 / 이수정·김현아·원재연·윤상석
- 08-R13-2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 III: 대안학교 재학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연구 / 정병호·김찬호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2-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I - 총괄보고서 / 문경숙·김현철·김지연·민경석 (자체번호 08-R1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2-02**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I -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 문경숙·김현철·김지연 외 5명 (자체번호 08-R14-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2-03**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I -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환경 국제비교: 교육·가족·청소년정책을 중심으로 / 김지연·김현철·문경숙 외 11명 (자체번호 08-R14-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1**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김기현·장근영·김지연·소경희·김진화·강영배 (자체번호 08-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2**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도구 활용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 최동선·임언·이수영 (자체번호 08-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3**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 김태준·윤혜경 (자체번호 08-R15-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4**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자율적 행동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 김기현·김지연·장근영 (자체번호 08-R15-3)

■ 수시과제

- 08-R16 신정부 청소년정책의 발전방향과 과제 / 윤철경·김영지·김기현·오성배
- 08-R19 청소년의 세대특성 및 세대간 소통방식에 대한 연구 / 배규한·이창호

■ 용역과제

- 08-R17 국립 영덕 청소년 환경센터 건립 기본계획수립 / 김영한·서정아
- 08-R18 청소년의 국가관·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 / 오해섭·김형주
- 08-R20 초등학생용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학생 교육·상담 프로그램 개발 / 최인재·백혜정
- 08-R21 2008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08-R22 2008년 제4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오성배·김희진
- 08-R23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기금 위탁사업 평가연구 / 김기현
- 08-R24 아동청소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연구 / 김현철·이경상·조혜영
- 08-R2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형 개발연구 : 학교 내 설치를 중심으로 / 조혜영·김호순
- 08-R26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 안전지표 개발 / 성운숙
- 08-R27 아동청소년정책통합에 따른 국립수련원의 사업개선방안 연구 / 안선영

- 08-R28 한강북섬공원 청소년원드서핑교육사업 평가 / 임지연
- 08-R29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오성배·강태중·이기범
- 08-R30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제도 변화에 따른 급수별 자격연수 교과과정 개발연구 / 이춘화·김영한·박철웅·이상진
- 08-R31 2008 아동청소년백서 발간 / 김기현·이창호
- 08-R32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임희진·김지연·이경상
- 08-R33 아동청소년권리지수 개발연구 / 이해연·김영지·김신영
- 08-R34 2008년 지방행정기관 청소년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성운숙·홍성례
- 08-R35 청소년 유해업소 구분기준 및 지역사회 유해환경 감소방안연구 / 김영한·김희진
- 08-R36 2008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 / 김경준
- 08-R37 2008서울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평가 / 임지연·김형주
- 08-R38 2008청소년시설종합평가 / 윤철경·김경준·김영지·최창욱
- 08-R39 청소년글로벌 역량지표개발 및 활용방안연구 / 오해섭, 문경숙, 권일남, 김소희
- 08-R40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 / 맹영임·임경희
- 08-R41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 성운숙·김경준·김영지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8-S01-1 「아동청소년정책 통합과 발전과제」 (3.28)
- 08-S01-2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대화」 (5.6)
- 08-S02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강화 방안 모색」 (5.27)
- 08-S03 「패널데이터 분석방법론 세미나 II 자료집」 (7.8)
- 08-S04 「채팅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관련 입법례 국제비교」 (8.22)
- 08-S05 「청소년발달 지표의 현황과 과제」 (9.2)
- 08-S06 「청소년기 사회화에 관한 한일비교」 (9.16)
- 08-S07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과 추진과제」 (9.19)
- 08-S08 「청소년 성장환경으로서의 대안교육 활성화방안」 (9.26)
- 08-S09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9.30)
- 08-S10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III - 한국 청소년 문화자본 지표 개발」 (9.26)
- 08-S11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1차 Workshop」 (9.26)
- 08-S12-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환경 국제비교연구 I」 (10.24)
- 08-S12-2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환경 국제비교연구 II」 (10.28)
- 08-S13 「청소년 인권신장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10.17)
- 08-S14 「청소년 세대특성 및 미래의 교육전망」 (10.17)
- 08-S15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실태 및 방향성 모색」 (10.14)
- 08-S16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복지정책 발전 방안 모색」 (10.17)
- 08-S17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10.17)

- 08-S18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10.16)
- 08-S19 「제5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1.18)
- 08-S20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2차 Workshop」 (11.24)
- 08-S21 「아동·청소년 참여권 - 한·일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의식 실태」 (11.28)
- 08-S22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3차 Workshop」 (12.22)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1호 (통권 제48호) / 학술정보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2호 (통권 제49호) / 학술정보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3호 (통권 제50호) / 학술정보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4호 (통권 제51호) / 학술정보팀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니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기타 발간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재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다솔

연구보고 08-R04

**청소년의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이용실태와
주체적 참여방안 연구**
-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인 쇄 2008년 12월 22일

발 행 2008년 12월 29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명 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계문사 전화 (02)725-5216 대표 류윤희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978-89-7816-737-6(93330)